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8-14

석수동

석수동은 안양의 북단에 위치하며 서울시와 맞닿은 경계 지역으로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이 특징이다. 기존 마을과 도시 개발이 공존해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타나며, 교육·종교·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현재는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제13권
석수동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석수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석수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008

제2장 석수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8

2 전통과 변화 속에 이어지는 석수동의 마을 이야기 / 084

제1장 세월을 담은 골짜기 마을, 삼막골 / 086

제2장 삼성천과 안양천 물길을 안고 형성된 마을, 석수동과 충훈부 / 110

제3장 피난민의 정착지, 석수동 구룡마을 / 140

제4장 미군 닐 미샬로프의 사진으로 남은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 168

제5장 안양의 최북단 마을, 석수동 연현 / 202

제6장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석수럭키아파트 / 224

3 마을의 안녕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석수동의 제의와 축제 / 252

제1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석수동의 마을제사 / 254

제2장 석수동 사람들의 축제 / 280

4 석수동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과 돌봄 / 308

제1장 석수동 아이들의 배움터, 삼성초등학교 / 310

제2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교육공동체, 안양발도르프학교 / 330

제3장 석수동에 핀 코스모스, 안양의집 / 352

제4장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 394

5 석수시장 프로젝트 / 416

제1장 석수시장의 개설, 그리고 변화 / 418

제2장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 / 442

01

석수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석수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석수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석수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 안양천과 삼성산을 끼고 있는 석수동

1) 안양시의 서북쪽의 시가지

석수동은 안양시의 서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동의 명칭이며, 이 명칭을 그대로 이용해 분동한 석수1동·석수2동·충훈동의 행정동을 가진다. 석수동의 동쪽으로는 비산동이 마주하고, 서쪽의 안양천 건너편에는 광명시가 자리하며, 남쪽으로는 박달동과 안양동,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안양시 내에서 석수동은 인접한 행정구역과 하천 또는 산지에 의해 경계가 구분된다. 안양동과는 삼성천에 의해 경계가 구분되고, 박달동과는 삼성천이 안양천과 합류하는 안양대교부터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충훈대교 근처까지 안양천에 의해 경계가 구분된다. 비산동과는 삼성산에서 뻗은 산줄기를 통해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석수동과 광명시의 행정 경계는 대략 안양천이지만, 미세하게 접근하면 석수동과 광명시의 행정 경계가 온전하게 안양천에 의해 설정된 것은 아니다. 안양천의 서쪽 제방이 대부분 석수동에 속한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일직분기점 일대의 일부 석수동 시가지 및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양천의 서쪽에 있지만 석수동에 편제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에, 충훈고등학교가 자리한 안양천 동쪽 편이 하천 제방은 박달동에 속한다. 이처럼 안양천이 뚜렷하게 석수동과 인접한 광명시 또는 박달동과의 행정 경계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안양천은 하천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안양시 구간에서는 하천의 양쪽 제방까지가 모두 안양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일부 구간에서는 안양천 서쪽 제방이 광명시에 포함된다. 한편, 동의 북쪽



안양시 서북부에 자리한 석수동

에 맞닿아 있는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은 석수동과 완충지가 없이 두 도시의 시가지가 연속해 있는 전형적인 도시연담(conurbation)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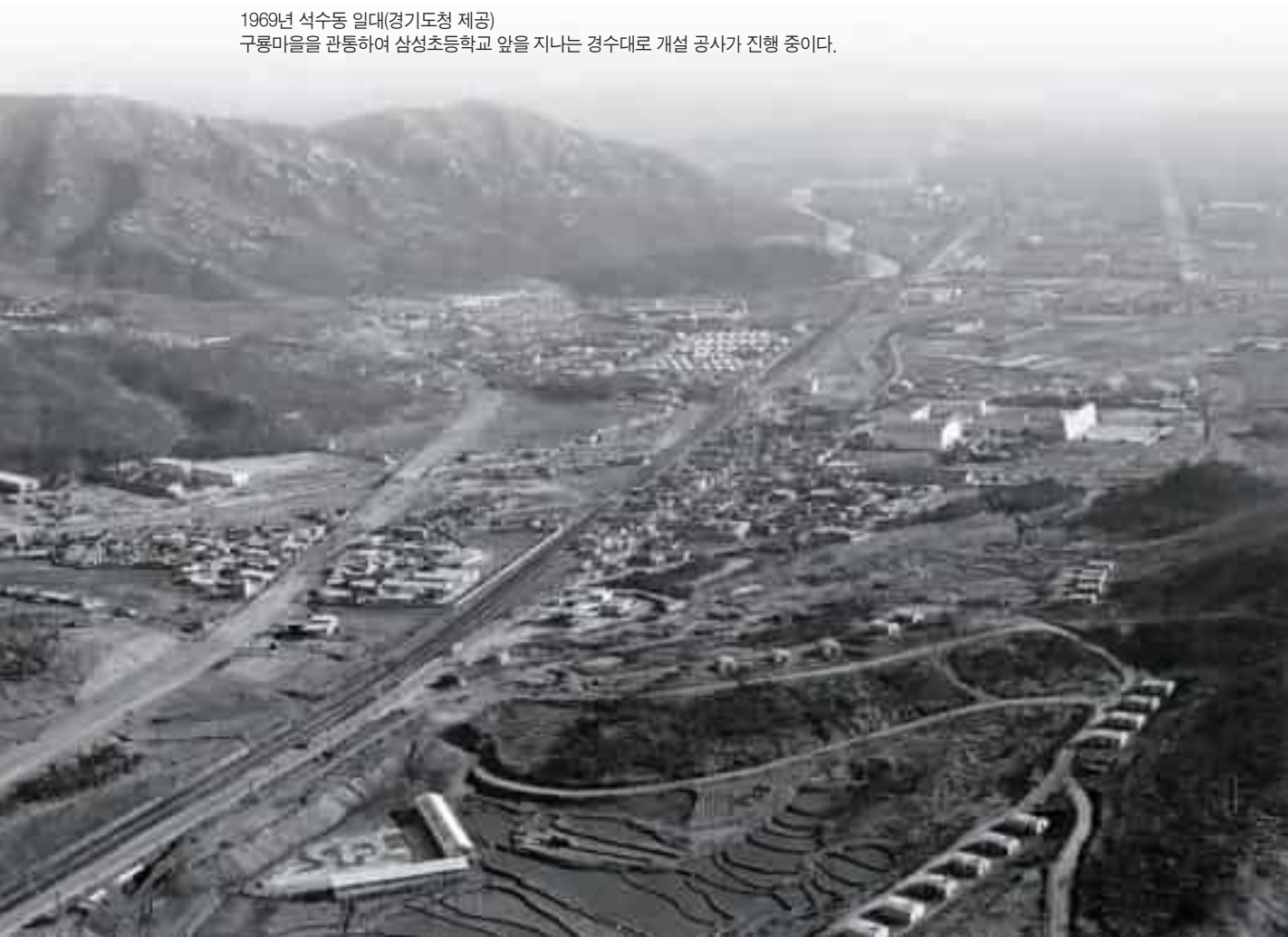
도시연담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도시 시가지가 중간에 비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완충지대를 포함하지 않고 접해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금천구의 시가지가 안양천 변을 따라 남쪽으로 확장한 동시에 안양의 시가지는 안양천 변을 따라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석수동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양의 시가지(석수동)와 금천구의 시가지(시흥동)가 붙어 버려 두 시가지의 경계 구분이 쉽지 않다. 석수동이 조선시대 금천현에 속했음을 고려하면, 두 시가지가 마주하면서 연속적으로 붙어 버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석수동과 시흥동의 시가지는 왕복 4차로의 삼성산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며, 석수역과 시흥동은 왕복 10차로의 시흥대로를 두고 마주한다. 도로 폭이 좁은 삼성산길이 석수동(안양시)과 시흥동(서울시 금천구)의 경계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석수동의 동쪽에는 관악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호암산과 삼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변으로는 석수산·와룡산·꽃메산 등의 구릉

성 산지가 있다. 따라서 석수동의 시가지는 이들 산지의 사이에 형성된 평지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양천 변에서는 박달동 및 안양동과 마주하는 지역에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 석수동의 남북 방향 시가지는 경부선 철도에 의해 양분되며, 경부선 철도의 동쪽이 석수1동으로 편제되어 있고 서쪽이 석수2동에 해당한다. 시가지의 동쪽 산지에는 산허리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삼막천과 삼성천이 있으며, 이들 하천의 주변에는 골짜기를 따라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 삼막천이 호암산의 남사면에서 발원해 석수동 내부를 흐르는 하천이라면, 석수동과 비산동의 경계부에서 발원한 삼성천은 석수동을 남쪽의 안양동과 경계 짓는 하천이다.

석수동은 과거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를 통해 남북 방향의 교통 여건이 양호했지만, 지금은 사방으로 교통로가 펼쳐진 사통팔달의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에서 서해안을 따라 목포로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석수동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게다가 서울의 남부를 순환하는 고속화도로인 강남순환로가 관악산을 통과해 석수역의 바로 북쪽에서 국도 1호선 및 서

1969년 석수동 일대(경기도청 제공)
구룡마을을 관통하여 삼성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경수대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971년 경수대로 석수동 구간 포장 공사(경기도청 제공)

해안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동시에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종점부에서는 안양-성남고속도로가 삼성산을 통과해 과천 방향으로 이어진다. 안양천 건너편에는 경부고속철도(KTX)가 통과하며 광명역이 가까이에 있다. 석수동의 일부 시가지가 광명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지와 도로(새빛공원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는 점에서 석수동을 광명역의 직접적인 역세권에 포함할 수도 있다. 석수동은 안양 시에서 입지를 보면 중심부에서 떨어진 서북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통 여건을 고려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살펴보면, 석수동은 5개의 주요 고속교통로와 국도 1호선, 경부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

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석수동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는 시가지의 동쪽을 남북으로 달리는 국도 1호선(경수대로)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서는 철도와 평행하게 안양로가 통과하고, 안양로의 서쪽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양화로가 통과한다. 양화로는 서조마을아파트 부근에서 안양로와 합류한다. 동서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에는 안양대교사거리에서 안양천을 따라 충훈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석수로, 석수전화국사거리를 통과해 서쪽의 충훈터널을 지나는 석천로, 삼화맨션에서 서쪽으로 뻗어 화창교까지 연결되는 화창로, 화창로에 연결되어 화창교를 건너는 일직로 등이 있다. 그리고 삼막천 골짜기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삼막로와 호암로가 있다. 이상의 도로가 석수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에 해당하고 이들 도로에서 파생된 소로들이 석수동의 시가지를 통과한다.

국도 1호선은 석수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고, 석수역 바로 북쪽에서는 금천구 시흥동의 호암대교 부근에서 강남순환로와 연결된다. 석수IC에서 안양천을 건너면 일직분기점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관악역 부근에서 국도 1호선과 만나는 삼막로는 삼막사거리 근처의 삼막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및 안양-성남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석수동은 고속도로의 접근성은 물론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석천로는 충훈터널과 충훈대교를 건너면 바로 광명역의 남쪽으로 연결되고, 화창로 역시 화창교를 건너면 곧바로 광명역의 북쪽으로 진입한다. 이들 두 도로

1970년대 관악역 일대(이정범 제공)



를 이용하면 석수동에서 광명역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게다가 충훈로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의 광명역IC에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석수동은 안양시에서 교통 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인 동시에 실질적인 안양시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삼성산과 석수 3산 사이에 들어선 시가지

석수동은 동쪽의 삼성산(三聖山, 480.9m)에서 이어진 산지와 서쪽의 안양천 사이에 자리한 석수 3산(석수산·와룡산·꽃메산)을 끼고 발달한 시가지이다. 삼성산은 안양시,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악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산으로, 관악산의 서쪽 봉우리로 인식된다. 이 산은 원효·의상·윤필 등 3명의 승려가 677년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도를 닦았던 삼막사(三幕寺)의 기원지이며, 이 3명의 승려를 지칭해 삼성산이라 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과 그 옆에 있는 관세음보살·대



산지를 끼고 발달한 석수동 시가지(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세지보살을 삼성(三聖)이라 부르는 데에서 산의 이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¹ 조선시대 각 군현의 지리 사항을 집대성한 『여지도서』 「금천현」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산에 무학(無學)·나옹(懶翁)·지공(智空) 등 3명의 승려가 각각 자리를 정하고 살았다는 데에서 예로부터 삼성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삼성산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시림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산은 다양한 조망자원이 곳곳에 분포하고, 능선의 암반, 소나무 군집, 계곡 일대의 신갈나무 군집 등 식생 경관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삼성산의 자연경관은 수도권의 인구 증가 및 그에 따른 시가지 확산과 난개발 등이 이어지면서 많이 훼손되었으며, 저지대 환경사지의 능선을 따라 리기다 소나무·아까시나무·밤나무 등 인공림이 많이 식재되면서 자연 생태계에 일부 교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²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리한 삼성산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편이다. 삼성산의 경사는 대략 해발 100m를 기준으로 정상부까지의 급경사와 시가지 방향으로의 완경사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석수동의 시가지는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진 곳에 주로 자리한다. 급경사지의 사이로는 골짜기가 발달해 있지만,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의 규모는 크지 않다. 산에는 대체로 식생이 자라고 있지만, 산 능선을 따라서는 기반암이 노출된 곳이 많다. 삼성산의 골짜기 이름으로는 삼막골·염불암골·괘땡이두턱골·두루미골·웃삿갓골·웃새까치골·키다리골·뒫골·들어가는속골·못들어가는속골·모이골·부영골·연추리골 등이 있으며, 석수체육공원 북쪽에는 갈매골·꼬챙이골 등이 있다.

삼성산 골짜기의 아늑한 곳이나 전망이 좋은 장소에는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들어서 있다. 안양시에서 전통 사찰로 관리되는 사찰에는 삼막사·염불사(念佛寺)·안양사(安養寺)·망해암(望海庵) 등 4개소가 있는데, 이들 사찰은 모두 삼성산 기슭에 입지하고 있으며, 안양동에 자리한 망해암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석수동에 자리한다.³ 안양사의 남쪽에는 고려 태조가 세운 7층 전탑과 김부식이 지은 비명이 있었다. 이들 사찰 외에도 삼성산 자락에는 석수동에 자리한 보장사·반월암·상불암·천인암 등이 있으며, 석수동 이외의 지역에는 보덕사·만장사·불암사·삼성사(이상 비산1동), 백운사(비산3동) 등이 있다. 안양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많은데, 이는 삼성산이 고려시대 안양 지역에서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기 때문이다.⁴ 이외에도 옛 절터의 흔적을 간직한 중초사지, 뱀골사지, 불당골사지, 백련암지, 삼막골사지 등이 삼성산 기슭에 있다.

금천현의 진산이었던 삼성산에는 방어를 위한 성곽으로 영랑성(永郎城)을 건설하였다. 지금은 영랑산성(永郎山城)으로도 불리며, 삼성산고성(三聖山古城)으로도 불렸다.⁵



삼막사 전경(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여지도서』 「금천현」에는 영랑성이 구랑성(求郎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산 정상부에 3개의 봉우리를 감싸도록 돌로 쌓아 만든 영랑성이 있었으며, 성곽의 둘레는 1,750척에 달하였다. 영랑성의 동쪽은 노출된 기반암이 성벽의 역할을 하였다. 성 내부에는 ‘대정(大井)’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영랑성은 삼성산에서 가장 오래된 산성이지만, 정확한 축성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랑성에 관한 이야기는 1908년 최남선이 만든 「경부철도노래」의 노랫말에 “관악산의 깎 경 우러러보고 영랑성의 묵은 터 바라보면서”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의 사이에 있는 석수산·와룡산·꽃메산은 삼성산과 비교하면 해발고도가 낮은 야산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들 3개의 산이 석수동에 있다는 데에서 총칭하여 ‘석수 3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간혹 안양시 경계 내에 온전하게 포함된 산이라는 데에서 ‘안양 3산’으로도 부른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본래 석수 3산은 해발 20m가 조금 넘는 지점이 서로 연결된 구릉성 산지였지만,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서로 분리된 상태처럼 존재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수 3산은 유사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산지에는 15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

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 숲 형태로 조성되었다.

석수산(石水山, 178m)은 석수동 시가지를 바라보는 동사면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안양천 방향의 서사면은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하고,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면한 사면은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의 정상부에는 기반암이 노출된 곳도 있으며, 군사용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산은 봄철이 되면 만개한 진달래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이고, 고도가 높지 않아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된다. 산의 북쪽에는 석수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축구장·야구장·농구장·풋살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본래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사업소)이 들어선 석수산 서쪽의 화창교 일대는 안양천 변을 따라 농경지가 있었고 농경지 가운데에는 마을이 있었다. 환경사업소가 건립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 안양천과 석수산 사이의 충적지는 농경지로 활용되었으며,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벌터(坪村)’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안양천이 직류하천으로 개수되고 환경사업소가 건립됨에 따라 마을과 농경지는 사라졌다. 현재는 환경사업소 정문의 건너편에 ‘벌터뒷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환경사업소 근처 안양천 변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다는 ‘수리골(송아지웅덩이 또는 새치웅덩이)’과 그 근처의 ‘자그나무골’ 등의 조그마한 골짜기가 있었다.

석수산과 화창로를 사이에 둔 남쪽에는 와룡산(臥龍山, 116.2m)이 있다. 와룡산은 석수동의 행정동인 충훈동을 감싸고 있는 산으로, 풍수적으로 산의 형세가 용이 누운 모습이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⁶ 실제 와룡산은 산의 능선이 길쭉하게 늘어선 모양이며, 능선 사이로는 여러 골짜기가 있다. 이러한 모습이 누워있는 용의 모습에 비유된 듯하다. 산에는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배치된 소공원이 있고 정상부에는 돌탑이 있다. 와룡산은 석수동에서 충훈대교를 지나 광명역으로 향하는 석천로의 충훈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이 산 정상 서북쪽 사면에는 골짜기가 환경사업소 방향으로 발달해 있고 골짜기 주변에 일부 농경지가 남아 있다. 이 골짜기 주변이 벌터뒷골로 불린다. 와룡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전망대는 안양시의 신년 해돋이 행사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와룡산의 동쪽으로는 꽃메산이 있으며, 와룡산과 꽃메산의 사이에는 석수도서관·충훈공원·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꽃메산(124.7m)은 원형의 산체를 가진 토산이며, 산의 정상부는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표 측량을 위한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다. 산에는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서식하며, 일부 구간에는 전나무와 참나무가 자

란다. 와룡산과 꽃메산의 남쪽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구간을 비롯해, 석수산과 꽃메산의 동쪽은 석수동의 시가지가 들어차 있지만,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석수 3산의 산지에는 밭이 많았지만, 하천 변의 평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다. 석수산과 삼성산의 안부(鞍部)는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1970년대 초반 농경지는 대부분 사라졌다. 안양천과 삼성천의 합류부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농경지가 시가지로 전환되었고, 충훈동의 남쪽 안양천 변 농경지는 1980년대 후반까지 남아 있었다. 현재 와룡산 남쪽에는 석수초등학교·안양중학교·충훈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3층 내외의 건물로 구성된 빌라 밀집 지역과 고층의 아파트단지로 변모하였다.

3) 3개의 하천이 통과하는 시가지

석수동은 3개의 하천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남쪽의 안양동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안양천(安養川)을 비롯해, 시가지 동쪽의 삼성산에서 흘러내리는 삼막천과 삼성천이 있다. 안양천은 유량이 풍부하고 홍수 시 범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천 주변은 농경지로는 활용되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삼성산의 골짜기를 흐르는 삼막천과 삼성천은 일찍부터 연중 유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하천의 하류부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석수동에 형성되었던 초기의 취락은 삼막천의 말단부(삼막동)와 삼성천의 말단부(석수동)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평지에 농경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안양천은 석수동의 남쪽에서 박달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하천으로, 의왕시 왕곡동의 지지대고개 북사면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비산동의 쌍개울에서 학의천을 끌어들인다. 안양천은 안양교 부근에서부터 국가하천으로 격상되므로, 석수동에 접한 안양천은 국가하천에 해당한다. 안양천이라는 이름은 안양시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큰 하천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안양천은 본래 삼성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삼성천을 지칭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안양을 관통하는 하천을 안양천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안양천은 옛 문헌에 대부분 ‘군포천(軍浦川)’으로 기록되었으며,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서는 ‘사근천(沙斤川, 사그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양천구 일대에서는 ‘오목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대에서는 ‘대천(大川)’, 안양 지역에서는 ‘호계(虎溪, 범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⁷



계곡과 농경지 주변에 형성된 초기의 취락(1960년)

안양천 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충적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서쪽으로 흐르던 안양천이 북쪽으로 곡류하는 석수동 구간은 하천의 퇴적작용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박달동 구간과는 달리 충적지가 잘 발달하였다. 안양천은 유량 변동이 심하고 지하수위가 낮아 식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해 수해의 위험이 컸기에,⁸ 하천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사람들의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석수동 구간의 안양천은 안양시의 도시화와 더불어 유로가 반듯하게 정비됨에 따라 과거의 구불구불한 하천의 모습이 사라졌다. 안양시에서는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



삼성천 변에 입지한 석수동(1920년대)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하천을 정비하면서 지금과 같은 안양천으로 변화시켰다. 안양천 유역은 안양 시민의 주요한 생활터전이고 하천을 흐르는 물은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된다. 연현중학교 근처에는 연현습지공원이 있으며, 안양천 주변의 둔치에는 산책로와 운동 공간이 들어서 있다. 또한 박석대교에서 안양천을 따라 개설된 석수로에는 주차 공간이 조성되어, 안양천 둔치의 충훈동 공영주차장과 함께 석수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석수동 구간에서 안양천을 건너는 교량에는 안양대교, 박석교, 충훈1교, 충훈2교, 충훈대교, 화창교, 안양천교 등이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천교 부근의 토지는 시설 재배와 노지 재배에 이용되는 농경지가 있다.

삼성천(三聖川)은 안양천의 제1지류로서 유로연장은 7.3km이고 유역면적은 13.2km²에 달하는 지방하천이다.⁹ 이름은 석수동에 자리한 삼성산의 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해 흐른다는 데에서 생겨났다. 삼성천은 발원지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삼성저수지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안양동의 삼성교 근처에서 안양천에 합류한다.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

리한 삼성천 하류부는 1900년대 초반부터 주변의 농경지에서 농경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당시 이 마을을 ‘석수동(石水洞)’이라 하였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석수동과 명칭이 같다.

삼성천 중류부에는 1932년 길이 60m, 폭 20m의 수영장이 조성되었다. 당시 석수동에 조성된 수영장은 경부선 안양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수영장이 별로 없던 서울과 인천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였다. 이 수영장은 관악산 남쪽에서 낙원 지대가 되어 안양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¹⁰ 1930년대 석수동의 수영장은 삼성천의 깨끗한 물을 이용했으며, 임시열차를 운행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후 삼성천 일대는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변화했으며, 1969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1985년 도시공원인 비산공원으로 개칭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안양유원지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주변이 개발되면서 삼성천의 유량이 감소한 데다 삼성산 일대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수영장을 비롯한 안양유원지의 이용객이 감소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지정은 각종 규제를 통해 더 이상의 개발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시민들이 안양유원지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삼성천과 안양천 합류부 일대(1988년, 이정범 제공)





삼막천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된 석수1동



경부선 철도 근처의 하천 변에는 1960년대 말부터 시가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삼성천 주변에는 1970년대 들어 많은 마을이 들어섰다. 시가지가 하천 상류로 확장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하천 상류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삼성천을 가로지르는 관악교 부근에서부터 삼성산의 정상부까지 지정되어 있다. 삼성천 계곡에는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안양예술공원·삼성산공원·삼성산 산림욕장·생태예술공원·안양시 관광종합안내센터 등이 있다. 안양박물관이 있는 자리는 안양시의 지명이 유래한 안양사(安養寺)가 있던 곳이다. 안양동에 편제된 하천 건너편에는 낙원소공원, 칠보사, 지장사 등이 있다.

삼성천의 유로가 서쪽으로 변경되는 지점에 있는 삼성저수지는 2002년 축조되었으며,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저수지이다. 안양시에 저수지가 적은 이유는 안양천의 중류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안양천의 지류에는 7개의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는데, 이들 저수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안양천의 지류에 축조된 것이며, 홍수 조절 기능은 갖지 않는다. 안양천의 지류에 축조된 저수지는 석수동에 자리한 삼성저수지를 제외하면 모두 안양시 관외에 자리하는 것들이다.¹¹ 삼성저수지 주변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으로 이용된다.

삼막천(三幕川)은 안양천의 제2지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으로, 유로연장은 4.6km이고 유역면적은 4.7km²이다.¹² 하천의 이름은 발원지에 있는 삼막사에서 유래하였다. 삼성산 서쪽 기슭의 삼막사에서 발원한 삼막천은 만안교공원과 만안교를 지나며 삼명어린이공원 근처에서 삼성천에 합류한다.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 삼막천 주변에는 논·밭·과수원 등의 경작지가 분포했으며, 하천 주변의 마을은 '삼막동(三幕洞)'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막천은 물고기와 가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었으나, 도시화의 물결이 파고들면서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금의 삼막로에 해당하는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삼막로와 국도 1호선(경수대로)의 교차지점에서부터 하천을 따라 시가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하천 변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제2경인고속도로와 안양-성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삼막IC, 식당가, 주거지,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 잡았다.

1970년대 말부터 삼막천 일대에서 골재 채취가 시작된 후 하천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조성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었다. 2000년에 개통한 석수동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호암터널(호암1터널·호암2터널)과, 2017년에 개통한 안양-성남고속도로 삼성산터널의 진입부 역시 삼막천과 주변 환경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삼성산터널은 총연장이 인천 방향 기준 4,885m(성남 방향 4,848m)로, 편도 3차로 이상의 터널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다.¹³ 삼막천은 개발과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하천의 구간별 생태환경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환경생태성이 악화하며, 일부 구간은 고층 건물 및 교통시설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환경생태성이 지극히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안양시에서는 삼막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방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천 정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1)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동 구성

1759년 제작된 『여지도서』에는 현재의 석수동이 금천현(衿川縣) 현내면(縣內面) 안양리(安養里)에 편제되어 있었다. 1795년 금천현에서 시흥현(始興縣)으로 관할이 변경되었고, 1895년에는 시흥군 군내면(郡內面) 안양리에 속하였다. 이 안양리는 현 안양동의 옛 지명인 안양리와 다른 곳이다. 1914년에는 시흥군 군내면은 시흥군 동면(東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의 행정구역 변경 내역을 기록한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 따르면 안양리의 한자 표기가 안양리(安陽里)에서 안양리(安養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안양리(安養里)로 표기되어 있지만, 『1872년 지방지도』 「시흥현」 지도에는 안양리(安陽里)라 표기된 것으로 보아, 지금의 석수동을 지칭하던 안양리의 한자 표기는 두 가지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이전까지 시흥군에는 안양리가 안양읍과 동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양읍에 설치되었던 안양리는 지금의 안양동이고 동면에 설치되었던 안양리는 지금의 석수동에 해당한다. 시흥군 동면 안양리는 1963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新安養里)가 되었는데, 이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안양리(지금의 안양동)와 구분하기 위해 ‘신(新)’을 붙인 것이다. 1973년 안양시 승격과 더불어 석수동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안양시에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으로 편제되어



석수2동 전경(2020년, 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정동 석수동에는 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에는 석수동이 법정동인 동시에 행정동이었지만, 석수동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행정동이 분동되었다. 석수2동은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의 사이에 자리한 지역을 관할하며 1979년 4월 28일 석수동에서 분동되었다. 석수3동은 1990년 1월 1일 석수2동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며, 와룡산 남쪽의 충훈부가 자리했던 지역의 시가지를 관할한다. 석수1동이 삼성산에서부터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리한 구역을 관할함에 따라, 석수동에 설치된 행정동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다. 충훈부로 더 잘 알려진 석수3동은 2023년 10월 11일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로 충훈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지명의 유래

석수동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제가 1932년 간행한 『조선지형도』 「군포장」 지도에서 삼성천 하류부의 경부선 철도 동편에서 석수동(石水洞)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지도에는 일본어로 ‘석수동(ソクストン)’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본래 삼성산 서사면의 경부선 철도 동쪽 삼성천 변(지금의 안양유원지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석수(石手)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는 데에서 ‘석수동(石手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기록상으로는 1911년 간행된 『조선지지자료』 「과천」조에서 석수동(石手洞)이라 한 것이 최초의 자료이다. 그러다가 1932년 삼성천에 수영장이 건설되면서 석수들이 다 사라졌고 삼성산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수려한 경치가 펼쳐진다는 데에서 지금과 같은 석수동(石水洞)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⁵

충훈동에는 충훈부 마을이 있었다. 충훈부(忠勳府)는 조선시대 국가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고 공적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관아로서, 지금의 국가보훈부와 같은 기관이었으며, 본래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안국동사거리 동남쪽에 있었다. 충훈부가 관할했던 토지인 충훈둔(忠勳屯)은 경기도의 여러 지방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지금의 충훈동에서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이르는 곳이었다. 충훈부는 이 토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도지를 받아서 공신의 급여를 비롯한 기타 경비로 활용하였다. 1894년 충훈부가 폐지되면서 충훈둔 근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마을

의 이름은 과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관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충훈부로 불리게 되었다. 충훈부라는 명칭은 충훈동에 있는 전통시장·고등학교·차고지·상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과 터널의 명칭에도 활용되고 있다.

안양시에서 석수동·박달동·안양동을 관할하는 구의 명칭은 만안구이다. ‘만안(萬安)’이라는 이름은 조선 정조대에 석수동에 건설된 만안교(萬安橋)에서 유래했으며, 만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만안교는 본래 안양시를 관통하는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 건설된 다리로 안양교사거리에 있었지만, 1980년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삼막천 하류로 옮겨왔다. 만안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역인 현릉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이용해 임시가교의 형태로 만들었던 다리를 철거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석재를 활용하여 무지개 형식의 돌다리로 건설되었다. 만안교는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다.

3. 경부선 철도 변에 발달한 시가지

1) 노변 취락에서 서울에 접한 시가지로 발달

석수동에 지금과 같은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 삼성산 서사면의 골짜기에는 삼막천과 삼성천의 물길 주변으로 비교적 넓은 개활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일찍이 삼성산의 사면에는 많은 농경지가 밭으로 이용되었고, 산지와 평지의 접촉부는 논으로 이용되었다. 안양천에 접해 있는 석수산·와룡산·꽃메산의 산사면 역시 밭으로 활용되었고, 안양천 변 일대에는 농경지가 하천을 따라 자리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석수동은 사람이 사는 자연마을이 많지 않았다. 자연마을로는 삼막천을 따라 자리한 삼막동, 삼막천 하류부의 신촌, 신촌에서 경부선 건너편의 화창, 삼성천의 말단부에 자리한 석수동, 안양천 변의 충훈부, 화창교 근처의 평촌, 석수산 서사면의 율리(栗里) 등이 있었다. 안양천 남쪽의 안양동이 안양역을 중심으로 변화한 시가지를 형성했다면, 석수동은 경부선 철도의 연변과 안양천 변, 그리고 삼막천 변의 골짜기에 농경지와 마을이 분포하는 농촌이었던 셈이다.

1950년대 들어 석수동은 국도 1호선을 따라 노변 취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삼성천에 건설된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안양유원지가 유명 관광지로 떠 오르면서 삼성천을 따



경부선 철도 양쪽으로 발달한 석수동 시가지(199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오른쪽 아파트단지가 안양영화촬영소가 있던 곳이다.

라 시가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삼성천과 삼막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다. 1957년에는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수도영화촬영소가 건설되었다. ‘안양촬영소’라 불리던 이곳은 수도영화사가 11만 5,702㎡ 규모의 대지에 건설하여 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하였다.¹⁶ 당시 안양촬영소는 부지 면적만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다. 안양촬영소가 들어서고 영화 촬영을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영화촬영소 일대는 자연스럽게 상점과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영화촬영소 일대에 형성된 마을의 이름은 당시 ‘신촌’으로 불렸다. 현재 영화촬영소 부지에는 현대아파트와 무림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현대아파트 입구에는 2017년 9월 안양시에서 설치한 안양 영화촬영소 안내판이 있다.

1970년대 초반 석수동에는 경부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에 각각 시가지가 발달하였다. 물론 시가지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 한 곳은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서 영화촬영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다른 한 곳은 경부선 철도의 동편에서 삼막천과 삼성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되었다.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했던 1973년 당시 석수동은 위에서 언급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농경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가옥이 산재하던 곳으로, 도시적 성격 보다는 비도시적 성격이 강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에 대규모로 설치됨에 따라, 석수동의 동쪽 삼성산은 물론 동의 서쪽 석수 3산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석수동에서 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이들 산지의 사이에 좁고 길게 형성된 평지였으며, 시가지는 남북 방향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은 충훈부 마을 남쪽의 안양천 변 농경지와 경부선 철도 주변의 평지 구간뿐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안양 시가지와 서울특별시 시흥동의 시가지가 동시에 확장함에 따라, 그 사이 지역인 석수동에서도 시가지 개발을 위한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이 간선도로 중에서 남북 방향의 도로는 꽃메산 동편을 통과하는 양화로, 석수동의 중앙을 관통하는 안양로, 경부선 철도에 접한 만안로, 석수동 시가지의 동쪽을 통과하는 경수대로 등이다. 당시 개설된 동서 방향의 도로에는 석천로, 안양로510번길과 석천로159번길, 안양로532번길 등이 있다. 안양로510번길과 석천로159번길은 본래 하나의 도로이지만 안양로가 이 도로와 교차함에 따라 안양로의 동쪽과 서쪽의 도로명이 다르게 부여되었다.

1974년 8월 15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전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석수동에서는 관악역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관악역은 안양예술공원을 역명으로 함께 사용한다. 1980년대 들어 석수동의 시가지는 기존에 개설된 간선도로의 사이사이에 개발되었으며, 삼막천 및 삼석천 골짜기를 따라서도 점진적으로 팽창해 나갔다. 1982년 8월 2일에는 경부선 철도의 석수역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석수역은 서울시와 경계 지점에 설치된 역으로 이 일대는 1950~1960년대부터 서울 철강단지에서 옮겨온 철물점을 중심으로 많은 철재 상가가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지금은 석수역의 북쪽 시흥동에 중앙철재종합상가가 건립되어 철강 유통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석수역 개설과 함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 석수동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로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역의 남쪽 석수동은 기존에 있던 저층의 주택단지를 철거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석수시장은 1979년에 종합시장으로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문을 열었다. 197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있던 기계·공구 및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던 업체들이 서울을 벗어나 석수동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유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석수동에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석수시장



석수역

은 석수동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상권이 되었다. 주거 밀집 지역에 건설된 석수시장은 건립 당시 일반적인 상설시장의 형태로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식당과 상점 등이 입주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쇼핑 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석수동의 중심 시장으로 기능하였다.

2)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시가지가 조성된 석수동은 2023년 기준 노후주택이 많은 편이다. 1986년에 입주가 시작된 충훈동과 석수2동에 자리한 노후 공동주택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석수동의 주택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 지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안양시 승격 이전부터 자리 잡았지만, 연립·다세대·아파트를 아우르는 공동주택은 1980년대 들어서 건축된 것이 많다.

충훈동으로 편제된 충훈부 마을 일대는 충훈부의 둔전이 있던 곳이었다. 이 토지는 충훈부 마을에 거주하던 150여 가구의 농민이 1970년대 중반까지 논으로 이용하던 곳

이였으며, 농업용수는 안양천의 물을 끌어들이어 사용하였다. 안양천 상류에 공장이 많아지면서, 안양천의 수질이 점점 악화하자 충훈부 일대의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¹⁷ 충훈부 마을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3년 건설부 고시 제 348호에 의거, 안양석수지구 택지개발계획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200가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된 이 사업은 1985년과 1986년에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40가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택지개발사업 이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석수2동에 속했



석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적주성 평가-안양 석수지구를 대상으로』, 1992년)

던 지역 가운데, 와룡산과 꽃메산 남쪽에 자리한 충훈부 마을과 안양천 변에 이르는 구역을 1990년 1월 1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다. 석수3동의 꽃메산과 와룡산에 접한 구역은 2009년과 2010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조성된 충훈동의 시가지는 노후 건축물이 주류를 이룬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충훈동 일대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충훈동의 안양석수지구는 15만 7,216㎡에 2,473가구가 거주했으며, 건축물의 노후도는 98%에 달할 정도로 시가지의 여건이 불량한 지역이었다. 근래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발생해 반 지하 주택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안양시에서는 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및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안양 충훈부 일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하

고 공공 시행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2030년 2,567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충훈부 마을을 신규의 주택단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택재개발 계획은 화창초등학교 동편에 자리한 석수2동 화창지구(2만 2,846㎡)를 대상으로도 수립되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화창마을로 불리던 곳으로, 석수동의 도시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반부터 주변의 농경지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즉 화창지구는 노후 건축물이 많아 안전 문제를 비롯해 미관상으로도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화창지구는 2006년 8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12월 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48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석교 근처의 럭키아파트는 안양종합운동장이 비산동에 새롭게 건설되기 이전 공설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건설된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안전 진단을 통한 재건축이 요구된다.

3) 산지와 대지가 많은 지역

2020년 기준, 석수동의 면적은 13.35㎢로 안양시(58.47㎢)의 22.8%를 차지하였다. 세 개의 행정동 가운데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리한 석수1동은 삼성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면적이 9.23㎢로 가장 넓다.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자리한 석수2동의 면적은 3.42㎢, 충훈부 마을 일대로만 구성된 충훈동의 면적은 0.70㎢에 불과하다. 석수1동은 안양시에 설치된 31개 행정동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¹⁸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 석수동의 면적은 10.69㎢로 당시 안양시 면적(58.16㎢)의 18.4%를 차지했지만,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 경계의 조정을 통해 면적은 시 승격 당시에 비해 확대되었다. 1986년 12월에는 광명시와 경계 조정을 통해 광명시 소하동 일부가 석수2동에 편입되었으며, 1996년 12월 안양2동 일부가 석수1동에, 2000년 12월과 2013년 8월에는 각각 박달동 일부가 충훈동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석수동의 면적은 시 승격 당시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법정동별 지목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석수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이다(표 1).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71.7%에서 2020년 64.8%로 감소하였다. 석수동에서 임야의 면적이 넓은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 상태가 양호한 삼성산과 석수 3산의 영향이 크다. 임

야의 면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석수1동의 삼성산 사면 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른 임야의 용도 전환에 기인한다.

석수동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경부선 철도의 서편과 안양천 변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고 삼성산 사면과 석수 3산의 사면은 대체로 밭으로 이용되었기에, 농경지를 가리키는 전과 답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답의 면적이 감소했으며, 아직 남아 있는 농경지는 더 이상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사면과 안양천 변에 분포한다. 석수동의 농경지 가운데 산사면의 농경지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지만, 안양천 변과 경사가 미약한 평지에 남아있는 농경지에서는 대체로 시설재배가 이루어진다. 지목은 답(畓)이지만 실질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

〈표 1〉 석수동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m²)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13,339,449	607,022	171,870	9,569,514	1,278,244	51,242	60,044	523,787
2000년	13,339,555	592,846	167,894	9,149,853	1,282,358	53,644	60,333	541,349
2005년	13,345,206	456,078	151,031	9,012,628	1,300,366	31,441	104,851	809,201
2010년	13,339,478	418,408	131,886	8,893,428	1,325,590	30,460	351,525	863,290
2015년	13,349,587	345,545	110,893	8,661,657	1,375,652	30,727	353,478	957,251
2020년	13,338,243	310,954	106,061	8,638,632	1,387,408	39,571	353,478	963,175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해당 연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신규의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기에,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지로 활용되는 대지의 면적은 2000년대 들어 조금 증가하였다. 학교 용지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3월 개교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의 영향이 크다. 도로의 면적이 2000년대 들어 확대된 것은 석수동을 통과하는 고속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것이다.



충훈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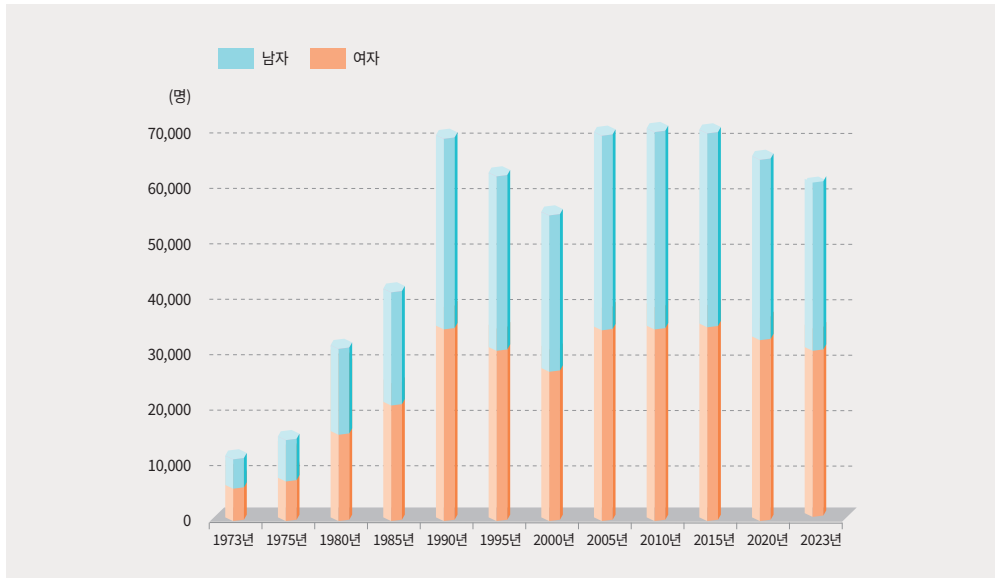
4. 석수동의 사람과 경제활동

1)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인구 규모

석수동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는, 안양시 승격 이후인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 경향으로 돌아섰으며,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반의 인구 규모를 회복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인구 규모는 2015년을 전후해서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석수동의 인구 규모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거단지의 조성 및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 있다. 1990년대 초반 인구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1992년부터 입주가 본격화한 평촌신도시의 영향이 지배적일 것이다. 2015년 이후의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 및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출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1만 2,822명(남자 6,129명, 여자 6,693명)이었던 인구는 1980년 3만 2,730명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에는 7만 633명으로 늘었다. 석수동의 인구 규모는 1991년 7만 1,127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5만 5,790명)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석수동의 인구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0년이었으며, 당시 인구는 7만 1,744명(남자 3만 6,136명, 여자 3만 5,608명)이었다.

인구가 증가하던 1980년대 말, 석수동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석수2동에서 신규의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조성됨에 따라 전입인구의 증가 현상이 현저했다. 석수동의 인구가 안양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11.5%에서 2020년 기준 12.0%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1.3%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석수동의 인구 비중이 안양시 전체의 22.8%를 차지하는 면적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삼성산과 석수 3산으로 구성된 비시가화 구역이 넓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말 기준, 행정동별 인구는 석수1동이 1만 8,861명이고 석수2동이 3만 400명, 충훈동이 1만 2,668명으로, 근래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석수2동의 인구 규모가 월등하게 크다. 인구가 5만 6,842명을 기록했던 2000년과 비교하면 석수동 전체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행정동별 인구 변화는 차이점을 가진다. 2023년 기준, 석수1동에는 2000년(9,091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충훈동은 2000년(1만 7,276명)에 비해 4,600여 명의 인구 감소를



석수동의 인구규모 변화

경험하였다. 석수2동의 인구는 2000년(3만 47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석수1동에서는 경부선 철도 변과 삼막천 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충훈동에서는 건축 연대가 30년을 넘는 주택단지가 그대로 존치됨에 따라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석수동의 인구 감소는 오래된 주택단지의 증가로 인한 주거 여건 악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안양천 동쪽 미개발지에 조성된 평촌신도시와 인접 군포시에 건설된 산본신도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1기 신도시에 1992년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안

〈표 2〉 석수동의 행정동별 인구

(단위: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행정동	석수1동	7,454	18,861	9,218	9,643	2.53
	석수2동	12,694	30,400	15,191	15,209	2.39
	충훈동	5,467	12,668	6,430	6,238	2.32
석수동	25,615	61,929	38,027	31,090	2.42	

자료: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비고: 2023년 6월 말 기준.

양의 기존 시가지에 거주하던 주민 일부가 신시가지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석수동은 1991년까지 전입인구가 더 많았으나, 1992년 이후에는 전출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전출 초과 인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석수1동과 석수2동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여전히 작동하였다. 반면 충훈동은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노후 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를 배출하는 경향이 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석수동의 인구 변화에는 전입 인구의 감소와 전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동시에 출산율 하락 역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세대당 인구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석수동의 세대당 인구는 4.99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4.22명으로 줄었고, 1985년에는 3.80명으로 처음 4명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2000년에는 2.99명으로 3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3년에는 2.4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안양시 전체 평균(2.40명)과 거의 차이가 없다.

행정동별로 보면 석수1동은 세대당 2.53명으로 가장 많고, 석수2동은 2.39명, 충훈동은 2.32명으로 나타나 동별 차이가 존재한다. 법정동 기준으로는 박달동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가지 역사가 오래된 기성 시가지를 많이 포함한 안양동(2.18명)보다는 많다. 그러나 신도시가 들어선 평촌동(2.96명)이나 호계동(2.63명)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2) 젊은 연령의 감소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석수동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해 많았다. 당시 석수동은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가 91.6(남자 6,129명, 여자 6,693명)에 불과한 여초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남녀 간 인구 구성은 1990년대 초반 균형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를 약간 상회하였다. 성비는 2015년 99.8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 이르기까지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나치게 여자가 많은 여초 지역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2023년의 성비는 99.2(남자 3만 839명, 여자 3만 1,090명)를 기록해 대체로 100에 근

접한 수준이다.

석수동 전체 인구의 성비는 100에 근접했지만,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973년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지만, 15~29세의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훨씬 압도했고, 30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1973년 15~29세 인구는 여자가 2,148명이었지만, 남자는 1,521명에 불과해, 연령층에 따른 성별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연령층에 따라 남녀의 인구 구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 연령층은 나타나지 않았다. 1970년대 젊은 연령층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았던 현상은 인접한 안양동 및 박달동과 유사했으며, 이는 안양동과 박달동 일대에 많던 경공업체의 여성 노동자가 많이 거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수동의 성별 인구 구성은 남녀 간에 균형상태를 맞추어가고 있지만,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령화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37.4%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2.1%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9.7%로 축소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2.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8.0%로 상승하였다.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한 만큼 노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청장년 인구의 비율이 동반 상승했음을 반영한다. 청장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59.9%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2년 72.3%로 상승하였다.

1973년에는 10대 미만(25.1%)과 10대(23.9%)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2000년에는 30대(21.4%)와 20대(17.1%)의 인구 규모가 컸다. 2022년에는 50대(18.5%)와 60대(16.3%)의 인구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규모가 큰 인구집단의 연령층은 높아지고 있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에서 비중이 탁월한 연령층이 눈에 띄었지만, 202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유소년 인구에 비해 노년 인구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석수1동이 18.9%로 가장 높고 충훈동이 17.3%로 가장 낮았지만, 행정동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별 인구 비율 역시 석수동을 구성하는 3개의 행정동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연령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별 인구 구성은 3개의 행정동이 유사한 모습이다.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석수동의 인구 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를 전

〈표 3〉 석수동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2,433	19.0	6,623	11.7	3,181	5.1
	여자	2,365	18.4	5,900	10.4	2,857	4.6
	계	4,798	37.4	12,523	22.1	6,038	9.7
청장년 (15-64세)	남자	3,565	27.8	20,954	36.9	22,877	36.7
	여자	4,110	32.1	20,022	35.3	22,168	35.6
	계	7,675	59.9	40,976	72.2	45,045	72.3
노년 (65세 이상)	남자	131	1.0	1,263	2.2	5,003	8.0
	여자	218	1.7	1,968	3.5	6,185	9.9
	계	349	2.7	3,231	5.7	11,188	18.0
전체	남자	6,129	47.8	28,840	50.8	31,061	49.9
	여자	6,693	52.2	27,890	49.2	31,210	50.1
	계	12,822	100.0	56,730	100.0	62,271	100.0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해당연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비교 : 비율은 각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후한 연령층에서 여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지대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는 석수동에서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 안양동이나 박달동 또는 석수동의 북쪽에 접한 서울시 금천구의 산업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1970년대 초반은 서울의 구로공단 일대와 안양 지역의 공업화가 촉진된 시기이므로 석수동은 이들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

1970년 초반 석수동에서는 젊은 남자에 비해 젊은 여자가 과도하게 많은 기형적인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를 보였지만, 도시경제의 근간이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의 인구 구성은 장년층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간 성비가 균형을 유지하는 선진국형 인구 구성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에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으로 변화했으며, 6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구성이 나타났다. 2022년의 인구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집단의 연령층이 상승한 것과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증가, 20대 이하 연령층의 축소 등이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석수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행정동별 차이가 거의 없다. 평균연령은 석수1동에서 4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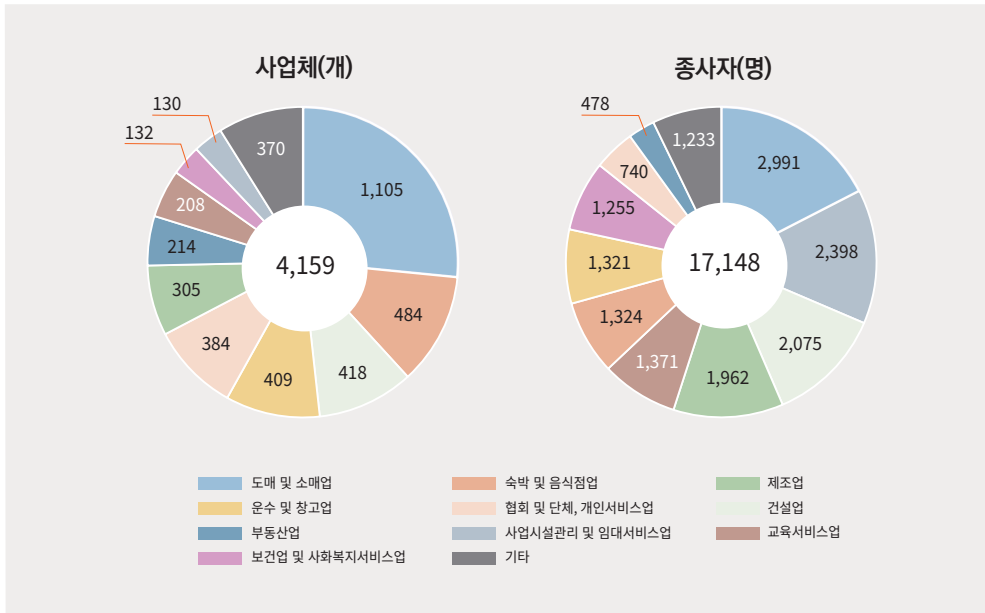
석수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석수2동에서 43.7세, 충훈동에서 42.9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안양시 전체의 평균연령(42.3세)보다 조금 높다. 안양시에서 법정동 기준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은 안양동·석수동·비산동이며,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평촌동이다.

3) 다양한 경제활동이 입지한 시가지

석수동에 입지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이 가운데 석수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6.6%에 불과한 4,159개이고 종사자 수는 도시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1만 7,148명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4.2명으로 안양시 전체(4.3명)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었다. 2000년 기준, 석수동에는 2,133개의 사업체에 9,556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6.5%와 6.1%였다. 석수동에 입지한 경제활동의 총량은 2000년 이후 증가했지만,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들어 감소했음은 석수동 경제활동 입지가 도시 전체와 비교하여 다소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대분류 방식을 적용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10.7%), 건설업



석수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상위 10개 업종(2021년)

(10.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6%), 교육서비스업(6.9%) 등이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15.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4%), 운수 및 창고업(11.3%), 건설업(8.8%) 등이 있다. 석수동에 입지한 경제활동 가운데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은 석수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안양천 서쪽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운수업체와 충훈부의 운수업체는 석수동의 운수업 비중을 상승시키는 요소이고, 석수산 서쪽에 자리한 환경사업소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의 비중을 높인 요소이다.

2021년 기준, 석수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그 뒤를 따랐다. 종사자 수의 분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¹⁹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의 규모가 큰 이유는 석수동에 들어선 대학교의 영향이 크다. 3개의 행정동 가운데 사업체·종사자 수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석수2동으로, 석수2동에는 2,228개의 사업체에 1만 541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에 반해 주거지역 성격이 강한 충훈동에는 725개의 사업체에 1,873명의 종사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석수2동은 석수동에서 인구분포의 중심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삼영운수 총훈부영업소



채석장 부지에 들어선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5. 자연 친화적 도시공간으로의 발전

삼성산과 안양천의 사이에 자리한 석수동은 안양시의 북부에서 서울시 금천구와 시가지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안양의 도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도시적 성격보다 농촌적 성격이 훨씬 강했던 지역으로, 삼성산과 그 주변의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농경지를 주요한 생활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 석수동은 서울의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팽창하고 안양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경부선 철도의 연변을 따라 노변 취락의 형태로 성장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도시적 성격을 훨씬 강하게 드러내는 시가지 구역으로 발전하였다.

안양천과 삼성산 서사면의 하천 변에 펼쳐져 있던 농경지는 도시화의 물결이 파고들면서 1980년대 들어 대부분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자리에는 상가 및 주택이 자리하면서 석수동의 지역성도 변화해왔다. 특히 경부선 철도의 동편에 자리한 석수1동은 삼성산과 그곳에서 흘러오는 하천을 기반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지던 곳이었지만, 고도가 낮은 산사면과 하천 변은 고속화도로 건설, 대학교 시설 입지, 시가지 확산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안양천 변의 공간 역시 도시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기존 농경지가 주택단지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다.

석수동은 안양천을 끼고 발달한 안양동이나 박달동에 비해 시가지 발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지만, 1980년대에 건설된 노후 공간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이 여전히 석수동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도시공간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훈부 마을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다. 일부 구역은 2000년대 들어 기존의 노후 공간이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했지만, 도시공간의 노후화는 주거 여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신규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석수동은 안양천과 그 주변의 석수 3산, 그리고 경부선 철도의 동편에 자리한 삼성산, 이곳에서 발원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삼막천과 삼성천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안양 시민은 물론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매우 친숙한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가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존 공간의 해체를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도시공간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註

- 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74쪽.
- 2 임종필·한봉호·이경재·홍석환, 「도시림 경관평가와 식생경관 개선 연구-경기도 안양시 삼성산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1(1), 2011, 145쪽.
- 3 경기도 안양시 전통 사찰 현황(공공데이터 포털).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73쪽.
- 5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상』, 1988, 589쪽.
-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434쪽.
- 7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2011, 62-64쪽.
-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104쪽.
- 9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2011, 113쪽.
- 10 「安養石水洞에 水泳場을 新設」, 『동아일보』 1932년 7월 21일.
- 11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
- 12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2011, 113쪽.
- 13 삼성산터널은 2024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의 남한산성터널(8.3km)이 개통하면 편도 3차로 터널 중에선 두 번째로 긴 터널이 된다.
- 14 김용환·손용훈, 「소하천의 구간별 환경생태성 평가를 통한 취약 지역 그린인프라 개선방안-안양시 삼막천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1(1), 2021, 106-107쪽.
- 15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편, 『경기도 역사지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245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27쪽; 이승언, 『안양시 지명 유래집』, 새안양회, 2012, 181쪽.
- 16 1966년 안양촬영소를 인수한 신필름은 안양촬영소 내에 신필름 영화예술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학교는 지금의 안양예술고등학교가 되었다.
- 17 「계속되는 가뭄 廢水 오염심각-安養川」, 『경향신문』, 1976년 6월 29일.
- 18 석수1동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및 수리산을 품고 있는 안양9동(6.42km²), 군용지를 포함하는 호현동(6.91km²)보다 넓다.
- 19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표기된 업종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다.

제2장

석수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1. 석수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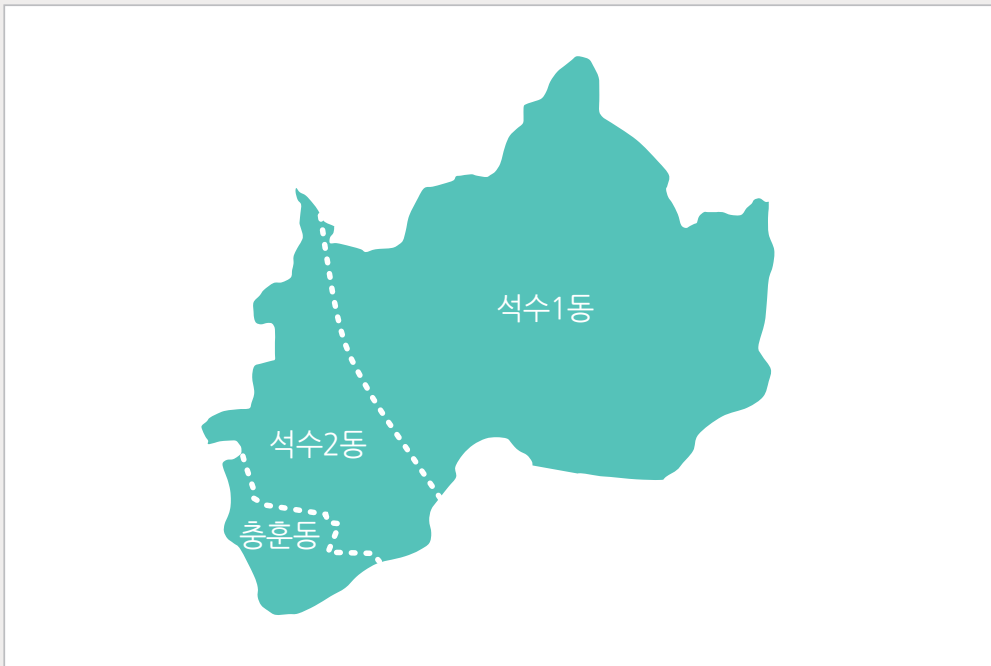
석수동은 안양시 만안구 법정동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관악구와 인접하는 등 서울과의 인접성 및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가 석수동을 관통하며 지나가고 있어, 인천과 성남시 등 경기 남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석수역과 관악역이 위치해 철도 이동도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한다.

자연적으로는 안양예술공원 등 수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동쪽에는 관악산과 이어지는 삼성산이, 서쪽에는 꽃메산·와룡산·석수산 등이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특히, 삼성산과 관악산 일대에는 안양사를 비롯하여 삼막사·염불사 등의 전통 사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안양사는 안양시 지명의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산 아래에 서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어, 환경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석수동은 법정동으로서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등 3개의 행정동을 포함한다. 2023년 기준 6만 1,496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11.3%, 만안구의 약 26.7%가 거주하고 있다. 석수동은 2017년 6만 9,514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석수동(법정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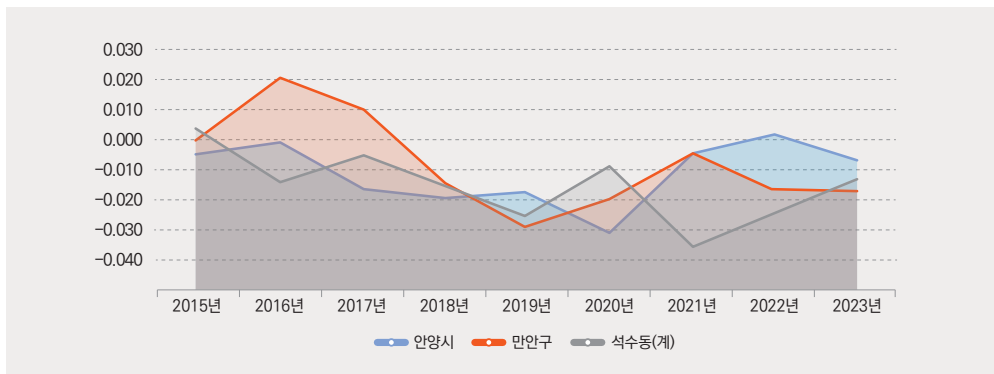
석수동의 행정동

〈표 1〉 2014~2023년(10년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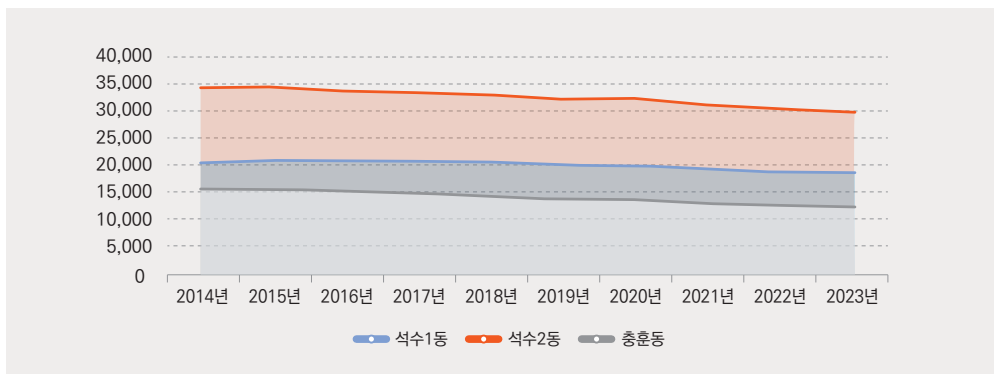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만안구	합계	석수1동	석수2동	총훈동
2014	600,809	247,315	70,611	20,333	34,433	15,845
2015	597,789	247,270	70,871	20,797	34,444	15,630
2016	597,414	252,353	69,881	20,684	33,877	15,320
2017	587,764	254,977	69,514	20,774	33,701	15,039
2018	576,831	251,512	68,459	20,628	33,247	14,584
2019	567,044	244,235	66,739	20,189	32,443	14,107
2020	550,027	239,413	66,164	19,898	32,565	13,701
2021	547,178	238,311	63,863	19,397	31,304	13,162
2022	548,228	234,394	62,278	18,922	30,593	12,763
2023	544,660	230,664	61,496	18,864	30,097	12,535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인구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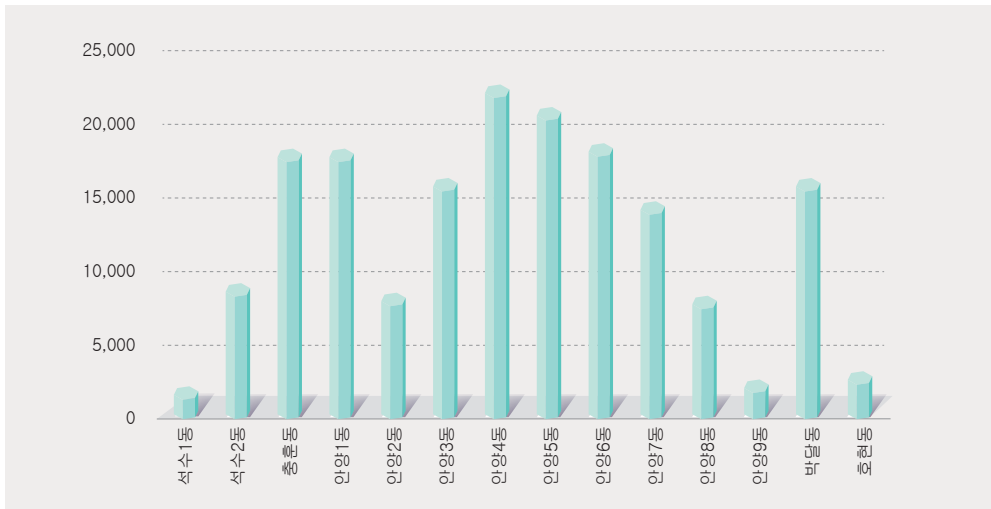
2014~2023년 석수동의 행정동별 인구 변동

〈표 2〉 2022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인구밀도

(단위 : 명/㎢)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76	안양1동	18,210
만안구	6,535	안양2동	8,412
전체	4,710	안양3동	16,271
		안양4동	22,645
석수동	2,061	안양5동	21,026
		안양6동	18,654
석수1동	2,061	안양7동	14,705
석수2동	9,097	안양8동	8,308
충훈동	18,320	안양9동	2,636
박달동	16,242		
호현동	3,181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2023년.



2022년 만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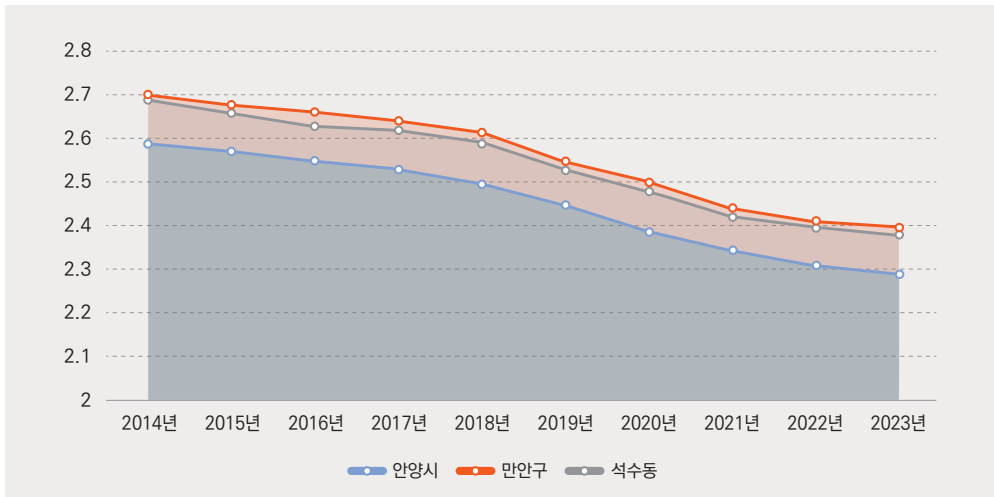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석수동의 인구밀도는 4,710명/㎢이다. 석수1동은 2,061명/㎢로 만안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며, 석수동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석수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인구밀도 대비 67.8%, 만안구 인구밀도 대비 72.1%로,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전체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2014	2.69	2.54	2.74	2.78	2.71	2.76
2015	2.67	2.53	2.73	2.76	2.7	2.76
2016	2.65	2.52	2.71	2.78	2.67	2.72
2017	2.63	2.5	2.69	2.78	2.64	2.68
2018	2.59	2.46	2.64	2.73	2.6	2.62
2019	2.55	2.42	2.59	2.68	2.56	2.54
2020	2.49	2.36	2.53	2.63	2.5	2.45
2021	2.44	2.31	2.47	2.57	2.46	2.38
2022	2.41	2.29	2.43	2.54	2.41	2.33
2023	2.39	2.27	2.4	2.51	2.38	2.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세대당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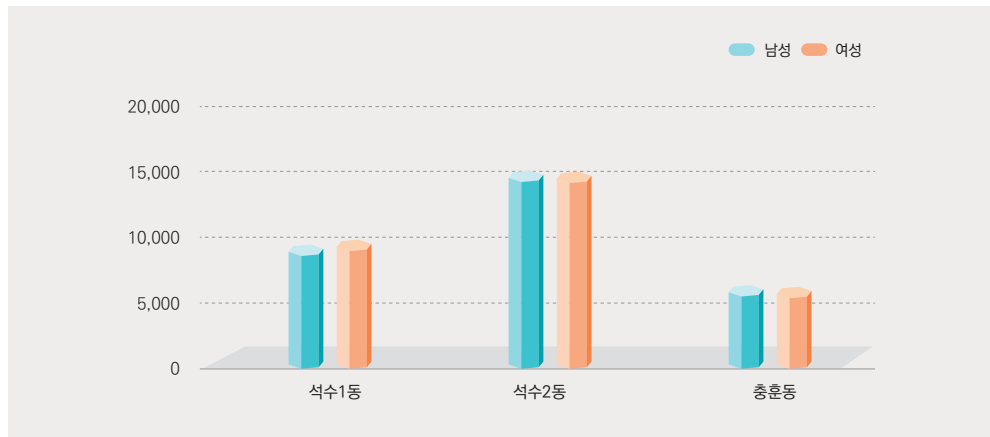
석수동의 세대당 인구는 2023년 2.4명으로, 안양시 전체와 비슷하고 만안구 평균보다 조금 높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수동은 안양시와 만안구에 비례하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표 4〉 석수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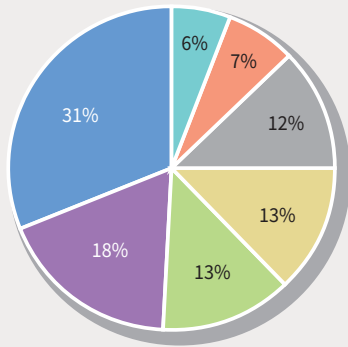
구분	석수1동	석수2동	총훈동	합계	비율	
계	18,716	29,925	12,251	60,892	100	
성별	남성	14,957	6,201	30,279	49.7	
	여성	9,595	14,968	6,050	30,613	50.3
연령별	10대 미만	1,094	1,547	604	3,245	5.3
	10대	1,325	2,207	1,042	4,574	7.5
	20대	2,161	3,746	1,538	7,445	12.2
	30대	2,530	3,841	1,380	7,751	12.7
	40대	2,480	4,049	1,661	8,190	13.5
	50대	3,398	5,580	2,313	11,291	18.5
	60대 이상	5,728	8,955	3,713	18,396	30.2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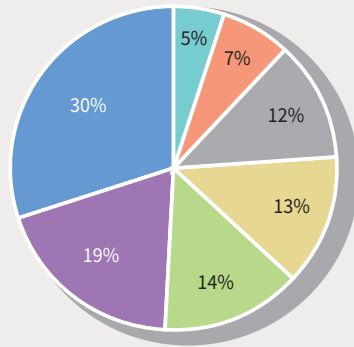


석수동의 행정동별 남녀 인구(2024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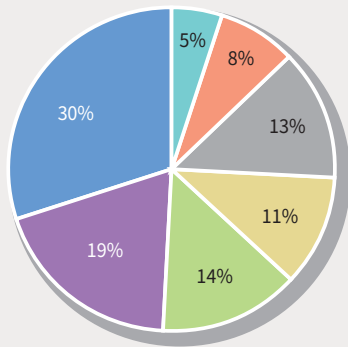
석수동의 주거 인구는 6만 892명이며, 남성이 3만 279명, 여성이 3만 613명으로 성비가 비슷한 지역이다. 60대 이상 인구가 약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나, 20대~50대는 비교적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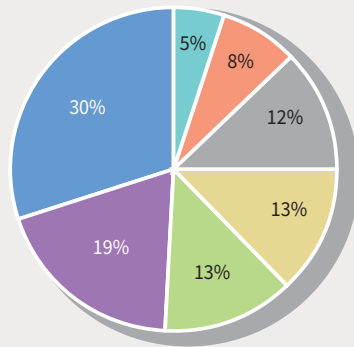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석수동(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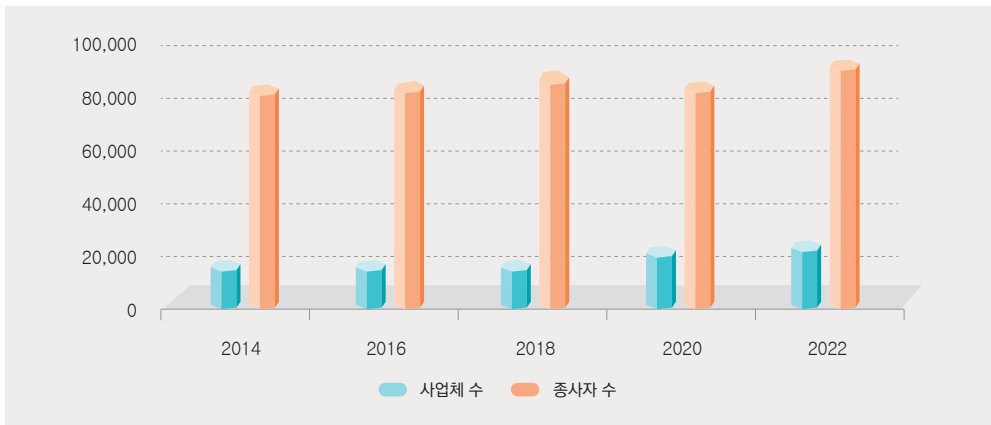
석수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표 5〉 2014~2022년 안양시·만안구·석수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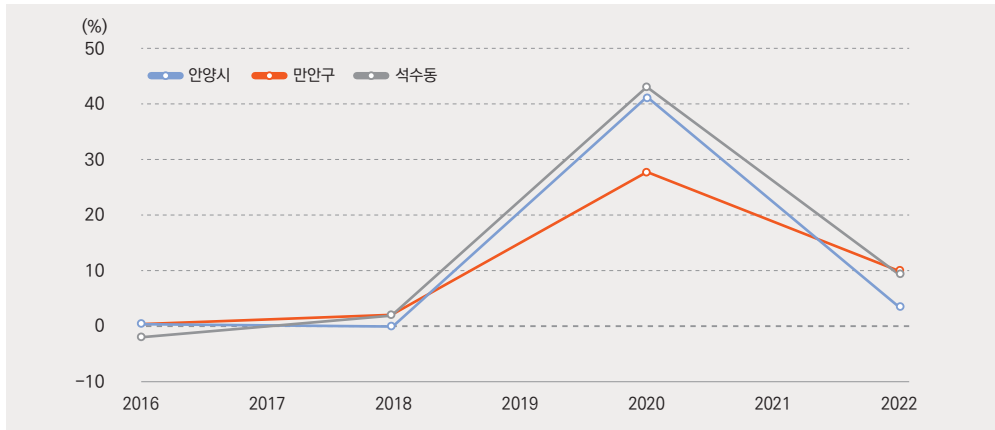
구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합계	석수1동	석수2동	총훈동
2014	사업체수	44,505	17,716	2,862	808	1,511	543
	종사자수	235,143	84,011	13,918	3,649	8,711	1,558
2016	사업체수	44,767	17,383	2,802	772	1,518	512
	종사자수	246,711	85,351	14,647	4,199	8,840	1,608
2018	사업체수	44,824	17,778	2,859	802	1,561	496
	종사자수	255,402	89,166	15,279	5,048	8,602	1,629
2020	사업체수	63,348	22,696	4,092	1,248	2,176	668
	종사자수	267,279	85,860	15,602	4,817	9,063	1,722
2022	사업체수	65,722	24,892	4,488	1,392	2,296	800
	종사자수	276,105	94,242	16,774	5,610	9,346	1,818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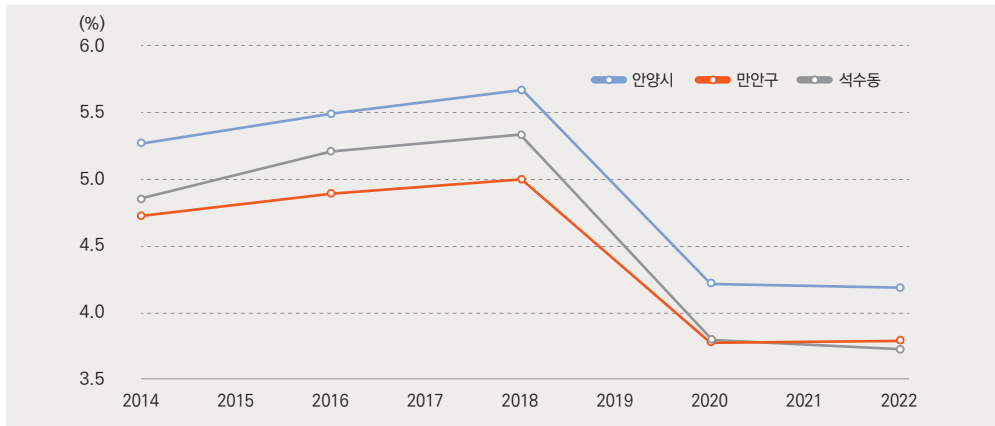


2014~2022년 석수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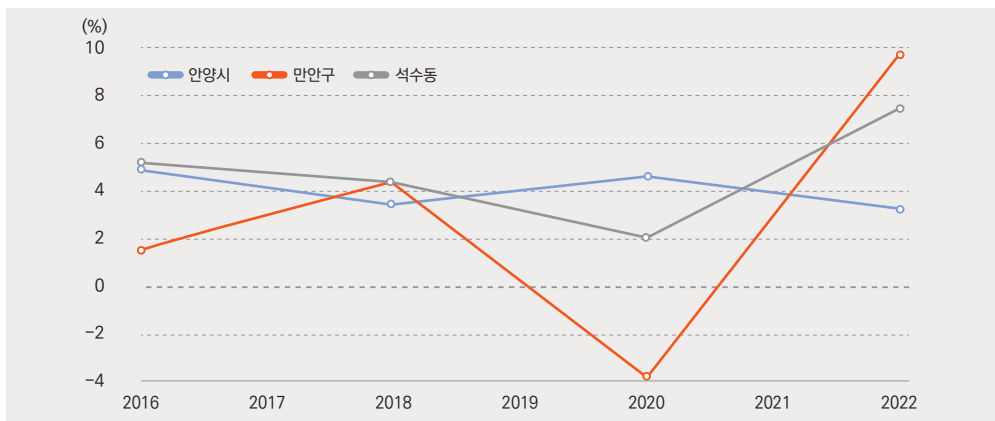
석수동은 2022년 기준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6.8%인 4,488개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6,774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약 3.7명으로, 안양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4~2022년 안양시 · 만안구 · 석수동 사업체수 증감률



2014~2022년 안양시 · 만안구 · 석수동 사업체 증사자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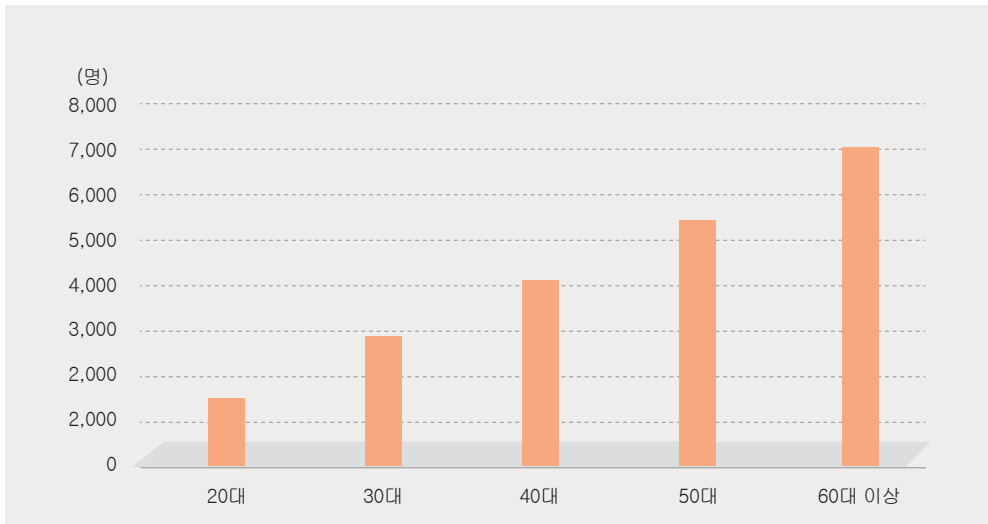
2014~2022년 안양시 · 만안구 · 석수동 사업체당 증사자수

〈표 6〉 석수동의 직장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석수1동	석수2동	총훈동	석수동(계)	비율	
전체	3,204	11,959	2,788	17,951	100	
성별	남성	2,666	6,350	1,148	10,164	56.6
	여성	3,538	5,609	1,640	10,787	60.1
연령별	20대	540	840	126	1,506	8.4
	30대	851	1,733	282	2,866	16
	40대	1,157	2,398	536	4,091	22.8
	50대	1,595	3,066	778	5,439	30.3
	60대 이상	2,061	3,922	1,066	7,049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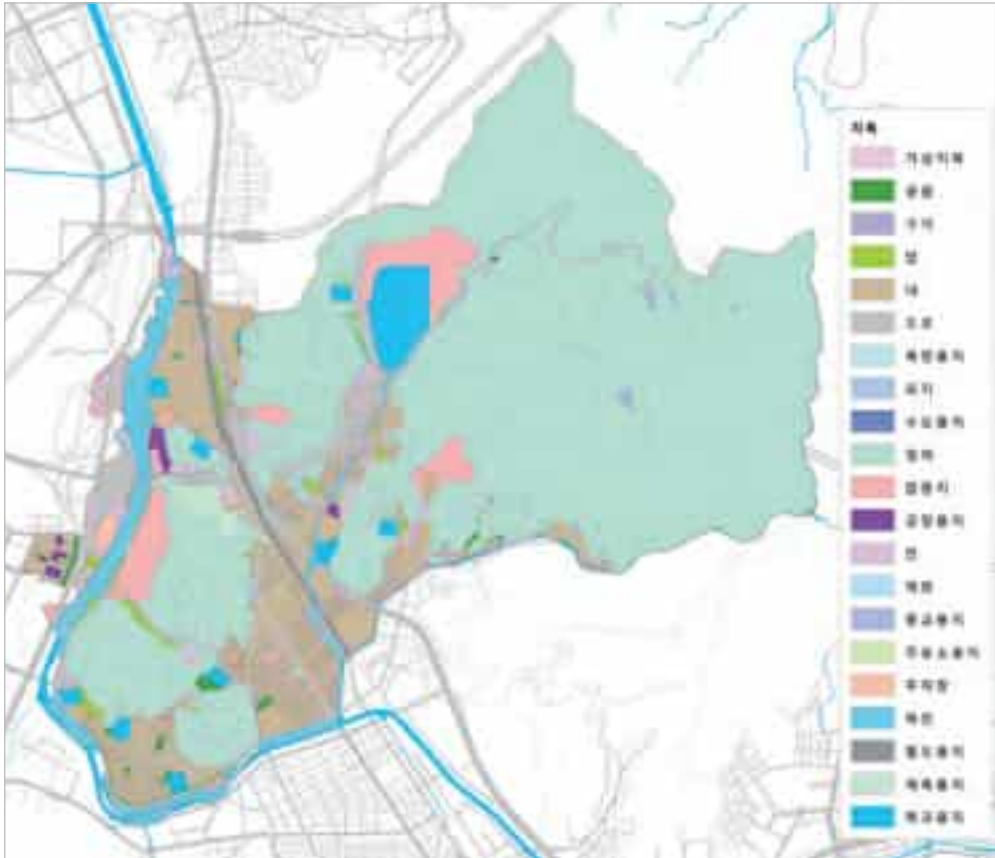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석수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석수동의 직장인구 총 1만 7,951명 중 남성이 1만 164명, 여성이 1만 78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2.8%, 50대가 약 30.3%로, 40~50대가 전체 직장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석수동의 토지이용



석수동의 지목

석수동의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전체 면적의 6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가 10.4%, 도로가 7.5%를 차지하고, 전(논)은 2.1%, 공장용지는 0.6%로 나타난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석수동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철도용지가 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천(삼성천)

〈표 7〉 석수동의 지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임야	863.18	64.8	공장용지	4.81	0.4
묘지	0.43	0.0	전	27.87	2.1
수도용지	0.21	0.0	제방	1.64	0.1
목장용지	0.36	0.0	종교용지	4.30	0.3
가상지목	0.21	0.0	주유소용지	0.81	0.1
공원	7.41	0.6	주차장	3.38	0.3
구거	2.33	0.2	하천	58.84	4.4
답	9.96	0.7	철도용지	10.72	0.8
대	138.08	10.4	체육용지	7.78	0.6
도로	100.34	7.5	학교용지	35.33	2.7
잡종지	54.21	4.1	합계	1,332.20	100.0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공원



주차장



철도용지(관악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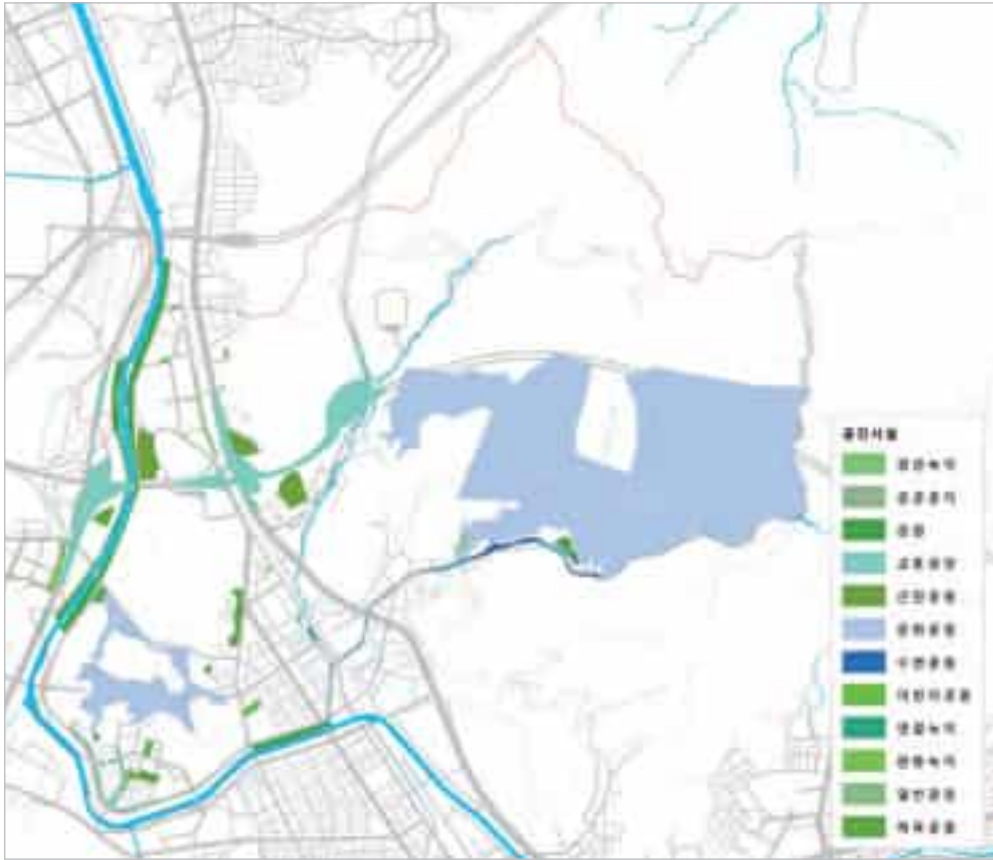
임야(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학교용지(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학교용지(연현중학교)



석수동의 공간시설

〈표 8〉 석수동의 공간시설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경관녹지	0.55	0.2	수변공원	2.26	0.7
공공공지	0.42	0.1	어린이공원	1.79	0.5
공원	17.06	5.1	연결녹지	1.78	0.5
교통광장	33.23	9.9	완충녹지	2.25	0.7
근린공원	10.09	3.0	일반광장	0.14	0.0
문화공원	262.8	78.4	합계	335.22	100.0
체육공원	2.85	0.9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문화공원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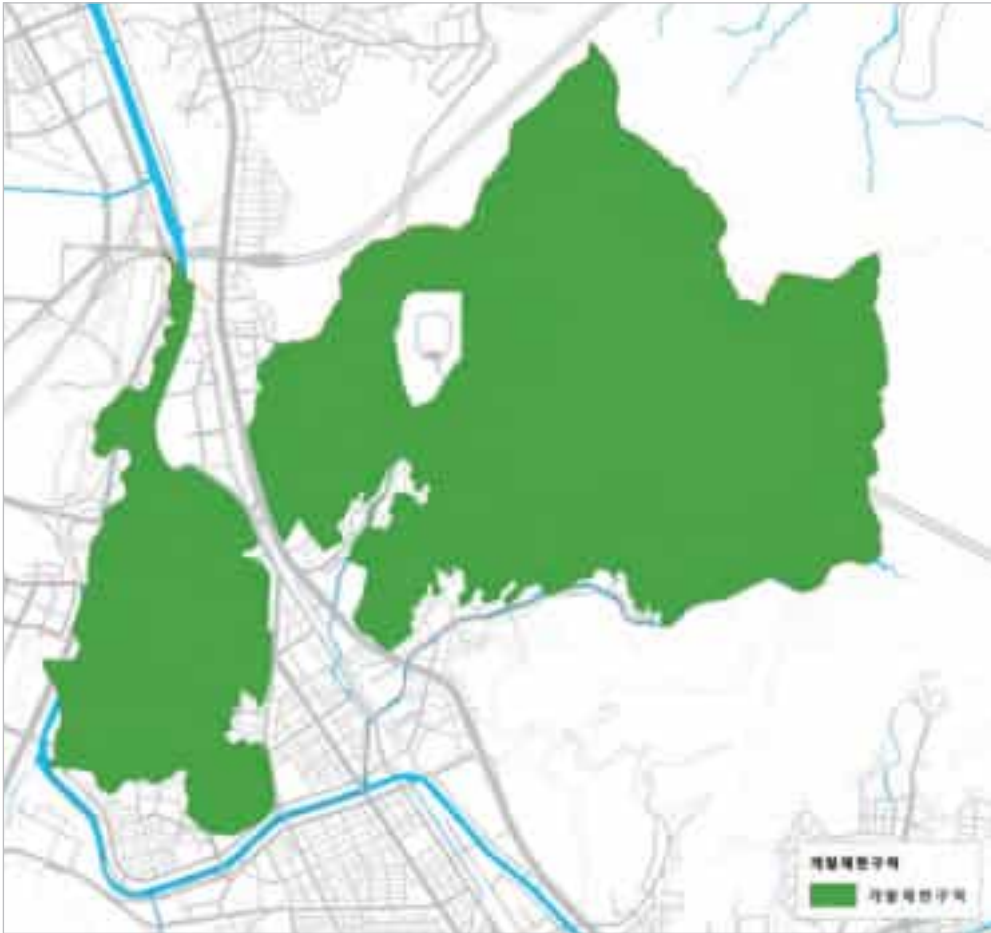


체육공원(석수체육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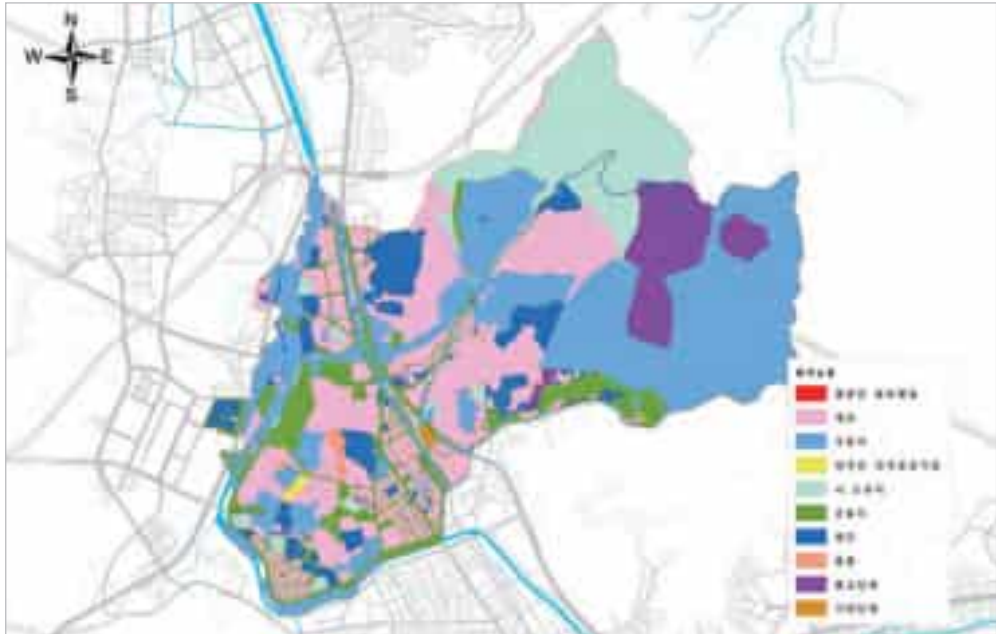
어린이공원

석수동의 동쪽 지역인 안양예술공원 인근은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린공원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석수체육공원은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이다. 또한 석수IC와 일직분기점 주변 지역은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석수동의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석수동의 개발제한구역은 1,057.43ha로, 전체 면적의 약 79.3%를 차지한다. 주로 동쪽의 삼성산 일대와 서쪽의 석수산·와룡산·꽃메산 일대의 산림과 녹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 주거 및 상업, 공업 시설이 분포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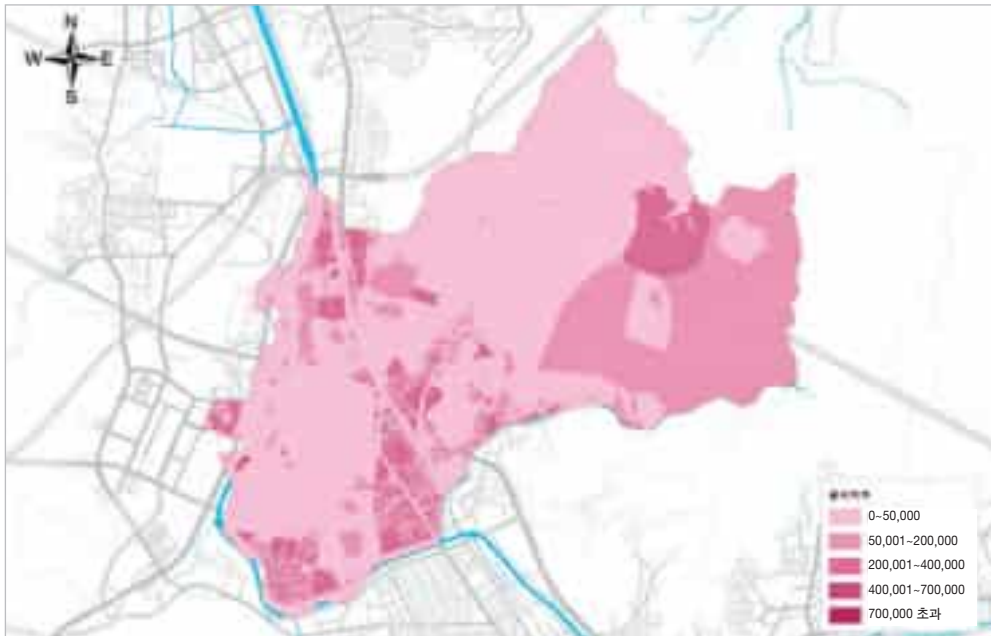
석수동의 토지소유

〈표 9〉 석수동의 토지 소유

구분	면적(ha)	비율(%)
일본인 창씨명 등	0.18	0.0
개인	335.85	25.2
국유지	468.04	35.1
외국인 / 외국 공공기관	2.64	0.2
시 도유지	182.28	13.7
군유지	146.14	11.0
법인	103.58	7.8
종중	5.07	0.4
종교단체	86.21	6.5
기타단체	2.12	0.2
합계	1,332.12	100

자료: 안양시, 「토지소유 구분 자료」, 2024년 10월

석수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전체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 소유가 25.2%, 시도유지가 13.7%, 군유지가 11%, 법인 소유가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약 7.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석수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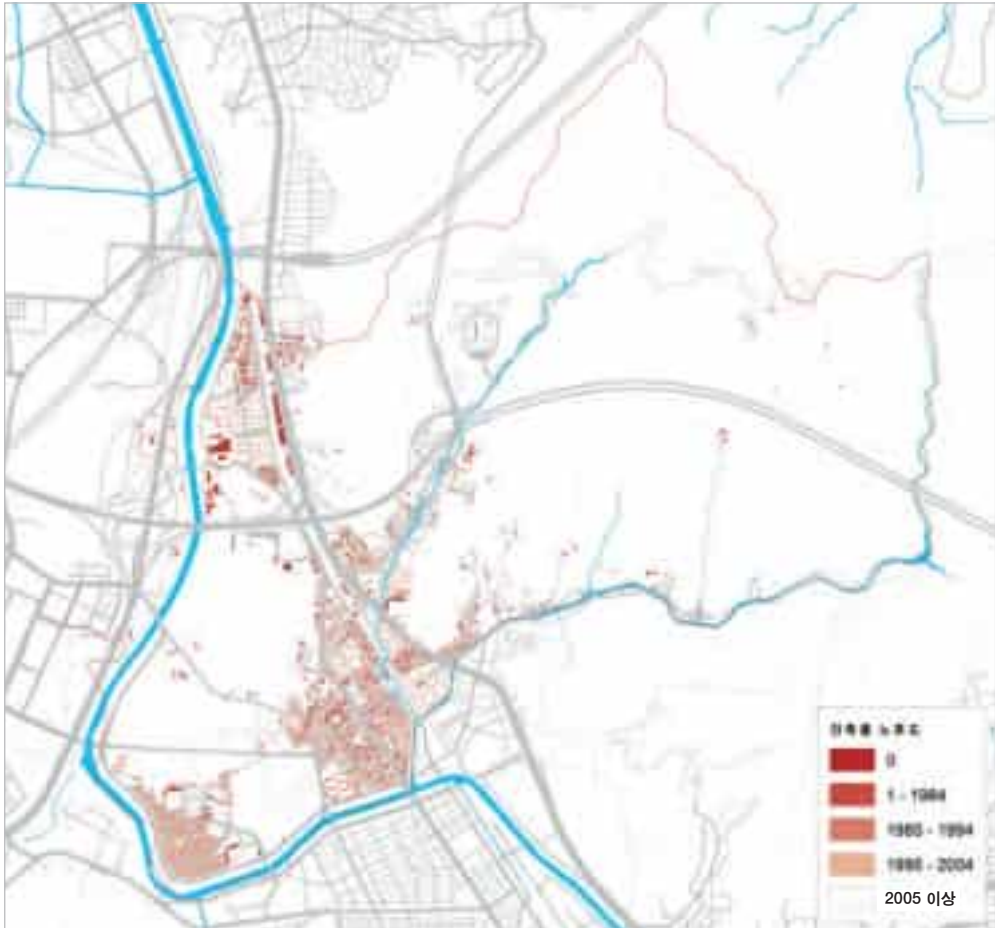
〈표 10〉 석수동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원)	면적(ha)	비율(%)
0~50,000	687.30	51.6
50,001~200,000	125.97	9.5
200,001~400,000	44.21	3.3
400,001~700,000	27.81	2.1
700,000 초과	447.08	33.6
합계	1,332.37	100.0

자료 : 「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석수동의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1㎡당 70만 원 이상인 토지가 33.6%로, 주로 석수역 인근의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한다. 1㎡당 40~70만 원 구간은 2.1%를 차지하며, 준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1㎡당 5~20만 원 구간은 9.5%로, 대부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녹지지역은 대부분 1㎡당 5만 원 이하로,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다.

3. 석수동의 건축물



석수동의 건축물 노후도

석수동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사용승인일이 1985년에서 1994년 사이인 건축물이 전체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승인일이 1984년 이전인 4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6.2%로 나타난다.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246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53.4%를 차지하여 석수동의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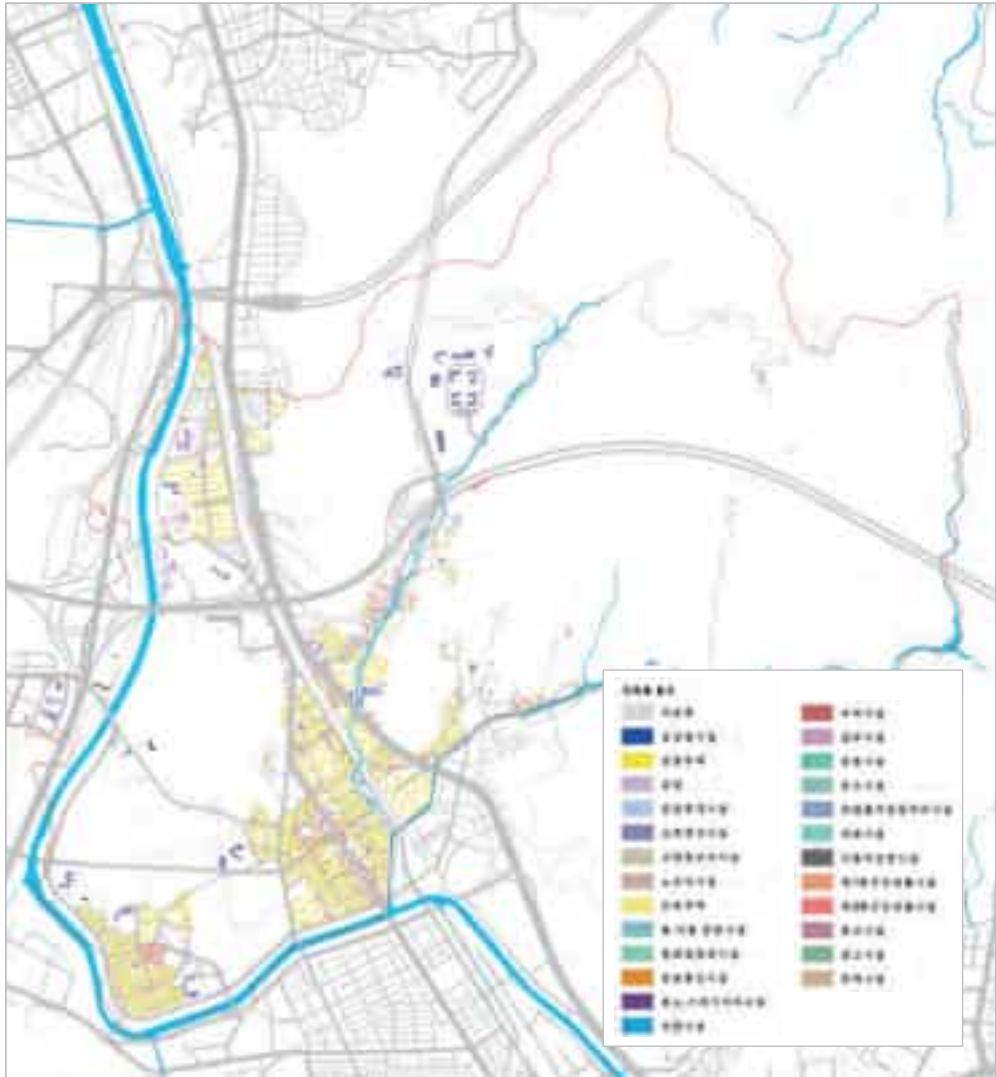


관악역 주변(상)과 석수역(하) 일대의 건축물 노후도

〈표 11〉 석수동의 건축물 노후도

사용승인일(년)	동수(동)	비율(%)	사용승인일(년)	동수(동)	비율(%)
-	494	21.2	1995~2004	331	14.2
1~1984	377	16.2	2005 이상	263	11.3
1985~1994	869	37.2	합계	2,33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교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석수동의 건축물 용도

석수동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차지한다. 특히 관악역과 석수역 그리고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주거 용도의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다. 안양예술공원과 박물관 시설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석수체육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주거지와 근린시설 사이에 분포해 있어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관악역 주변(상)과 석수역(하) 일대의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삼성산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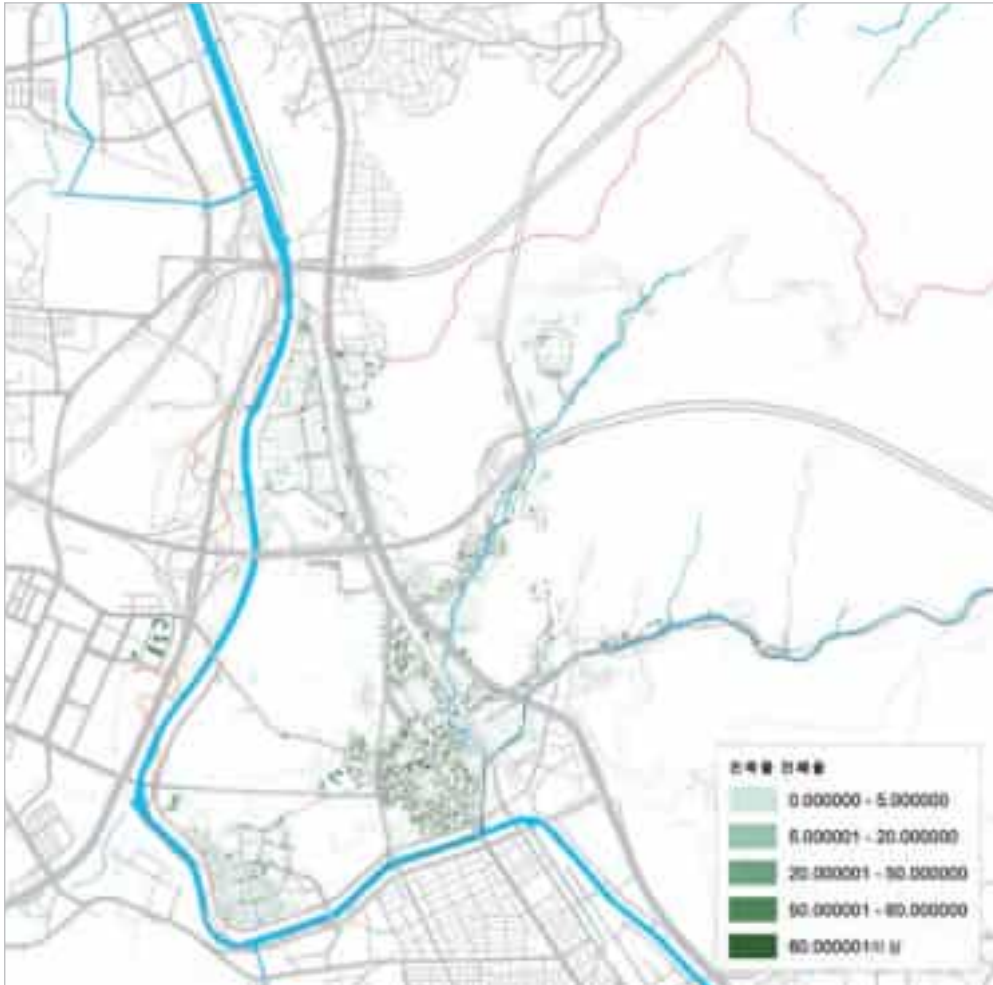
종교시설(석수동성당)



근린생활시설(석수도서관)



공동주택(석수1동 아파트)



석수동의 건축물 건폐율

석수동의 건축물 건폐율 현황을 보면, 전체 730개(무허가 및 부속건축물 등 건폐율 정보가 없는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면 2,334개) 건축물의 76.3%가 건폐율 50%~60%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나타났다. 건폐율이 높은 건축물은 주로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이 입지한 구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20% 사이의 건폐율을 가진 건축물은 3.7%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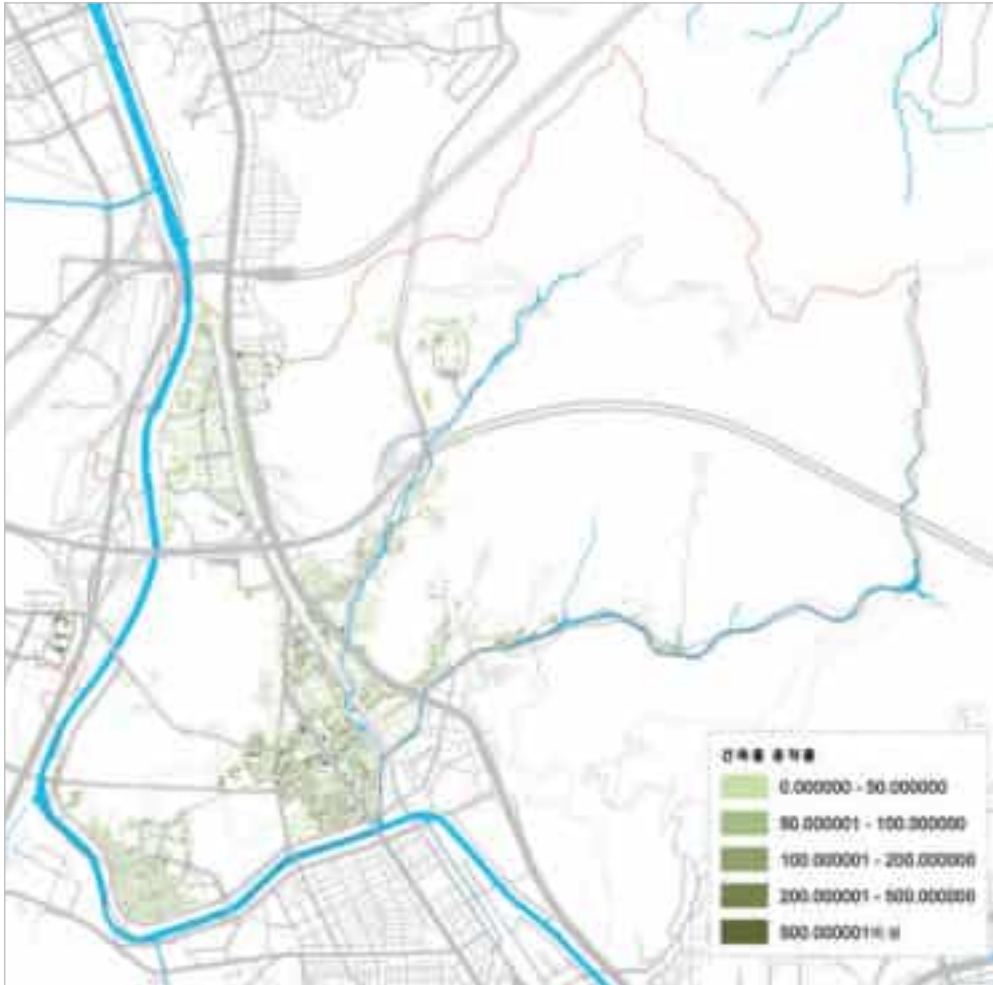


관악역 주변(상)과 석수역(하) 일대의 건축물 건폐율

〈표 12〉 석수동의 건축물 건폐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0~5	6	0.8	50~60	557	76.3
5~20	21	2.9	60 초과	20	2.7
20~50	126	17.3	합계	73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교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석수동의 건축물 용적률

석수동의 건축물 723개(무허가 및 부속건축물 등 용적률 정보가 없는 건축물을 포함하면 2,334개)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100~200%의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이 5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보이는 건축물은 20.3%로, 주로 상업지역과 고밀도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반면에 0~50%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은 7.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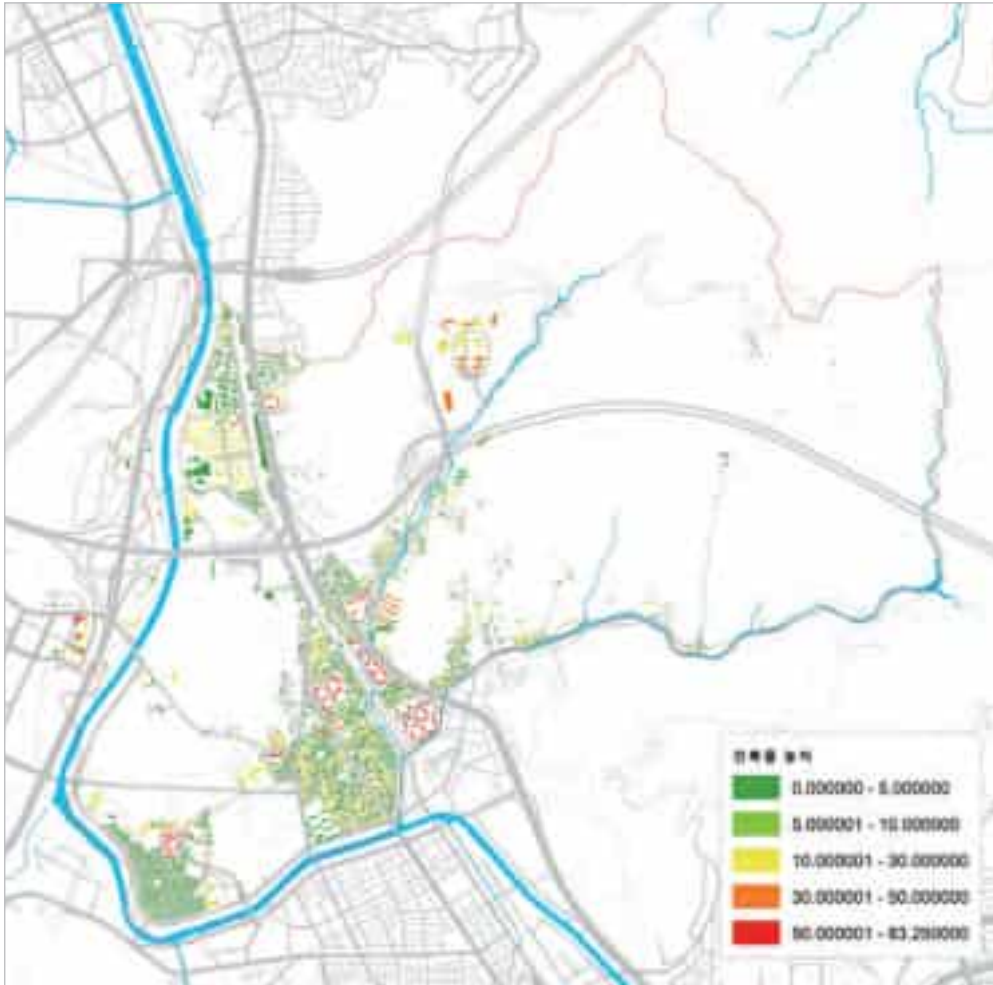
관악역 주변(상)과 석수역(하)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

〈표 13〉 석수동의 건축물 용적률

용적률(%)	동수(동)	비율(%)	용적률(%)	동수(동)	비율(%)
0~50	52	7.1	200 이상	148	20.3
50~100	116	15.9	합계	728	100.0
100~200	412	56.6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석수동의 건축물 높이

석수동의 건축물 810개(무허가 및 부속건축물 포함 시 2,334개)의 높이 현황을 보면, 10~30m 높이의 건축물이 전체의 56.8%로 가장 많으며, 주로 석수역과 안양예술공원 주변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해당한다. 5~10m 높이의 건축물은 31.5%를 차지하며, 50m 이상 고층 건축물도 4.3%로 나타났으며, 고층 건축물은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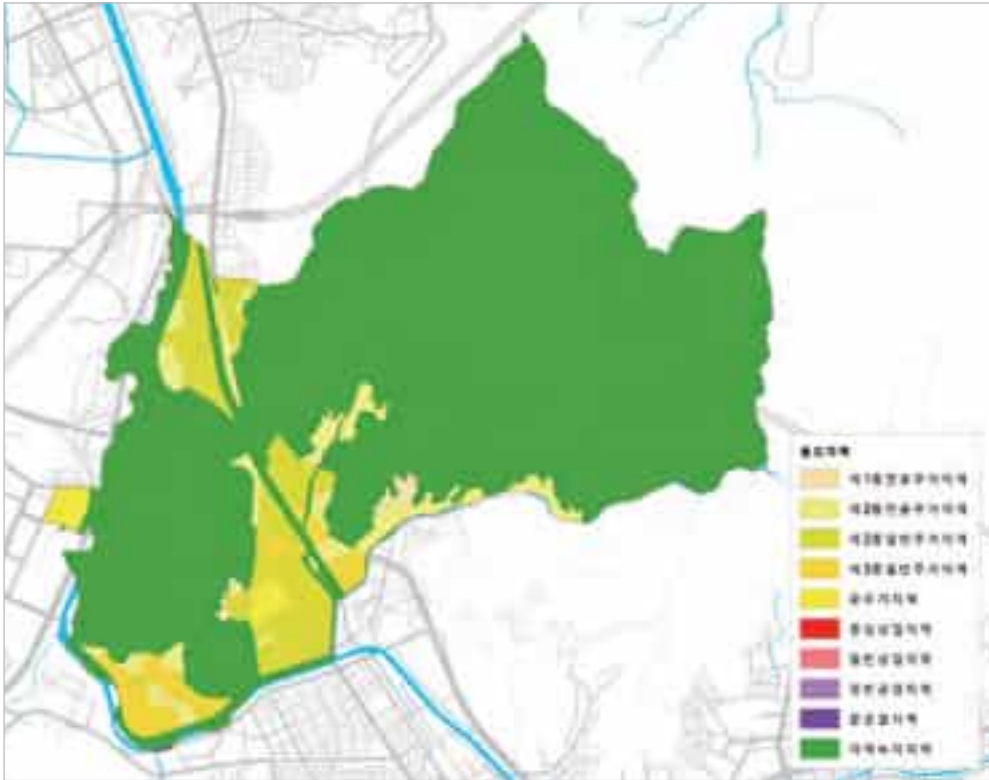
관악역 주변(상)과 석수역(하) 일대의 건축물 높이

〈표 14〉 석수동의 건축물 높이

높이(m)	동수(동)	비율(%)	높이(m)	동수(동)	비율(%)
0~5	53	6.5	30~50	7	0.9
5~10	255	31.5	50 이상	35	4.3
10~30	460	56.8	합계	81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교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4. 석수동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석수동의 용도지역

〈표 15〉 석수동의 용도지역

구분	면적(ha)	구성비(%)
합계	1,332.68	100.0
자연녹지지역	1,126.24	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60.12	4.5
제1종전용주거지역	5.00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88.09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36.95	2.8
준공업지역	0.25	0.0
준주거지역	16.03	1.2

자료 :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도시지역)」,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자연녹지지역

석수동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84.5%를 차지한다. 주거지역은 13.9%로 시가지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소규모로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0.2%와 1.2%를 차지하고 있다.

석수동이 입지하고 있는 석수·박달 생활권은 상위 계획에서 북쪽에 입지하고 있는 우수한 산림 및 공원녹지 환경을 활용하여 경관 조성 및 휴식·여가 기능 증진 등 환경 측면의 도시 조성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통에 따른 배후기능 도입, 첨단산업 전환을 통한 안양 북부 생활권 중심 기능의 강화, 그리고 주거용 대단위 공동주택 재개발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과 관련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안양예술공원 및 (구)도시자연공원 정비를 통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제공을 수행하는 지역으로도 계획되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표 18〉 상위계획에서의 석수동 개발구상

분류	현황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박달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부 관문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시설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 - 광명, 시흥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체계 강화 -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②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지속적 정비 - 철도 인접 주거지에 대한 소음 진도 저감 방안 마련 ③ 휴식 여가 기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 관악수목원 및 예술공원 활성화 - 산림과 공원녹지 연계를 통한 둘레길 조성 -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성 증진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가지 및 만안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정비 -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에 따른 배후기능의 도입 및 침탄산업 전환을 통한 안양 북부 생활권 중심 기능 강화 - 주거용지의 대단위 공동주택 재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 확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 안양예술공원 및 (구)도시자연공원 정비로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안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2동은 인구감소 및 노후 건축물 다수의 쇠퇴지역 • 석수2동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해제지역인 석수2동은 소규모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변 군부대 이전지와 도 지정문화재인 만안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
안양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생활경관권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 요소 도입을 통한 기성시가지 활성화 유도 - 북부자연경관권역 : 산림생태환경 보호 및 배후 산림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시가지 경관 창출 •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경관축 : 관악산, 삼성산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자연성 보호 - 수변 경관축 : 하천 변 경관위해요소 관리 및 수변 경관 특성화 유도 - 녹지경관축 : 한남정맥과 관악지맥의 자연환경 및 산지 조망 경관 보전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 경관구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형성구역, 심취 및 관련계획 반영

북부자연경관구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서부자연경관구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산림휴양경관 창출
 만안생활경관구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동안생활경관구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정

녹지경관축 : 주요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도로경관축 : 경관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개선

■ 경관거점(34)

철저한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자성 강화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광관 보전
 예술여가경관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자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02

전통과 변화 속에 이어지는 석수동의 마을 이야기

- 제1장 세월을 담은 골짜기 마을, 삼막골
- 제2장 삼성천과 안양천 물길을 안고 형성된 마을, 석수동과 총훈부
- 제3장 피난민의 정착지, 석수동 구룡마을
- 제4장 미군 날 미살로프의 사진으로 남은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 제5장 안양의 최북단 마을, 석수동 연현
- 제6장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석수력기아파트

제1장

세월을 담은 골짜기 마을, 삼막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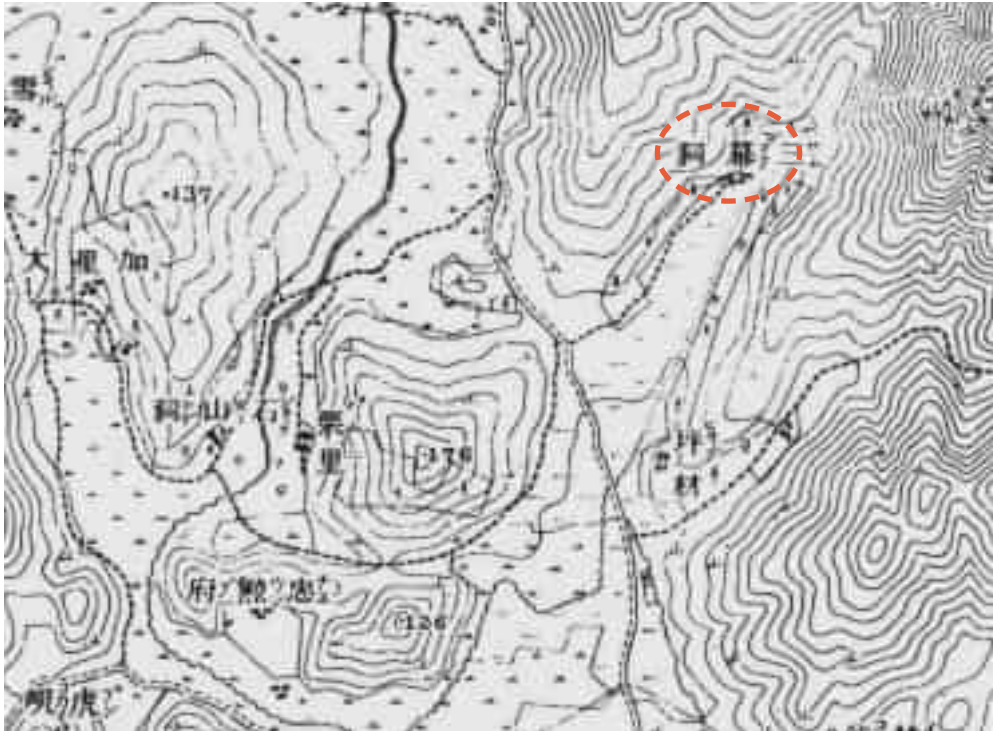
김기영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1. 전통과 외래의 신앙이 공존하는 삼막골

석수동 삼막골은 밀양 박씨, 진주 하씨, 청송 심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특히 진주 하씨가 대성을 이루어 ‘하씨촌(河氏村)’이라고 불렸다. 진주 하씨는 문효공(文孝公)의 후손인 하우청(河禱淸, 1561~1622)²의 묘를 이곳 뒷산에 쓴 후에 그의 후손들이 묘역 아래에서 처음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막골의 명칭은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의상대사·운필거사 등 세 성인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안양박물관 부근에 제1막을 짓고, 수도사 부근에 제2막을 짓고, 제3막은 석수1동에 지어 이를 삼막사로 칭했다고 한다. 위의 세 성인이 이 마을에 처음 살아 각자 1막씩을 짓고 살았다 하여 삼막골로 칭했다는 설도 있고, 옛 읍지나 지리지 등에는 고려 말엽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 지공·나옹·무학이 삼성산에서 수도했다는 연유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삼막골은 삼막천을 경계로 동쪽 지역(안양소년원 방향)을 ‘웃말’, 서쪽 지역을 ‘성재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는 하우청의 묘가 있다.³

삼막골은 안양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신교가 전래된 마을로, 그 역사적 배경은 한국 개신교의 초기 선교와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1880년대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경기도 일대로 선교를 확대하였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주요 선교사들은 각각 의료와 교육, 교회 설립을 통해 기반을 닦았고, 선교 단체 간의 지역 분할 협정인 ‘교계예양’에 따라 경기도, 특히 안양 지역은 미국 북장로회의 중점 선교지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00년 이전 안양에는 감리교계의 덕고개교회와 삼막골교회가 세워졌으며, 삼막골은 안양 개신교 전파의 중요한



산 아래에 형성된 삼막골(한말)

출발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삼막골은 지방 관리의 탐학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주권 박탈에 대해 농민운동을 주도한 하영홍(河泳弘, 1879-1915)이 태어난 곳이다. 또한, 1901년에는 하영홍이 선교 활동을 할 만큼 기독교가 일찍 전래 되기도 하였다.⁴ 그는 1900년에 개신교 신자가 되었으며 1901년 감리교회 지도자반에서 수학한 후, 같은 해에 삼막골교회를 설립하였다. 1901년 스웨어러(Wilbur C. Swearer)의 보고에 따르면 하영홍과 함께 활동한 이 지역 24명의 학습인은 서로 혈연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곧 하영홍의 진주 하씨 일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조선감리회 연회록 보고서』에 “안양에 하영홍이 무지내교회(시흥군 소래면 소재)의 김동현의 전도를 받아 1900년 12월 예수를 믿고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1901년 8월에 ‘삼막골교회’라는 회당을 건축하고 건립 예배를 드렸다.”고 기술되어 있다. 당시 삼막골교회의 위치는 석수동 134번지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⁶ 또한 1902년 5월 스웨어러 선교사는 『조선감리회 연회록』에 당시 삼막골교회의 전도 사업이 지도자인 하영홍의 지도력에 힘입어 놀랄 만큼 잘 진

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당회원 4명, 학습인 25명, 계 29명이 있고 5명은 세례를 받았으며, 주일학교는 교사가 5명, 학생이 35명, 여자매일학교에는 학생이 5명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여자매일학교라는 이름을 통해 당시 교회가 여성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과 남녀를 분리하여 예배를 보고 교육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⁷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이전이나 직후에 세워진 교회는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삼막골교회도 그렇게 없어졌다.⁸ 비록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영홍의 주도하에 삼막골 주민들이 오늘날 안양 지역 개신교 선교의 구심점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⁹ 지도자를 잃은 삼막골교회는 일제의 박해를 피해 교우들마저 뿔뿔이 흩어져버려, 몇몇 가정에 의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54년, 한경수 전도사가 삼막골에 기도처를 개척하였다. 이 기도처는 ‘신안양교회’로 이름을 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일 년 후 그 자리에 석수교회가 창립되어 맥이 이어졌다.¹⁰

삼막골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으니, 바로 1977년에 발생한 홍수이다. 당시 안양에는 460mm 폭우가 불과 5시간 사이에 내려 많은 사상자와 대규모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¹¹ 삼막골도 삼막천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수해를 입었다. 특히, 삼막골에서는 옷말에 있던 삼막골 쌍신제의 당목인 할머니나무(향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떠내려오는 일이 발생하였다. 삼막골에서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성재이에 있는 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와 옷말에 있는 할머니나무 앞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나무가 홍수로 뿌리가 뽑힌 것이다. 다행히 다리에 걸려 있는 것을 건져 삼막교 옆에 다시 심었지만, 끝내 할머니나무는 고사하였고 삼막골 주민들은 그 옆에 새로 은행나무를 심었다.

김병권 : 동네에 오래된, 500년 된 나무가 저쪽에 있고 이쪽 동네 있었어요. 1동에 하나 있고 2동에 하나 있고, 1동에는 할머니나무 이렇게 있었고 또 2동에 할아버지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떠내려간 거야. 어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향나무라 그런지 그때 당시 부러져서 떠내려갔는데 밤에 야광 불 켜놓은 거 같애. 그렇게 그냥 불이 비치더라고. 그걸 올라가기가 뭐해서 저희 집 앞에 모셨죠. 그때는 시유지인지 누구 땅인지 알아요? 그냥 파가지고선 다시 모시고 그냥 죽었어요. 이 아래는 괜찮았죠. (중략) 77년 때 수해 때 떠내려 와가지고 또 개울에 있는 거 옮겨 심었죠. 뿌리고 뭐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갔었는데, 동네 분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제를 드리고 하는 나문데.



고사한 할머니나무 옆에 다시 심은 은행나무(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삼막골에는 옷말과 성재이에 각각 마을 우물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쌍신제를 지낼 때 우물고사를 함께 지냈다. 현재 두 곳의 우물은 터만 남았거나(옷말), 사용하지 않고(성재이) 할머니나무 근처에 우물을 새로 만들어 놓고 이 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내고 있다.



1972년 삼막골의 삼막천 주변(안양시청 제공)



1972년 삼막골 주민들의 삼막천 다리 건설공사(안양시청 제공)

1979년 삼막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석수동 115번지 주택
(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산74번지 주택
(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80번지 주택
(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134번지 주택
(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43번지 삼막골 가갯집
(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산58번지 주택
(안양시청 제공)



2. 채석장이 삼막골에 가져온 변화

석수동에는 여러 곳에 채석장이 있었다. 경인교육대학교 앞쪽에 해당하는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건너편 낙원마을 뒤 산자락(예술공원118번길 21-27) 일대, 경인교육대학교 뒤쪽에 해당하는 석수동 산11-1번지 일대, 석수럭키아파트 뒤쪽(석수로 40) 일대 등으로 추정된다. 낙원마을 뒤편 산자락의 일부 바위에는 돌을 잘라낸 흔적이 있고 일부 바위는 돌을 잘라내기 위해 구멍을 뚫어 놓은 것들도 존재한다. 다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연석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여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 온돌 난방 구조의 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들 채석장에서 구들장을 떼어다가 사용하였다고 한다.

1993년 안양문화원이 실시한 안양 지역 민속조사 당시 채석장의 노동요가 발굴되었다. 채석장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기억을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봉수¹³는 안양에는 일제강점기 훨씬 전부터 석산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석산의 주인은 시흥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최봉수는 당시에 일당 300원을 받았다고 기억하였다. 임금 계산은 1자 파는데 45원씩이고 하루 18~20자를 3명이 파므로 평균 900원을 받아 세 명이 나누어 가졌

삼막골 채석장(하한용 제공)



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00원이었고 곡물이 귀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꽤 큰 벌이었다고 한다.

돌을 캐는 채석장(석산)의 작업은 석산에서 큰 돌을 떼어내는 작업과 떼어낸 돌을 용도에 따라 다듬는 작업으로 구분한다. 최수봉은 1950~1970년 중반에 석산에서 큰 돌을 캐내거나 떼어내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채석장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9~12명의 돌구멍 파는 사람과 돌을 운반하는 목도꾼 5~6명, 돌을 다듬는 13명 내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다.¹⁴

당시 채석장 노동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고된 노동을 견뎠는데, 이 노래는 나중에 '삼막골 채석장 노동요'로 조사되었다. 삼막골 채석장 노동요는 채석장 작업 중에 정을 때리며 부르는 노래로, 장단과 작업의 손놀림이 일치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 속에서 흥을 통해 올리는 작업의 능률과 멋스러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삼막골의 채석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였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여러 곳의 건설사가 6,345만 톤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채석장이 운영되는 동안 삼막골 주민들은 발파하는 소음과 먼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채석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채석장 부지에서 나온 오염수가 지하로 스며들

1980년대 삼막골 채석장의 작업 모습(경기도청 제공)





먼지에 휩싸인 삼막골 채석장 입구(하한용 제공)



삼막골 마을에서 보이는 채석장(1985년, 안양시청 제공)

고 마을의 하천인 삼막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년 동안 삼막천 및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고통을 호소하였다.¹⁶ 이후, 삼막천의 재정비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하상 정비공사와 제방 정비공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며 마을 사람들의 근심을 덜었다.¹⁷

채석장이 폐업한 후, 삼성산의 빼어난 경관 속에 둘러싸인 9만 7,000여 평의 나대지에 약 200m 높이의 절개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채 방치되어 왔다. 1998년의 삼막골은 “동네 특성상 녹지지역이므로, 인구의 급격한 변화도 없고 경제적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라고 기록되었다.¹⁸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채석장의 폐쇄는 삼막골에 극심한 적막함을 불러왔다. 이후

1999년에 시작한 제2경인고속국도 확장 공사가 삼막골에서 진행되었다. 삼막골의 주민과 안양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들목 공사로 삼막골 주거지 훼손과 산림 파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¹⁹ 마을 주민들의 염려와 달리 공사는 2001년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채석장 부지에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가 개교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학교가 들어오고, 삼막천 주변에 외식업소가 하나씩 문을 열면서 삼막골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다. 경수대로 삼막골 입구에서부터 삼막사 등산로 입구까지 이르는 지역에 보리밥, 막국수, 썸밥 등을 주메뉴로 하는 40여 개의 토속음식점이 위치한다. 안양시는 삼막마을 먹거리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2015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신청했고 같은 해에 선정되었다.²⁰ 삼막골 먹거리촌의 존재로 ‘삼막마을축제’도 여러 번 개최하였다.



삼막골 채석장 자리에 들어선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3. 삼막골 주민들의 삶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삼막골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영향력이 발생한 곳이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근현대사에는 개신교가, 시기와 관계없이 일부 주민들은 토속신앙을 계승하며 마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변에 계획된 공사는 주민들을 염려시켰지만, 대학과 관광시설의 설립은 삼막골을 나들이에 적합한 장소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문헌 기록은 특정 정보만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한계가 있다. 문헌 기록 외에 삼막골의 주민들이 기억하는 과거 마을의 모습은 어땠을까? 삼막골 주민들의 과거 모습과 생활 변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을에 거주하며 사정에 해박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필자가 삼막골을 방문한 날은 음력 10월 1일 쌍신제를 지내는 날이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침 할머니 나무 주위에서 서너 명의 마을 주민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만나 삼막골의 과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을 수 있었다.

경남 진주에서 6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난 허삼순은 삼막골로의 이주 전에는 대전과 광명 등에 거주하였고, 삼막골에는 20년 전에 들어왔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전국 각지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남편과 여생을 보내기 위해 삼막골에 왔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홀로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 모두 타지에서 거주하며 허삼순과 자주 왕래한다.

허삼순 : 20년 전에 철산동(광명) 아파트 살다가 도로가 시끄럽고 머리가 아파 눈을 못 뜨겠다고 하니 이사 가자 해서 오니까 이 집이더라고. 여기 오고 나니까 머리가 안 아파. 공기 좋고 산 가깝고, 이동네가 좋은 동네인가 봐. 올여름(2024년)에도 에어컨 한번 안 틀었어. 산이 가까워서 시원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동네가 작잖아. 사람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좋지.

허삼순은 삼막골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마을 환경이 본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여러 번 강조하며 마을의 장점 및 옛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삼순 : 옛날에는 (우물물)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먹고 이제 덮어 놨다고. 옛날에는 그 우물이 참 좋았는가 봐. 아주 깊어. 그 우물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그 우물로 다 먹었대. 지금은 이제 수돗물이

들어오니까 다 없어지지.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우물물)로 먹었대. 길러다가 밥도 해 먹고 그랬다 하는 소리는 들었어. 나는 해보지는 않았어.

허삼순은 삼막골에 살기 이전부터 이웃 주민을 통해 삼막골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다. 특히 1977년 안양 대홍수는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허삼순 : 나는 물난리 나고 나서 왔어. 물난리 왔을 때 나무가 저 위에 있는 게 떠내려와서, 그게 죽어서 지금 우리 고사 지내는 거 그 나무로, 큰 나무 하나 살아서고 그 옆에다가 소나무 붙여놨잖아.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오래됐다고 해도 그 후에 몰라.

올해(2024년) 90세인 허삼순은 삼막골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다. 허삼순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두 명 중 한 명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주 왕래하던 이웃의 발길이 뜸해 연락했다가 임종 소식을 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웃은 대부분 고령층이 되었다. 아이가 많지 않은 마을이기 때문에, 삼막경로당 건물 1층에 들어온 어린이집은 큰 기쁨이 된다.

허삼순 : 가끔 여기 놀러 올라와요. 애들 보면 참 예쁘죠. 지금 애들 보기가 힘들어. 그대 밑에서 올라오면 참 예뻐. 올라오면 절하고 간다고. 다 많아서 못 줘. 만 원을 주고 또 옆에 우리 모임에서도 2만원 해. 그러가 가 가서 맛있는 거 사 가라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삼막골이 아니라 주로 이웃 동네 아파트에 거주한다. 어린이집이 위치하지만, 삼막골의 노령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아이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삼막골의 현재 모습이다. 적은 마을 인구는 지난 세월 삼막골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삼막골을 지키며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허삼순에 따르면, 현재 삼막골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은 삼막슈퍼의 사장인 민병찬이다. 마을 토박이인 민병찬은 허삼순보다 마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특히, 삼막슈퍼는 삼막골의 유일한 잡화점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전까지 삼막골 주민들은 생필품이 필요하면 안양중앙시장을 비롯하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안양 시내로 나가야 했지만, 삼막슈퍼의 개업으로 수고를 덜게 되었다.

50년 가까이 슈퍼를 운영하며 겪은 민병찬의 증언과 그의 삶은 삼막골이 지나온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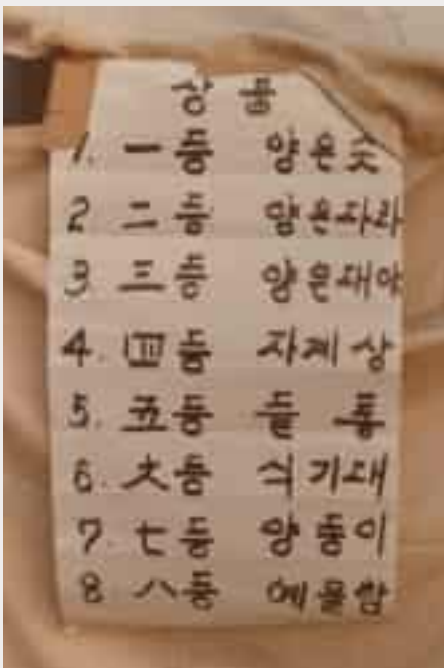
삼막골 척사대회(1980년대, 하한용 제공)



삼막골 척사대회(1980년대, 하한용 제공)



삼막골 척사대회 시상(1980년대, 하한용 제공)



삼막골 척사대회 상품(1980년대, 하한용 제공)



삼막골 척사대회에 참가한 주민들(1980년대, 하한용 제공)

삼막골 진주 하씨 집안 장례식



하씨 집안 며느리 문화류씨의 장례



상가 앞의 모습



발인(發靱)



운상(運喪)



상여 해체



운구(運柩)



발인제



상여에 노잣돈과 상여꾼 수고비 매달기



만장(輓章)



상여소리를 하는 선소리꾼과 상여꾼들



하관(下棺)



삼막골 진주 하씨 묘역

일을 함께 돌아보게 한다.

민병찬 : 슈퍼는 먼저(이전) 집에 있을 때부터 했어. (슈퍼 앞) 나무는 이거 내가 산에서 캐다가 심었는데 이만한 거. 그러가지고 한 53년 정도 된, 조그마한 거 가느다란 것을 캐다가 심어놓은 게 이렇게 컸어요. 쪽 나무 여러 가지를 심어봤는데 이거 하나만 남고 다른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나무가 큰데 그늘이 졌으니까. 나무가 없으면 여기 뭐 천막 같은 거 해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나무 밑에가 시원하지.

삼막슈퍼 앞 나무와 평상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기억의 공간이다. 작은 모종은 아릅드리나무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나무 아래의 평상은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삼막슈퍼 앞 평상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며 지낸다.

민병찬 : 어찌다가 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노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은 열어야 그 사람들이 '아 그 집에 가면 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면담자 : 그래도 요즘에는 편의점도 많고 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민병찬 : 안 돼 안 돼. 그건 뭐 내 집이니까. 운동 삼아 그냥 하는 거야. 가격을 따지고 인건비 따지면은 못해.

삼막슈퍼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문을 열어, 늦은 밤까지 운영한다. 나무가 자란 만큼이나 민병찬 또한 나이를 먹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짧은 세월을 슈퍼와 함께한 민병찬은 이제 슈퍼 운영을 버겁게 느끼기도 한다.

민병찬 : 아니 내가 그만두자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 삼아 해야 하기 때문에 남고 안 남고 간에 그걸 따지고, 운동 삼아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적자야. 적자. 이게 몇이 하나 하면 딸·마누라·나·아들 이렇게 해서 넷이 해요. 돌아가면서 넷이 하는데 그거 뭐 인건비 따지면 그거 뭐 되겠어. 그러니까 운동 삼아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절대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못 해요.

삼막슈퍼에는 오늘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보기 힘든 지폐와 동전을 따로 모아



2008년 삼막슈퍼(안양시청 제공)

돈 통이 여러 개 있다. 주판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운영된 오래된 슈퍼에 남은 흔적이다. 민병찬은 슈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삼막골의 동네 주민이자 오랜 이웃이기도 하다. 긴 세월을 함께한 이웃에게 정을 이유로 제공한 외상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았다.

민병찬 : 옛날에는 줄판(주판) 했지만 지금은 그 줄판은 없잖아요. 계산기를,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서 장사하고 그랬어. 그게 요즘에 컴퓨터를 쓰고 이러기만 하면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줄판 그거 하나. 참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그냥 뭐 조금 사니까 뭐 주판 할 것도 없죠. 뭐 계산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면담자 : 그러면 돈 없다고 외상 장부도 만드셨어요?

민병찬 : 외상 모여서 떼는 게 얼마나 많았어. 예전에는 한 달이 이래도 안 갚아. 가보면 나중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몇 달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러고. 맨날 가면 돈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또 오고 또 오고 가다가다 나중에 포기하는 거지.

면담자 : 그냥 그래도 목소리 안 높이셨어요?

민병찬 : 아니 싫은 소리는 했지만 뭐 어떻게 그냥 말 말고 마는 거지 뭐. 옛날에는 뭐 술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 요즘에는 외상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외상으로 장사해. 안 좋으면 떼이고 그러는 거지 뭐. 몇 번 가서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오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라고 그러면 그거 맨날 그것만 받으러 쫓아댕겨요. 그러다 끝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아유 옛날 일인데 그래서 다 잊어먹고. 다 어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이 삼막골에 들어와 살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 개발이 확대되던 시기에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마을 떠났고, 이제는 오랜 이웃 주민이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면담자 : 개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병찬 : 글썄요 뽕뽕이 다 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 거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땅값이 억을 부르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죄 팔고 그냥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중략)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다 보니, 민병찬 본인도 흐른 세월 속 자신의 적지 않은 나이를 실감하였다. 예전에는 마을 뒷산에 자주 다니면서 슈퍼 앞에 나무도 심었지만, 요즘은

근력도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민병찬은 자신의 남은 힘을 슈퍼 운영에 쏟고 있었다.

오늘날 마을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온가족이 생활하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2000년대부터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이 설립한 여러 대형마트와 201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생필품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병찬의 슈퍼는 많은 사람에게 일상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는 곳이다. 부지런한 새벽 개장이 민병찬의 일과인 것과 같이 민병찬의 이웃들은 삼막슈퍼를 일상적으로 방문한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이웃이 있다는 점은 그의 아름드리나무만큼이나 든든하다. 그렇게 민병찬과 그의 슈퍼는 삼막골의 중요한 ‘기억’이 된다.

삼막골의 변화 과정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종교가 삼막골을 중심으로 부흥하고, 토속신앙의 전통도 마을 주민들이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문헌을 통해 살펴본 과거의 삼막골과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는 삼막골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에 협조한 마을 주민들 모두 나이가 적지 않았으며, 그들의 증언은 모두 마을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있는 그대로 증명한다.

4. 멈추지 않을 삼막골의 역사와 전통

지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 사학과와 박찬승 명예교수는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미시적인 지역사와 마을사 연구를 기반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마을지 편찬부터 시작해서 지역사 자료들을 축적해 나갈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역사는 문헌으로 된 사료가 별로 없어 연구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전남 지역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점점 농촌이 공동화되고 피폐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까웠다. 수백 년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마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다.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²¹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막골은 잠깐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이나, 삼막골



삼막천 주변 풍경(이정범 제공)

의 주민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필자가 삼막골을 방문했던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혹은 더 큰 도시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막골 같은 작은 마을은 노령화가 되어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산업화 이전 수백 년간 삶의 소중한 터전이었던 마을이, 이제는 그 주된 역할을 도시에 넘겨준 뒤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수도권 안양시에서도 사람들은 대체로 삼막골 같은 작은 마을보다 평촌 같은 큰 도시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허삼순처럼 건강을 이유로 도시에서 삼막골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대도시 수준의 인프라가 거주 의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역사적으로 삼막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마을이다. 안양 지역에 일찌감치 설립되었던 삼막골교회의 교인들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일제강점기에 폐쇄되었던 교회는 해방 이후에 맥을 다시 이었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위하던 할머니나무가 수해로 인해 고사하였을 때도 고사목 옆에 새 나무를 심어서 짙신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채석장의 폐쇄와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 안전에 위기가 있었을 때도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감소하는 인구와 노령화를 우려하지만, 삼막골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을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기찬 새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보자

허삼순 : 1934년생, 여, 경남 진주 출신, 석수1동 삼막골 거주.

민병찬 : 남, 삼막골 토박이, 삼막슈퍼 운영.

註

- 1 세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하연(河演)의 시호이다.
- 2 호는 낙선재이며 익금부도사를 역임했다.
- 3 안양시, 『안양시지』, 1992, 709~710쪽.
- 4 안양시, 『안양시지』, 1992, 709~710쪽.
- 5 김혜원,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 연구」, 『인문논총』 81(3), 2024, 34쪽.
- 6 「경기도의기독교 - 안양지방의 기독교」, 『중부일보』, 2007년 9월 30일.
- 7 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서비스(<https://his.kmc.or.kr/person-dictionaries/43369?page=14>),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정보자료실, 감리교 인물 DB, 하영홍(河泳弘, 1879~1915).
- 8 「경기도의기독교 - 안양지방의 기독교」, 『중부일보』, 2007년 9월 30일.
- 9 김혜원,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 연구」, 『인문논총』 81(3), 2024, 35쪽.
- 10 감리교 인물 DB, 하영홍(河泳弘, 1879~1915). 감리교회 역사자료 검색서비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정보자료실. <https://his.kmc.or.kr/person-dictionaries/43369?page=14>
- 11 「安養地方(안양지방)의 폭우에 대한 見解(견해)-반성」, 『조선일보』, 1977년 7월 20일.
- 12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원, 「석수동 채석노동요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안양시, 2019, 10~12쪽.
- 13 최봉수, 남, 1922년생, 황해도 연백 출신, 1950년대 초반 안양에 정착한 후 석수동 채석장에서 일을 배움.
- 14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원, 「석수동 채석노동요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안양시, 2019, 56~57쪽.
- 15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267쪽.
- 16 「안양 삼막골 '중금속' 오염 심각 '삼막천이 죽어가고 있다」, 『안양광역신문』, 2006년 9월 22일.
- 17 「안양시, 안양천 지류인 삼막천 제방 정비공사 완료」, 『경인일보』, 2019년 9월 18일.
- 18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263쪽.
- 19 「안양, 석수동 삼막골이 파괴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0년 10월 11일.
- 20 「안양 삼막마을 먹거리촌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 『뉴스스』, 2015년 4월 24일.
- 21 「작가 한강이 참고한 4.3~5.18 기록집에 숨겨진 힘」, 『오마이뉴스』, 2024년 10월 18일.

제2장

삼성천과 안양천 물길을 안고 형성된 마을, 석수동과 충훈부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법정동으로서 석수동은 행정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으로 구성된다. 도시화 이전, 석수동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부터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까지 여러 자연마을이 있었다. 석수1동의 삼막골·석수동·구룡마을, 석수2동의 화창(꽃챙이)·연현(鸞峴)·신촌(新村)·별터, 충훈동의 충훈부 등이다.

이 가운데 석수동과 충훈부 마을은 각각 창녕 조씨와 광주 이씨 등이 대를 이어 거주해 온 곳이다. 이 두 곳은 조선시대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오랜 역사를 지니며, 근현대 시기 안양의 여러 다양한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곳으로서 주목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안양은 공도(工都)로서 부상했는데, 석수동의 본동(本洞)이라 할 수 있는 석수1동에는 조선전직 안양공장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악산 아래 계곡 지형을 활용한 안양플장은 경부선 철도를 이용했을 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수도권권의 이름난 유원지로 알려졌다. 안양플장 일대는 이후 안양유원지로 바뀌며 1977년 안양 대흥수 이전까지 국민관광지로 각광받았다. 한편, 6·25전쟁으로 조선전직주식회사 공장이 피해를 입으며 그 자리에는 미군 부대가 자리 잡았다. 석수동에 자리한 미8군 83병기대대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군을 상대로 한 다양한 생업 활동과 수입원을 만들어내며 석수동 변화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석수동에는 1970년대 지금의 경수대로가 건설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석수동의 위쪽과 아래쪽이 나뉘는 공간적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경수대로의 위쪽은 일부 주거지 외에 안양예술공원과 김중업 박물관 등 문화 공간과 여가 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었다. 또한, 경부선 철도에 인접한 아래쪽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며 일부 상가가 혼합된 성격을 띤다.

충훈부 앞의 안양천 변은 꽃메산 아래 자리 잡은 광주 이씨의 집성촌이 있었다. 안양



1914년 지형도에 보이는 충훈부와 석수동

천 변은 정비되기 이전까지 다수의 밤나무가 있었으며, 충훈부는 일제강점기에 채소 재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충훈부 마을 앞으로는 모래흙이 퇴적되어 형성된 넓은 농지가 있었는데, 비옥한 농토와 안양천의 물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채소 재배에 적합했고, 1970년대에는 젓소 목장도 여러 곳 있었다. 충훈부의 젓소 목장은 원주민이 운영한 사례도 있었지만, 주로 외지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충훈부 마을은 1980년대 이후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981년 6월 11일에 건설부 고시 제202호로, 면적 12만 5,000평이 안양 석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전통적인 마을이 해체되고 도시민들의 주거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이 지역은 현재와 같이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독특한 경관을 가진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현재 이 지역은 2020년 3월 9일에 석수3동 768-6번지 일대 15만 7,216㎡, 토지 479필지, 건축 452동이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상태로, 대규모의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다.



석수동의 마을

이 글에서는 석수동에서 오랜 연원을 가진 석수동과 충훈부 마을의 시공간적 변화와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삼성천 물길 입구에 자리한 마을, 석수동

1) '석수본동'으로 불린 마을

자연마을 석수동 마을 이름은 행정구역으로서 석수동의 이름이 되었다. 석수1동 원주민들은 자연마을 석수동을 '석수본동'이라 호칭한다. 석수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1966년 석수동 마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경수대로 개통 전의 모습으로, 정렬한 막사가 보이는 곳이 미군 부대이다.

이후 시흥군 동면 안양리에 속하였다가, 1963년에 시흥군 안양읍으로 편입되면서 신안양리가 되었다.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신안양리는 석수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석수동에는 창녕 조씨를 비롯해 광주 이씨, 문화 유씨 등의 성씨들이 거주하였다. 이 가운데 현재 안양박물관이 주변에 합천군수 조난서(曹鸞瑞, 1568~1634)가 약 500년 전 입향하여 터 잡은 이래, 창녕 조씨 일가가 세거하였다. 대대로 석수동에 자리 잡아 살았던 창녕 조씨로 인해 유원지 입구의 석수동은 일명 ‘유원지 조씨네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¹

안양예술공원 초입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가 남아 있어, 이 일대가 중초사(中初寺) 터로 알려져 있다. 이 일대는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안양사의 터로 추정되며, 발굴조사도 진행하였다. 중초사지로 추정하는 석수동 212번지 일대에는 1957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주식회사 공장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현재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석수동 마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산업도로가 석수동 마을을 동서로 나누며 지난다.

지금의 안양예술공원이자 이전의 안양유원지, 더 이전에는 조씨네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은 1970년대 초반에 산업도로가 개통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양예술공원 입구 조씨네 마을은 '윗말'이라 하고, 석수1동 경로당(옛 석수1동사무소) 일대를 '아랫말'이라 불렀다. 원주민인 유정렬 석수1동 노인회장에 의하면, 윗말과 아랫말은 본래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경수대로가 석수동을 관통하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경수대로가 개통될 때 석수동을 통과하긴 했지만, 집이 헐린 것은 몇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이던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유정렬 : 그때는 한 동네였어. 이 도로가 이제 절단되기 전에는 석수동으로 했는데, (중략) 여기가 이 산업도로 이 구간은 집이 몇 채 나갔냐면, 하나, 둘, 한 두세 채밖에 안 나갔어.

석수동은 삼성천을 경계로 안양2동과 마주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삼성천을 막아 수영



석수동 옛 철길 건널목 근처에 그려 놓은 벽화

장을 조성한 이후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이 피서객이 찾아왔다. 안양유원지는 1969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여름이면 안양 포도와 함께 피서지로 인기가 있었다. 자연마을 석수동은 안양유원지로 가는 길목이었다.

유정령 : 버스가 옛날에 여기서 서면은 이 도로가 유원지, 여름에 여기가 버스가 와서 서면 여기가 짝 차서 올라갔어. 도로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철길 건너서 다리 바로 다리 끝나자마자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던 안양유원지는 1977년 안양 대홍수로 경관이 훼손되면서 유원지로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관광객의 발길이 뜸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삼성천 주변 석수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쳐 2005년에 안양예술공원으로 바뀌었고 다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2) 미군 부대 동네

석수동 마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6·25전쟁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군 부대가 주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수동의 원주민들에 따르면, 석수동이 경제적으로 크게 활력을 보였던 시기가 미군 부대의 주둔 시기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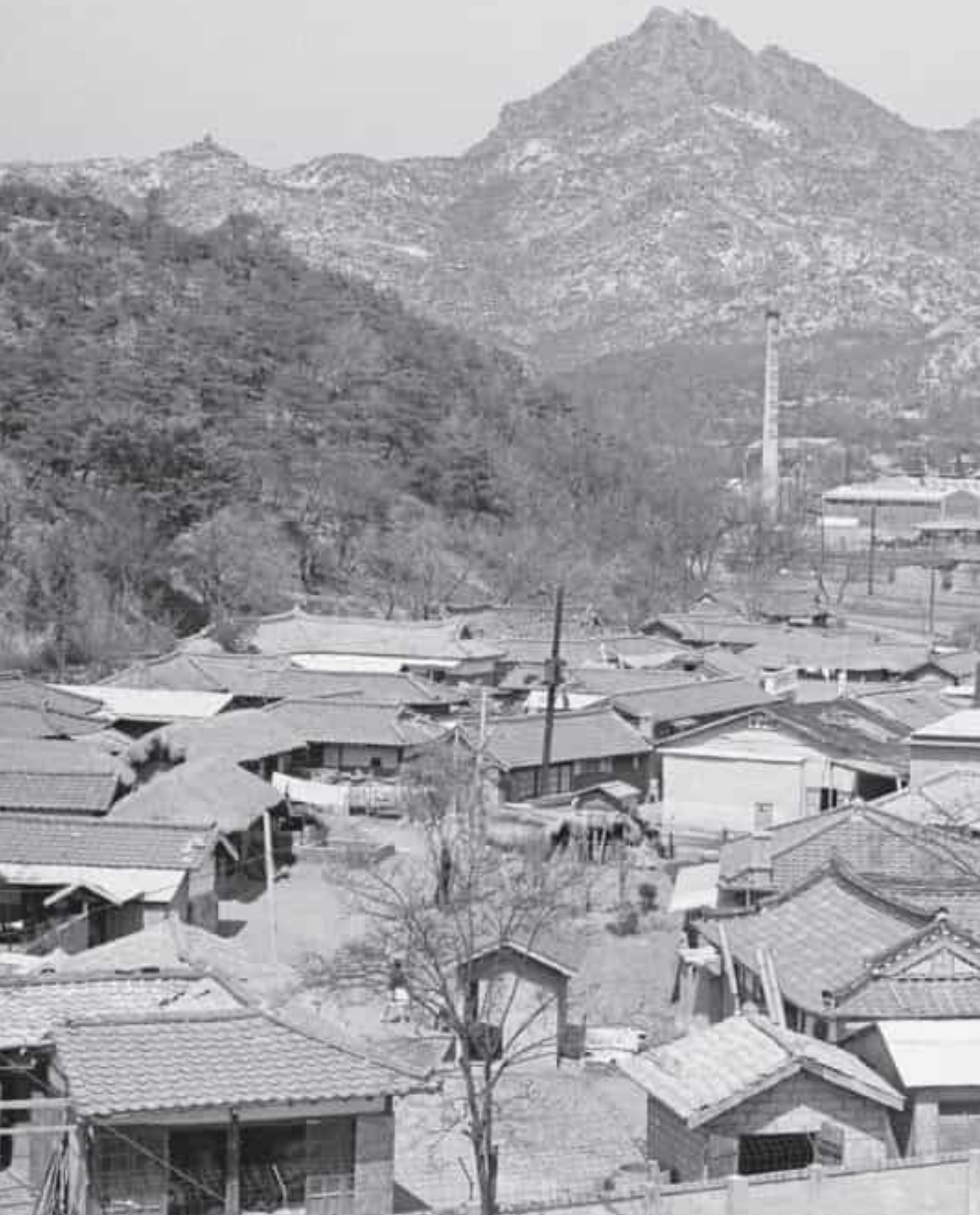
유정렬 : 미군들은 달러로 봉급을 받아서 여기서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환전은 다, 이런 데 가게들이 다 저 미국인 상대로 견장 가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여기 짝 있었지. 이제 그런 데서 환전해 주고 또 이제 개인이 이제 또 뭐 환전해 주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는 여기는 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네. (중략) 여기가 안양 일대에서 50년대 60년대 제일 변화가였었어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 미군들이 여기 이제 미군 부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변화가였고 그랬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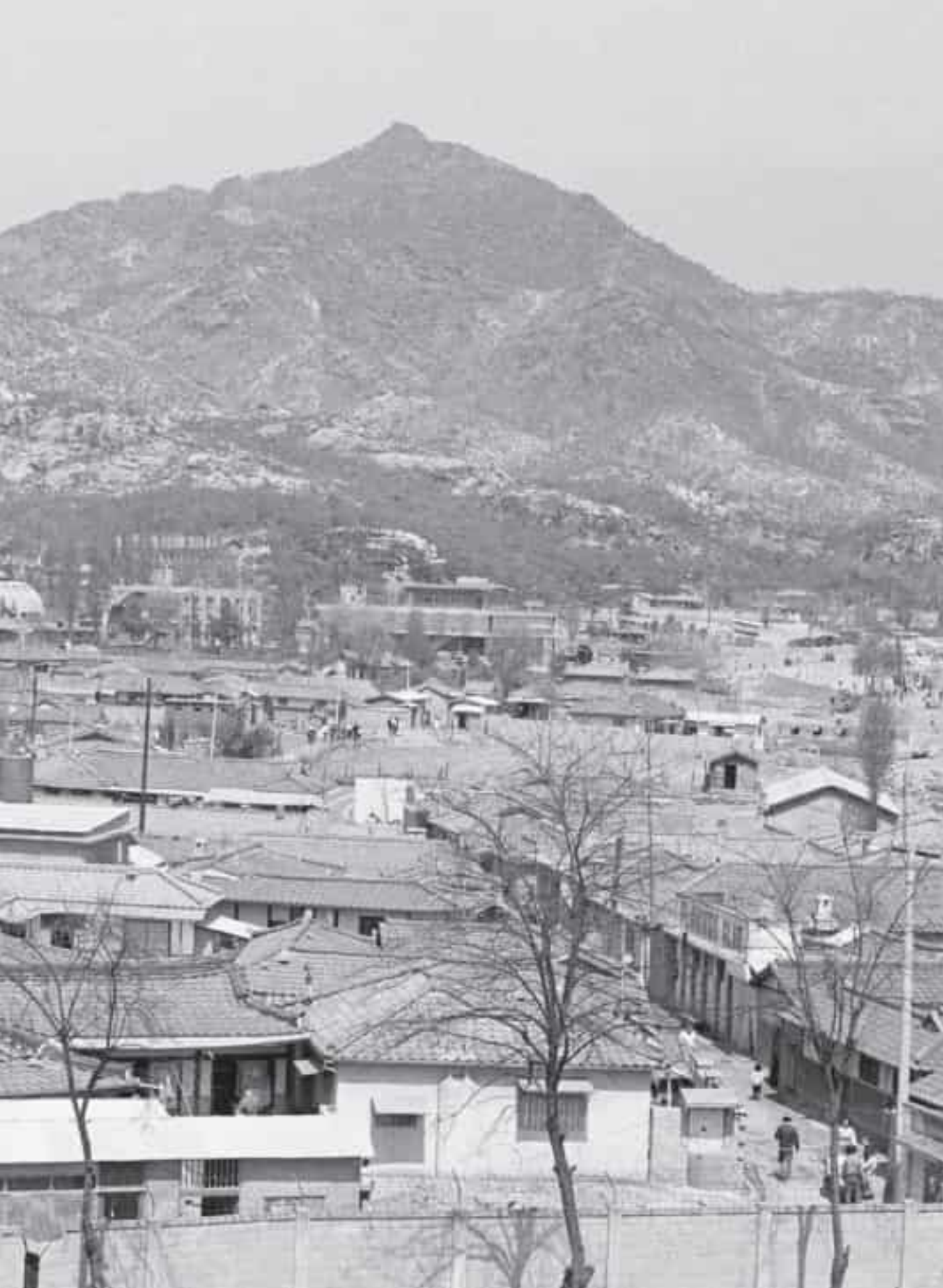
석수동 원주민들에 의하면,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속칭 양색시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의 수가 약 3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석수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업은 주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클럽이나 소규모 가게 등이 있었다.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들의 생활공간은 대부분 방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미군들은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석수동 주민들은 식구들이 많더라도 가족이 방 하나에서 거주하면서까지 가능하면 나머지 공간을 이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한다. 외양간이나 헛간 등도 수리하여 모두 방으로 만들었고, 방 10개를 임대하는 집도 있었다.

유정렬 : 그 당시에는 이제 저쪽(윗말)도 같은 동네인데 저기는 이제, 미군들이 요 주변에서 활동, 부대가 여기(아랫말)였거든. 저 위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지니까 거기까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이 그 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주로 여기에. (중략) 원주민들은 깎해야 임대 그거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색시들 상대로 밥이나, 몇 명씩, 한 세 명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빨래해 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미군들 빨래 같은 거 해 주고 그런 정도였어요. 여기 원주민들은.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른 데서 눈이 뜨여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뭐 하다못해 보따리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1960년대 후반 미군 부대에서 바라본 석수동 마을 풍경(국가기록원 제공)
인양유원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석수동 마을에 들어선 미군 부대(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미군 부대 앞 석수동 마을 풍경(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미군들과 동거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공간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연탄 아궁이가 달린 작은 부엌 공간과 두세 평 규모의 작은 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식사 준비나 세탁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석수동 원주민 중에는 이들을 상대로 세탁과 밥을 해 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군 부대로부터 나오는 미제 물품을 증개하여 이문을 남기고 판매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은 흔히 ‘양색시’로 불렸다. 당시 국가적으로는 매춘을 금지했으나, 미군들이 출입 가능한 적선지구를 정해두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성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은 성병 진료소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했다. 석수동 미군 부대 앞에 있었던 성병 진료소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운영되었던 시설이었다.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석수동 부대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점포들이 있었다. 특히, 여러 개의 클럽이 있었다. 당시 미군을 상대로 했던 클럽으로는 마이웨이, 게이트웨이, 피코크, 후라밍고, 세븐클럽 등이 있었다. 석수동의 클럽은 대체로 주방이 있고 스탠드바와 테이블, 플로어를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 중 홀 근무 중에 미군과 사귀어 동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972년 석수동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미군을 대상으로 하던 클럽들은 부대를 따라 이전하였다. 당시 클럽들은 외국인들만을 상대로 한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미군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했다. 클럽들이 미군을 따라 이전하면서 웨이트리스 및 미군과 동거하던 여성들도 함께 석수동을 빠져나가게 되었다.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은 몇 년간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1977년에 1,800세대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18개 동의 주공아파트 가운데 2개 동의 1977년 안양대홍수로 이재민들에게 분양되었다고 한다. 대단지의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석수동에는 주공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 클럽으로 이용되던 건물은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

유정렬 : 이제 조그마한 공장같이 가내공업으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해서 구두 공장이 와서 여기서 좀 했단다가, 그런 가내공업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마이클럽 자리도 무슨 제약회사 같은 게 왔었어. 미군 철수하고 뭐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이지. (중략) 이제 주거 형태로 주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제 오는 거야.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 1 미군에게 방을 임대하던 석수동 주택(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 2 미군이 한국 여성과 거주하던 방(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 3 미군이 거주하는 방에서 볼 수 있던 미제 물품들(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 4 영외생활하는 미군의 식사 준비를 하는 여성(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4



1968년 석수동 미군 부대 근처 클럽과 양복점의 영어 간판 (국가기록원 제공)



석수동 철길 건널목 입구에 있던 성혜의원 (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주공아파트 (1977년, 이정범 제공)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뜨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구 건물을 여기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도로변은 상가로 개조를 하고 살림집들을 다 이렇게 벽을 허 가지고 상가화시켜서 상가로 개조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주공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권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군 부대가 자리에 대단지의 석수주공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으로 주택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자연마을 석수동은 10차선의 경수대로와 1호선 관악역을 낀 주거지이자 안양예술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되었다. 석수주공아파트는 2002년에 석수e편한세상아파트로 재건축되었다.

3) 석수동에 이어지는 마을 전통

석수동에는 할아버지 산신제가 전해져 오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산제당은 무량사 뒤편의 산 중턱에 있는데, 6~7년 전에 산제당의 나무가 꺾이고 제단이 피해를 입으면서 무량사 사찰 건물의 바로 뒤편에 산신제 터를 마련하였다. 산제당의 아래편으로는 현 석수동 218-9번지 빌라 앞에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수령이 40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산신제는 할아버지 산신제와 할머니 산신제를 묶어 ‘쌍산신제’라 부르는 이가 많지만, 예전에는 대개 ‘산고사’라고 불렀다. 이 산신제는 삼성천을 사이에 둔 안양2동의 할머니 산신과 석수1동의 할아버지신을 부부 신으로 인식하고 각각의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주목되어 오는 사례이다. 원주민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 시기까지는 산고사를 지낼 때 집집마다 쌀이나 돈 등 제비를 거두어 산고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지만, 현재는 석수동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크게 줄어들어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안양문화원의 전승 지원금을 바탕으로 산신제당 근처의 사찰과 일부 주민들이 참여해 지속되고 있어, 마을 공동제사의 전승 양상이 도시화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4년 석수동 마을 전경(이정범 제공)



2. 농경지에서 택지로 변한 충훈부

1) 발농사가 발달했던 충훈부

충훈부는 석수동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춘 마을이었다. 석수1·2동과는 뒷산(와룡산, 꽃메산)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1979년 석수동이 두 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할 때 석수2동에 속하였고, 1990년 석수2동이 분동할 때 석수3동에 속하였다. 2024년에 충훈동으로 개칭되었다.

충훈부라고 하는 이름은, 조선시대 국가에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충훈부의 관할 토지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토지 소유 관청의 이름을 따라서 마을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광주 이씨로, 택지개발이 있기 전 1982년 무렵에는 60여 호가 있었는데 그중 광주 이씨가 33호로 대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안동 권씨와 공씨도 소수이긴 하지만 오래 거주하였다고 한다. 충훈부 마을에는 윗말과 아랫말, 별말 등의 지명이 있었다. 윗말은 현재 충훈부행정복지센터 일대이고, 안양중학교가 자리 잡은 곳이 아랫말이었다. 충훈부시장이 있는 곳은 별말에 해당한다. 충훈부 마을은 안양 시내와는 거리가 멀어서 안양천 건너의 광명시 일직동이나 안양시 박달동과 주로 교류를 하며 살았다.

충훈부 마을은 풍수지리상 조리혈로 알려진 곳이다. 쌀을 이는 조리와 같은 지형으로, 쌀이나 재물을 끌어오는 지기를 가졌다고 인식되었다. 조리혈이라고 불리는 곳은 조리나 삼태기 같은 지형에서 유래하는데, 동네가 삼태기 모양과 같아서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충훈부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알려졌다².

이 일대는 모래질이 많은 토지로 밭이 많았으며, 땅콩이나 특용작물 재배 등이 많았다. 1950년대에는 당시 시흥군에 의해 화훼 및 고등소채 육성마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충훈부는 모래질로 땅이 금방 마른다는 특징 때문에 현 안양대교 옆에 보(洑)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고 이 물을 농토로 끌어와 농사를 지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 마을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물 감독으로 뽑아 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물 감독으로 선정된 두 사람은 돌아가면서 물꼬를 관리해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가을 추수 후 각 가정에서 벼로 리세(里稅)를 냈는데, 충훈부 마을에서는 리세로 물 관리를 맡아 본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충훈부 마을에는 목장을 운영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주로 젓소를 길러 우유를 납품하는 낙농가였다. 주변에 전답이 많이 있어서 젓소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쉽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이들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흥군의 대표적인 고등 채소 재배단지로 알려졌던 충훈부는 안양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그 이유는 충훈부의 평평한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환금성이 좋은 다양한 채소를 재배했기 때문이다. 쌀이나 보리와 달리 채소 재배는 농사 주기가 비교적 짧고 다양한 품목의 재배가 가능하였다. 쌀농사는 1년에 한 차례 수확에 그쳤지만, 봄부터 가을철까지 재배하는 채소와 과일은 수확하는 즉시 안양 시내의 위탁 상회로 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품목이었다. 충훈부의 농경지는 안양천에서 가깝고 모래질이 섞인 충적토양이라서 채소 재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충훈부 사람들은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남부시장의 합동 상회에 위탁 판매하였다. 채소 과일을 지게나 리어카에 싣고 비포장도로를 걸어 남부시장의 위탁 상회에 시간에 맞추어 가져가려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작물을 수확해 다듬고 포장해서 새벽 2~3시에는 출발해야 하였다. 충훈부에서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충훈부에서 안양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 충훈1교가 있는 안양천을 건너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충훈부에 많이 있었던 밤나무로 쉼다리를 만들어 세웠다. 겨울에는 안양천의 물이 적어 그나마 나무다리가 온전했지만, 여름철에는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바지를 걷어 올린 후 신발을 벗고 건너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충훈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키기도 하였다. 충훈부에서 안양으로 장을 보기 위해 나가는 길목이었던 이곳은 '장나들이'라 불렸다.

충훈부 원주민이었던 이영래에 의하면, 밭에 채소와 과일을 재배해서 위탁 상회로 내서 수익을 올렸던 충훈부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다. 양식이 귀한 여름에도 쌀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여유 있게 삶을 꾸려간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충훈부 사람들의 농사가 수월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1976년의 한 기사에 의하면, 안양천 상류의 폐수 오염도가 높아져 이 물로 농사를 짓는 충훈부 사람들의 4만여 평 논이 벼 뿌리가 썩고 잎이 말라서 죽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당시 가뭄으로 안양천 물이 줄어든 데다 상류의 공장지대에서 나온 폐수의 오염도가 높아진 것에



택지개발 전 충훈부(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택지개발 후 충훈부



1975년 충훈부 마을 진입로 확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있다. 1975년에는 충훈부 사람들이 안양천 물로 농사지은 쌀과 안양천의 물을 국립위생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국립위생연구원에서는 알칼리 성분이 너무 많은 안양천의 물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회신하기도 하였다.³ 그 밖에도 안양천의 물이 버섯 재배에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1975년 무렵에 지하수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꽃메산어린이공원에는 충훈부 마을 연혁비가 세워져 있는데, 본래 이곳에는 ‘충훈약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다. 이 목욕탕은 충훈부에서 느타리버섯을 최초로 재배하면서 사용했던 지하수를 활용한 것이었다.⁴

2) 충훈부 마을의 놀이공간이었던 안양천 변 밤나무숲

충훈부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아랫말과 윗말을 제외하고, 안양천에 가까운 지역은 별말이라 불렀는데 대부분이 전답으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이곳에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재배하기도 했지만, 안양천의 제방 주변이나 일명 ‘똥골’로 불리던 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에는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과향(果鄉)으로 알려진 안양에는 포도를 비롯해 밤과 배 등이 특산물로 이름났다. 안양의 대표적인 과일이었던 포도가 일제강점기에 안양의 주요 생산물로 부각된 것과 달리 안양의 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재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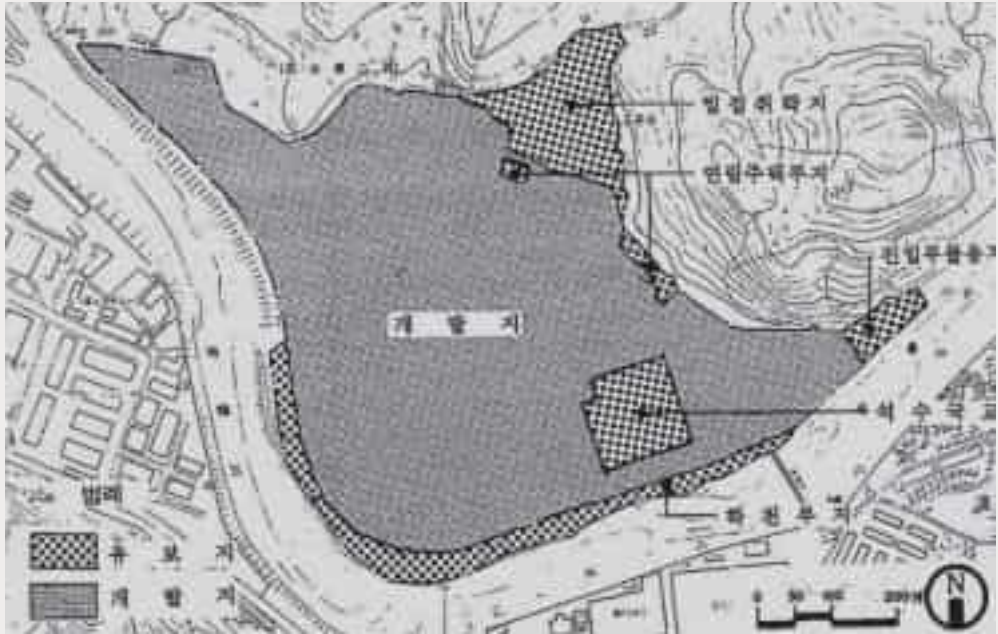
단오에는 마을 앞 안양천 변의 밤나무에 짚을 짜서 그네를 만들었다. 그네는 주로 남자 어른들이 만들었으며, 여성들이 탔다. 안양천 변 밤나무 숲은 마을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충훈부는 마을 사람 전체가 함께 낱을 잡아 잔치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가을 추수 후에 낱을 잡아 소고기를 사서 국을 끓이고, 풍물을 치면서 충훈부 앞 안양천 변의 밤나무 숲에서 놀았던 것을 가리킨다. 충훈부 사람들의 이러한 가을잔치는 럭키아파트에서 현 삼영운수에 이르는 안양천 변에 식재된 밤나무의 수확으로 가능하였다. 이 밤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패망 이후 충훈부 사람들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져 왔다. 쌀가마니로 50여 포대에 이를 정도로 밤을 수확했던 충훈부 사람들은 이 밤나무를 관리할 사람을 별도로 뒀다. 이 관리인이 밤나무를 관리하고 가을에 밤을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마을에 냈다. 충훈부 사람들은 밤나무에서 나온 수익을 활용하고 집집마다 쌀을 걸어 떡·술·안주 등을 장만했으며, 안양천 변에 차양을 치고 하루를 즐겼다. 이날은 충훈부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곳에 모였으며, 마을 사람 중에서 풍물을 치는 이들이 있어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밤나무숲이 있는 충훈부의 안양천 변 일대는 물이 맑고 잔디밭이 있어서, 충훈부 사람들뿐 아니라 서울 사람들도 캠핑을 하러 왔고, 여름철에 천렵을 하러 오는 안양 사람도 많았다. 충훈부 마을의 중요한 공동재산이었던 밤나무는 1983년 택지개발로 사라졌다. 현재 충훈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로는 정월대보름 무렵 열리는 척사대회가 있다. 2024년에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지원으로 2월 24일에 충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척사대회가 열렸다.

3) 충훈부에 불어닥친 개발 바람

1980년대 초, 집성촌의 전통을 이어오던 농촌 마을 충훈부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한국주택공사에서 충훈부 농경지를 택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안양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충훈부의 농경지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충훈부 마을과 석수초등학교 그리고 일부 연립주택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경지가 택지지구에 수용되었다. 이른바 석수지구 택지개발은 1986년에 완공되었다.

택지개발지구에 집이나 토지가 수용된 사람은 보상금을 받았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농사지를 땅이 없어지면서 보상금을 받은 충훈부 사람 중에는 마을을 떠나



충훈부 택지개발지구구의 개발지와 개발 제외 지역(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적주성 평가』, 1992)



택지개발 전 충훈부 전경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적주성 평가』, 1992)



택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충훈부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적주성 평가』, 1992)



빌라 건축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충훈부 전경

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원주민이 많아지면서 충훈부는 전통적인 마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원주민 한 사람이 마을 대동회 조직을 제안하면서 충훈부대동회가 조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훈부 개발 전의 마을 모습은 사진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꽃메산과 와룡산 사이에 원주민들의 밀집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 충훈부시장이 있는 부분에도 주거지가 있다. 그 아래쪽으로는 넓은 벌판에 드문드문 비닐하우스나 목장 등이 들어서 있다. 충훈부 마을의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지나가는 안양천은 남쪽 부분으로 비교적 하상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안양천의 제방은 오늘날과 같이 정비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택지개발은 1986년에 완성되었다. 바둑판처럼 구획된 택지 사이에 도로가 신설되었고, 안양천의 제방 부분에 인접하여 충훈부의 외곽 안양천에 가까운 부분에 도로가 만들어졌다. 개발된 택지에는 대부분 3층 높이의 빌라들이 다수 자리 잡아 대규모의 주거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장도 형성되었으며, 석수아이파크와 프란체아파트 등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석수초등학교를 비롯해 석수중학교, 충훈고등학교까지 인근에 고등학교까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충훈부 인근에 전철역은 없으나 충훈부 버스 차고지가 충훈고등학교 옆에 있어 여러 노선의 시내버스가 인근 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광명역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편이다. 택지개발 직후에는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버스를 제시간에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많이 지나는 곳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충훈동 일원은 15만 7,216㎡ 규모이며, 2023년을 기준으로 2,470가구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수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된 것은 1986년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98%로 매우 높다. 현재 이 지역은 2022년 6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년 12월 LH가 공공시행자로 결정되어 또 다른 개발을 앞두고 있다.⁵

4) 충훈부 마을 축제와 산신제

충훈부는 마을 앞쪽 안양천의 제방에 식재된 벚나무로 이름난 곳이다. 이 벚나무는 충훈부 일대 택지개발을 조성한 이후인 1990년대 초반에 안양천 제방에 식재한 것으로, 충훈부는 물론 안양 사람들의 대표적인 여가 장소이기도 하다. 안양천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안양천 주변에 주로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안양천 정비 후 벚나무길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에서는 해마다 봄에는 충훈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충훈부에는 원주민들을 통해 마을 제사인 꽃메산 산신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산신제는 1981년 충훈부 일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전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충훈부에 살던 사람들의 대동회가 결성되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산신제가 부활하였다. 현재는 안양문화원의 지원 아래 충훈부대동회가 전승 주체가 되어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다.

충훈부의 전통인 꽃메산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는 대동회는 충훈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원주민인 이성래가 제안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충훈부가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지만, 충훈부에 살던 사람들로 구성된 대동회가 마을의 연혁을 담은 비석을 석수동 현대아파트 근처에 세웠으며, 마을의 전통인 꽃메산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다.

꽃메산 산신제는 현재 음력 10월 3일에 지내고 있는데, 본래 충훈부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쌀을 모아 지냈던 마을 제사였다. 꽃메산 산신제의 제당은 광주 이씨 묘역이 있는 꽃메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단 앞이 경사진 곳이어서 제사를 지내기 불편한



벚꽃축제가 열리는 충훈동(이정범 제공)





꽃메산 산신제(2022년)

점이 있었으나, 충훈부대동회 회원 중 한 명이 회사한 금액으로 나무 테크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산신 제단을 관리하고 있다. 산제당 인근에는 산신제 제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삼신 우물이 있었다. 삼신 우물은 물이 매우 맑았고 계절과 관계없이 늘 일정한 물이 나왔다. 이 우물은 부정한 사람이 산신제를 준비하는 경우 맑았던 물에 흙물이 섞이고 탁해질 정도로 영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충훈부대동회가 2020년에 세운 충훈부 마을비

제보자

유정렬 : 남, 석수동 원주민, 석수1동 노인회장, 2024년 10월 24일 면담.

이영래 : 남, 충훈부 원주민, 2022년 11월 16일 면담.

註

- 1 조성현, 「석수동 쌍산신제(雙山神祭)의 유래와 마을제사 전승의 가치」, 『안양문화원 향토문화논고』, 2017.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00쪽.
- 3 「安養川 계속되는 가뭄 廢水 오염 심각」, 『경향신문』, 1976년 6월 29일.
- 4 안양문화원, 『안양을 다시 읽다 만안의 기억』, 2012. 258-269쪽.
- 5 「인양 석수3동 충훈부 재개발 본격화, LH 참여 15만7216㎡ 공공 시행방식」, 『경인일보』 2023년 5월 14일.

제3장

피난민의 정착지, 석수동 구룡마을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소장



구룡마을은 현재 석수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의 옛 이름으로, “삼막사가 있는 삼성산 혈맥의 아홉 마리 용이 굽이쳐 내려와 현재 ‘한마음선원’이 있는 곳에서 멈춘다는 풍수지리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곳에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승만 정부는 정착할 집을 지었다. 당시 신문 매체는 이때 지어진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초가집들을 ‘피난민 수용소’라고 불렀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피난민촌’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과거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은 여전히 피난민 수용소로 부르고 있다.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석수1동 구룡마을 이야기를 월남민 최창선과 이촌향도민 김용학의 구술을 통해 들어본다.

1. 부모님을 따라 구룡마을 주민이 된 최창선

1) 함경남도 고원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그리고 안양에 정착

최창선은 함경남도 고원군 천내리 237번지에서 최재덕(1909년생)의 2남 5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되던 1945년, 최창선의 가족은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공무원이던 최창선의 아버지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1951년 1·4후퇴 때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부산까지 가려고 했으나 수원이 폭격을 당해 안양에 정착하게 되었다.

최창선 : 철원에서 걸어서 의정부까지 나오고, 의정부에서 다시 열차 타고서 서울 영등포에서 내리고,



1966년 구룡마을과 삼막골(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거기서 또 몇 개월 있다가 부산으로 갈 건데, 수원이 폭격당하는 바람에 부산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시초예요. 피난민들이 안양에 들어온 것의 시초예요.

최창선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현재 안양역이 있는 곳이다. 피난처로 정착했지만, 당시 기사를 보면 안양 역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다. 동아일보 기사²에 따르면, 안양은 여주·이천·김량장·오산 등과 함께 경기도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이곳으로 월남 피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북철수 피난민들이 최근 안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급작한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8월 ○일³ 현재 안양을 중심으로 한 시흥군⁴내의 피난민 수는 4만 2,330명이라고 하는데, 안양읍 피난민 수 6만 9,767명 중 7,399명이 이북 피난민들이라고 한다.⁵

(「안양에도 피난민 운집」, 『조선일보』 1951년 9월 6일)

이렇게 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수용소’를 지었고, 최창선의 아버지는 안양에 정착한 지 1년 만인 1952년 1월, 안양읍 피난민연락소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2) 구룡마을에 조성된 피난민 수용소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과동용(過冬用) 주택으로 도합 1만 4,700호의 각종 주택을 완축하였다고 한다. 이해의 경기도 지사는 전기 약 1만 4,700호의 주택은 약 7만 5,000명에 달하는 집 없는 농민과 피난민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움집 1만 3,000호와 농민주택 1,200호, 피난민용 긴급주택 500호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러한 주택은 주로 안양·수원·양주·발안 등지에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의 건축자재는 정부 및 유엔에서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말하는데, 동 주택들의 완축으로 경기도 내에는 집 없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⁶

(「집 없는 설움을 일소. 경기도에서 만여 호 완축」, 『조선일보』, 1951년 11월 30일)

구룡마을에 있던 ‘피난민 수용소’는 피난민을 위한 거처 마련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라고 하지만, 방 하나 부엌 하나의 초가집 형태였다. 최창선의 아버지는 이렇게 지어진 피난민 수용소의 초가집 한 채를 피난민연락소장 일을 보던 인연으로 몇천 원의 가격에 매입하였다. 최창선이 안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인 1954년, 가족 모두는 수용소 초가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최창선 : 우리가 다 피난민인데, 피난민들이 살라고 이 대통령이 피난민들을 위해서 지어줬지. 그래서 부친은 이 수용소를 관장하다가, 여기 안양에서 거주하고 살다가, 그쪽으로 초가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석수동. 구룡동 초가집. 거기는 다 피난민촌 초가집이지.

최창선의 아버지는 집을 매입했지만, 다른 피난민들의 경우는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창선 :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은 땅 주인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 집세를 내고 살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돈 되는 사람은 집을 사서 계속 살거나, 돈을 모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살 곳을 찾아 떠나거나 그런 거지.

당시 집들은 모두 초가집이었고, 방 하나에 부엌 하나로, 대지면적은 약 30평 정도가 되었다. 집들은 좁은 골목을 마주 보고 있었고, 골목은 약 대여섯 개 정도가 있었다. 골목 하나에 약 10가구로, 대충 60가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중 약 70~80%가 피

난민이었다. 최창선의 집은 맨 끝에서 세 번째 골목에 위치하였다.

이 무렵 구룡마을에 살았던 정덕례(여, 1936년생)는 당시 수용소 집과 마을 풍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정덕례 : 이 동네는 수용소라고 그랬어. 6·25 사변 났을 적에 피란민들을 수용하느라고 집을 개떡지처럼 다닥다닥 거지처럼 지었더라고. 수수깡을 엮은 거를 갖고 벽을 만들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발랐잖아. 내가 미군 부대 쪽에 살다가 구룡마을 살려고 와보니까 그렇더라고. 흙이 떨어져서 수수깡이 보여.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으니까 가난뱅이만 살았지.

정덕례는 이촌향도민으로, 1957년 미군 부대에 취업한 남편을 따라 안양에 들어왔으며, 아들이 한 살이던 1959년, 구룡마을에 정착하였다. 이때 집을 사려고 수용소 집을 둘러보았지만 탐탁지 않아 포기하고 수용소 길 건너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지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공그린빌아파트 주변이 바로 그 집이 있던 자리이다.

1970년대 구룡마을 옆 삼막천의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살 집은 있었지만, 가난했던 시절

최창선은 연탄이 들어오기 전까지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 누나들과 땀감을 하러 다녔다.

최창선 : 봄에 잘리는 나무 따로 있고, 가을에 잘리는 게 있고, 겨울에 잘리는 나무 따로 있고 그래. 관악산으로 다니지. 삼막산이 관악산 줄기 아니야. 겨울에 하는 나무는 썩은 나무뿌리가 있잖아. 고주박이. 그걸 도끼로 패서 해가지고 오는 거여. 학교 갔다 와서 나무로 하러 가고. 일어나면 그냥 나무하러 가는 게 일이었어.

연탄이 들어오면서 더는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았지만, 집안 살림은 계속 어려웠다. 피난민연락소장 일을 그만둔 아버지는 1957년부터 토건업에 종사하였다. 경제활동이라고 했지만, 봉급은 밀가루를 받는 정도였다. 게다가 그 일도 몇 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이후 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셔서 특별한 별이는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는 사람과 술, 풍류를 좋아해서 집안 경제는 좀처럼 피지 않았다. 당시는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가정이 많았던 시기라 실질적 가장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최창선의 어머니도 이웃집을 다니며 김을 매주고 받은 일당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렸다. 구룡마을에서 안양중학교까지 “2~3km 되는 거리는 철길로 걸어 다녔고, 도시락은 싸갈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주면은 먹고” 그렇게 지냈다. 더 어려웠던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안양유원지 골짜기에 포탄을 주우러 들어가기도 하였다.

최창선 : 우리 때는 굶는 애들도 많았지. 안양유원지 골짜구(골짜기)로 들어가면 포탄이 많잖아. 그걸 깨다가 손등이 나가. 탄약을 빼야 하잖아. 그러다 그게 러지는 거지. 그거라도 팔아야 사친회비도 내지. 애들은 엄마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최창선은 탄약을 주우러 가지는 않았지만, 사친회비를 내지 못해 곤욕을 치른 적이 많았다. 석수1동에 있던 미군 부대⁷(83병기대대)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훔쳐서 먹던 일명 ‘꿀꿀이 죽’은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

최창선 : 그게 뭐냐 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판단 말이야. 내 친구 아버지가 그걸 했어. 그럼 가서 그걸 돈 주고 사서 와가지고 팔팔 끓여서 먹는거야. 우리가 먹는데 아버지, 어머니, 뭐 부모들은 안 먹어?

처음에는 먹다 보면 담배꽂초나 이쑤시개도 나왔다.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것을 알게 된 미군 부대에서 못 먹는 것들을 음식 쓰레기와 분리해 버려서 좀 덜 나왔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원주민도 피난민도 다 가난하던 시절이라고 하지만, 피난민 입장에서 원주민은 그나마 “땅이라도 있으니” 나왔다. 하지만 꿀꿀이 죽은 일단 먹어보면 맛이 있기 때문에 피난민이든 원주민이든 가리지 않고 먹었다.

최창선 : 그럼 그 사람들(원주민)은 꿀꿀이죽은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다 그러지. 그런데 안 먹었겠어요? 이웃에서 먹고 맛있다고 하니깐 나눠 먹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 맛을 보면 원주민이고 뭐고 없어. 다 먹어.

꿀꿀이 죽을 먹는 데는 원주민과 피난민의 경계가 없었지만, 수용소 피난민에게 원주민들의 텃세는 가난과 배고픔 다음의 어려움이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표준어를 배웠지만, 어른들은 이북 말을 쓸 때 무시당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북의 피난민들은 마치 재일교포들이 한국어를 쓰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주변을 의식해서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 하였다. 때로는 피난민과 원주민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창선 : 처음에 이제 그런 거 (텃세가) 많았지. 동네끼리 그냥 뭐 패싸움을 해. 우리는 어리니까 구경을 하다 돌 던지지. ‘너네들이 나가라’하고. 집성촌 사람들⁸ 뭐 밥 먹고, 허세부리고 그러면 우리 구룡동 청년들이 막 패주고 그랬어. 꿈쩍 못했어. 하하.

그런데 이주 후 5년에서 10년 사이 서서히 변화가 생겼다. 전쟁이 수습되었고, 돈을 모아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떠나는 피난민이 생겼으며, 외부에서 수용소 집을 구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난민과 피난민이 아닌 가구는 6대 4 정도의 비율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피난민과 피난민이 아닌 가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자, 점차 누가 피난민인지 아닌지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4) 안양영화촬영소 아르바이트

최창선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동상업전문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는 서라벌고등학교의 전신인데, 당시 서울 을지로에 있어, 안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녔다. 학교는 운동장도 없고 건물 하나만 있는 학원 같은 곳이었다. 피난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텃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기차를 타고 다니며 동네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그 구역 깡패와의 싸움’에 시달렸다.

최창선 : 원토박이들은 돈이 다 준비돼 있잖아. 그러니 안양공업고등학교로 가지. 난 돈이 없으니 서울 전문학교를 간거야. 기차 타고 다니면서 얻어맞고 막 그러고 다녔어. 통학하면서 깡패들한테. 이 지역 안양에도 깡패, 시흥에도 깡패, 수원에도 깡패. 제일 무서운 게 영등포 역전을 지나가잖아. 거기 깡패가 세잖아. 거기를 지날 때는 조심해야지.

그 무렵 구룡마을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최창선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깡패에게 시달려도 꾸준히 학교에 다녔고 1959년 졸업하였다. 이 당시 최창선의 아버지는 구룡마을 통장 일을 보며 안양영화촬영소 엑스트라 모집책도 하고 있었다. 안양영화촬영소는 1957년에 할리우드를 지향하며 약 2만 2,000평에 달하는 대지⁹에 들어섰다. 1956년 10월 17일 상량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등 화제가 되었던 곳이다. 촬영소는 구룡마을에서 봤을 때 남동쪽으로 내려가다 철길을 건넌 자리에 위치에 지어졌다. 현재 석수동 현대아파트와 무림아파트가 있는 일대였다. 아버지는 엑스트라를 모집하고 최창선은 총무로 일하며 엑스트라 명부 관리를 하였다.

최창선 : 아버지가 통장이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해. 촬영소에서. 오늘은 최무룡이나 뭐 누구누구 배우들이 오니까 엑스트라를 300명만 모아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 그럼 아버지가 반장들한테 배당을 해. 너희 반에서는 30명, 너희 반에서 50명 이렇게 하면 한 300명을 모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접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서기를 해서 명단을 만들면, 그 명단이 촬영소 책임자한테 가고. 그럼 그 300명을 배치하는 거지.

당시에는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 유명 배우가 오는 날에 먼지가 나지 않게 도로에



1958년 석수동 수도영화인양촬영소에서 촬영한 영화 『낭만열차』(한국영상자료원 제공)

나가 자갈을 까는 일도 하였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엑스트라 출연도 하였다. 『청년 이승만』(1959), 『강화도령』(1963) 등 엑스트라 출연 횟수가 무려 100편은 족히 되었다.

최창선 : ‘성웅 이승신’을 찍을 때는 이렇게 풀에 물을 받아서 배 모형 띄우고 부딪히게 하고, ‘대지의 성과’를 찍는다 하면, 그건 독립운동 영화란 말이야. 이대엽, 황해 뭐 유명한 배우들 이제 다 나와. 나도 왜놈 옷 입고서 막 물에 빠지고 이러는 것도 하고. 우리는 엑스트라니까.

한 번 출연하면 일당 6,000원을 받아 수익은 괜찮았다.

최창선 : 그렇지. 동네 전체 알바지. 다른 데 가면 3,000원 뭐 그렇게 받을 걸 돈을 더 많이 주니까.

하지만 늘 있는 촬영이 아니라서 어머니들은 김매는 일을 고정적으로 다녔다. 1964년, 최창선은 전역 후에 여러 일을 하다 안양3동에 있던 타일공장에 관리직으로 취직하였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 1968년 결혼하였다. 신혼살림은 구룡마을 수용소 집에 벽돌을 찍고 방 한 칸을 늘려 시작하였다. 방이 하나 더 생겼지만, 여전히 오막살이였다.

최창선 :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집사람이. 막상 시집와 보니 오막살이 집이야. 기어서 들어가야 해.

개인적인 원망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내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도 잘 해 효부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진 촬영과 기록 작업을 하던 최창선의 가장 좋은 사진 모델이기도 하였다. 1971년,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최창선은 시흥군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들어가며 이후 3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다.



- 1 1969년 12월 안양읍 신안양리 104번지 구룡마을에서 열었던 최창선 어머니 회갑연의 초청장(최창선 제공)
- 2 1969년에 구룡마을 집에서 열린 최창선의 어머니 회갑연(최창선 제공)
- 3 구룡마을 집 앞에서 찍은 최창선 부부 사진 (1968년, 최창선 제공)
- 4 최창선의 어머니와 아들(1970년대, 최창선 제공)





2. 구룡마을로 이주한 이촌향도민의 아들 김용학

1)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피난민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지고

1963년, 구룡마을이 속한 시흥군 동면 안양리는 안양읍에 편입되었다. 안양읍에는 이미 안양리가 있어서, 동면에서 편입된 안양리는 ‘신안양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 구룡마을 피난민 수용소는 전체가 104번지라는 하나의 지번을 부여받았다. 1972년, 최창선의 아버지가 작성한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도, 1960년 태어나 백일 때 구룡마을로 이사 온 김용학이 기억하는 집 주소도 신안양리 104번지이다. 김용학의 집은 대여섯 개 되던 골목 중 맨 마지막 골목에 있었고, 최창선의 집은 꼬트머리에서 세 번째로, 김용학 집의 “앞줄, 앞줄”에 있었다. 김용학은 1971년 삼성초등학교 근처 개울 마을로 이사 갈 때까지 이 집에서 11년을 살았다. 최창선과 같은 번지의 동네였지만 김용학의 구룡마을에 대한 기억은 사뭇 다르다.

김용학의 아버지 김덕수(1933년생)는 충청남도 부여, 어머니는 경상북도 성주 출신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즉 김용학의 이모가 결혼해서 안양유원지 쪽에 살고 있었는데, 김용학의 아버지에게 시골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소리를 해서, 김용학의 부모는 1958년에 혼례를 올린 후 안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석수동 미군 부대의 식당에 취업하였다.

1960년 김용학이 태어났고, 그가 백일 때 구룡마을 104번지로 이사 온 후 그 집에서 여동생 3명, 남동생 1명이 태어났다. 김용학은 성장 과정에서 사는 집이 피난민 수용소였다거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김용학 : 근데 여기 피난민에 대한 의식은 내가 보기엔 초창기 때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몇 년간이고 이후로는 뭐 그냥 구룡마을이지... 피난민이 있었어도 난 몰랐어요. 수용소의 기억은 0%.

김용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의 어린 시절을 비추어 보건대, 1960년대 후반부터 피난민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용학의 기억은 “수용소가 지어지고 5년에서 10년 사이 피난민과 원주민 사이의 경계가 서서히 없어졌다.”라는 최상선의 구술과 일치한다. 또 대략 피난민 수용소에 60가구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둘의 구술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1960년대 후반 구룡마을 골목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김용학과 여동생(김용학 제공)



1960년대 구룡마을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김용학 제공)

김용학 : 그때 이쪽저쪽 하다 보면 한 50채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여기 친구 아버지 염상사네 집도 있었고, 여기 김 반장, 여기 봉이 형네 집, 이런 식으로 쪽 있고. 60가구는 되었을 거 같은데. 좁은 골목에 집들이 날라리, 날라리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골목 끄트머리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은 앞집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훈이네 집이라고 하는데. 훈이네 집 앞에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던 기억이 나네.

김용학이 살았던 집은 방이 두 칸이고 지붕도 슬레이트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수해로 담이 무너졌을 때 보니 수수깡에 흙을 발라 만든 집이었다.

김용학 : 아버지가 구룡마을 들어와서 누구네 집을 몇백 원인가 몇천 원인가 샀을 거예요. 이모부가 '저기 집이 있는데 조금 보태서 사라.'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 조금 팔아서 그걸 산 거죠.

안방에 붙어 있던 뒷방은 세를 쥐서 방 한 칸에서 부모님을 비롯해 동생들과 일곱 식구가 함께 살았다. 집 뒤편으로는 포도밭이 있었고, 앞쪽으로 이어진 골목을 따라 내려

1968년 구룡마을 (국가기록원 제공)





1970년대 관악역 앞 구룡마을(이정범 제공)

가면 삼성천이 나왔으며, 우측으로 삼성초등학교가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영을 잇던 모습도 기억나고, 수용소의 한 절반은 초가집이었던 것 같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가집은 개량이 되었고 처음으로 이층집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이후 초가집, 전쟁, 피난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피난민 수용소가 들어섰던 구룡마을은 여느 마을과 다름이 없는 마을로 변해간다.

김용학 : 초가집이 있고, 그다음에는 슬레이트로 조금씩 바뀌었고, 기와지붕을 한 집도 있고, 그 이후에 정성이라고 내 동창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되게 잘 사셨어요. 그때 2층 슬래브 집을 시멘트로 해서 올리더라고. 이층집을 그때 처음 처음 봤어요. 1970년대 초반에. 거기서 가게 같은 걸 했거든.

김용학이 살던 집은 1970년 무렵 경수대로가 건설되면서(1969년 착공) 약 2~3평이 도로에 수용되었다. 동생들이 크고 학비가 많이 들자 부모님은 집을 팔았다. 1972년 삼성초등학교에 가까운 개울마을 쪽으로 내려왔다가, 1973년에는 다시 삼막천 쪽으로 올라가 3년 정도 살았다. 1977년에는 다시 구룡마을로 돌아와 1983년 군대 입대 전까지 거주하였다.



1960년대 석수동 미군 부대(국가기록원 제공)

2) 미군 부대를 일터로 삼았던 구룡마을 사람들

1950년대에 최창선이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구룡마을은 주변 마을 중 제일 못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김용학이 초등학생이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 구룡마을은 삼막골보다는 잘사는 곳이었다.

김용학 : 수용소 아이라는 놀림도 몰랐어요. 구룡동은 중간은 살았어요. 삼막동 애들은 좀 못 살았지. 여기는 그래도 아버지들이 미군 부대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장사도 하고 해서 가정 형편이 좀 괜찮았던 말이에요. 근데 이 삼막동 분들은 동네에 돌이 많았잖아요? 화강암. 아버지들이 그걸 깨 가지고 견칫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 만들면 10원 주고, 20원 주고 하다 보니 되게 빈한하게 살았죠.

김용학의 말대로 구룡마을에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용학의 아버지도 미군 부대 식당에서 주당 60시간을 일했고, 제일 친한 친구 유성이 아버지도, 동열이 아버지도 미군 부대에서 일하였다. 동네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을 팔며 부업



김용학 부친 김덕수의 석수동 83병기대대 근무 당시 급여 변경 관련 서류(김용학 제공)

을 하는 친구의 어머니들도 있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도 구경하고 미제 음식도 먹어보는 호사를 누렸다.

김용학 : 친한 친구 서유성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소방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유성이 엄마는 부대에서 양키 물건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일단 팔면 두 배 정도의 수익은 올렸고. 바셀린, 폰즈 화장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동열이도 나랑 가장 친한 친구데 애네 아버지도 미군 부대 다니셨어요. 그런데 애네 집은 생선 같은 건 비리다고 안 먹어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생선 같은 거 구워주면 진짜 맛있게 먹고. 또 아버지가 식당 일하니까 치즈 같은 것도 귀했는데 우리 집에 는 있으니까 개가 또 치즈를 되게 좋아해서 맛있게 먹고 그랬어요. 엇저저게 만났을 때도 “야 나 너네 집에서 엄마가 생선 구워주고 치즈 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랬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던 꿀꿀이 죽은 불과 십 년 정도가 지나서 고소한 치즈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궁핍하지도 않았다.

김용학 :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다니셔서 무지하게 여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낫게, 또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가능한 뭐 해주려 했던 기억이 나고.

당시에 동네를 돌며 빌려주던 장난감 차를 탄 김용학과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 아래 사진 속 동네 아이들은 담벼락에 붙어 김용학과 동생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다.

3. 재개발로 사라진 피난민 수용소 마을, 남아 있는 추억과 우정

1) 구룡마을 피난민 수용소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추억

1973년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과밀 집중을 막기 위해 논의 되던 그린벨트 조성이 1968년 무렵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71년 석수동은 경수대로 등 주요 교통망이 형성됨에 따라 풍치지구나 전용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린벨트보다 완화된 조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나 주택 조성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풍치지구 규정은 사라졌다. 더구나 구룡마을 피난민 수용소로 형성된 석수동 104번지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71년 풍치지구로 지정된 석수동 374의 5번지 일대 22만 2천 5백 53평 가운데 석수동 104번지 일대 8천 5백 평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 21만 4천 53평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기로 하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층 저층 아파트는 10층까지, 연립주택 등 일반건물은 최고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피난민촌’으로 불리는 석수동 104일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는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4천 9백 가구인 석수 1, 2동은 재개발을 통해 모습이 바뀌고 전체 가구 수도 6천~7천에 이를 전망이다.¹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며 구룡동 피난민촌 마을도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통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성사시킨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최창선이다.



1983년 삼성초등학교에서 열린 구룡노인회장배 축구대회(최창선 제공)



1983년 삼성초등학교에서 열린 구룡노인회장배 축구대회 노인 경기(최창선 제공)

◎ 구룡노인정 운영위원구설 ◎

1. 목적 : 4,225 세번으로 인한 피난민이 이 곳 구룡마을에 정착한 31년 뒤엔의 세대원으로 이주자를 불러오신 노인분들과 그 고령대로 이어져가기 위하여 원구룡마을 노인회(이하 일) 운영을 위한 것임. 이를 새로운 이사당신서 구룡노인정에 입주하여 새마을 창으로서 그 정원을 유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위치 : 구룡노인정은 원구룡에 있는 노인정(만남식당)을 무상으로 이용, 그대에 약 22명의 운영위원과 약 1천노인(이하)이 거함다.
 그 자금은 104명까지 최소 보 수을하도록 제작하여 당시 2억여만원의 자금이 조조되었다.
 이를 새로운 이사당신서 구룡노인정서 건설하고 새마을 입주방에 있다. 이같이 노인정을 해내려 받므로 인해 구룡동 104명까지 수주를 가능한 기금으로 새로운 구룡노인정 노인정 운영을 31년 이전 계획수들을 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그 운영에서 기금을 처리하고자 한다.

3. 운영원칙 : 정부의 인물은 원로 노인회로서 고령자 세대보장 무리함을 재입으로 한다.

- 1) 고 령 1세대원.
- 2) 보 장 1인.
- 3) 고 령 1인, 운영위원10인 이내(그의 유세대주는 회원)
- 4) 운영 1인은 회장이 임명.

4. 기관관리운영 : 구룡동 이분 세자 당까지 원동은 원로와 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회장이 임명도 기관관리처리 계획을 수립, 운영 세자 후 운영하도록 한다.

구룡마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구룡노인정 관련 문서(최창선 제공)

트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정작 재개발을 위해 밭 벗고 나섰던 최창선은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였다.

최창선 : 처음에는 보상 가격 가지고 (입주가) 되리라고 생각했지. 그때 집값들이 한 1억 5천, 8천 됐으니까. 그러니 돈이 더 안 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돈 더 내래. 그래서 아이구야 못 들어간 거지. 공무원이라 안정된 직업이긴 했지만 월급은 적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나 땅이 있잖아. 우린 그런 거 못 쫓아가지. 받은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최창선 : 그때 여기 우리 구룡마을하고 해서 한 200여 가구가 재개발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주택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골고루 사니까 개발이 안 돼. 반대 때문에. 안양시에서 2~3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인데 시에서 못한 일을, 그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니 좀 도와주고 동네를 좀 개발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여러 번을 권했어요.

이러한 경위로 당시 시흥군 공무원으로 일한 최창선이 재개발 관련 업무 중 가장 힘든 보상위원장을 맡았다. 임명장을 받고 그 길로 주민들을 만나고 노인정 어르신들로부터 자문도 받으며 마침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냈다. 1999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2년 현재 관악역 옆의 주공그린빌아파트가 조성되었다.

최창선은 재개발을 성사시키고, 재개발 때문에 제2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흐뭇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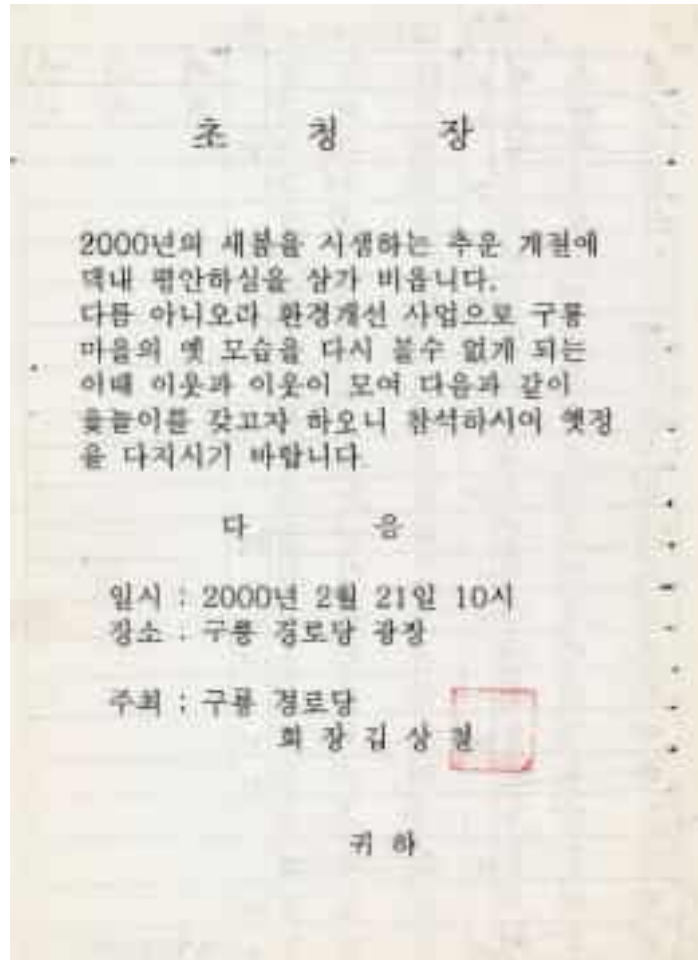
최창선 : 지금 아파트 보면 작풍이 잘 됐다고 마음이 흐뭇하지. 내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곳이 흐뭇하지. 동네 사람들 피난 나와서 50~60년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초가집에서, 기와집에서,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그냥 아주 좋지.

최창선은 본인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피난 1세대 부모들이 좋아진 생활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희생만 하다 간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피난민 친구가 열 명쯤 된다면 주공그린빌에 입주한 친구는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구룡마을을 떠났거나, 추가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그나마 이제는 모두 나이가 들어 살아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최창선 : 지금은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한 30%, 한 10가구 이상 있어.

최창선은 가끔 아내와 주공그린빌아파트 경로당을 찾는다. 남자 쪽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자 쪽에 가면 예전 피난민 수용소에 살았던 몇 분이 ‘철이아빠’라며 반겨준다.

최창선에게 구룡마을은 너무도 가난한 삶을 영위했던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마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추억을 선물해준 곳이었다.



구룡마을 척사대회 초청장(최창선 제공)

개발 직전 구룡마을의 골목 풍경



구룡1구 삼막길 입구 변승협의 집(최창선 제공)



구룡4구 골목 최창선의 집 뒤편(최창선 제공)



구룡마을 3번 골목 박대원의 집(최창선 제공)



구룡마을 2번 골목(최창선 제공)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석수1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일대



최창선 : 내 제1 고향은 이북, 제2 고향은 석수동이라고 하는 구룡마을이지. 잊지 못할 추억이 제일 많은 곳이야.

그리하여 최창선은 구룡마을이 재개발로 사라질 때 누구보다 아쉬워했으며, 취미인 사진 찍기를 활용해 구룡마을의 곳곳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들은 현재 잘 보관되어 있었다. 다음 사진은 1990년대 후반 최창선이 촬영하고 제공한 철거 전 사람들이 떠난 구룡마을의 모습이다.

2) 구룡마을을 떠났어도 계속되는 구룡마을 친구들의 우정

김용학은 1986년 군대를 제대하고 그전까지 살던 구룡마을을 떠나 이모 가족이 살던 박달동으로 이주하였다. 그해 아버지가 작고하였고, 구룡마을에 여전히 살고 있던 최창선의 아버지가 달려와 주었다.

김용학 : 최창선님 부친이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도 훨씬 더 됐겠죠.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오셔갖고 시신이 뺏뺏하게, 이렇게 비틀어지기 말라고 끙끙꿍꿍 묶어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죠.

1972년 안양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난 뒤 김용학의 아버지는 다시 용산 미 8군에 일 자리를 구하였다. 마침 1974년에 관악역이 개통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용산으로 출퇴근하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술로 인해 간이 나빠져 54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김용학은 대학 복학 후 바로 선박회사에 취업하였다. 이후 36년의 직장생활 마치고 현재는 관양동에 거주하고 있다. 제대 후 현재까지 구룡마을에 돌아가 산 적은 없지만, 현재의 인맥과 친구는 거의 구룡동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김용학 : 내 친한 친구는 동열이나 유성이나 명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60년대부터 친구인데 내가 군대 갈 적에 '마당'이란 모임을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43년 동안 만나요. 만나면 열한 명 정도인데 얼마 전 한 명은 간암으로 죽었고, 삼성초등학교 졸업한 65살짜리 애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죠. 엇그저께도 만났어요.

주공그린빌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친구도 여러 명 있다.

김용학 : 아까 내가 친하다고 한 임동열이. 서유성이는 자기 아들이 살고 있고, 신식규도 살고 있고. 다 살고 계셔. 영수 형, 강상길 씨. 충열이도 다 여기 살고.

80대 중반의 최창선에게 가난한 피난민 마을로 기억되는 구룡마을은, 60대 중반의 김용학에게는 팥이를 사던 곰 문방구가 있던 곳이고, 땅이 반들반들해서 놀기 좋았던 공터가 있었던 마을이며, 삼막산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다니던 마을로 기억된다. 그리고 구룡마을은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 주거 시대를 맞이하였다.

註

- 1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1077>), 2016년 7월 23일.
- 2 「이 경기지사 담(화), 안양, 여주, 이천, 오산 등은 초토화」, 『동아일보』, 1951년 3월 7일.
- 3 오래된 신문으로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표로 처리함.
- 4 당시 안양은 시흥군 안양읍이었다.
- 5 「안양에도 피난민들 온집」, 『조선일보』, 1951년 9월 6일.
- 6 「집 없는 설움을 일소. 경기도에서 만여 호 완축」, 『조선일보』, 1951년 11월 30일.
- 7 1970년대 중반에 철수하였으며, 현재 석수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 8 구룡마을 인근 삼막골에는 진주 하씨, 석수동에는 창녕 조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 9 「대규모 영화촬영소, 안양에 건설착공」, 『동아일보』, 1956년 7월 10일.
- 10 「안양 22만여 평 풍치지구 해제」, 『동아일보』, 1997년 7월 23일.

제4장

미군 닐 미샬로프의 사진으로 남은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김성균 공간사회학자,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1. 사진으로 읽는 석수동의 단상¹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 1948년 5월 10일 UN의 관리 하에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 아직도 UN의 국가로 관리되고 있는 한국. UN의 아이처럼 자라온 이 땅에 그 흔적을 드러내듯이 서 있던 것이 석수동 미군 부대이다. 유년 시절 미군 부대의 단상은 ‘헬로’·‘양키’·‘기브 미 초콜릿’·‘꿀꿀이죽’ 등이었고, 어른들의 기억은 ‘양공주’와 ‘팝송’이었다. 많은 영화에서 미군정 시절과 미군 부대 부근의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아이들이 미군에게 “기브 미 초콜릿”을 외치는 장면이다. 당시 석수동의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양에서 가장 화려한 동네였던 석수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모두 가졌다. 동네의 이야기는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로부터 시작된다.

미샬로프의 사진은 안양의 기록이자 현대사를 담은 안양의 역사가 되었다. 그의 사진에는 농사를 짓는 촌로의 초상화부터 검게 그을린 촌스러운 아이의 모습, 그리고 멀쭉하게 한껏 뿔낸 신사와 숙녀까지 다양한 거리의 일상이 담겨 있다.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표정뿐 아니라 골목 풍경에서도 그날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

GATE WAY를 비롯하여 77 PAWN SHOP, MY CLUB, 조광연탄, 고려미장원, 초원식당, 동명상회, 광복당, 신신양장점, 아이스케이크, 시흥군 제1대 성병진료소, 실비여관, 성혜의원, 배림당, 사장이발관, 동심릉, 새서울공업사, 드라이클리닝, 삼성사, 영광화점, 안성관, 성심여관, 진미당, 광명당 시계점, 태진연탄 등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당시의 시간이 그의 사진에 오롯하게 들어있다.

서리재 고개를 넘어 석수골과 삼막골을 왼쪽으로 두고 도로를 따라가면 안양역 방향으로 350m쯤 거리에 관악역이 있다. 전철이 생기기 전 이곳에는 기차길을 건너기 위한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 이전에는 간수가 지키는 건널목이 있었다. 건널목을 넘으면 현재 주공아파트 초입쯤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 전쟁이 나면서 미군 부대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기지촌이다. 이곳에 있던 부대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동두천, 파주 법원리, 쑥고개(송탄) 등과 함께 소문이 나 있던 곳이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게 되니까 버스가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다. 급행버스도 이곳에서는 정거하였다. 당시 급행버스는 '대동버스'라고 일반버스보다 크기도 컸고 모양도 꽤 세련된 버스였다. 이곳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것은 기지촌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꼬챙이고개 넘어 총훈부, 삼막골, 석수골 사람들이 농산물을 시장에 팔기 위해 영등포를 가려면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군 부대가 떠나자 부대를 상대로 했던 상인들도 떠났다.²

사진을 통해서 보는 그의 기록에서는 미군 부대의 민낯도 보인다. 석수동은 미군 부대가 주둔하던 동네로 유명하였다. 부모들은 석수동에서 자식을 낳지 말고 떠나라고 할

미군 날 미살로프가 찍은 1968년 석수동 미군 부대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정도로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미군 부대 부근의 시흥군 제1대 성병진료소 앞에서는 진료를 위해 30~40여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경이 동네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석수동 골목은 안양유원지로 가는 첫 번째 골목상권이었다. 토요일에 물건을 들여오면 일요일 저녁에 전부 팔릴 정도로 장사가 잘된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 국민유원지로 이름 높았던 안양유원지 덕분이다. 1960년대에는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코카콜라 대리점이 석수동에 있을 정도였다. 코카콜라 대리점은 안양유원지를 오고 가는 인파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번듯한 건물에 자리한 곳이 아니라 간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대리점이었다.

석수동에 대한 기록을 위해 만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기억을 풀어놓았다.

- 미군 부대 차량이 방앗간 앞에 정차하면 몰래 올라가 아이스크림을 훔치기도 하였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것은 친구의 호연지기를 겨루는 짓국은 장난이었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선 자리가 과거에는 금성상회였다. 건널목에서 유원지로 가는 첫 번째 가게였던 금성상회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 이곳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탑 마트(경수대로 1201 번길)의 앞집이 1960년대 드라이클리닝 건물이었다고 기억한다.
- 새서울공업사는 지금의 관악역 건너편에 있었으며 당시 건널목 상권이 유명하였다. 건널목 상권은 유원지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곳으로, 석수동 윗마을에서 관악역으로 이어진다.
- 서울에서 석수동을 지나 수원으로 이어지는 산업도로에는 '학뒤고개'라는 고갯길이 있었다. 석수 옛 길에서 학뒤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로 막혀있다.
- 석수동에는 삼성초등학교가 있었다. 삼성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학뒤고개길을 이용하거나 삼막천 방향으로 가는 길을 이용해야 하였다.
- 27세에 이곳에 자리 잡았다는 한 주민은 미군 부대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미군 부대 거리는 흙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수원으로 향하는 산업도로가 들어섰다.

- 유원지 주변에는 드문드문 판잣집이 몇 채 정도 있을 뿐이었다. 유원지로 향하는 길이 없으니 철령 다리라도 만들려고 시청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다.
- 우기에 삼성천 물이 불어나면 아이들을 황소에 태워 물길을 건너기도 하였다. 당시 석수동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이루어진 삼막동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조씨 성의 집안이 많이 살았다.
-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랫마을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이 네 개 정도 있었다. 당시 MY CLUB은 아랫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 현재 한소망교회 자리에는 양복점이 있었다. 미살로프가 짚은 담배 간판 가게 주인의 이모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모 덕분에 식구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진다.

2. 미군 부대와 석수동 주민의 삶

지금도 경수대로1201번길에는 과거의 시간을 담은 나무 전봇대가 있다. 이 골목길은 1960년대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이다. 오래된 나무 전봇대에는 '높이 12m,



석수동 미군 부대 동네 골목의 오래된 나무 전봇대

9617E 473 남북간 26 L5 L1' 한국전력 번호가 적혀 있다. 어린 시절 전봇대는 동네 꼬마들의 놀잇감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할 때 사람이 부족하면 전봇대에 고무줄을 묶어 놀았다. 남자아이들은 말뚝 박기 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같이 노는 숭바꼭질에서 술래는 전봇대에 머리를 묻고 숫자를 세곤 하였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 전봇대는 골목길에서 자란 아이들의 기억을 품고 있다. 빛바랜 사진 속 기억처럼 남아 있는 나무 전봇대는 오늘도 석수동 골목길에 우뚝 서서 집안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1) 미군의 영외생활

석수동 주민에게 미군 부대의 병영생활은 엄격하지 않아 보였다. 미군들은 군 복무기간 동안 영외활동이 가능하였다. 영외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대개 부대 근처 가정집에서 하숙하였다. 물론 하숙비는 그들이 받은 월급으로 지불하였다. 그 덕분에 미군 부대를 끼고 있는 석수동은 늘 문전성시였다. 동네에는 미군의 영외생활을 위한 방이 필요하였다. 어떤 집은 외양간을 허물어 셋방을 들였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미군을 상대로 열 집 살이를 하는 하숙집도 있었다.

영외생활을 하는 미군에게는 비상 훈련이 있는 날이면 매우 웃긴 해프닝이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난 군인들이 속옷 차림으로 미군 부대 정문으로 뛰어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기와집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미군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군 군영 내에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근무원도 있고 그러면 영외에서 잘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집들이 다 뭐 초가집에 외양간 같은 것밖에 없었잖아요. 외양간을 허무는 거야. 세를 주면 그만큼 남는 장사이니까. 저희가 집이 있었고, 외양간이 있었고 그랬는데 대문이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를 주는데, 돈을 버는 것이니까 미군은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어요. 다달이. 그러면 우리 집이 대문이 3개야. 맨 처음에 대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대문이 3개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대문을 뛰어넘어야 되잖아. 하도 많이 넘어져 가지고 이게(무릎을 보여 주면서) 다 까진 거야. 대문의 턱이 높아서. 그것을 뛰어다니면 넘어지고 그랬는데, 월세를 그렇게 많이 줬었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열 집이 살았다고. 그 수입이 짹짹했던 거예요.³(2011년 11월 11일 구술)



영외생활하던 미군의 방(국가기록원 제공)

석수동 미군 부대 부근에 살았던 1934년생의 주민은 미군과 동거한 한국인 여성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 그의 집에는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 이들이 살던 집 중에 방 아홉 칸 집도 있었다고 한다. 집에 방만 생기면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성과 미군 영외생활자의 거처가 되었다.

한 주민은 장교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 장교 부인은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성이었다. 당시 미군과 동거하던 한국인 여성은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흔하였다.

양놈들이 나이 많으면, 그러니까 얼굴을 화장을 하고 그러면은 모른다 말이야! 밤에. 응, 그래 한국이 나 미국이나 첫째 만날 적에는 '나이 몇 살 먹었나?' 묻지? 그러면은 내가 20살이면 17살, 16살이다! 이랬지. 그래 양놈들은 다 나이 어리잖아. 20살 미만도 있고 18살 먹은 것도 있고. 뭐 18살 먹은 것도 50 몇 살 먹은 여자하고 살고 이랬는데 뭐! 응,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지. 모르잖아! 우리 양놈들 모르듯이 나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⁴ (2011년 11월 18일 구술)



석수동의 미군이 영외생활하던 집(국가기록원 제공) 동거하는 한국 여성이 마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미살로프(국가기록원 제공)



김장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김치 장사를 하느라 바빴다.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자가 주문한 김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장 주문을 받은 우마차는 배추를 싣고 안양유원지로 향하였다. 유원지에 흐르는 냇가에 돌을 쌓아 독을 만들고 배추를 씻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동네 사람들의 겨울은 미군을 위해 담가주는 김장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집이 열 집이 살다 보니까 개네들도 김장을 해야 되잖아요. 김장을 하면 우리 집에 우마차가 있었으니까 드럼통에다 배추를 싣고 유원지 수영하는 데에다 돌을 막아놓고 거기서 배추를 절여서 집에 와서 양념을 해서 김장을 해서 주면 양생시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2011년 11월 11일 구술)

2) 미군에 의해 움직이던 동네 경제

미군 부대뿐만 아니라 국민유원지였던 안양유원지를 끼고 있는 석수동은 당시 안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였다. 당시 상권은 미군 부대 부근과 안양유원지로 향하는 길목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형성되었다. 외부에서 석수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였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주한 토착민은 농사와 미군을 상대로 하는 하숙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대부분의 하숙은 월세였으며 전세는 거의 없었다. 당시 악기를 제법 다루던 마을 사람은 미군 클럽에서 밴드연주를 하였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동네의 자원이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에는 지역 고유의 부대찌개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 부대찌개이다. 부대찌개는 미국이 먹다 남은 것을 파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대표적 음식이다. 미국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미군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햄과 소시지 등을 넣어 먹는 과정에서 부대찌개가 탄생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동두천, 송탄, 파주, 목포 등의 부대찌개는 각기 다른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부대찌개가 있는가 하면 독특한 소스를 개발하여 일명 대박을 친 부대찌개가 있다. 안양의 미군 부대 주변에는 동두천·송탄·파주·목포처럼 지역 특유의 음식문화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미군에서 나온 음식을 팔았다는 것 정도가 구술의 전부이다. 아마도 미군의 식사 배급을 하고 남은 음식을 잔반 처리하지 않고 뒤로 몰래 빼내어 석수동 주민에게 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음식은 주민들에게 ‘꿀꿀이죽’이라 불렸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는 맞은 편 의 석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는 석수동의 점포 영어 간판(http://www.mishalov.com/)

수동에 모였고 황금 자원이 되었다.

석수동 윗마을은 산업도로 경사지에 있었다. 이 동네에는 여섯 개의 양지바른 묘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에게는 잘 깔린 잔디에서 뛰어놀기 좋은 최고의 놀이터였다. 윗마을에는 얼음 공장을 병행하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었다. 미군 부대의 물자와 자원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과 얼음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영어가 가능하였다.

미군으로 상대로 한 장사는 생활 곳곳에 있었다. 글을 모르는 미군을 위해 돈을 받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도 흔하였다.

옛날에 흑인 병사들이 글을 몰라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받고 대필로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대필 써서 보내주고 답장이 오면 대신 읽어 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냥 대필 선생님이야! (2011년 11월 11일 구술)

미군 부대를 배경으로 한 뒷이야기는 동두천, 파주 등 비슷비슷하다. 미군 부대 PX는 한국인에게 인기 상품이었다. “이거 미제야.”라고 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을 만큼 미군 부대 제품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매우 높았다. 미군 부대의 PX 제품은 치마폭이 유난히 넓은 한복에 숨겨져서 영외로 반출되었고, 남대문 등지에서 팔리기도 하였다. 석수동은 동두천이나 목포처럼 미군 제품 중심의 블랙마켓이 형성



미군 부대 PX 내부(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http://www.mishalov.com/>) 1968년 8월 6일 PX 개장을 알리는 문구가 보인다.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종종 미군 PX를 상대로 한 영외 반출이 있었다. 당시 석수동 미군 부대에서 반출된 물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이 대부분이었다. 곡괭이, 헬멧, 그릇, 도끼, 대검 등 많은 물자가 오고 갔다. 작은 물품은 고무줄로 묶어 반출하고, 큰 물품은 부대 옆 개울로 던져 반출하였다. 하숙하던 미군이 떠나면서 남긴 미군 물건도 많았다. 미군 부대에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 집에는 보통 선풍기를 3~4대씩 보유할 정도로 물자가 풍부하였다.

옛날에 비공식적으로 양키 물건 장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요. 자! 가지고 나오는 얘기를 하면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중요 부분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오니까! 미군 농들은 정문에서 센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너가 있는 애들이니까 다 뒤통지 못한 거예요. 소위 언더웨어에 고무줄 같은 것을 묶어서 딱 넣고 오면 걸에만 볼록 나온 것만 확인하지 속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개네들은 그런 문화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갖고 나오기가 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큰 물건(선풍기, 아이스박스 등)은 어떻게 나오나 하면요! 미군 부대 담이 있어요. 개울 쪽으로 집어 던져요! 제일 간단해!! 개울가로 던져 놓고 돌아 나와서 주워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2011년 11월 11일 구술)

3) 미군 부대로 들어오는 미국 문화

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은 거의 새롭고 신기한 것이었다. 당시에 대중매체를 접할 수 있는 물건은 라디오가 유일하였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라디오는 최고의 인기 물품 중 하나였다.

1960년대 초, 석수동 조장환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생겼다. 텔레비전이 너무 귀해서 만화가계에서 돈을 주고 보던 시절이었다.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모여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중계를 보았다.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이는 단연 친구들에게 최고의 친구였다. 친구와의 친분에 따라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지 못하는 여부가 결정되었다.

미군 부대는 자라나는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 부대에 기타와 팝송이 들어오면서 동네에 팝송 문화는 자연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의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는 '옥슨 80'의 기타리스트가 되기도 하였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우유팩과 깡통은 동네 아이들의 놀잇감이었다. 종이조차 변



미군 부대 PX 잡지 판매대(1968년, 국가기록원)

변치 않았던 한국의 실정을 생각하면 우유팩은 보물이나 마찬가지였다. 남자아이들의 자산은 종이로 만든 딱지였다. 당시에는 신문지로 딱지를 접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노트의 겉표지나 종이상자로 딱지를 만들더라도 하면 아이의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다. 종이상자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우유팩은 아이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딱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유팩이 남자아이에게 가장 선호되는 딱지 소재로 사용되었다면, 깡통은 구멍을 뚫어 불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이었다.

그뿐 아니라 안양유원지 계곡은 어린이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망치로 바위를 치고 그 안에 있던 물고기가 기절해서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고 민물 장어를 잡아 구워 먹기도 하였다. 미군 부대 트럭이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면 아이들은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브 미 초콜릿”하며 쫓아갔다.

미군 부대를 통해 나온 LP판이 동네에 등장하였다. 당시의 LP판은 분당 33회 회전하면서 한 면이 연주되는 데 약 25분이 걸렸다. 거친 음식에도 불구하고 LP판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LP를 통해 들은 팝송은 자연스럽게 미군방송 AFKN으로 이어졌다. 자유 평화를 노래하던 Beatles의 ‘Yesterday’, ‘Let it be’, ‘Girl’,

‘Yellow submarine’, ‘Hey Jude’ 외에도 Eagles의 ‘Hotel California’, ‘Desperado’, ‘Sad Cafe’, Queen의 ‘Bohemian Rhapsody’, ‘Don’t stop me now’, ‘We are the champion’, ‘We will rock you’ 등이 당시를 풍미한 팝송이었다. 미군 부대가 한국 사회에 미친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미군 부대로부터 들던 팝송은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와 록 문화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미군 담장 너머로 건너온 팝과 통기타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 문화적 충격이었고 문화적 해방구였다.

석수동에 자리한 미군 부대의 주변에서 자란 사춘기 소년이 옥슨 80의 기타리스트 조연환이다. 옥슨 80은 대학가요제에서 ‘불놀이야’로 등장한 록그룹이다. 석수동은 안양의 다른 동네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좋은 조건이었다. 동네 아이들 누구나 팝송 한 곡 정도는 알 정도로 미군 부대의 문화적 영향력은 컸다.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팝송을 구전으로 배울 정도였다. 기타를 구입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 미군 부대 담장 넘어 동네로 들어온 기타는 문화 그 자체였다.

석수동은 안양의 다른 동네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그랬던 것이 왜 증명이 되냐 하면은 문화적으로 빨리 발달이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있는 친구들이 팝송 하나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 옛날에 Proud Mary(돌고 도는 세상) 구슬치기 하면서 다 배웠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삐뽀바 쿨라, 이것 엄청나게 유명했던 노래잖아요! (중략) 왜 이것이 발달했는가 하면 옛날에 미군이 가지고 있던 기타가 미군 부대 담장 밖으로 나왔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기타 생산도 어려웠고 물론 서울에서도 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타가 미군 부대에서 동네로 유출이 되면서 동네의 기타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기타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일찍 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유휴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노는 쪽으로 잘 발달했던 것 같아요. (2011년 11월 11일 구술)

4) 미군 부대 동네 아이들

동네 뒷동산에서 보이는 미군 부대는 동네 아이들에게는 병정놀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햇빛이 잘 드는 묘지가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시절 산소에 올라서면 미군 부대의 미국 성조기의 게양식과 하강식 장면이 보였다. 미군의 성조기가 내려갈 즈음 뒷동산에 놀던 동네 아이들은 멋진 군인을 상상하며 성조기를 향해 경례를 하였다. 각 잡힌 옷과 하얀 장갑을 끼고 진행되는 성조기 하강식은 아이들 눈에는 최고로 멋진 장면 중의 하나였다. 성조기 하강식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자기들만



미군 지프에 올라탄 석수동 아이들(국가기록원 제공)

의 병정놀이를 하였다. 지금은 그 자리가 사라지고 버스정류장이 들어섰다.

동네 형 집 뒤에 산소가 있었고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데야. 안양 쪽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에 산허리가 잘렸잖아. 거기 아래쪽에 조그만 산소가 있어 거기서 쳐다보면 미군 부대가 보인다고. 하기식(국기 내리는 의식)이 보인단 말이야. 미군 애들이 성조기를 잡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보고 멋있단 말이야. 뽀- 뽀! 뽀뽀라- 뽀뽀라- 뽀뽀 뽀, 이런 나팔소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UN군 병정놀이지. 그리고 우리도 같이 경례를 하고 생각이 나.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죠. 버스정류장으로 변했죠. (2011년 11월 11일 구술)

미군 부대가 일 년 중에 오픈하우스처럼 지역주민에게 열린 행사를 하는 날이 있었다. 유엔데이(UN-DAY)였다. 유일하게 이날은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의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당시 자판기가 없었던 한국에 자판기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미군 부대였다. 자판기를 처음 본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고 생소할 뿐이었다.



석수동 미군 부대 영내(<http://www.mishalov.com/>)

어렸을 적에는 아픈 추억이지만 옛날에 유엔데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하고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뭘 하나 하면은 미군 봉고 트럭 같은데다가 초콜릿, 줄줄이 사랑 같은 것을 잔뜩 싣고 던져주는 거예요. 막 던져주면 일단 큰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던져주면 주머니에 넣고 또 주우면 쫓아가면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그런 아픈 기억이 생각나요. 그날뿐만 아니라 미군 트럭들이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무조건 손 흔들면 미군들이 초콜릿을 던져줘. 차만 지나가면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기브 미 초콜릿” 했어요. (2011년 11월 11일 구술)

부대를 오픈하는 유엔데이 날, 들어가면 하루종일 먹을 것은 전부 무료였어요. 환타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마음껏 먹는 것, “이게 뭘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자판기였어요. 생전에 한 번도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을 우리 애들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종이컵도 이만한(큰 종이컵 크기) 것인데 그것을 하루 온종일 먹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만큼은 먹을 것, 선물, 당구장 등 구경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종일 유엔군이 대민 차원에서 그런 날을 정해서 하루종일 오픈했던 기억이 나요. (2011년 11월 11일 구술)

크리스마스에는 미군들은 클럽이나 그들의 하숙집으로 왔다. 하숙하던 미군 중에는



석수동 미군 부대 PX(국가기록원 제공)

한국인 여성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손에는 고깔과 장난감이 들려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미군이 가지고 온 고깔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미군 부대의 크리스마스는 석수동의 아이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로 기억되고 있다. 석수동에는 전쟁고아를 키우는 보육원이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미군 부대에서 보육원에 초콜릿 등 많은 물품이 전달되었는데 보육원 아이의 초콜릿과 석수동 아이들이 가져온 물품과 맞교환하기도 하였다. 가을철에는 동네에서 키워 낸 과일과 보육원 아이들이 가져온 초콜릿과 바퀴 먹기도 하였다.

석수동에서 사는 아이 중에는 미군의 막사나 침상을 청소해주는 아이들이 있었다. 일명 ‘하우스보이(Houseboy)’다. 하우스보이는 청소 및 기타 형태의 개인 집안일을 수행하는 남성 가사 노동자 또는 개인 비서를 의미한다. 하우스 보이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남성 가사도우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남자아이 가사도우미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하우스보이는 당시 큰 위세를 떨쳤다. 당시 미군 부대 일하던 하우스보이가 가지고 나온 물건은 “이거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이야.”라며 목에 힘을 주고 물건을 팔았다.



미군이 가져온 잡지를 보는 석수동 여인들(국가기록원 제공)

하우스보이들이 물건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내가 10원 주고 사면은 나까마(도매)들이 영등포에서 와. 나 까마는 10원인가 1원인가 남겨주지. 나는 미군 물건 받아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 놔두고 그 사람에게 조금 남기고 팔아. 그러면 나까마가 가지고 가서 영등포 가게 하는 데 있었거든. 말하자면 나는 1원 남기고 거기는 10원 남기고 거기다(소매상) 넘겨주는 거야! 음 뭐, 초콜릿, 커피, 담배 그리고 나는 촬영소 그때 영화 촬영소 있을 때 색시라고 있는데, 애 동생이 조그만했을 때 업고 다니면서 담배, 커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가곤 했지. 그곳에 가면 영화 촬영하는 것부터해서 한참 구경하고 그랬지 (2011년 11월 18일 구술).

어떤 때는 매일 같이 오지. 또 양색시들도 미군 시켜가지고 PX 가서 사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도매를 사는 거지. 커피 하나를 1,000원 주고 사면은 영등포 사람이 와서 1,100원 주고 사. 나까마로 또 100원 붙여가지고 팔고. 100원씩 올리기도 하고 1,000원씩 올리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양주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 그것은 양색시들이 미군들 시켜가지고, 두 병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담배니 뭐니 그때는 미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귀했어. (2011년 11월 18일 구술)

5) 그들만의 세상, 미군 클럽

안양(安養), 만안(萬安)은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뒤편길에 드리워진 한반도 한편의 땅,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으로 이어지는 아픈 상처가 드리워 있는 땅이다. 석수동 미군 부대 터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하늘 아래 드리워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GATEWAY’라는 작은 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GATEWAY는 한국식 영어 발음인 ‘게이웨이’로 불렸다. 일명 콩글리쉬이다. 마을 사람들은 당시 미군이 발음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게이트웨이(GATEWAY)는 우리말로로는 관문을 의미한다. 관문은 벽을 통과하는 넓고 높은 입구를 뜻하는데, 다른 곳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석수동 미군 부대 근처의 게이트웨이는 미군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클럽이었다. 게이트웨이 이름처럼 미군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를 비롯하여 석수동에 자리한 미군 부대 주변에는 여러 클럽이 있었는데, 미샬로프 사진에는 Peacock, My Club 등의 클럽 사진이 있다.

예전의 ‘GATEWAY’는 이곳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중요한 기억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미군 부대의 군인 닐 미샬로프 덕분이다. 닐 미샬로프의 사진 기록은 안양의 근현대사를 담아낸 역사적 사료가 되었다. 당시 석수동은 안양에서 가장 화려한 변화가였다.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안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였다.

전철 1호선 관악역에 내려 철로 공중다리를 건너 처음 만나는 곳이 성혜의원 자리이다. 당시 성혜의원은 안양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의원이었는데, 성병 진료소 간판이 있었다. 성병 진료소는 아픈 한국 현대사의 한 이면이다. 성혜의원은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당시 석수1동과 석수2동 사이에 석수육교가 있었다. 이 육교는 석수1동 주공아파트 7동과 성혜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육교였다. 동네에서 이 육교를 ‘성혜육교’라고 부를 만큼 동네에서 유명한 의원이었다.

아, 이것이 성혜의원인가!(부산사투리) 여! 저 철독 안에 지금 뭐라고 하노. 고물상 앞에 25시편의점 앞에 있는 집이다. 이 집 아버지가 여기서 할 적에 안 돼 가지고 여 아버지가 잡았다! 여 아버지가 어떻게 성혜의원 원장이 군의관으로 있었던가 봐. 그래 알아가지고 ‘들어 온나. 병원이 없으니까! 잘



석수동의 미군들이 이용하던 클럽 내부(<http://www.mishalov.com/>)



석수동의 미군 클럽 'GATEWAY' 안내판(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 석수동의 미군 클럽 'Peacock'(국가기록원 제공)



석수동 미군 부대 근처 클럽 'MY CLUB'(국가기록원 제공)



성병진료소를 겸하던 석수동 성혜의원(국가기록원 제공)

미살로프 사진관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풍경



철도 건널목 주변(현재 경수대로1201번길 삼천리자전거 석수점에서 경부선 철길 방향)



석수동 마을 안길(현재 경수대로1201번길 삼천리자전거 석수점에서 미군 부대 방향)



석수동 주택 담벼락의 영화 포스터



석수동 미군 부대 정문 앞 풍경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풍경



1번 국도 풍경



1번 국도 석수동 서리재고개 근처



석수동 1번 국도 변(만안로)



제83병기대대 보급로(1번 국도-만안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행하는 석수동 1번 국도

석수동 사람들

- 1 나무 지게를 진 노인
- 2 60년대 석수동 마을 우물가
- 3 발에 빠진 미군 트럭을 끌어내는 군인들
- 4 발에 빠진 미군 트럭을 끌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는 석수동 아이들







1

- 1 수확의 기쁨
- 2 키질하는 부부
- 3 짐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 4,6 석수동 아이들
- 5 밭에서 농사를 돕는 아이
- 7 엄마와 아이들



2



3



4



될 거야 양색시들이 많으니까!’ 그래 여기서 양색시들 검진도 하고 하다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여 아버지가 잡고, 잡고 그랬거든. 그래서 양색시들 검진하고 돈 벌어가지고 병원 크게 지었다. (2011
년 11월 18일 구술)

3. 안양 현대사의 포토그래퍼, 닐 미샬로프

1967년 9월 6일, 닐 미샬로프는 25살이 되기 5달 전 미국 군대에 징집되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포트 해밀턴(Fort Hamilton, Brooklyn, New York)에 배치 받았다. 1967년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 포트 잭슨(Fort Jackson, South Carolina)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는 1968년 3월 19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제8군, 83보급대대 소속의 제7보급 중대로 배치되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당시 서울의 남쪽인 안양을 신안양리 석수동에 부대 본부가 있었다. 그의 안양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된 닐 미샬로프에 임무가 주어졌다. 83대대 주임원사인 다니엘 니팡(Daniel Nifong)은 그에게 우편원 업무를 부여하였다. 우편원은 전령과 같은 보직으로, 우편물을 비롯하여 중요한 문서 수발을 담당한다. 그 보직이 훗날 안양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가 되리라는 것을 당시 이등병이었던 닐 미샬로프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두 번 서울 용산에 있는 미8군 사령부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지프차와 콜트 45구경 권총을 지급받았다.

닐 미샬로프의 취미는 사진이었다.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에는 호사스러운 취미였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징집되었을 때 니콘 카메라를 가지고 입대하였다. 그가 안양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은 니콘 F2 카메라, 55mm f1.4와 200mm f3.5 렌즈로 찍은 것이다.

그는 1968년과 1969년 약 2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서울의 용산과 안양을 왕래하며 카메라로 담은 기록을 컬러 사진으로 남겼다. 당시의 한국은 흑백 사진도 귀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가 찍은 컬러 사진 한 장 한 장은 안양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다. 그가 주로 사용한 필름은 아그파크롬(Agfachrome ASA 50) 슬라이드 필름이었으며, 모든 이미지는 35mm 컬러 슬라이드로 인화하였다. 당시 거의 모든 필름은 구입할 때 현상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찍은 사진은 미국으로 보내 인화하였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미군 닐 미샬로프(국가기록원)

당시 미샬로프가 찍은 사진 중에 서울, 인천은 지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서울 반대로 향하는 그 어느 곳은 '컨트리'로 표시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서울을 제외한 길은 컨트리였던 것이다. 석수동의 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미샬로프는 눈에는 안양 석수동이 서울 그 언저리 한구석에 기대어 보려는 컨트리로 보였을 것이다. 닐 마샬로프의 방문 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석수동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컨트리라고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재에 있어서, 그날의 기록을 담은 그의 사진은 오늘날 안양의 역사가 되고 있다.

註

- 1 특별한 설명이 없는 모든 사진들은 닐 미샬로프가 촬영한 것이며, 소장처는 국가기록원이다.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7권, 2008, 112쪽.
- 3 조연환 구술 내용이다. 조연환은 석수동 출신으로 '옥손 80'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였다. 2011년 11월 11일 면담.
- 4 원향윤(여, 1932년생)의 구술이다. 그녀는 부산에서 1960년 무렵 남편과 석수동 미군 부대 근처 동네로 이주하였다.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에게 방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 18일 면담.

제5장

안양의 최북단 마을, 석수동 연현

김영재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겸임교수



안양의 북쪽에 위치하는 석수동은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는 동이다. 특히, 석수2동의 연현마을은 석수동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연현(鸞峴)이라는 지명은 석수2동 LG빌리지 입구의 안양육교 부근에 험준한 고개가 있었는데, ‘솔개가 넘는 높은 고개’라고 하여 ‘연현’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현재 연현마을은 동쪽으로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1번 국도 건너편인 석수1동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안양천을 경계로 광명시와 접해있다.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과 접한다. 남쪽은 석수산이 자리하고 있어 석수동의 다른 지역과 분리된다. 연현마을의 범위는 대략 기아대교와 제2경인고속도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지만, 서울의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는 서로 다른 지역이다. 1914년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은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서울 주변 위성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1970년대 이후 자체적인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안양이 1973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광명은 1981년에 광명시로, 과천은 1986년에 과천시로 독립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안산시, 1989년에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분리되면서, 시흥시는 시흥군의 나머지 영역에 해당하는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의 인접 지역으로 구획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경기 서남부의 행정구역 변화는 1990년대까지 이어진 우리 경제 성장만큼이나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연현마을을 둘러싼 촘촘한 도로망과 복잡한 행정구역의 경계는, 안양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위성도시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1. 연현마을 주변 교통망의 역사적 전개

연현마을의 동쪽으로는 국도 1호선이 자리하고 있다. 국도 1호선은 신의주에서 목포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는 파주시 문산읍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구간은 조선 정조 때 개통하였고, 현재는 시흥대로·경수대로 구간과 일치한다. 조선왕조는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했던 만큼, 서울에서 신의주를 연결하고 그 이후 베이징까지 연결되는 연행로(燕行路)의 도로망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국도 1호선은 원래 서울 도심까지 연결되는 도로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간선도로망이 확충되었고, 연현마을 북쪽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오랜 역사가 있는 교통망은 1905년에 개통한 경부철도이다. 경부철도는 1901년 착공하여 1905년에 완공되었다. 일제는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 및 철도망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경부선을 건설하였다. 경인선 철도에 이은 두 번째 철도 노선이었는데, 개통 당시는 경성역에서 부산의 초량역까지 운행하였다. 경부선 철도

1969년 연현마을 남쪽 안양육교 일대(경기도청 제공) 철길을 건너는 안양육교 부근에 높은 고개가 있어서 '연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오른쪽에 정렬한 탄약고가 보인다.



개통 당시 현재 연현마을 부근에는 안양역, 군포장역 등이 있었다. 현재 이들 역은 부도 심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당시는 물동량과 유동인구가 적어, 작은 '보통역'으로 개통되었고, 거주민들이 원거리로 오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석수역은 지하철 1호선의 노선을 통해, 수도권의 각지로 이동이 가능한 필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가 운행되고 8·15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며, 파괴와 복구가 반복되었기에 간선철도망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는데, 이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의 구간이었다. 현재는 연결되어 운행되지만,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특별시 즉, 서울지하철공사가 관리하였고, 경부선에 해당하는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거쳐 안양 및 수원으로 향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였다. 이런 까닭에 서울 지하철의 경우,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지나던 승객들은 관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 전원이 차단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석수역이 준공된 것은 1982년인데, 이는 서울 지하철 개통 이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진 뒤에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체제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연현마을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석수역은 1982년에야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1982년 이전의 연현마을에서는 국도 1호선을 지나는 노선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바쁘게 철로를 오가는 철도의 소리는 연현마을 풍경의 일부였을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없이 배경으로 기능하였다.

2. 공업화 바람이 바뀌 놓은 연현마을 경관

1960년 지금의 석수체육공원 근처 석수산 자락에 탄약고가 있었다. 석수동의 83병기대대가 관리하였다고 한다. 당시 콘센트 막사 형태의 탄약고 여러 개가 산자락에 서 있는 모습은 1번 국도를 지나면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또한 연현마을 주변으로 철강 산업에 관련된 작은 공장들이 이전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서울에 소재하던 작은 철강 관련 공장들이 연현마을 주변으로 이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의 연현마을은 농지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나대지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1번 국도변에는 철강과 관련된 작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는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 사이의 지역에 해당한다. 아마도 1966년 서울의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에 밀려, 서울 중심부에 있던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들의 이전이 단행되었던 영향으



1966년 연현마을 일대



1974년 연현마을 일대

로, 그중 일부가 연현마을 주변으로 이주해 영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가까운 화물역이 없었기에 이런 공장들은 상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농사가 이루어졌으며, 국도와 철도로 인해 동쪽의 석수1동 지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야트막한 언덕으로 이뤄진 고립된 형태의 지역에 공장과 농지가 혼재하는 모습이였다. 정비되지 않은 안양천은 농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치수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들은 남쪽 도로변의 고지대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번 국도를 통해 이어지는 도로의 방향도 연현마을 남쪽을 통해 진입하는 하나의 진출입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규모 공장의 이전은 연현마을의 풍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현재도 존재하는 태양당인쇄의 이전이 있다. 1947년 설립된 태양당인쇄는 1972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연현마을 경내에 건설된 최초의 대규모 산업시설이었다. 이를 통해 연현마을



1981년 연현마을 일대



1985년 연현마을 일대

의 평화로운 풍경은 고도 성장기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태양당인쇄의 이전과 함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부근의 광명 소하리, 즉 현재 광명시 소하동의 자동차 공장 준공이다. 기아산업은 1973년 소하리에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4년에는 현재의 연현마을에 삼흥유지공업의 공장이 세워져 유지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는 현재 제일산업개발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에 해당한다. 화학공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오폐수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1979년 석수동 435번지
일대 주택(안양시청 제공)
현재 태양당인쇄 근처
안양천 변이다.

태양당인쇄와 삼흥유지 공장 설립을 통해 연현마을에 생산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고, 소하리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연현마을의 풍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쪽의 언덕을 제외하고 모두 평지로 이뤄진 연현마을에 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어진 초기 주택은 현재까지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 1974년 항공사진을 통해 보면, 당시 연현마을은 대부분이 농경지였고 안양천 변으로 주택 일부가 있을 뿐이다. 아마도 주택의 형태는 슬레이트 단층 주택이었을 것이다. 이는 1979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볼 수 있는 연현마을의 주택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택들은 1980년대 중반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때까지 남아 있었다. 주변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근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현마을에 주택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출퇴근하였다. 이 주택지에는 19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아파트 주변에 공장 과 산업시설이 섞여 있는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다.

3. 필요를 찾아 모인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

1979년 6월, 연현마을에 동아제약의 석수동 공장이 들어섰다. 공장에서는 동아제약과 동아오츠카라는 자회사의 품목을 생산했으며, 연현마을은 공업단지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카스의 원료와 완제품, 그리고 포카리스웨트 등의 제품이 연현마을의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소규모의 공장과 주거지가 있던 동네는 점차 공업단지와 그 배후 주택가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주거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10월, 삼흥유지가 있던 부지에 제일산업개발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섰다. 현재는 한일레미콘이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의 공장은 연현마을에 주거지가 확충·정비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연현마을에는 태양당인쇄에 이어 동아오츠카 공장과 제일산업개발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재 중심 산업도 함께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식음료 산업 분야의 동아오츠카 공장은 활기를 띠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으로 인해 도로망과 도시 시설 정비가 시작되었으며, 레미콘과 아스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연현마을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 또한 건설업의 활황과 더불어 막대한 생산량을

사랑하였다. 올림픽이 지나고 제6공화국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을 거치며, 건축 토목업의 급성장세는 이어졌다.

연현마을의 주택 또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일부가 남아 있는 승원빌라는 1979년 준공되었고, 같은 해 동삼아파트도 준공되었다. 이어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4층이나 5층 규모였다. 정비되지 않은 채 단층 건물들만 있던 연현마을 주변에 기아자동차 공장, 동아오츠카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주거용지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비되지 않은 건물들과 나대지는 주택 용지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단층 위주의 현대식 건물보다는 공동주택, 즉 ‘빌라’ 형태의 주거시설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82년 석수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연현마을의 유동 인구는 훨씬 더 증가했으며, 교통의 편리함에 이끌린 이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대보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같은 해 세우아파트와 석수한신아파트도 지어져 입주가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성진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현재도 남아 있는 승원빌라와 주변 다세대주택은 당시 연현마을 풍경을 크게 바꾼 새로운 전기의 시작점이었다. 과거에는 새로 들어선 공장을 중심으로 그 배후에 소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서울 광역 전철망이 확충되고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면서, 과거에는 연현사거리 방면으로만 출입할 수 있던 고립된 연현마을이 석수역 개통과 함께 광역 연결망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서울 방향이나 경기 남부로의 이동이 용이해졌고,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 중 상당수는 기아자동차 공장이나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해진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가운데, 주거지역을 위한 상점과 편의시설 또한 확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활기찬 형태의 주거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연현마을의 인구 증가는 대규모 단지보다는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에는, 낮에는 활기차게 공장이 가동되고, 밤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주거와 공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연현마을은 서울과 유사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로서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도로망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도시의 건설과 그 부지의 선정이 우선시되었다. 안양시에서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량·개선 사업과 도로,

교통 및 편의시설의 확충보다는 제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평촌신도시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연현마을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1992년 판교에서 일산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94년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이 건설되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외에, 자가용을 이용한 광역 출퇴근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졌다. 연현오거리 근처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가 신설되어 고속도로와 직접 통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났으며, 연현마을에도 광역교통망을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 무렵부터 연현오거리 일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차량의 진출입이 연현오거리 방향으로만 가능했던 상황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체증이 발생하였다.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과 주민의 생활 차량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석수역이라는 대중교통의 출입구가 마련되었지만, 이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거주민이 원활하게 이

석수산에서 바라본 연현마을(이정범 제공)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현마을 동아오토카 공장(이정범 제공)

동하기에는 연현마을의 자족적 인프라가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에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또한 거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더해 1980년대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재건축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연현마을이 자족적인 주거 기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교육기관이었다. 연현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연현마을의 취학 아동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특히 경수산업도로라고도 불리던 1번 국도의 거대한 규모는 안전한 교육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었다. 행정구역상 연현마을은 석수역부터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석수역 남쪽이나 1번 국도 건너편의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준 것이 1996년에 설립된 연현초등학교였다. 2002년에는 연현중학교가 연현마을에 설립되면서 부족한 자족적 기능이 확충되었다. 이로써 연현마을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연현초등학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4. 주거 밀집지로 거듭난 연현마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아오츠카 공장의 일부 부지에 석수LG빌리시아파트가 건설되었다. 기존에 있던 5층 정도의 아파트들에 비해 높은 10층으로 건축되었으며, 34개 동 1,872세대의 대규모의 단지가 조성되었다. 2001년 입주가 시작되었고, 단지 내에는 새로 설립된 연현중학교가 함께 자리 잡았다.

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던 연현마을은 석수LG빌리시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점차 주거 중심의 자족적 지역으로 변모하는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2002년에는 기존 연현마을의 저층 아파트와 비슷한 층수를 갖춘 석원홈타운이 건설되었다. 석원홈타운은 석수역 바로 옆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연현마을 주민에게 가장 편리한 입지를 제공하였다. 학교가 세워지고 현대식 아파트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석수LG빌리시아파트는 연현마을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주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재건축이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안양석수하우스토리아파트와 연현초등학교 사이 연현로1번길(이정범 제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단지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5층 규모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단지들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성진아파트가 있던 곳에는 안양석수현진에버빌아파트가 3개 동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5층으로 건축되어 154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석수LG빌리자아파트에 이어 또 하나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었다. 예전 석수한신아파트 부지에 18층 높이의 12개 동, 742세대의 연현마을두산위브아파트가 들어섰다. 2009년에는 예전 세우아파트가 있던 부지에 안양석수동한양수자인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이 단지는 15층의 높이의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세대가 입주하였다. 2010년에는 대보아파트 부지에 석수청광플러스원

아파트가 15층 단일 동, 48세대 규모로 건축되었다. 2011년에는 과거 동삼아파트 부지에 안양석수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가 15층 6개 동, 281세대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2011년 이후로 연현마을은 생산 용지보다는 주거 용지가 압도적인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단조롭던 스카이라인도 10층에서 18층의 건물로 구성된 신축 아파트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재건축을 통해 연현마을의 아파트 가구 수는 3,223세대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2001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연현마을은 기존의 공업지대와 배후 주거단지로 구성되었던 지역에서, 주거단지 중심의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안양천은 공장지대들이 즐비한 공업용수 공급원으로서 1970년대부터 기능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배수로와 삼성천, 수암천 등의 지류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에 치중하였다. 현재의 안양천과 달리 당시에는 공업용수 조달과 하수 처리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치수 사업이 미비하여 1977년 집중호우 때 대홍수가 발생하는 등, 안양천 변 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관심을 통해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면서 무분별하게 하수를 방류하던 과거의 관행이 사라졌다. 동시에 안양천 주변의 생태계를 복원·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이후로는 안양천의 생태와 수질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어, 안양천을 이전의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안양천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휴식·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24년까지 안양천 주변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연현 마을의 서쪽은 안양천과 맞닿아 있다. 현재는 독의 역할을 하는 석수로가 있는 부근이 안양천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의 역할을 한다. 개선된 안양천과 변화된 연현마을의 주거 형태는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5. 경계에 서 있는 연현마을

연현마을에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전통적으로 연현마을에 거주하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인근의 공장지대나 근거리로 출퇴근하던 2000년 이전과 다르게, 쾌적해진 주거환경과 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더 먼 곳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로 변화하였다. 이후에는 외부 지역에 직장을 둔 사람들도 연현마을 주민으로 합류하였다. 1번 국도와 지하철을 통해 서울 여의도 및 중심부와 직접 연결됨에 따라 더욱 젊은 사람들이 연현마을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노년층과 젊은 층이 비슷한 비율로 거주할 정도로, 젊은 인구 유입이 뚜렷하다.

1) “여기가 안양이에요?”

연현마을은 석수로와 연현로로 통한다. 연현마을에 들어서면 이 지역을 크게 둘러싸는 하나의 순환도로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연현마을 전체 부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이다. 석수LG빌리시아파트와 각 아파트로 연결되는 내부의 도로망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교통망이 직접 관통하는 구간이 없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통행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연현마을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산책도 가능하다.

반면, 인근의 간선 고속도로망은 연현마을을 둘러싸는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연현마을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연현마을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연현오거리를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는 광역 교통망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했지만, 광역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불편 및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2016년에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금천IC를 통해 서울의 사당·강남 지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 연현마을의 광역 교통망을 매우 편리하게 하였다. 연현마을은 교통의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역 교통망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광역 교통망은 역설적으로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지도상에서 연현마을은 마치 섬처럼 광역 교통망에 둘러싸여 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들에게는 편리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연현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경로와 비슷하게 이동해야 하였다. 2015년 2월, 왕복 2차선 연현지하차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석수역을 거쳐 들어오거나 연현오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도보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연현오거리나 석수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었다. 아파트 단지의 차량이 증가하면서 연현오거리로 이어지는 교통 체증이 심해졌다. 이를 해소하고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현지하차도의 개통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연현지하차도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연현오거리에 서울 방향과 안양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모두 모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지하차도의 개통을 통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안양시의 서북쪽 경계면에 위치한다. 상술한 행정구역상 부도심의 부재는 안양 시민으로서 정체성 형성을 약하게 하였다. 금천구 시흥동, 광명시, 평촌 신도시 부도심 등이 주요 생활권이 되면서,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나 평촌 신도시와 같은 공간은 안양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는 거리가 생겼다. 현재의 간선도로와 역세권 중심의 조건은 행정구역상 안양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울과 인접하고 광명시 부도심을 이용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우편물 수령이나 선거철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스스로 '안양 시민'이라 자각할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에 인접한 여러 위성도시가 큰 의미에서 '서울권'이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서울 부근에 거주하는 '광역 서울 시민'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2) 생활 편의 시설의 부족

학교가 세워지고, 주거가 개선되면서 연현마을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현재는 석수LG빌리자아파트, 석수한양수자인아파트 그리고 안양석수현진에버빌 아파트가 만나는 곳이 연현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다. 석수LG빌리자아파트 상가동이 있는 곳이다. 간단한 장보기라면 충분히 가능한 곳이지만, 3,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경유지로서 역할이 없고, 오직 연현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가일 수밖에 없는 상권의 입지가 여러 종류의 점포들이 연현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인근의 부도심으로 이동해 원하는 생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근에 가까운 부도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안양천을 건너 광명의 부도심에서 장을 보거나 약속을 잡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금천구 시흥동에 마땅한 부도심이 없고, 안양역 주변이나 평촌 일대의 부도심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편이다. 편의점도 현재는 석수역 앞에 1개소, 연현오거리 쪽에 1개소로 접근성이 부족하다. 편의시설의 부족을 감수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마을 풍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주거단지 규모에 비해 상업지역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른 단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제일산업개발 이전 문제

2018년 연현마을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던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이 큰 논란에 휩싸였다. 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주변 초등학교를 포함한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연현초등학교와 가깝게 붙어 있는 제일산업개발의 부지는 변화된 연현마을의 기능과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2024년 현재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안양시는 이 부지를 공영개발의 형태로 만드는 안과 시민공원으로 바꾸는 안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의견 수렴 중이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현재의 자리에서 운영 중이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 연현마을의 주거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연현초등학교의 경우 1996년에 설립되었다.



연현마을에 자리한 제일산업개발



제일산업개발 이전을 요구하는 연현마을 주민들(2018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연현마을 남쪽, 즉 연현오거리 인근에서 석수로를 경계로 분리된 지역에 연현초등학교와 제일산업개발 부지가 위치한다. 제일산업개발로 향하는 진입로는 연현오거리 초입에서 갈라져 나와, 연현마을의 다른 지역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다만, 연현오거리에서 연현마을에 출입하는 차량과 제일산업개발의 차량이 만나게 된다. 제일산업개발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해 분리된, 석수체육공원으로 통하는 편도 1차선의 좁은 이동로가 있다. 일상적으로 제일산업개발의 레미콘 차량과 마주칠 일은 드물다. 그러나 석수체육공원으로 이동하려면 제일산업개발 진입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1번 국도로 나갔다가 다시 석수체육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제일산업개발과의 논란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연현초등학교 부근의 남아 있는 녹지를 산책로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에 현재의 자리에 자리 잡았다. 제일산업개발은 고도 산업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지역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주거 기능이 강화된 연현마을에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풍경으로 남아 있다. 환경적·산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연현마을의 변화는 갈등으로 이어졌고, 2024년 현재도 법정에서 다투지고 있는 진행형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스콘을 생산하는 제일산업개발은 현재 연현마을의 발전과 풍경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스콘 공장은 공사 현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제일산업개발 부지의 이전과 그 효율적인 이용은 연현마을의 변화에 필수적이다.

4) 더 나은 연현마을의 미래

현재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갖춘 연현마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공장들과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기록으로 가득한 곳이다. 현재 연현마을은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교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자족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연현마을 서쪽의 정비된 안양천 변 역시 연현마을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석수LG빌리지아파트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LG빌리지는 가장 큰 단지이기에, 그 변화가 곧 미래 연현마을의 모습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석수동 연현마을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사이 대로변에는 여전히 과거의 소규모 철강공장들이 남아 있다. 현재는 그 주변에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도 공존하고 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연현지하차도 양쪽에만 위치한다. 만약 연현오거리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의 철강공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충한다면 주민들이 광명이나 안양의 다른 부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현마을에는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석수로를 건너지 않고도 안양천 변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세월교를 통해 도보로 광명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차량도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망을 확충한다면, 연현마을을 오가는 유동 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연현마을이 보다 완전한 자족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제6장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석수럭키아파트

조아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연구원



1. “안양 석수동에 럭키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1986년 3월 말, 안양시 석수2동에 건설될 석수럭키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었다. 1987년 준공된 석수럭키아파트는 735세대로 구성되었다. 분양 광고에서는 석수럭키아파트가 “럭키금성의 건축자재로 럭키개발이 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 럭키개발은 GS건설의 전신으로, 1995년에 LG건설로, 2005년 LG그룹과 GS그룹의 계열 분리 후에는 GS건설로 사명이 바뀌었다.

1970~1990년대에는 안양 지역에 럭키금성그룹의 연구소와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석수럭키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장수가 기억하기로, 석수럭키아파트는 럭키금성그룹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분양을 진행한 후 잔여 세대에 대해 일반에 분양했다고 한다. 김장수도 1987년 일반 분양부터 석수럭키아파트에서 거주해 오며 아파트 상가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석수동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5층 이하의 아파트가 혼재한 경관이었다. 석수럭키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안양시 공설운동장이 있던 곳이다. 이 공설운동장이 현재 비산3동으로 신축 이전한 것이다. 비산동의 안양종합운동장은 1986년 6월 30일에 개장한 것으로, 서울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². 석수동의 공설운동장은 2,790평 규모로 비좁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확장이 어려워 매각 이전이 결정되었다. 운동장이 이전한 후 그 자리에 석수럭키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1980년대 석수동의 아파트는 대부분 15평형 내외의 5층 주공아파트였다. 그에 비해 1987년에 준공된 럭키아파트는 15층 높이에 25평형(75세대), 28평형(270세대), 31평



석수럭키아파트 분양 광고 (『동아일보』, 1986년 3월 15일)

형(330세대), 40평형(60세대)으로 더 넓은 평형과 현대적인 설계를 도입하여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었다. 1986년 당시 분양금액은 25평형 기준으로 2,622만 3,000원이다. 당시 7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이 17만 7,000원, 5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이 23만 7,000원이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분양가가 비싼 편이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에 석수럭키아파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는 장임순은 입주 당시의 석수럭키아파트를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장임순 : 저 평촌동이었요 전~부 논이었어요. 근데 평촌동에 서민 아파트, 연탄 때는 아파트 그제 한 동 있었고. 지금 이마트 앞에 래미안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짝꼬맣게 아궁이 불 때는 아파트였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럭키아파트는 그 중 짱이었죠. 제일 좋고. 엘리베이터가 1호니까. 딴 데는 엘리베이터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때는 다 복도식이렸는데 여기는 라인이잖아요. 다 엘리베이터니까 그제 최고였지.

석수럭키아파트는 석수동 인근의 “아궁이 불 때는 아파트”와 달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저층 아파트가 연탄 난방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 연탄 아궁이가 사라지고 기름보일러로 바뀌어 갔다. 1958년 건설된 서울 종암아파트를 비롯하여 한국의 초창기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대부분 온돌이었다. 1960~1970년대는 다양한 연료 사용의 시험기였다. 연탄 아궁이

럭키석수아파트

40.95 평형 **특혜분양 실시**

중시 입주 가능

(1,000만원 무이자용자맞금상가건제품등 사은품증정)

서울의 관문 안양 석수동에 위치한
총 735세대의 럭키석수아파트—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5.28.31평형은 100% 분양완료)

분양가격

층	평형	분양가	보증금	잔금	주차료
1~10	40.95	1,000	10,000	25,000	10,000

- ※ 용적률은 일부러군입부터 3년간 부지가 담보로만
- ※ 용자금 선납하는 날 1% 할인 (110만원)

면적

층	면적	평형	평수	평수	평수	평수
1~10	40.95	43.00	43.00	43.00	43.00	43.00

럭키석수아파트 위치도



교통편

- 서울시내버스 : 98, 99, 103, 103-1, 104, 104-1번
- 서울특별시버스 : 703, 704, 795번
- 안양시내버스 : 1, 2, 3, 8, 11, 11-1, 12-1, 15, 16-1, 19번

럭키 석수아파트의 특징

1. 수도권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
2. 건물면적 및 세어비스면적을 극대화한 공간설계
3. 계획되고 이상적인 주거환경
4. 3Zone 난방시스템 채택
5. 비키금성의 우수한 건축자재사용

분양안내

분양사무소(안양) : 40-9370 (가운) : 803-2217
 럭키개발영업 1부(가운) : 780-0021-31



석수럭키아파트 분양 광고물 (태양공인중개사사무소 제공)

방식,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전기온돌 등이 잇따라 개발되었고 이 방식들은 집집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연탄 아궁이 방식은 1981년까지 주공아파트에 도입하였고, 이후부터는 연탄보일러 방식이 채택되었다. 민간 건설사가 건립한 아파트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탄을 주원료로 하던 주공아파트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으로,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앙난방 혹은 세대 내 보일러를 통한 개별난방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2. 석수럭키아파트의 주거환경

석수럭키아파트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곳이 주변에 역이 많고 서울에 인접하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 그리고 조용해서 육아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교통의 편리함과 조용한 장소로서 거주 기능이 부각되는 이면에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놀 곳'이 없다는 아쉬움이 자리한다.

1988년 석수 럭키아파트 일대 (안양시청 제공)





석수럭키아파트 정문 출입구 전경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이사 온 김미선(가명)은 아이가 없었을 때와 아이가 있을 때 이곳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동네가 조용한 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놀 곳도 없고, 가게들도 문을 일찍 닫는 편이었다. 이전에 살던 곳과 차이가 크다 보니 우울감이 생겨서,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간에 무조건 석수동을 벗어나 변화한 곳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조용한 이곳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안양시와 석수동을 제2의 고향 삼아 살고 있다.

1) 아이 키우기에 좋아요

석수럭키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직선거리로 5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의 화장초등학교에 배정 받는다. 근처에 안양중학교, 안양여자중학교, 박달중학교, 근명중학교, 연현중학교 등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는 안양여자고등학교이고 인근에 안양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양명여자고등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시설이 많은 편인데 파란꿈나무어린이집, 엄마더하기어린이집, 럭키아파트유치원과 유일유치원이 있고 갈피 어린이공원 맞은편의 하늘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석수럭키아파트 10동 지하에는 벽에 어린 왕자와 여우의 뒷모습이 그려진 ‘럭키작은 도서관’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12시 30분~17시 30분이지만 운영을 맡은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럴 때는 화창초등학교 옆에 있는 안양시립석수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2004년 개관한 석수도서관은 자녀를 동반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석수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충훈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 내부의 독서실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많다.

석수럭키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갈피어린이공원을 지나 화창초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가는 도보 10분 거리에는 석수시장이 위치한다. 평일 오후 5시경에는 1-2번 시내버스를 타고 안양중앙시장이나 안양남부시장에 들러 한 짐 가득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거주하는 동에 따라 럭키아파트 정문 정류장에 내리기도, 후문인 갈피어린이공원에서 내리기도 한다.



석수럭키아파트 7동 옆의 갈피어린이공원

김이선 : 작은 장을 볼 때는 가까운 석수시장과 우리마트 정도를 이용하는데, 좀 많이 장을 보고 싶을 때는 안양/1번가 건너편의 중앙시장, 과일 채소류를 사거나 김장 준비를 할 때는 1번가 아래쪽의 남부시장에 가요.

이지은(가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관양동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2011년에 석수럭키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석수럭키아파트 25평 전셋집을 마련해주었다. 당시에 석수럭키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지은은 신축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여



석수도서관 아동도서관(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웃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곳 석수럭키아파트가 오래되었다는 점 빼고는 살기 좋다는 점에서 신축 아파트가 아닌 같은 단지 내 31평형으로 이사를 결정하였다.

이지은 : 신축으로 가보자니 너무 비싸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석수럭키가 오래된 거 빼면은 살기가 좋으니 다시 같은 단지 내 31평으로 자가로 이사해서 살기로 했어요.

이처럼 석수럭키아파트에서 살면서 신축으로 이사하는 것을 단념하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아이가 커 갈수록 석수동이 아닌 평촌신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한다.

조윤하 : 서울에서 살다 안양에 처음 이사 왔는데 석수동은 너무 한적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지금 느끼기에도 아파트 주변으로도 크게 시끄러운 곳이 없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붐비는 걸 싫어해서인지 여유로운 여기가 참 좋아요. 학원들도 다 근처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집 근처로 다니니 편했어요.

조운하(가명)는 서울 금천구에 살다가 남편, 딸과 함께 세 식구가 2020년 석수동으로 이사와 5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내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서울이 아닌 안양을 선택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장이나 미용실도 시흥사거리 쪽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문화센터도 안양으로 다니고, 장도 중앙시장에서 보고 있다. 저녁에 운동 삼아 안양천을 산책하기도 좋고, 인근에 계곡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동시에 인근 광명에 있는 코스트코와 이케아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하기도 좋다. 이사 왔을 때 6살이던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하는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석수도서관과 화창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좋았지만, 이의 중학교 진학을 고려하여 안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며, 지금은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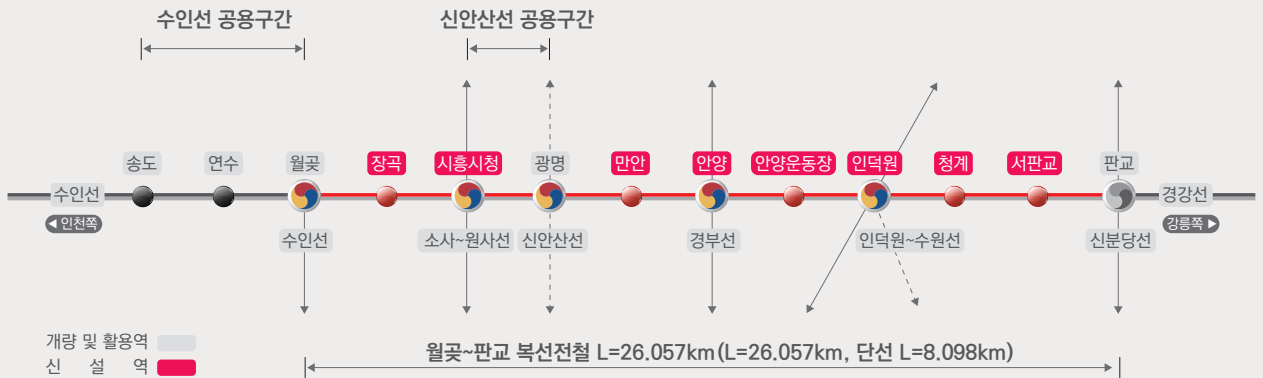
조운하 : 이 동네에서 박달중은 많이 안 보내는 편이고, 신성중이나 안양중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라. 주변을 봐도 초등 졸업 후에는 중학교가 적당치 않아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안양/번가, 인덕원, 평촌이랑 비교했을 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2) 교통이 편리해요

석수럭키아파트 인근에는 수도권 전철 관악역·안양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이 위치한다. 석수럭키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관악역인데 걸어서 30분 정도로, 걷기에는 약간 먼 편이다. 아파트 정문 앞의 ‘럭키아파트’ 정류장에는 1-2번·8-2번·9번·9-3번 버스가 있는데 관악역에 갈 때는 9-3번 버스, 광명역에 갈 때는 8-2번 버스를 이용한다.

이지은 :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관악역인데 관악역은 서울이 정말 가깝습니다. 두 정거장만 가면 서울 금천구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저는 궁 가는 걸 좋아하는데, 덕수궁 같은 곳은 지하철로 관악역에서 시청역까지 가볍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관악역 2번 출구 경인교대 쪽에서는 서울역·서울대 입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도 자주 있어요. 이웃 중에 직장이 용산·동대문 쪽이신 분들 있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월판선 들어오고 나면 여러모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월곶-판교선, 일명 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부터 성남시 판교까지 이어지는 34.2km의 복선 전철이다. 서쪽의 월곶-인천 구간이 수인·분당선과 연결되고 동쪽의 판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도 (국가철도공단 제공)

교-강릉 구간이 경강선과 연결되어 서쪽 인천부터 동쪽 강릉까지 동서로 횡단하는 노선의 일부가 된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현재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흥에서 판교까지의 이동이 30분 대로 단축된다. 월곶-장곡-시흥시청-광명-만안-안양-안양운동장-인덕원-청계-서판교-판교역을 지나며, 시흥시청-광명 사이는 신안산선과 선로를 함께 사용한다. 총 11개 정거장 중 안양시에는 만안역(가칭)·안양역·안양운동장역(가칭)·인덕원역 등 총 4개의 정거장이 지나며, 월판선 전체 10개 공구 중 5·6·7·8공구 공사가 진행된다.³ 2024년 10월 25일에 월판선 제5공구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어 일부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석수동 석수전화국사거리 일대에 만안역이 건설될 예정인데, 해당 부지는 석수럭키 아파트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로, 만안역이 건설되면 석수럭키아파트가 만안역 역세권에 속하게 된다.

3) 생태하천 안양천 ‘천세권’에 살아요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주민들에게 석수럭키아파트에 대해 물었을 때, 다양한 ‘~세권’이란 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세권’의 원조 격인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가리키는 데, 그 외에도 숲이나 공원 등 녹지공원이 가까운 지역을 말하는 ‘숲세권’이나, 슬리퍼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기 좋은 지역인 ‘슬세권’이란 표현도 있다.

석수력키아파트는 안양천과 인접하여 흔히 '천세권'으로 불린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경기도 의왕시 지지대 고개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류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도시형 하천이다. 단지 맞은편 도보 5분 거리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 40분이면 한강까지 갈 수 있다. 안양천과의 인접성은 주민들이 꼽는 석수력 키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고 하루 중 언제든지 안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지은 : 안양천을 따라 예술공원까지 갈 수 있는데 산책 겸 운동 겸 걸어가면 좋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자주 갔어요. 거기서 계곡 보면서 맥주나 막걸리 한잔하면 최고예요. 여름에는 자리 경쟁도 꽤 치열하답니다.

장임순 : 지금 광명역 가깝죠. 또 1호선 관악역 가깝죠. 또 1호선 안양역, 그러면 오만 거 다 되죠. 시외버스 안양역 앞에 가면 오만 거 다 있죠. 전국으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야. 여기는 유동 인구가 많은데, 이 안양이라는 데는 개발을 하고 잘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어디라도 갈 때는 안양을 안

안양천에서 바라본 석수력키아파트(이정범 제공)



스치면 못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전 중심가에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지. 좋아요. 서울하고 달라 공기도 좋고. (중략) 삼막사 같은 데 산에 올라가고 망해암 같은 데 가면 정말 오래된 절이 좋아요. 안양유원지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수목원 거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도 여기는 1급수. 요 안양천이. 얼마나 좋은데, 엄청 좋지.

지금은 석수럭키아파트 주민들의 자랑거리인 안양천이지만, 과거에는 중증의 오염 수준으로 흐름마저 느릿하고 악취가 나는 오염천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안양 일대에 공장이 들어오기 늘어나던 1970년대부터 공장폐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안양 일대에 들어선 공장들이 방출하는 산업폐수로 인해 농업 용수원인 안양천이 오염되어 4,000여 평의 못자리 뻘씨가 발아되기 전에 썩어버렸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⁴. 안양·의왕·군포 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중간 정화 처리 과정 없이 안양천에 흘러 들어가며, 천변 주택가 거주민들은 악취와 공해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상류 지역 공장에서 나온 폐수, 안양천 변 주차장 및 도로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였다. “안양천 회생을 위해 뒤늦게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 엄청나게 오염된 안양천이 아동들이 물장구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옥류천이 될 날은 다시 오기 힘들 것 같다”⁵는 것이 당시의 견해였다.

1980년대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안양시는 1984년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2년 박달동 664번지에 안양시 하수처리장을 준공하고, 1997년 12월 석수동 산40번지에 1일 처리용량 30만t 규모의 석수하수처리장을 착공하였다. 1998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시 구로구 등 안양천 변 11개 자치단체와 19개 시민·환경단체가⁶ 모여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하수처리장은 안양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하천의 오염 수준은 보통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통해 비교하는데, 안양천 석수동 구간의 BOD는 2001년 연평균 46.4ppm이었다가 2003년 12ppm, 2005년 9.2ppm, 2010년 8.5ppm, 2020년 4.3ppm 수준이다.⁷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6월 측정된 BOD는 2ppm이다. 지금 주민들에게 안양천은 물고기와 오리가 많은, 산책하기 좋은 깨끗한 하천이다. 그러나 석수럭키아파트에서 차로 5분, 버스로 15분 남짓 거리에 있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는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다. 오염된 안양천에 대한 기억은 2010년대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다.

1987년에 시흥에서 이사와 부모님이 석수럭키아파트 상가 1층에서 방앗간을 운영하



1988년 안양천의 모습(안양시청 제공) 석수력키아파트 입주 당시는 안양천의 오염도가 높았다.

셨다는 서용수에게도 과거와 지금의 안양천은 매우 다르게 기억되고 있다.

서용수 : 냄새가 말 못했는데, 똥 냄새나고 냄새가 말 못했다고. (중략) 지금은 안양천이 고기가 무척 많아요. 고기가 많고,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양천에서 참게를 갖다가 이제 방생을 했다고. 참게 방생해, 참게도 무척 많고 내가 며칠 전에 참게 한 마리 봤어. 황새도 오지.

4) 생활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어요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당시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오노레 도 작家的 작품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는 두 개의 바위 위에 설치된 물고기 형태의 철제 분수 조각물이다. 분수가 놓인 두 개의 바위는 1977년 ‘안양 대홍수’ 당시 산에서 굴러내려 온 돌이다⁸. 안양의 아픔을 상징하던 돌이 오늘날에 이르러 안양 시민의 자랑거리가 된 안양천을 흐르는 작품으로 재탄생하였다.

석수력키아파트 부지에는 구 공설운동장 시절 1977년 7월 안양 지역을 휩쓴 대홍수



안양예술공원 오노레 도 작가의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안양미술협회 제공)



분수가 놓인 두 개의 바위는 1977년 '안양 대홍수' 당시 산에서 굴러내려 온 돌이다.



예술 공간으로 활용했던 석수시장 건물 벽면



2006년 석수시장프로젝트(스톤앤워터 제공)

당시 이재민들이 머물렀던 기억이 남아있다. ‘안양 대홍수’는 1977년 7월 8일과 9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를 가리킨다. 7월 8일 오후 6시부터 9일까지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이 무려 440mm로, 당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강우량이었다⁹. 안양천 일대가 침수되면서 경인선이 중단되었고, 수백 명이 역 부근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안양 일대 150여 개 공장도 침수되었다. 안양·시흥 일대 사망 실종 165명, 부상 385명, 재산피해액 253억 원, 집과 가재도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 수가 3만 3,272명에 달하였다. 당시 15만 명의 안양 시민 가운데 수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¹⁰ 수해 발생 이후 안양과 시흥지역 이재민 2만 9,404명은 학교, 극장, 교회 등에 머물렀다.¹¹ 분산 수용되어 있던 이재민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침수된 집으로 돌아가 자력으로 복구작업을 하기도 했으나, 안양천 변에 임시로 조성한 천막촌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현재 석수럭키아파트 부지인 구 안양공설운동장에도 수재민 보호소 천막촌이 조성되어 있었다.

전국적인 명소였던 안양유원지는 1977년 대홍수로 폐허가 되고, 1980년대 교통 발달로 안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낙후된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안양 시에서는 유원지 주거환경사업과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2005년 공공예술프로젝트(APAP-Anyang Public Art Project)를 통해 안양예술공원으로 변신시켰다. 안양 9경에 속하기도 하는 안양예술공원까지 석수럭키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걸어서 30분이면 도착한다. 아파트 인근에 식당과 카페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많은 주민이 주말이면 안양예술공원을 찾는다.

석수럭키아파트 주민들이 가벼운 장을 보기 위해 들리는 석수시장과 그 내부에도 군

데군데 야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979년 문을 연 석수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장이 정체되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현대식 대형마트가 곳곳에 개업하면서 시장으로서 기능이 더욱 축소되었다.

석수동에 오래 거주하면서 석수시장 인근에서 작업실을 겸한 화실을 운영하던 박찬응은 석수시장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그는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¹²’, 라는 대안미술 공간을 개관하였고 석수시장의 점포 곳곳에 예술가들이 찾아왔다. 2005년부터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석수시장으로 스며든 예술가들은 석수시장의 상인들과 소통하며 삶 속의 예술을 실천하였다. 2007년부터는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예술가들을 석수시장으로 불러 석수시장 측과 협의해 저렴한 임대료로 점포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작품을 생산하기도 했다¹³.

현재는 적은 수의 소점포와 ‘우리마트’라는 중형 마트가 축소된 시장 기능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석수시장을 거점으로 활동한 스톤앤워터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여전히 남아있다.

5) 오래된 아파트라 좁은 주차 공간과 도로는 불편해요

서울에서 이주해 온 조윤하와 가족들은 석수럭키아파트에 살면서 “생각보다 살기 좋아서 놀라”는 경험을 하였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을 석수럭키아파트의 단점으로 꼽았다.

이지은 :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상 주차장 폭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서용수 : 우리 여기 올 때만 해도 뭐 도로, 차가 이리 안 많거니와 도로도 넓었지, [자가용이] 한 집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735세대로 구성된 석수럭키아파트의 지상 주차 공간은 총 670대로, 세대당 약 한 대(0.91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형편이다. 자차 보유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1987년 당시로 치자면 넉넉한 주차 공간이지만, 서울 근교로 직장을 다니며 두 대 이상의 차를 보유



석수력키아파트 주차장



석수력키아파트 근처의 안양천 둔치 주차장

한 세대도 많은 현재는 부족하다고 체감된다. 아파트 내 주차 요금은 한 대는 무료, 2대는 2만 원, 3대는 4만 원이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3대로 제한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석수리키아파트는 단지 내 공간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주차 공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주차면이 좁은데 차량 크기는 커지다 보니, 다른 차량의 문에 찍히거나 긁힌 자국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없어 외부 차량 주차도 빈번했는데, 경비실 차원에서 주기적인 주차 단속과 주차증 재발급을 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한다.

석수리키아파트 단지 인근 주택가도 주차 사정은 다르지 않다. 좁은 골목에 뺨뺨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가까운 안양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안양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둔치 주차장을 폐쇄하는데, 이때는 차를 인도에 주차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장임순 : 아파트 번듯하게 하려면 첫째, 사람도 혈관이 튼튼해야 거기가 성공을 하는데 길이 좁아져 졌는데. (중략) 길이 지금 제일 급한 게 길이에요. 완전 전쟁러잖아요. 이 뒤에 광명역 가는 터널, 그 터널을 통하는 게 길이, 말하자면 서울에서 넘어와서 터널을 통하면 이렇게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충훈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2차선인데 2차선. 지금은 또 괜찮아요. 장마통 되면은 차가 전부, 차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1차선이 돼. 버스 두 대가 못 지나다녀, 그 정도로 불편한 동네라 여기가. 버스 2대가 못 가기 때문에 첫째로 길부터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중략) 여전히 60년대 70년대 길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될 소리아? 안 되지.

석수리키아파트 정문을 기준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다. 안양시가 시내 주요 32개 지점의 교차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안양대교 북측사거리의 교차로가 이미 과포화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도심인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량임에도, 원도심 만안구의 서비스 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사람도 통행량도 많아지고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는 그대로 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석수로(안양대교 북단 ~ 박석교 북단)에 한 차선 확장을 요구하는 1,415명의 서명을 받아 안양시청에 접수하였다.

3. 석수력키아파트의 ‘뜨거운 감자’ 재건축

장입숙 : 아파트는 옛날에는 통반장·부녀회 그런 게 있어서 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많이 모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 부녀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통반장도 없어지고 통장은 있어도 반장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모여요. 그래도 지금은, 왜냐하면 재건축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모이고 이러지 뭐. 개별로 와갖고 수다 떨고 그런 거는 안 해.

현재 석수력키아파트 주민들이 모이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바로 재건축이다. 석수력키아파트는 2020년 3월 ‘2030 안양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고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 계획에서 기존 24개 구역에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을 추가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신규 지정된 5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석수력키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¹⁵

1)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재건축 추진 위원회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안전진단을 거친다. 안전진단¹⁶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나온 뒤에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한다.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석수력키아파트는 2020년 7월 현지조사를 거쳤으며,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2년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발표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¹⁷ 2023년에 석수력키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임에도 ‘추진준비위원회’ 또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법정 동의서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다. 그런데 현재 석수력키아파트에는 2개의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 상가 1층의 ‘력키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석수럭키아파트 상가에 게시된 재건축 추진 위원회 홍보 현수막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장수)와 상가 2층의 ‘(가칭)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유승욱)가 공존한다.

물론 추진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일부 소유자들에 의해 결성된 임의단체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1개의 구역에 수 개의 추진 준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1개의 정비구역 당 1개만 승인된다. 정식 추진위원회로의 구성 승인이 있게 되면 추진위원회의 주민 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그간 진행한 업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 추인 의결을 받는다. 그리고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통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남아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다른 하나의 추진준비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석수럭키아파트에 공존하는 2개의 재건축 준비 단체는 각각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준비 및 개최하였다.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각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때로 다른 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게시되기도 한다. 결국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사업 초기에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양립하더라도, 사업을 본격적

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 곳의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화합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을 설립할 주민들과 주민들의 대리인 추진(준비)위원회는 ‘낮은 분담금’을 유지하여 원래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최대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주민들은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분담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안양의 다른 지역이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 만안뉴타운사업 중단 경험과 재건축에 대한 우려

석수럭키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이미 약 20년 전 아파트 일대를 정비 대상에 포함했던 ‘만안뉴타운사업’이 성공했다면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던 석수럭키아파트 주변(5구역)은 “사업 찬성 비율이 낮고 노인층을 중심으로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¹⁸

장임순 : 여기는 집들도 뭐 다 그냥 뭐 연립주택이고 다 그러니까. 여기가 뉴타운으로 결정됐는데 하도 반대해갖고 뉴타운 취소된 거야. (중략) 집 가진 사람들이 월세를 못 받으니까. 단독, 전부 단독이고 아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월세를 받아 노인들 생활하잖아요. 그것을 못하니까 거기서 쪽 반대를 하고. 이제 집 가져가고 아파트 한 개 준다 하니 반대를 하고. 다 지금도 마찰가지야 그거는.

안양 만안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종합적 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만안구 일대가 2006년 11월에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07년 4월에 뉴타운 지구 지정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4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당시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은 경부선 안양역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양분화 되어 있다. 동쪽 신시가지는 주거·상업·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안양의 주거생활과 경제권을 주도해 왔다. 반면 만안 뉴타운 대상 지역인 서쪽 구도심지는 철도에 막혀 개발의 어려움을 겪



안양시청앞 만안뉴타운사업 취소 요구 집회 사진²⁰



만안뉴타운사업 반대 주민들이 배포한 유인물²¹

다 보니 노후화되고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난립해 밀집되어 있다.”고 밝히며 만안구가 “제2의 평촌”이 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¹⁹

그러나 2011년 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에 만안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며 9,728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2011년 4월에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효력 상실로 만안뉴타운사업은 백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뉴타운사업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데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건축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점이었다.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석수럭키아파트와 그 일대 주택가들은 거주 공간, 투자의 공간이며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뉴타운을 반대하고 재건축에도 회의적인 다가구주택 소유자 중에는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들의 생활 기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이며 그 임대소득이 그들의 노후 대책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기대이익과 기대이익의 감소가 예상되는 다가구 주택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기대이익이 덜 침해받게 되는 아파트 주민과 대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장년층 아파트 거주자도, 자식들을 다 결혼시킨 이후에 작은 평수로 옮겨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가 살아야 하는 재건축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런 한편, 물려줄 재산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이 석수럭키아파트 부지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재건축이 예정된 석수럭키아파트



장입술 :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 속되게 말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은 진짜 70이 넘고 80을 내다보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고생하면서, 7~8년을 나가 있어야 되고 고생하는데 뭐 사는 대로 살다가 죽지. (중략)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뭐 살기 편한데 또 어디로 가, 그냥 살다 죽지 그런데, 젊은 층에는, 우리 아들이 50이 됐는데, 40대·50대·60대는 재건축을 해야 속되게 말해서 재산이 형성되는 거죠. 그 때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그리고 내 손자들을 봤을 때도. 지금 하는 게 50년 프로젝트잖아. 내가 5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지어 놓으면 50년이 있어야 또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5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후손들까지 보고 해야 되지.

4. 안양만 한 곳이 없다

10살 때 석수동으로 이사와서 인생의 대부분을 석수 1·2동에 거주해 온 김해성(가명)은, 만안초등학교·안양중학교·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 시절을 전부 안양에서 보냈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 본 적도 있지만, 고향이라 여겨서 그런지 안양만 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

중학교 1학년에 시흥에서 이사 와 어느덧 35년간 거주해 온 서용수는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부모님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점심을 같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부모님과 같이 월판선 차공 설명회에도 다녀왔다. 아파트 상가 1층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석수럭키아파트 주민들이 “한번 입주하면 잘 나가지 않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이런 답변이 석수럭키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안락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석수럭키아파트를, 그리고 석수동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주민들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인 25평형과 28평형 거주자들의 일부는 늦어도 2025년 초반에는 집을 매매하고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해성 : 직장 때문에 지방에도 살아봤는데 결국 안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건축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도 재건축으로 정선없네요. 일단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보고 알아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보던 동네가 천지개벽하고 집값이 계속 뛰고 있네요. 그래도 결국은 발전하고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안양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석수럭키아파트와 석수2동 전경

석수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신축이 아닌 오래된 아파트의 거주민이라는 것, 그리고 안양의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만안구의 주민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양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체화하고 의식하고 있었다. 1987년 준공하여 지어진 지 40년에 가까워진 석수럭키아파트는 세대를 이어 내려온 삶의 터전이 되었고,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이기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석수동의 변천과 함께해 온 석수럭키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랑거리이자 육아하기 좋은 생활·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차·도로·교육 시설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석수럭키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 조두호, 「시장에서 예술하기, 안양시 석수동」, 『경기학 광장』,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19, 12-15쪽.
- 홍성만·윤병섭, 「제도 부정합성에 따른 갈등증폭, 그리고 정책 고착화 탐색: 만안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6(4), 2012, 141-163쪽.
- 「못자리 모두씩어」, 『매일경제』, 1970년 4월 27일, 3면.
- 「안양에 최대 강우량 기록」, 『동아일보』 1977년 7월 9일, 7면.
- 「침몰한 수도권」, 『조선일보』, 1977년 7월 10일.
- 「수장재화 336억원…주야없는 복구 10일」, 『동아일보』, 1977년 7월 18일, 4면.
- 「안양에 공설운동장 - 시내근교에 10만여평 매입계획」, 『매일경제』, 1978년 8월 7일, 3면.
- 「서울의 汚染現場(오염현장) <8> 廢水(폐수) 뒤덮인 安養川(안양천)하구」, 『동아일보』, 1979년 5월 30일, 6면.
- 「력키금성-첨단 종합연구단지 준공」, 『매일경제』, 1985년 1월 16일, 7면.
- 「서울과 수원, 과천, 반월 등을 잇는 교통의 신중심지—안양 석수동에 렉키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동아일보』, 1986년 3월 15일, 7면
- 「안양 만안뉴타운, 제2의 평촌된다」, 『경기도뉴스』(<https://gnews.gg.go.kr/>), 2008년 11월 10일, 2024년 12월 18일 검색.
- 「안양 만안뉴타운사업 취소해 달라」,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2009년 8월 11일, 2024년 12월 19일 검색.
- 「만안뉴타운사업 찬반 주민간 갈등 우려된다」,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2011년 2월 22일, 2024년 12월 19일 검색.
- 「최대호 안양시장 “월판선 적기 개통 적극 노력”…공사 현장 점검」, 『세계환경신문』(<http://e-newsp.com/>), 2024년 3월 23일, 2024년 12년 19일 검색.

- 1 당시 석수력키아파트 분양광고는 ①계단식 구조로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최대한 늘려, ②전층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3구역 난방방식 채택(1-2층, 3-8층, 9-15층 순환방식), ③수도권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공기가 맑은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④력기금성의 우수한 건축자재로 시공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 2 「안양에 공설운동장 - 시내근교에 10만여평 매입계획」, 『매일경제』, 1978년 8월 7일, 3면.
- 3 「최대호 안양시장 "유평선 적기 개통 적극 노력"...공사 현장 점검」, 『세계환경신문』(<http://e-newsp.com/>), 2024년 3월 23일, 2024년 12년 19일 검색.
- 4 「못자리 모두싸여」, 『매일경제』, 1970.04.27., 3면.
- 5 「서울의 汚染現場(오염현장) <8> 廢水(폐수) 뒤덮인 安養川(안양천)하구」, 『동아일보』, 1979년 5월 30일, 6면.
- 6 참여 자치단체는 서울시 구로-양천-강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등 7개 구와 경기도 안양-광명-군포-의왕시 등 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두 11개, 시민단체는 안양경실련과 환경과 공해연구소 등 19개이며, 지역별로는 안양 6개, 광명 5개, 군포 2개, 서울시 6개다.
- 7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안양천 6(안양시 석수동-연현중학교 환경부 측정 수질분석표) 수질현황 <https://www.anyang.go.kr/river/contents.do?key=1964>, 2024년 12월 19일 검색.
- 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PAP)는 안양이란 도시를 배경으로 3년마다 열리는 공공예술 축제이다.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작품에 관한 설명은 <https://www.apap.or.kr:446/> 참조.
- 9 「안양에 최대 강우량 기록(安養에 最大 降雨量기록)」, 『동아일보』, 1977년 7월 9일, 7면.
- 10 「수장재화336억원...주야없는 복구 10일(水葬財貨 336億圓...晝夜없는 復舊 10日)」, 『동아일보』, 1977년 7월 18일, 4면.
- 11 「침몰한 수도권(침몰한 首都圈)」, 『조선일보』, 1977년 7월 10일.
- 12 스톤앤워터는 '생활속의 예술'을 표방하고 2002년 6월에 설립되었다. 보충대리(supplement)란 부족을 '보충'하고 '대리'한다는 개념으로 일상과 격리된 고급예술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숨쉬는 생활 속의 예술을 의미한다. 한편 스톤앤워터(Stone&Water)는 '석수'도 또는 시장을 석수로 해석한 다음 이를 영어로 풀어 쓴 이름이다. 한편 본래 만안구 석수동은 석공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여 석수(石手)라 불렸으나, 1932년 석수동 수영장이 개관할 때 수가물수(水)로 표기되었다.
- 13 조두호, 「시장에서 예술하기, 안양시 석수동」, 『경기학 광장』,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19, 12-15쪽.
- 14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안양시, 2023, 156-157쪽.
- 15 구체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3곳은 충훈부일원(석수3동), 종합운동장 동측과 북측 일대(비산3동)다. 그리고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는 5곳은 석수력키아파트(석수2동), 진흥5차아파트지구(안양3동), 프라자아파트지구(안양9동), 벽산아파트지구(안양4동), 호계력키아파트지구(호계동) 등이다.
- 16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며,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현지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 17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행 안전진단에선 총점 30점 이하(E등급)를 받아야 무조건 재건축이고,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C등급)는 재건축 불가로 판정했다. 국토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 구간을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축소하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면서 재건축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 18 홍성만 윤병섭, 「제도 부정합성에 따른 갈등종류, 그리고 정책 고찰화 탐색: 만안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6(4), 2012, 154쪽.
- 19 「안양 만안뉴타운, 제2의 평촌된다」, 『경기도뉴스』(<https://gnews.gg.go.kr/>), 2008년 11월 10일, 2024년 12월 18일 검색.
- 20 「만안뉴타운사업 찬반 주민간 갈등 우려된다」,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2011년 2월 22일, 2024년 12월 19일 검색.
- 21 「"안양 만안뉴타운사업 취소해 달라"」,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2009년 8월 11일, 2024년 12월 19일 검색.

제1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석수동의 마을제사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마을제사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어우러진 공동체적 의례였다. 주민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에 모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를 올렸고, 제의가 끝나면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빌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연대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이다.

석수동은 2024년 현재 5곳에서 마을제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석수1동 삼막골의 할아버지 서낭제와 할머니 서낭제는 삼막골의 위아래 마을에서 각각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할아버지 서낭과 할머니 서낭으로 모시는 마을제사이다.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할머니 서낭제 외에도 석수1동의 자연마을 석수동에는 할아버지 산신제와 할머니 산신제가 있는데, 각각 삼성산의 할아버지 산제당과 관악산의 할머니 산제당에서 지내고 있다. 관악산 할머니 산제당은 행정구역상 안양2동에 속한다. 충훈동 꽃메산에서도 충훈부 마을에서 지내 오던 산신제가 충훈부 대동친목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석수동은 삼막골의 진주 하씨를 비롯하여 석수동(자연마을)의 창녕 조씨, 충훈부의 광주 이씨 등 집성촌이 여러 곳 있었으며, 도시화 이전에는 마을의 원주민을 중심으로 마을제사가 이어져 왔다. 현재는 대체로 집성촌으로서 성격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며, 마을제사에 원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을 포함한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안양문화원의 역할도 적지 않다. 안양문화원은 사라지는 지역 문화를 보존·전승하고, 마을제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과 애향심·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마을제사의 비용과 제례복 대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마을제사의 절차와 축문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직제를 준용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석수동을 포함한 안양 지역의 마을제사는 원주민 중심의 전통이 지역의 변화 및 도시화 등과 맞물리고, 지역주민과 문화원 등의 공적 기관이 소통하는 체계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



석수동의 마을제사 현황

1.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와 할머니 서낭제

1) 삼막골 마을제사의 명칭과 신격, 제당

석수동 삼막골의 마을제사는 ‘삼막골 서낭제’로 불리고 있으며, 할아버지 서낭제와 할머니 서낭제로 나뉜다. 서낭제라는 명칭 외에도 ‘서낭 고사’ 혹은 ‘느티나무제’, ‘할아버지·할머니 제사’ 등으로도 불려 왔으며, 근래에는 ‘쌍신제’라는 명칭도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음력 7월 1일 제사의 축문에는 제사의 대상이 성황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사의 명칭에 포함된 서낭을 성황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삼막골 마을제사의 신격은 각각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식되는 느티나무와 향나무이다.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전국의 마을 제당 조사에서 삼성초등학교 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이 삼막골 마을 제당을 ‘선왕당(先王堂)’으로 불렀음이 확인된다.¹ 할아버지 서낭당의 느티나무는 아랫마을에 위치하며, 약 500년 정도로 수령이



석수1동 삼막골 마을제사 제당과 우물 위치

〈표 1〉 삼막골 마을제사 제당 위치와 제사 형식

구분	제당 소재지	제사 형식
할머니 서낭제	제당 : 석수동 680-8	유교식 제사
	우물 : 석수동 155	고사 형식
할아버지 서낭제	제당 : 석수동 689번지	유교식 제사
	우물 : 석수동 689-2번지	고사 형식, 지금은 지내지 않음

추정된다. 이 느티나무 옆에는 고사한 향나무가 한 그루 세워져 있는데, 삼막골 원주민들의 구술²에 의하면, 이 향나무가 원래 할아버지나무로 모시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향나무가 고사하자 마을에서 그 옆에 다시 느티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지금의 할아버지나무라고 한다. 고사한 향나무의 수령까지를 고려하면 삼막골 서낭제의 시작 시기가 500년 이상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당 전경



삼막골 할머니 서낭당 전경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 때 사용하던 우물



현재 우물제사를 지내는 삼막골 할머니당 서낭당 옆에 마련한 우물

웃말의 제당은 할머니 서낭당으로, 현 삼막어린이집 근처의 텃밭에 자리하고 있었다. 웃말에서는 향나무를 신체로 모셨으며, 주민들은 이 나무를 ‘할머니 서낭’이라고 불렀다. 1977년 안양 대홍수로 할머니 서낭인 향나무가 삼막교까지 떠내려간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향나무를 건져서 삼막교 옆 현재의 자리에 심고 새로이 제당을 조성하였는데, 죽은 향나무에 제를 지낼 수가 없어 그 옆에 은행나무를 새로 심었다.

한편, 삼막골의 할아버지 서낭과 할머니 서낭은 마을의 공동 제사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위하는 대상이었다. 가을에 안택고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서낭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윗마을은 윗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서낭에 가고 아랫마을 사람들은 아랫마을에 위치한 할아버지 서낭에 갔다. 집에 혼사가 있는 경우 서낭에게 결혼식 전에 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먼저 서낭님께 절을 하였다.³ 1990년대 무렵까지도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갈 경우, 잔을 올리고 비손을 하고 절을 올려 안녕을 빌었다. 웃마을의 경우 1977년 안양 수해로 할머니 서낭나무가 떠내려가 현재의 위치에 새로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대문 앞에서 고사상을 진설하고 할머니 서낭나무 쪽을 바라보며 고사를 지냈다.

한편, 두 제당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마을의 우물에 먼저 우물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다. 우물 근처에 소나무가 많아 송정이라고 불렀던 할아버지 서낭 옆 우물은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머니 서낭제의 우물도 우물터가 개인 사유지가 되면서 우물 위쪽 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상태이다. 이 우물은 자연석으로 쌓은 것으로, 깊이가 깊고 물이 좋았다. 현재는 할머니 서낭당으로 새로 우물을 만들어 우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물 제사는 할아버지 서낭제와 할머니 서낭제를 맡아 지내는 석수1동 1통과 2통이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한 번씩 돌아가며 맡아 지내고 있다.

2) 석수동 삼막골 제례의 진행 내용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당과 할머니 서낭당의 제일은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이다. 2000년대 초반에 발간된 자료⁴에 의하면 10월 1일에만 제를 지낸다고 소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1년에 두 차례의 제사가 지속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이전에는 제일 보름 전에 주민들이 모여 제관을 선출하였다. 제관으로는 제사를 준비하는 당주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당주로 선정된 사람의 집에는 때문에 금줄을 치고 엄격하게 외인의 출입을 금했다. 이 기간에 제관은 언행을 근신

하고 부정을 피하며 외지 출입도 삼가야 한다. 또한 부부가 한방에 드는 것도 금했다. 지금은 삼막1동 1통과 2통의 통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 제사인 사직제를 준용하여 강신례·분향례·초헌례·독축례, 아헌례, 종헌례·사신례·음복례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절차를 맡아서 제사를 올린 제관의 역할은 삼막골의 원주민은 물론 오래 거주해 온 주민과 동장 등이 맡아서 하고 있다.

1960년대, 삼막골 서낭제의 제사 비용은 각 가정에서 균등하게 거두어 준비하였다. 당시 제물은 소고기와 시루떡, 실과, 술 등으로 나타난다. 제일 하루 전에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섞어 작은 옹기에 술을 미리 지어서 두 서낭나무 아래에 묻어뒀다가 제사를 지냈다.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균등하게 나누어 먹거나 소머리 2개를 제물로 올리기도 하였다. 할아버지 서낭당에서는 2024년 7월에 소머리와 시루떡, 통복어, 쇠고기적, 두부적, 누름적, 산자, 사과, 배, 감, 꽃감, 바나나, 수박, 포도, 무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산자, 약과, 북어포, 술 등을 제물로 올렸다. 할머니당에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제물을 진설하였다.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당과 할머니 서낭당의 우물고사는 각각의 마을에서 지냈으나, 지금은 서낭제를 지내기 전에 두 마을이 돌아가며 우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물고사는 본래 따로 지냈으나, 현재는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4년 우물고사는 음력 7월 1일 오전 11시에 할머니 서낭당의 제관을 맡은 삼막골 옷말 원주민인 삼막골 노인회장이 제관을 맡았다. 우물 제사는 우물 앞에 쇠고기적 1접시와 막걸리를 차려 술과 절을 올리는 고사 형식이다.

제사는 각각 오후 2시에 시작되었는데, 할아버지 서낭당과 할머니 서낭당에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복의 환복 등을 돕기 위해 와 있었고, 고령의 제관들이 환복하는 것을 도왔다. 할아버지 서낭당 한쪽에는 간이 건물이 있어서, 부녀회원들이 제사에 필요한 집기와 제물을 준비하고, 준비를 마친 제물은 할아버지 서낭당 앞에 진설되었다. 제사 준비를 마친 후 석수1동 동장의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간략한 내빈 소개와 더불어 집례의 주도하에 제사가 진행되었다. 제사의 절차는 강신례, 초헌례, 독축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서낭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단기 4357년 갑진년 임신월 경자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석수 1동·2통)은 삼막골 할아버지 성황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저희는 우리 마을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신령님을 공경하옵고



2015년 삼막골 할머니 서낭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5년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마을의 회복이 신령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존귀하신 신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맞추어 제를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에 재물과 술을 올리는 강림하여 흥향하소서.

할머니 서낭당의 제사 절차도 할아버지 서낭당과 동일하다. 다만 제사를 마친 후에는 두 곳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할아버지 서낭당에서는 제사를 참관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서낭당에 인사를 드리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절을 올리고,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제비를 낸 사람들의 소지를 올려 줬다.

할머니 서낭당에서도 절차를 마친 후 제관 외 서낭당에 절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절을 올렸으나, 제물로 올렸던 북어 한 마리와 산적을 조금 잘라 창호지에 싸서 홍수로 죽은 할머니 서낭목의 가지에 올려 두었다. 이를 '헌식'이라고 하는데 제사에 초대받지 못한 귀신들이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놓아 두는 것이다.



할머니 서낭제의 제사 후, 헌식(獻食)을 위해 종이에 포장하는 음식



할머니 서낭제 헌식 모습

사진으로 보는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



01 할아버지 서낭당의 우물에서 지내는 우물제



02 제관들의 제례복 갖추기



05 강신례 후 초헌례에서 술을 올리는 초헌관



06 독축례를 행하는 제관



09 제례를 마치고 축문을 태우는 망료례



10 제관들의 절차 후 술을 올리는 주민



할아버지 서낭제를 위한 제물 진설 03



집례를 맡은 제관의 할아버지 서낭제 내빈 소개 04



아헌례에서 아헌관이 절을 올리는 모습 07



종헌례에서 술을 올리는 종헌관 08



제비를 낸 주민들의 소지 올리기 11



할아버지 서낭제 후, 주민들의 음복 12

2.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와 할머니 산신제

1) 석수동 마을제사의 명칭과 신격, 제당

현재 석수동의 마을제사는 '쌍산신제'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1990년대 이후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되며, 삼성산의 할아버지 산신제와 관악산의 할머니 산신제를 함께 모신다는 의미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쌍산신제로 불리기 이전에는 산신제로 불렸다. 신격은 할아버지 산신과 할머니 산신이다. 할아버지 산신제와 할머니 산신제 제당은 각각 삼성산과 관악산에 있다.

본래 할아버지 산제당에는 여러 기의 돌탑과 제단이 있었고, 현재 무량사 마당 근처에 산신제 우물이 있어, 이 우물로 제물을 만들어 올렸다. 무량사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의 산제당은 6~7년 전에 나무가 꺾이면서 훼손되었고, 이후 무량사 바로 뒷마당에 '山神祭壇(산신제단)'이라고 써놓은 산신제 비석을 세워서 산제당을 조성하였다.



석수1동 석수동 할아버지 산제당과 할머니 산제당의 위치

〈표 2〉 석수동 마을제사 제당 위치와 제사 형식

구분	제당 소재지	제사 형식
할아버지 산신제	석수동 산 43-1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61-22무량사 뒤편)	유교식 제사, 무량사 스님의 산신경 등 융합, 6.25 전쟁 전에는 3년에 1회 마을굿 개최
할머니 산신제	안양동 산16-1 (만안구 경수대로 1140번길 6 빌라 뒤편으로 500m 지점 약수터 주변)	유교식 제사

할머니 산제당은 관악산에 있는데, 관악장애인복지관 뒤편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관악천 샘터 바로 뒤에 조성되어 있다. 1950년대 무렵까지는 아릅드리 소나무와 비석, 제단을 갖춘 형식이었으나 1977년 대홍수로 비석이 떠내려갔다. 1980년대에 이 비석을 다시 찾아 세우고, 비석 주변은 잡석을 이용해 터를 정비하였다. 제당에는 ‘山神祭壇(산신제단)’이라는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진 선돌 모양의 비석이 있다. 산제당의 비석은 높이 130cm, 가로 74cm, 폭 30cm이며, 비석의 뒤에는 조리를 담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

2) 석수동 산신제의 제의 진행 내용

석수동 산신제는 음력 10월 3일을 제일로 삼고 있다. 2024년에도 음력 10월 3일에 해당하는 11월 3일 오후 4시에 산신제를 지냈다. 할머니 산신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후술하고자 한다.

제관은 앓은 당주와 선 당주 두 사람을 뽑는데, 할아버지 산신제와 할머니 산신제의 당주를 각각 선정하였다. 선 당주와 앓은 당주는 역할이 서로 달랐는데, 선 당주는 마을의 각 가정을 다니며 제비를 추렴하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앓은 당주는 선 당주가 사 온 것으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손질해서 제물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제관이다. 당주로 뽑히는 사람은 그해에 집안에 초상이나 불결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어야 했다. 2024년에는 할아버지 산제당의 경우 마을의 원주민을 비롯해 무량사의 스님 등 소수의 사람만 참여하였다. 할머니 산제당 제사는 안양 예술공원변영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산신제를 맡은 당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제사를 올리지 않았다.

마을제사 비용은 가정마다 다니며 추렴하였다. 할아버지 산신제의 경우 1940~1950

- 1 현 위치로 이전되기 전의 석수동 할아버지 산제당(안양시, 『안양시사 2.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168쪽)
- 2 석수동 할아버지 산제당의 현재 모습
- 3 석수동 할아버지 산제당의 비석
- 4 석수동 할머니 산제당의 현재 모습
- 5 측면에서 본 석수동 할머니 산제당



년대에 약 70여 가구에서 소두 한 되 정도의 쌀을 거두었고, 할머니 산신제를 지내는 안양2동 유원지 마을에서는 1950~1960년대에 평균 50여 호가 제비를 냈다. 1990년대 무렵까지 산신제를 지낼 때 여관이나 병원 등은 제비 추렴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산신제를 깨끗하게 모시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 당주와 앓은 당주를 선정한다. 선 당주는 각 가정을 다니며 제비를 모으고, 앓은 당주는 제물 준비에 정성을 기울인다. 특히 제단에 올리는 메는, 쌀알이 맑고 완전한 모양으로만 골라서 지어 제단에 올린다. 앓은 당주는 제사를 마친 후 새나 짐승의 발자국 모양이 그 위에 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다.⁵

한편,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를 지내는 석수동에는 대동회의 기금이 있었고, 안양시 승격 이전만 하더라도 마을제사를 위한 ‘쇠참계’가 조직되어 있었다. 동네에서 소를 잡아 소머리로 제물로 올렸고, 고사떡은 쌀 1~2가마 분량으로 할 정도로 산신제의 규모가 컸다.⁶ 이러한 내용은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소를 제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의 마을의 공동체적인 성격과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의 경제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문화원에서 제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별도의 추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신제의 제물로는 흰무리, 팔시루, 통후추, 밤, 대추, 삼색실과, 대구포, 통복어, 원

2024년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의 제물



탕, 무물, 시금치, 고사리, 산적을 올렸다. 술은 미리 담가둔 조라를 걸러서 올렸다. 산신제에 올리는 제물에는 간을 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다. 산신제에 올리는 제물은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2024년 산신제에서는 흰무리가 올라오지 않았고 조라 대신 판매용 술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액땀을 위한 통후추도 제물로 올라왔다.

마을 입구에 있는 회화나무 근처에는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알렸다. 산신제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산신제를 마친 후 마을 경로당에서 뒤편이를 열고 참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다.

저녁 7~8시경 할아버지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제관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 산신제를 지내는 곳에서도 출발하였다. 각 산신제단에 도착하고 미리 물어두었던 조라술을 따라 세 번 절한 후 축문을 읽고 세 번 절을 올렸다. 고수레 후 대동소지를 올리고 마을에 내려와 음복하였다.

한편,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는 3년에 한 번 마을곳을 크게 열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을제사와는 다른 특징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 3년마다 한 번씩 검정 돼지를 잡아 석수2동의 무당을 부른 뒤 현 안양박물관 앞의 밭에서 이틀에 걸쳐 굿을 열었다. 석수동에서 큰 굿이 열리면 석수동의 다른 마을에서도 구경을 와서 음식을 나눠 먹는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현재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의 절차는 석수동의 다른 사례와 달리 불교식과 유교식이 혼합된 제사 양상을 띠고 있다. 할아버지산 산신제는 제사 행사를 진행하던 마을 원로가 고령 등의 사유로 참석하기 어려워져, 2009년부터 할아버지 산신제단 아래에 소재한 삼성산 무량사의 주지 스님이 참여하게 되었다.

2024년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를 참관한 결과, 무량사의 주지가 사찰에서 지내는 산신불공으로 보례진언과 천수경을 읽으며 시작하였고, 제관들의 분향과 강신의 절차가 이어졌다. 이어서 스님은 시방법계의 삼보님들을 널리 청하는 내용인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을 읊었다. 이후 제관들의 독축, 스님이 산신에게 불공의 취지를 아뢰고 발원하는 유치(由致), 목탁을 내리며 세 번 반배를 하는 향화청(香華請)을 이어갔다. 향화청 절차 이후에는 제관들의 아헌과 종헌이 있었고,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절을 올리고 소지를 올렸다. 불교식 산신제의 틀에 기존의 유교식 산신제가 포함된 이러한 절차는 원주민 중심의 전승 조직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민족의 영산인 이곳 삼성산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주민 일동은



석수동 회화나무



석수동 마을 입구 회화나무 근처에 붙은 2024년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 홍보 현수막

사진으로 보는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



01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 분향례



02 사찰의 산신불공과 유교식 제례가 혼합된 할아버지 산신제



03 산신불공의 절차 사이 제관들 절 올리기



04 산신불공의 절차 사이 제관들 절 올리기



05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함께 절 올리기



06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를 마치고 소지 올리기

조출한 음식이나마 지극정성으로 마련하여 크고 밝은 삼성산 산신님께 올리웁니다.
 오늘 산제에 동참하신 우리 가족들에게 남은 올해와 내년 을사년 일년 내내 만사형통하며
 마음 속 소구소원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축원 올립니다.

축문을 읽은 후에는 술과 절을 올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절을 올렸다. 산신제를 마친 후에는 분향례가 이어졌으며, 제물을 정리하고 마을 경로당으로 옮겨 노인들이 함께 음복하도록 했다.

3.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1)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의 명칭과 성격, 제당

꽃메산 산신제는 ‘산신제’라는 명칭으로만 불리고 있다. 충훈부 대동친목회의 회장을 맡았던 이영학에 의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이 제사가 약 13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있다고 한다. 산신제의 성격은 두 가지의 떡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산신 할아버지와 산신 할머니가 제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산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제당의 위치는 석수동 산184번지에 해당하며, 석수동 631-1번지의 식당 옆 산길을 따라 약 100m 정도 지점의 산비탈에 산제당이 조성되어 있다. 산제당에는 소나무 아래에 제단과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대동친목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약 2년 전에 개인 경비를 회사하여 산제당을 정비한 것이다. 산제당의 데크 부분에는 CCTV를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3〉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위치와 제사 형식

구분	위치	제사 형식
꽃메산 산신제	석수동 산184	유교식 제사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제당 위치

2) 꽃메산 산신제의 제의 진행 내용

꽃메산 산신제는 약 130년 전에 시작된 마을제사로, 제일은 음력 10월 3일이다. 43년 전에 충훈부 마을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이주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도시개발로 전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충훈부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대동친목회 결성이 네트워크를 형성시켰고, 꽃메산 산신제를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제일은 가급적 음력 10월 5일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유동적으로 정하고 있다. 본래의 제일이었던 음력 10월 3일을 고수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대동친목회 회원들이 참가하기 어려워 총무가 10월 초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산신제 지낼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2024년에는 음력 10월 3일(양력 11월 3일)을 제일로 잡았다.

마을이 개발되기 이전의 산신제 제관은 깨끗한 집을 당주로 세웠다. 당주로 뽑힌 사람은 부부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데, 그해 초상이 나지 않은 깨끗한 집이어야 했다. 당주집에는 붉은 고추를 끼운 금줄을 치고 대문 양쪽에 황토를 한 삽씩 떠 놓았다. 당주는

초상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대동친목회가 산신제를 주관한 이후에는 대동친목회의 회장과 총무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친목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신제에 필요한 제물은 각 가정에서 쌀이나 돈을 추렴해 준비하였다.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한 다음에는 대동친목회 회원들이 1만 원씩 내고, 마을경로당 회원 가운데서 5~6명 정도가 제비를 내주기도 하였다. 현재는 친목회의 회비 외에도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비로 사용하고 있다.

산신제에 여성은 참여할 수 없고, 당주로 뽑힌 사람과 마을 사람 서너 명이 산제당으로 올라가 지냈다. 당주로 뽑힌 집에서는 소머리를 삶아 제물로 준비하였다. 백설기와 팔시루떡, 통북어, 실타래, 과일(밤·대추·배·감) 등을 준비하였는데, 감은 연시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산신제에 올리는 술은 당주가 제일 며칠 전에 미리 산신당에 담가 두었다가 산신제 직전에 꺼내서 올렸다. 지금은 제사 음식을 모두 주문하여 준비하고, 소머리 대신 소고기를 올리고 있다.

2024년 충훈부의 꽃메산 산신제는 충훈부 마을 대동회 회장과 총무 등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산신제를 지내는 날 대동회를 여는데, 대동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산신제는 대동회의 주요 임원 중심으로 참석하였다. 산신제는 강신례, 분향례, 독축, 아헌, 종헌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다른 산신제와 달리 꽃메산 산신제에서는 축문에 러시아 또는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점이 표현되었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꽃메산 산제당 전경



꽃메산 산제당의 제단



2017년 꽃메산 산신제(안양시청 역사갤러리 제공)

유세차!

갑진(甲辰) 시월, 기사(己巳) 삭, 초사흘 신미(辛未)

우리 주민 일동은 이곳 산하를 지켜주시는

꽃메산 산신령님께 성스러운 제를 올리옵나이다.

올 한해도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로서

정성껏 박주산채를 준비하였으니 흥향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중동 및 러시아 지역의 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이 신속히 종료되어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신의 은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꽃메산 중턱에서 충훈부 주민 일동

사진으로 보는 2024년 꽃메산 산신제



01 꽃메산 산신제 제물 진설하기



02 꽃메산 산신제 참신례



03 꽃메산 산신제 강신례



04 꽃메산 산신제 독축



05 꽃메산 산신제 음복



06 2024년 꽃메산 산신제의 헌식

제관들의 절차 후 떡과 과일, 고기 등을 조금씩 떼어 산제당 제단 위쪽 바위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두는 음식은 산집승들을 위한 것인데, 제관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것을 몰래 먹기도 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4. 석수동 마을제사의 지속과 변화

석수동의 마을제사는 원주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변화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마을제사의 전승 주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막골 할아버지 서낭제의 경우 2통 통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원주민 혹은 오랫동안 거주한 고령의 마을 주민이 제관이나 집례 등으로 참가하였다. 제물의 준비와 진설 등은 전임 통장과 현 통장,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양문화원장과 석수1동장이 독축관으로 참여하였다. 안양문화원 서포터즈가 제례복 환복을 보조하였다. 할머니 서낭제도, 진주 하씨로서 약 25년간 통장을 역임한 원주민을 비롯해 현 통장과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들을 종합해 보면, 삼막골의 마을제사는 전통적인 요소를 지켜가면서도 도시 속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요소가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삼막골 주민들의 마을제사이자 작은 축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석수동 할아버지 산신제는 과거에 인근 w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오는 마을곳으로도 열렸으나 지금은 그 규모와 참여자가 현저히 줄었다. 산신제를 주관해 온 고령의 원주민 대신 산제당이 있는 무량사의 주지 스님이 불교식 산신제의 진행에 기존 유교식 절차를 포함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원주민 중심의 전승 조직이 지속될 수 없는 현재의 전승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신은 마을제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모시는 신령으로서, 전승 환경의 변화가 불교식과 유교식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성사시킨 셈이다. 석수동 할머니 산신제는 안양예술공원번영회에서 주관하고 있어 전통적인 원주민 중심의 산신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전승 주체가 변화된 양상이다.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는 전통적인 마을이 도시개발로 사라진 이후에도 마을제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양의 다른 마을제사와는 차이가 있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신제도 일부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제관 선정이나 금기 고수, 제물 차림 등이 일반적인 변화 양상과 달리 거의 동일한 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승공동체의 재구성에

서 볼 수 있다. 40여 년 전 개발로 마을이 사라지고 전승 공동체인 마을이 해체되는 상황이었지만, 물리적 공간 배경인 마을이 없이도 대동친목회의 형식으로 전승공동체가 재구성되었다. 이들은 마을제사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충훈부 마을이 있던 곳에 충훈부 마을 유래비를 세우고 새로운 도시공간에서 전통적인 마을을 이어가며 실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충훈부 마을에서 태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전승공동체 회원들이며, 향후 세대교체에 따른 전승 공동체의 활동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註

-
- | | |
|---|---|
|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서울, 경기도편』, 1995, 242쪽 | 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민속예술 제2집』, 1997, 49쪽 |
| 2 김병권(2016년 구술), 하귀용(2024년 구술). | 6 조성연, 「석수동 쌍산신제(雙山神祭)의 유래와 마을제전승의 가치」, 『안양문화원 향토문화논고』, 2017. |
| 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의 세시풍속』, 2001, 455쪽. | |
| 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의 세시풍속』, 2001, 455쪽. | |

제2장

석수동 사람들의 축제

손예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1. 한국 마을축제의 시작

축제 문화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이다. 우리나라는 고대의 제천과 계절제 등의 축제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식을 지속해 왔다. 축제는 단순히 놀이와 유희를 넘어서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활동이 결합한 종합 예술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은 고대부터 축제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으로, 축제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거나 풍년을 기원하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 정체성과 연관된 축제들이 금지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방 이후 점차 복원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축제가 금지되기 전까지, 축제는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경제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축제는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역 발전과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에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날, 시민 체육대회와 같은 문화·체육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을축제는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며, 구성원들 간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기존의 대규모 지역 축제가 지닌 상향식 기획의 부재나 주민 소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축제는 공공성과 주제성을 지닌 의식이며, 특정한 의미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유희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축제는 대규모 예산이나 외부 주체에 의존하기보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 지역 자원 활용, 정체성 있는 콘텐츠 구성 등을 통해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주민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마을축제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평가된다.

석수동은 안양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는 안양시의 외곽 지역에 해당하여 도시화가 비교적 늦게 진행되었기에 자연마을의 전통이 1980년대까지도 이어지던 곳이다. 그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대규모 도시 개발은 석수동의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구조는 현

2011년 총훈부 벚꽃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대화된 도시로 바뀌었으며, 이는 석수동의 옛 문화와 향토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발 이후 석수동에는 외지인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결속력은 점차 약해졌다.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도 점차 흐려졌으며, 석수동의 고유한 정체성은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마을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마을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석수동은 현재 두 가지 대표 축제가 매해 열리고 있는데, 바로 '신·화·연 마을축제'와 '충훈부 벚꽃축제'이다. 이 두 축제를 통해 석수동은 역사적 배경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석수동만의 지역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서, 신·화·연 마을축제

1) 석수2동 마을축제의 변천

석수동에는 신·화·연 축제가 자리 잡기 이전에도 마을축제가 존재하였다. 가장 초기 마을축제는 '가을 갈대 문화 페스티벌'이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갈대 축제는 연현마을 일대에서 시작된 축제로, 연현마을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축제 이름을 '만안교 축제'로 명명하였다가 코로나 시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서야 주민들의 지친 일상 속 잠시 쉼표를 안겨주고자 '토닥토닥 거리공연'으로 마을축제가 재개되었다. 이후 마을의 정체성, 과거와의 연결을 위해 옛 지명을 따서 축제 이름을 새로 짓게 되었고, 그 축제가 바로 신·화·연 축제이다.

방석근 : 그건 옛날에 갈대 축제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거는 이제 저쪽 연현마을 쪽에서 특별히 재원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석수동 전체가 참여했던 축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연현마을 쪽에서 주축이 돼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첫째가, 이게 1회에 완전 처음 시작이었어.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신·화·연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름을 여러 번 이렇게 얘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 만안교. 우리가 여기가 만안교가 있거든요. 만안교는 알죠? 만안교를 주축으로 해서 또 이름을 걸었다가, 그게 또 이름을 지명을 좀 다시 하라고 했다가. 그때 토닥토닥이라

고 할 때는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웠 시기였단 말이에요. 어려웠 시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토닥토닥이란
이름으로 해서 화합하는 이름으로 해서 토닥토닥을 했는데, 이제 지역에 맞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연속성
있게 축제를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화·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신·화·연’이라는 축제 이름은 석수2동의 자연마을인 신촌, 화창, 연현의 이름을 붙여
서 지은 축제 명칭이다. 신촌은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 농경지였던 지역에 새로 주택이
들어서며 촌락이 형성되어 붙게 된 이름이다. 화창은 ‘꽃쟁이’라 불렸던 곳으로, 과거 꽃
재배지와 창고가 위치해 붙은 이름이다. 연현은 마을 입구 안양 육교 근처의 풍수가 술
개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 붙게 된 이름이다. 외지인들은 모르지만, 안양에 오래 살았
던 안양 토박이들은 신촌 마을을 신상옥 감독이 영화 제작소를 크게 운영했던 마을로 기
억하고, 화창 마을은 과거 분노처리장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2) 축제의 주최 :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많은 마을축제가 그러하듯이, 신·화·연 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 추진위원회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중 선발된 몇 명으
로 이루어진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석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기에,
여러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한다. 축제 추진위원회, 민간 기획사,



2024년 석수2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 회의(석수2동행정복지센터 제공)



2024년 석수2동 신·화·연 마을축제 장구 공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행정복지센터 세 단체가 주축이 되어 축제를 준비한다.

축제 기획은 축제 추진위원회와 기획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거친 뒤 프로그램과 행사 부스의 내용을 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축제 진행에 필요한 실무는 행정복지센터, 축제 추진위원회, 기획사가 나누어 업무를 분담한다. 또한 안양시 내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도 실무에 참여하며 축제 준비를 돕는다.

축제의 재원 같은 경우, 관에서 일정 정도를 지원받는다. 부족한 부분은 새마을금고 등 지역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보완된다. 또한 축제 추진위원회도 위원회를 하며 받는 보수의 10%에서 20%를 축제 준비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지원금의 경우, 비용 처리상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이나 경품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단체들의 후원금과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부금으로 경품을 준비하여 축제를 운영한다.

축제 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안양대교 밑은 오래 전부터 산책 또는 여가시간을 즐기러 오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몰리는 공간이었다. 석수2동 주민자

치위원장이었던 방석근은 이를 보고 안양천 둔치에 ‘문화광장’을 만들 것을 시에 제안하였다.

방석근 : 문화광장, 그러니까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를(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 뭐 돈을 꽤 들여가지고 이 안양천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안양천이 옛날에 이렇게 천이 흐른다면 뚝방이 있잖아요. 뚝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풀숲으로 아주 굉장히(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행사를 몇 번 해 보니까 풀숲에 사람들이 앉아서 막 그 행사를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광장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 보면 광장이 생겼어요. 매년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 문화광장이 이제 어떤 식이나 하면, 한 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풀숲이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보기 불편했던 공간을 싹 다 정리해서 벤치를 만들었어요.

방석근은 주민자치위원회장을 맡으면서 축제추진위원으로 행사를 몇 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자 축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에 광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2020년에 완성된 안양천 옆 문화광장은 현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해 신·화·연 축제가 열리는 안양시 명소가 되었다.

3) 주민들이 채우는 축제 프로그램

신·화·연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스와 공연 두 가지이다. 축제 공연은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연현중학교 댄스 동아리 ‘아이리스’의 공연, ‘신성태권도’의 태권도 시범, 석수2동 주민 밴드 ‘나이아가라’의 공연 같은 석수2동 주민들의 공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한국무용·노래교실·하모니카·기타·웰빙댄스 등의 수강생들도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 또한 신·화·연 마을축제는 다른 마을축제와 달리 외부 유명 가수 없이 지역 내 인재를 발굴하여 공연 무대를 채운다.

방석근 :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요. 우리는 이 축제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비싼 가수 절대 안 부릅니다. 모든 참여하는 그 팀들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부하는 사람, 또 이 지역에 살면서 활동



2024 석수2동 신·화·연 마을축제 포스터(석수2동행정복지센터 제공)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은 비용을 그쪽에다 드리지, 외부에서 이렇게 뭐 비싼 가수 부르고, 이걸 절대 안 하죠. 그게 우리의 아주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또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부스 또한 안양 내 단체들이 참여한다.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알리고, 지역의 과거 발전사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부터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좋은 글 써주기 등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두 석수2동의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이 이루어진

2024 석수2동 신·화·연 마을축제(석수2동행정복지센터 제공)



다.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안양그린마루·해오름지역아동센터·안양일자리센터·베이비부머지원센터 등 안양시 관내 기관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볼거리를 늘려 주고, 부스를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신·화·연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없다면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참여와 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화·연 마을축제는 단순히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축제는 안양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를 재조명하며,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지역 사회의 단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신·화·연 마을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비 과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단순한 관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축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외부 자원이나 유명 인사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축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축제가 단기적인 흥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다른 지역 축제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축제 모델로 널리 알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4년 현재 신·화·연 마을축제는 두 번째 회차를 맞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이 축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안양시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과 관심사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축제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화·연 마을축제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처럼 신·화·연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의 단합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문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안양 시민의 축제가 된 충훈부 벚꽃축제

안양시의 봄 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충훈부 벚꽃축제일 것이다. 충훈동 석수로 변에 벚나무 수백 그루가 줄지어 있어, 벚꽃이 필 때면 안양 시민들은 물론 인근 수원·광명·의왕·서울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룬다.

충훈부 택지개발 직후 석수로에 심은 벚나무가 쑥쑥 자라 석수동의 터줏대감처럼 안양천을 지켜 주었다. 이 벚꽃길에 많은 주민과 시민들에게 사랑받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나자 2003년 조그만 동네 축제로 충훈부 벚꽃축제가 시작하였다. 그 뒤로 벚꽃이 필 무렵이면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2011년까지는 격년 개최, 2012년부터는 매해 개최하여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2024년 15회를 맞이한 장수 마을축제가 되었다.

1) 민과 관의 협력으로 만든 마을축제

충훈부 벚꽃축제는 ‘안양충훈벚꽃축제추진위원회’(이하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앞서 소개한 신·화·연 마을축제와 마찬가지로, 벚꽃축제추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인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여 추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기에 일반 주민이 위원이 되기도 한다.

2011년 제5회 충훈부 벚꽃축제 기획 회의록을 보면 벚꽃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다. 석수3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자원봉사단 지원자 20명, 도의원, 시의원, 석수3동장, 석수3동 행정민원팀장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농협 주부대학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행사 준비와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단 3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축제를 운영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축제의 규모가 커지며 벚꽃축제추진위원회의 인원이 늘어났다. 2013년 벚꽃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현황을 보면, 석수3동 주민자치위원, 석수3동 사회단체 임원, 도·시의원,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석수1동 새마을부녀회장,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장, 석수2동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참석해 총 40여 명이 벚꽃축제추진위원으로 임명되어 축제가 이전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훈부 벚꽃축제는 다른 마을축제와 다르게 벚꽃축제추진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협력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획사 없이 오로지 민과 관의 협력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제6회 안양충훈벚꽃축제가



벚꽃이 만개한 충훈동의 벚꽃길(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는 벚꽃축제추진위원회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나, 제7회 축제부터는 벚꽃축제추진위원회와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으로 협력 운영하여 축제를 이어 오고 있다.

축제 재원의 경우 안양시의 지원금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금이 대부분이고, 추가로 석수동 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후원금을 받아 축제를 준비한다. 후원하는 단체는 매해 참가하는 단체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후원 단체와 함께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했던 적도 있었다. 2017년 충훈부 벚꽃축제의 경우 후원사인 티브로드의 'abc방송과 함께하는 안양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abc안양방송, 충훈대형주차장, 삼영·보영운수, 우리병원, 만안구 주민자치위원회 등 안양시 관내, 또는 석수동과 연관된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가 후원사로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2024년 충훈부 벚꽃축제 체험 부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시작부터 끝까지, 석수동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

충훈부 벚꽃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축제 동안 안양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벚꽃시장은 행사 전 참여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또한 체험 부스나 먹거리 부스, 사생대회도 사전에 시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통친회·자율방범대·바르게살기위원회·청소년지도회·새마을협의회·부녀회 등 주민자치단체들이 먹거리 부스 또는 자원봉사 부스를 열어 음식을 팔거나, 축제 안전 관리, 교통 지도 등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시민노래자랑의 경우 개막식 공연에 올라갈 정도로 크게 진행되는 행사 중 하나인데, 이 역시 석수동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또 축제에서는 꽃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매년 벚꽃과 동물 모양 등의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들이 벚꽃길을 더욱 재미있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충훈부 벚꽃축제의 관내 단체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충훈부 벚꽃축제는 오랜 기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장수 축제 중 하나이기에, 긴 기간을 거쳐 오며 축제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축제 프로그램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축제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축제 횟수가 늘어날수록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이 점점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4회부터 12회까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역시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시민노래자랑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체험 부스 등이다. 이런 점에서 충훈부 벚꽃축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했기에 지금까지 축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축제에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충훈부 벚꽃축제는 축제 기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열렸던 7회 행사부터 2024년 15회 행사까지 TV,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매체를 통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표 1〉 충훈부 벚꽃축제 프로그램의 변화

	공연		체험 및 활동	
4회	충훈부가요제 함께하는 앙상블 소리샘 색소폰 공연 댄스마당 (재즈댄스, 힙합댄스, 고전무용, 평촌고 힙합팀 등) 공연마당 (어울터밴드, 모듬북, 풍물놀이, 하모니카 등)		작품전시회 옷놀이 새끼줄 꼬기 벚꽃길 걷기 불꽃놀이 페이스페인팅	
5회	갈매기품바예술단 리틀예능경연대회 기타 연주 풍물놀이 마당극	실버가요제 한국무용 노래&랩 스포츠댄스 전자바이올린	먹거리 부스 폼아트 전통혼례 가훈 써주기	벚꽃길 걷기 행운권이벤트 불꽃놀이 비눗방울 쇼
6회	시민노래자랑 댄스마당 전통놀이 초청가수 공연 기타세션	풍물 안양대 응원단 색소폰동호회 시립합창단 한국무용	먹거리 부스 홀라후프대회 전통혼례 벚꽃길 걷기	불꽃놀이 동진회 부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7회	군악대 퍼레이드 노래자랑 댄스마당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세계민속문화 초청가수 공연	먹거리 부스 행운권 추첨 벚꽃길 걷기	포도존 불꽃놀이 벚꽃축제 라이브



	공연		체험 및 활동	
8회	초청가수 공연 군악대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아리	벨리댄스 전자바이올린 사물놀이	먹거리장터 벚꽃길 걷기 불꽃놀이	
9회	한국무용 공연 밴드 공연 색소폰 통기타	초대가수 군악대 공연 시민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불꽃놀이 행운권추첨	
10회	거리공연 댄스 공연 시민노래자랑	시민공연마당 난타 초청가수 공연	어린이벼룩시장 체험부스 꽃길 걷기대회	사생대회 DJ박스
11회	거리공연 댄스 공연 시민노래자랑 시민공연마당	난타 군악대 초청가수 공연	어린이벼룩시장 체험부스 사생대회 꽃길 걷기대회	
12회	시민 거리공연 댄스 공연 시민노래자랑	시민공연마당 난타 초청가수공연	사생대회 어린이벼룩시장 체험부스	



벚꽃축제는 운영 기간도 여러 번 변동이 있었다. 처음에는 2일 동안 개최되었다가 5일로 축제 기간을 늘려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2일 개최로 돌아왔으며 행사 공연과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 축제 장소도 10회까지는 충훈2교 옆 롤러스케이트장에 중심 무대가 설치되었는데, 11회인 2017년부터는 충훈2교 일대로 행사장 규모와 확대되었다. 이 역시 충훈부 벚꽃축제가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점점 성장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안전하게 모두의 축제를 만드는 노력들

충훈부 벚꽃축제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벚꽃축제가 그만큼 벚꽃이 언제 만개할 것인지 예측하여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 실제로 충훈부 벚꽃축제는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축제 기간을 조정할 적이 다수 있다. 2014년에 개최되었던 제8회 안양충훈벚꽃축제의 경우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를 개화 시기에 맞추어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로 변경한 적이 있다. 당시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벚꽃축제 브랜드로 자리 잡은「안양충훈벚꽃축제」가 금년에도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과 주민 화합을 위한 “제8회 안양충훈벚꽃축제”를 92년 만에 3월에 벚꽃이 개화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당 초 : 2014. 4. 18(금) ~ 4. 20(일) 【3일간】

▶ 변 경 : 2014. 4. 4(금) ~ 4. 6(일) 【3일간】

이처럼 개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2024년 15회 안양충훈벚꽃축제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이른 벚꽃 개화가 예측되어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처음으로 축제를 3월에 개최하였으나 축제 날보다 벚꽃 개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어 벚꽃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충훈부 벚꽃축제는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가 열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축



2014년 충훈부 벚꽃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제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쉬어가며 축제를 위해 안양천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에는 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충훈벚꽃길에 다양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털실을 이용하여 벚꽃을 형상화한 가랜드, 크리스마스트리에 뜨개질을 입힌 작품, 벚꽃 모양 바람개비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친 일상 속 위로가 되어 주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벚꽃축제 방문객들로 인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같은 해인 2021년 충훈부 벚꽃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안양천 우안 둔치 충훈교 일원 1,104m 구간에 난간을 설치하였고, 2021년 4월까지 195m를 추가로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벚꽃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22년에는 석수3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충훈부 벚꽃 사진 명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김대규 시인 시비, 어린 왕자 액자 틀, 트릭아트, 포토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을 통해 더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충훈부 벚꽃산책길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벚꽃축제 기간 외에도 사계절 내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특히 안양 출신 문학인인 김대규 시인을 기리고자 벚꽃길 내에 김대규 시인의 시를 전시하였다. 또, 벚꽃길 난간에 새롭게 설치된 어린 왕자 액자 틀과 명언 시리즈를 설치해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다채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조성하였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를 열지 못했지만, 축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준비하며, 벚꽃길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기가 되었기에 누군가는 이를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23년 4년 만에 돌아온 충훈부 벚꽃축제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이와 같은 준비 외에도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하였다. 안양시장과 안양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등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충훈2교와 석수로 일대를 방문해 행사장 위치와 시민들이 거닐 산책로를 확인하며 현장 점검을 마쳤다. 또한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시 자체적으로 종합 상황반을 구성하여 행사장 질서유지, 안전사고·화재 등 사건·사고에 대비하였다. 축제 기간에 안양시모범운전자회 30여 명, 안양시자율방범대 20여 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다.

이런 꼼꼼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4년 만의 충훈부 벚꽃축제는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2023년 충훈부 벚꽃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3년 충훈부 벚꽃축제 어린이 태권도 시범(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1 2023년 충훈부 벚꽃축제 시민 공연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2 2023년 충훈부 벚꽃축제 공연 관람객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3,4 2023년 충훈부 벚꽃축제 체험 부스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



2





안양시는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충훈부 벚꽃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9일 이틀간 충훈2교 하부 안양천 산책로 및 석수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 3만여 명이 방문해 벚꽃가요제, 벚꽃콘서트, 태권도 시범공연·시니어모델 공연 등 시민공연, 버스킹, 체험부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8일 오후 2시부터 중앙무대에서 진행된 벚꽃가요제에는 안양 시민 28팀이 경연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대상의 영예는 '존재의 이유'를 열창한 동안구 관양1동의 양주형 씨가 차지했다.

9일 오후 7시 벚꽃콘서트에는 가수 박세욱, 장승미와 소프라노 문경민, 헤바밸리댄스팀이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차 없는 거리의 컬러링북·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17개 팀의 깜짝 버스킹 무대도 축제의 매력을 더했다.

(2023년 4월 10일, 안양시청 보도자료)

이 같은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인해 2019년, 충훈부 벚꽃축제는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 가볼 만한 경기도 여행지로 선정되었다. 이제 충훈부 벚꽃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안양 시민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만들어진 안양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이자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충훈부 벚꽃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4. 안양시가 주최한 삼막마을의 축제

삼막마을은 석수동의 전통 마을이다. 예부터 진주하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일명 '하씨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삼막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마을 수호신인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삼막골 쌍신제를 지내고 있다. 토박이 대부분이 세상을 뜨고 마을을 떠났지만 쌍신제는 여전히 삼막마을의 마을제사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 시민들에게 삼막마을은 쌍신제보다 음식 거리가 더 유명하다. 경수대로 삼막삼거리에서 시작해서 경인교육대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삼막로는 도로 양옆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요식업체가 밀집한 거리를 흔히 부르는 먹거리촌 대신 '맛거리촌'이라는 이름을 붙인 '삼막마을 맛거리촌'이다. 한식·중식·양식 등 50여 개소의 다양한 음



삼막마을 맛거리촌(이정범 제공)

식업소가 밀집해 있는 삼막마을 맛거리촌은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되었고, 2016년과 2017년 연속 최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되었다.

우수 외식업 지구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 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외식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이루어진 사업비를 받는다. 삼막마을 맛거리촌 상인회는 이 사업비와 상인회 자체 예산을 합쳐 삼막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안양시도 삼막마을 맛거리촌을 외식업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 안양시가 주최하고 삼막마을 외식사업지구상인회,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삼막마을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마을의 전통과 현재를 융합하는 의미로, 삼막마을 짙신제와 푸드 페스티벌을 연계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전통의 마을제와 현대의 음식 축제가 한데 어우러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행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안양시는 이 축제가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서 입·눈·귀가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음력 7월 1일에 해당하는 8월 3일 낮 쌍신제를 시작으로 제1회 삼막마을축제가 열렸다. 쌍신제에 이어 맛자랑 경연과 무료 시식 존이 운영되는 ‘삼막푸드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삼막마을의 외식업을 소재로 한 체험관도 4시간 동안 운영되었다. 유명 방송인의 사회로 여러 가수의 공연, 타악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 ‘구석구석 마중 콘서트’는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다.

2017년 열린 제2회 삼막마을축제는 삼막마을 외식사업지구상인회가 주관하는 맛거리촌 축제로 진행되었다. 쌍신제와 연계하여 8월 3일 수요일에 개최하였던 제1회와 달리 10월 28일 토요일에 개최되었다. 우리 농산물 비빔밥 1,000그릇 나눔 행사,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삼막마을 대표 음식 시식,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진행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비빔밥 1,000그릇 나눔 행사였다. 대형 그릇에 담긴 재료를 비벼 만든 비빔밥을 축제장에 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유명 방송인의 진행 속에 초대 가수의 공연과 난타, 품바 공연이 펼쳐졌다. 무대 옆에서는 나눔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다.



2016년 삼막마을축제 포스터



2016년 삼막마을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6년 삼막마을축제 '구석구석 미중 콘서트'(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7년 삼막마을 축제 비빔밥 만들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그러나 삼막마을의 축제는 두 번 개최된 후 중단되었다. 삼막마을 외식사업지구상인회 전영미 회장은 축제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를 예산 부족으로 꼽았다. 1회와 2회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와 안양시의 지원이 있었다. 상인회 자체 예산도 투입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안양시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축제를 열지 못하였다. 상인회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축제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영미 : 그때 축제할 때 사람들 많이 왔어요. 우리가 경품 추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 거죠.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면 우리도 하고 싶죠.

삼막마을 외식사업지구상인회는 2025년에 경품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1·2회 삼막마을 축제 때 인기가 많았던 경품 추첨 행사를 약간의 공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삼막마을 축제가 신·화·연 마을축제나 충훈부 벚꽃축제처럼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양시에서 삼막마을 맛거리촌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의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지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에 선정되자, 안양시는 이를 계기로 삼막

마을을 외식업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이 주도한 마을축제는 관의 지원이 사라지면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마을축제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진정한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제보자

방석근 : 남, 석수2동 전 주민자치위원회장, 충훈부벚꽃축제준비위원.
전영미 : 여, 삼막마을 외식사업지구상인회장.

04

석수동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과 돌봄

제1장 석수동 아이들의 배움터, 삼성초등학교

제2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교육공동체, 안양발도르프학교

제3장 석수동에 핀 코스모스, 안양의집

제4장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제1장

석수동 아이들의 배움터, 삼성초등학교

박정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1. 강습소에서 삼성국민학교까지, 그 여정을 돌아보다

삼성산 아래, 삼막천 맑은 물줄기 옆에 자리한 삼성초등학교는 안양의 초등교육이 힘차게 흘러온 역사의 현장이자 소중한 터전이다. 삼성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학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소개되어 있다.¹ 시작은 이러하였다. 1942년 4월 1일, 시흥군 동면 안양리 화창 마을 유지 성만제가 동면 안양리 신촌에 860평 규모의 사설 강습소를 개설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동면 안양리 지역의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안양리 지역에 초등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원북면이 동면으로 편입되는 등 동면의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안양리와 가까운 시흥소학교에 입학하려는 지원자가 300명에 달하였으나 수용 능력은 겨우 8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빈곤한 가정의 경우, 배우고 싶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만제는 사설 강습소를 개설하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안양리의 아이들, 빈곤으로 인해 취학하지 못했던 아이들,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이 교육기관이 오늘날 삼성초등학교의 전신이다.

바야흐로 1945년 8월, 해방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초등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강습소에서 수학하던 아이들이 근처 국민학교로 분산되어 편입되기도 하였다. 삼성초등학교의 전신이었던 강습소의 경우, 1946년 9월 1일, 시흥군 동면 시흥리 소재 시흥공립국민학교 분교실로 인가되면서 정규 초등교육기관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총학급수는 2학급이었으나, 그해 12월에 3학급으로 증설되어 시흥국민학교 삼성분교장으로 승격되었다. 시흥군 동면 일대에 증가하는 인구와 초등교육 수요로 인해, 그로부터 3년 뒤,



1960년대 삼성국민학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49년 9월 1일에는 시흥군 안양읍 안양국민학교 삼성분교장으로 전환되었고 6학급으로 편성되었다. 광복을 맞이한 교사와 아이들은 우리말로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며,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1951년 1·4후퇴 당시 삼성초등학교는 포화로 인해 교실과 교구가 전소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난 학생들도 있었고, 집에 남은 학생들도 있었다. 당시 안양을 저지선으로 하여 밀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려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서울로 복귀가 허가된 후, 1952년 초 하나둘씩 사람들이 안양으로 돌아왔다.

피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집과 학교였다. 사람들은 다시 땅에 양배추·보리·부추 등 농작물을 심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군막 아래에서라도 배움의 장을 열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교 복구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안양유원지에 있던 서울시 임간학교 교실 3개를 수리하고 우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석수동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 등에서 건축 자재를 원조받아 조속한 기간에 교사를 재건하는 데 힘을

기울었다.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삼성분교장에 다니던 전 교사와 아이들은 안양국민학교에 흡수되어 교육을 받았다. 교실 수리가 일부 마무리되어, 1952년 10월에는 안양국민학교에서 분리되어 재개교하였고, 총 3학급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재적학생의 약 30%가 ‘안양보육원’의 원생들이었다고 한다. 안양보육원은 1947년 사태현이 시흥군 동면 안양리 삼성산 아래에 설립한 것이다. 처음에는 해방 이후의 혼란기에 배우자를 잃은 고령자 몇 명과 노숙 아동 몇 명, 시각장애인 소녀 등 10여 명을 수용하는 소규모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시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미군 부대의 군용 트럭에 실려 안양으로 모이게 되었다. 안양보육원에도 약 400명의 전쟁고아가 입주하였고, 당시 사태현 안양보육원장은 삼성분교장에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1954년 4월 1일에 삼성분교장이 드디어 삼성국민학교로 승격되었으며, 6년제 9학급으로 편성되었다. 1950년대 한국의 초등교육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다. 1945년 전국의 국민학교 취학률은 45%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55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하였고, 1960년에는 99.8%로 거의 모든 어린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성국민학교의 승격도 이해할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삼성국민학교는 계속해서 교실을 증설하였다. 1955년에는 목조교실 6개를 신축하였고, 화장실과 숙직실도 건립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 자리 잡았던 학교 부지는 늘어나는 건물을 감당하기에는 협소하였다. 따라서 시흥군 동면 안양리 196번지, 현재 삼성초등학교 부지를 새 교지로 선정하여 교사를 신축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교사 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어른들이 힘을 보



삼성초등학교의 전신인 강습소를 설립한 성만제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

됐다. 당시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에 있던 기독교보육원의 오공선 원장은 삼성국민학교 신축용 자재 일체를 기부하였다. 기독교보육원 역시 6·25전쟁의 피해로 인해 미군의 구호를 받아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삼성국민학교 재건에 기꺼이 도움을 건넨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도 공사비를 기부하여 새로운 부지에 삼성국민학교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삼성초등학교의 부지는 대부분 귀속 재산으로 농림부의 사용 허가를 받고 경작자에게서 사용 권리를 이양받은 형태이다. 또한 개인 소유의 토지도 기증받았는데, 당시 시흥군 동면 안양리 삼막골에 거주하던 하청홍이 대표적이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면서 꿈을 펼칠 공간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소유하던 토지를 기부하였다. 안양 지역 어른들의 이러한 노력이 모여 좋은 땅에 삼성국민학교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다.

1955년 7월에는 교장 사택도 건축하여 교육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였다. 3월에는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1959년에도 4개의 정규 교실을 신축하는 등 삼성국민학교는 점점 더 번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던 학교 증축이 계속되면서 학교 운동장이 협소해지자, 인근의 미군 부대에서 운동장 확장 공사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62년 3월에는 일시에 학생들이 편입한 일이 있었다. 당시 안양보육원의 사태현 원장이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따로 설립하였던 사립 근명국민학교가 폐교하면서, 학생 전원이 삼성국민학교로 전학하였기 때문이다. 삼성국민학교는 점점 발전하여 1964년에는 전기가 가설되고, 교지 400평을 매입하였으며, 온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966년 11월에는 처음 사설 강습소를 설립했던 성만제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웠다.

2. 수영의 명가, 삼성국민학교

1965년 8월에 제1회 전국 국민학교 대항 수영대회가 서울운동장 풀에서 개최되었는데, 삼성국민학교는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 규격에 입각하여 실시되었으며, 시즌 말에 개최함으로써 학교와 선수, 수영 관계자들 전부 해당 시즌의 종합 정리이자 한 해 결과 지표로 삼고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 특히 1965년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새로운 시도 중 하나로서 국민학교부를 신설하였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저연령층에서 대선수가 배출되고, 미국과 호주 등 수영 강국이 저연령층



1971년 삼성국민학교 수영장에서 열린 시흥군 수영대회(『시흥화보』, 1971)

에서부터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이식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수영 관계자들은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양의 삼성국민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자,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였다.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있고,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구비한 서울의 어린이들 가운데는 특색 있는 선수를 볼 수 없었다는 점에도 놀랐다.²

당시 삼성국민학교에는 수영장이 따로 있지 않았으나 아이들이 평소 근처 안양풀에서 갈고닦은 실력으로 우승하였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중반부터 이미 수영 특기 학교였으며, 시흥군 체육대회 등 각종 운동 분야에서도 걸출한 기량을 뽐낸 바 있다. 다음 해인 1966년, 삼성국민학교의 수영대회 성적은 더욱 놀라웠다. 남자 자유형 50m, 평영 50m, 배영 50m, 여자 평영 50m에서 모두 삼성국민학교 선수들이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71년에 삼성국민학교 수영장이 개장하였다. 1971년 8월 25일, 길이 50m, 폭 13m, 깊이 1.3m의 수영장이 탈의실·양수실·매점과 함께 신축되었다. 이 공사는 당시 문교부의 특별 보조금 300만 원에 안양 지역 유지의 기부와 도교육위원회, 시흥군 교육



전국 국민학교 대항 수영대회에서 우승한 삼성국민학교(『조선일보』, 1965년 8월 18일)

청의 보조를 더해 완성되었다.

수영장 조성 당시 삼성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안흥순의 구술에 의하면, 학교 바로 뒤에 들어온 동국실업이 삼막천 하천 부지를 사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운동장 바로 옆이 공장 부지로 이용되는 걸 막아보자고 낸 아이디어가 수영장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 공립 국민학교에서 자체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학생들은 삼막골에서 돌을 날랐고, 학부모들은 힘을 보탰다.

처음에는 수영장의 물을 삼막천에서 끌어왔다. 물길을 만들어서 삼막천의 물을 수영장으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수영장의 물을 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시흥군 교육청의 지원으로 3개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펌프로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다. 이 수영장은 1977년 홍수 때 불어난 삼막천 물

에 휩쓸리면서 풀이 매몰되고 스텐드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지만, 곧바로 복구되었다. 수영장 모터도 이전 것보다 좋은 것으로 다시 설치하였다. 수영장은 1982년부터 상수도 급수가 시작되었고, 1984년에는 마침내 실내 수영장이 준공되었다.

삼성국민학교 수영부는 지속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1973년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2년간 체육과 연구 학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주제는 수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 방법 개발에 관한 실천 연구였다. 수영에 특화된 삼성국민학교의 실천 연구는 선순환되어 높은 기량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예컨대, 1972년 고등학교 졸업 당시 '한국 여자 수영의 희망'으로 불리던 남상필은 삼성국민학교 출신으로 5학년 때 학교에서 수영을 시작하였다. 당초 자유형과 배영 선수로 시작하였지만, 접영으로 주 종목을 바꾸면서 갑작스런 발전을 보인 경우이다. 남상필의 언니, 남상남 또한 수영에 두각을 나타내어 당시 동경 수영센터에서 코치로 활약하기도 했다. 남상필은 1971년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접영 200m에서 언니의 종전 한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기념비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세웠으며, 불과 1년 만에 접영에서 4개의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60~1970년대 초 수영계는 조오런 선수와 남상남·남상필 자매가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삼성초등학교 수영부 출신 남상필은 우리나라 수영 유망주였다.³

1975년 10대 선수들을 위한 아시아 에이지 그룹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삼성국민학교 6학년 김중권이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 대회 첫날 10세 이하 에이지 그룹에서 김중권은 접영 100m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첫 금메달을 땀고, 개인 혼영 200m에서도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여 2관왕이 되었다. 김중권은 4학년 때부터 수영을 시작하여 만 2년 만에 1급 선수로 급성장하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삼성국민학교는 한국의 대표급 선수를 길러낸 수영의 명문으로 인정받았다.⁴

3. 삼성국민학교 금계 도난 사건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린 수영부 기사 외에 삼성국민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사 하나를 신문에서 찾을 수 있다. 1974년 어린이날에 삼성국민학교 2,000여 명의 학생이 자활의 방편으로 힘을 모아 키워오던 금계 30마리 중 12마리(암컷 8마리, 수컷 4마리)가 돌연 사라져서 어린이들이 울음보를 터뜨린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회 회장이었던 12살 임광현이 아침 일찍 계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금계 12마리를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월 6일, 학생들은 전교 회의를 열고 “어린이날을 망친 도둑을 잡아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금계는 삼성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보물이었다.

7대 교장 이광섭(1969.9.1.~1975.8.31.)은 1970년 5월에 학교 부근 관악목장 대표에게 금계 1쌍을 기증받았다. 그는 교사와 교사 사이 공간에 18평 규모의 계사를 만들고, 사육반을 조직하였다. 사육반 아이들은 금계를 정성껏 키워왔다. 그 결과 1973년에는 금계가 1백 50마리로 늘어났고, 이에 50쌍은 팔아 87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어린이들은 이 돈을 학교 재정에 보탬고,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수영부에 기부하기도 했다.

다행히 도난당한 지 3일 만인 5월 8일, 금계 12마리 중 10마리를 되찾았다. 되찾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이광섭 교장은 금계를 잃어버린 날부터 서울의 새집을 살살이 찾아



도난당했던 금계를 찾아서 기뻐하는 삼성국민학교 학생들(『조선일보』, 1974년 5월 9일)

다니다가 7일 오후에 서울시 종로5가의 ‘부산애조사’에서 안양 사람이 금계를 팔겠다고 다녀갔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금계 2쌍을 찾을 수 있었다. 이광섭 교장은 도주한 금계 도난범을 알아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범인의 아버지를 통해 다른 곳에 이미 팔린 금계 6마리를 마저 찾아냈다. 범인의 아버지는 사죄하며 금계 12마리를 학교에 돌려주었으나, 그 사이 2마리는 폐사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연관시킨 기사로 신문에 소개되었다.⁵ 어린이날에 학교의 보금자리에서 소중한게 키우던 금계가 도난당하면서 아이들을 슬프게 만든 사건이었고, 금계 도난범이 어버이날에 부모의 설득으로 금계를 되돌려 준 사건이었다.

4. 1980년대 이후 물처럼 맑고 거침없이 초등교육을 실천하다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성초등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와 인성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1981년 삼성국민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신설되어 1학급이 편성되었고, 인근에 석수국민학교가 개교하면서 삼성국민학교의 학급은 3학급이 줄었다. 당시 석수동의 어린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990년 제36회 졸업생은 450명이었고, 누적 졸업생 수는 9,260여 명에 달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학교는 교실 보수와 각종 기자재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했으며, 1996년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교명도 삼성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1998년 급식실이 완공되어 전교생 급식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 리듬밴드부 창설, 전자도서관 운영, 무선 마이크 설치, 교내 야생화 동산 조성 등으로 교육과 자연이 어우러진 학교로 발전하였다. 2010년에는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수영 명문 학교의 명성을 이어갔다.

2013년 삼성초등학교는 안양시의 ‘희망창조학교’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를 통해 국악, 생태체험, 야영대회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2014년 삼성초등학교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있었으며, 예산 지원으로 수영 전문 코치 2명을 영입해 전교생이 연 10시간씩 수영 강습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활발해져 독서·생태 교육 연수 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책 읽어주는 어머니’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이는 토론수업으로 확장되었다. 학생들은 1학기에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한 수업을, 2학기에는 희망나눔 바자회를 통해 기부 문화를 배우며 인성교육을 받았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뒤뜰 야영’ 등 가족 참여형 행사도 이어졌다.

학생 특성화 교육으로는 칸타빌레 오케스트라가 안양·과천 학생예능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는 운동장에서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조성하고, 사육장·텃밭·연못을 만들어 생태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학생들은 닭을 기르고 채소를 수확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였다. 또한 줄넘기, 배드민턴, 티볼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였다.

2014년에는 희망창조학교 프로그램이 이어져 ‘책 나눔 축제’가 열렸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협조로 1만 3,500권의 책이 모였다. 남은 도서와 수익금은 구호단체와 석수 청소년문화의집에 기부되었다. 도서어머니회는 ‘정글북’과 ‘지혜샘’으로 나뉘어 책 읽어주기와 독서지도를 담당하며 학교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삼성초등학교는 경인교육대학교 예비교사 실습학교로서 미래 교사 양성에도 기여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그린스페이스’ 사업으로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와 친환경 농법을 배우며 ‘썸데이’ 행사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시식하기도 하였다.

삼성초등학교는 사설 강습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며 석수동의 교육 중심지로 자리해왔다. 2014년에 삼성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개교 60주년 기념비를 세웠고, 2024년에는 개교 70주년 기념 배지를 제작해 학생·교직원·동문에게 나누어주고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삼성초등학교 총동문회는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세운 개교 60주년 기념비

5. 19회 졸업생이 들려주는 그 시절의 삼성국민학교

1967년에 삼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973년에 졸업한 19회 졸업생 송진범은 삼성국민학교의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재 삼성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당시 학교 주변은 삼막천이 흐르고, 목화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관악역 앞에는 큰 미루나무가 있었고, 교회도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그가 살던 곳은 관악역 너머 신촌이었는데, 당시 석수동 일대에서는 중심지였다고 한다.

1970년대 초까지 석수동에 주둔하던 미군(83병기대대)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인근의 교회에 갔다고 한다. 당시 삼성초등학교 학생들도 부활절이면 계란과 빵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에는 미군 부대에서 지원해주는 초콜릿을 얻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향하곤 했다. 영어는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미군들과 접촉하면서 조금씩 귀동냥으로 듣던 터라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 때 미군들과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하고, 미군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뿌려 주던 초콜릿을 얻어서 먹기도 하였다.

송진범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안양 지역의 안양·만안·삼성국민학교, 광명 지역의 안서국민학교 등 근방의 국민학교가 돌아가면서 매년 가을마다 체전 형식의 운동회를 열었다. 학교 대표선수는 물론 전교생이 선후배와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운동회가 열리는 학교로 모였다. 특히 축구, 핸드볼, 배구 같은 경기가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무척이나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국민학교는 뭐니 뭐니해도 수영 실력이 가장 월등하였다. 송진범은 삼성국민학교 아이들 모두 “간이 수영 선수”라고 보면 된다고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근처 안양풀에 매일 가서 수영 연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971년에 학교에 수영장이 만들어진 것을 회상하면서, 학교 공부가 끝나고 학생들이 고사리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모았다고 한다. 자신을 비롯한 삼성국민학교 학생들의 힘이 하나씩 모여 수영장이 건립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삼성국민학교 근처에 안양풀이 있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 주변 하천이 다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당시 학교는 목조 건물이었으며 마룻바다이라 겨울에 냉기가 올라와서 몹시 추웠던 기억이 있다. 실내화는 없었고, 양말만 신은 채로 다녔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겨울철에는 학교에 일찍 등교하면 발이 무척이나 시려서 하루종일 동동거렸다. 4학년부터 겨울방학 때면 과제로 솔방울을 한 자루씩 모아오게 하였고, 솔방울을 불쏘시개



1968년 삼성국민학교 졸업사진(안홍순 제공)

로 해서 교실 난로에 불을 지피 한기가 가시도록 하였다. 솔방울과 석탄을 넣어 불을 때도 오후 1시가 되면 벌써 불길의 사그라들어서 교실의 냉기가 올라오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난로에 불을 지피는 당번이 있었고, 아이들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 얹어 데워 먹었다. 겨울철 도시락은 보리밥에다가 김장 김치, 아니면 콩자반이었다.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쌀밥에 계란프라이를 싸 오기도 하였다.

한 학년은 4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 학급에 76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으며, 2부제로 운영되었다. 송진범은 교내에 있던 교장 선생님 관사와 정문 옆에 있던 이발소와 문방구에 대해서도 술회하였다. 그 이발소에는 나이가 4~5살 정도 많던 친구 형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이발 기술을 배워서 이발사로 일하고 있었다.

원조반은 분유를 마시던 기억도 생생하다. 분유 배급을 맡은 분단장의 통솔 아래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분유 한 컵씩을 받아서 달게 마시곤 했다. 또한 철 양동이에 수북이 쌓인 옥수수빵도 기억난다. 송진범은 옥수수빵 한 개와 분유 한 컵씩을 받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가 미군 부대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학교를 추억할 때마다 미군과 관련한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 주변 마을이 미군 부대의 영향을



1972년 삼막천 정비공사에 참여한 삼성국민학교 학생들(안양시청 제공)

많이 받았던 동네라고 정리하였다. 근처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거주지가 있었고, 석수동 개울가에 살던 사람들이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였다. 친구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초콜릿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다.

송진범은 동네에 안양풀이 있어서 놀기가 무척 좋았노라고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하였다. 학교가 끝나면 안양풀로 달려가 매일 수영하고 운이 좋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안양 지역 다른 학교와 달리, 삼성국민학교는 안양풀이 봄과 가을 소풍지는 아니었다.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매일 친구들과 가서 노는 일상적인 장소였다. 소풍은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6년 내내 염불암, 아니면 지금의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목원이 아니었고, 자유롭게 들어가서 아름다운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머니가 싸주신 계란과 사이다를 들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걸어서 소풍지로 향하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50년대 말에는 소풍을 삼성산과 관악산 사이의 고개를 넘어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유적지에 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가



1967년 삼성국민학교 2학년 봄 소풍(김용학 제공)

을에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안양영화촬영소에 가서 전문가로부터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영화 촬영 장치를 보곤 하였다. 또한, 병충해 예방 행사로 작은 통조림 깡통을 하나씩 들고 친구들과 삼막산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고사리손으로 나무젓가락을 들고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송충이를 잡아서 빈 통조림 캔에 모으던 일이 눈에 선하다.

가을 운동회도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행사였다. 송진범은 문방구에서 운동회 때 착용할 검정 바지와 ‘삼성’ 마크가 찍혀 있는 하얀 셔츠, 그리고 양면에 각각 청색과 흰색으로 프린트된 모자를 구입하였다. 그는 운동회 의상을 집에 걸어놓고 운동회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운동회 의상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일상복을 입고 오기도 했다. 운동회 종목은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달리기·배구·핸드볼·축구·줄넘기·공 티뜨리기와 같은 것이 있었다. 운동회는 마을축제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먹고 즐기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들은 맛있는 반찬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싸와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자녀의 활약을 지켜보았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대동단결하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송진범은 삼성국민학교 재학 당시 전교 생활부장을 하던 기억을 신나게 풀어 놓았다.



1968년 삼성국민학교 학생들(국가기록원 제공)

생활부장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통정리를 하거나 방과 후 각 학급의 청소를 점검해서 점수를 매기는 일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삼일절, 광복절 등과 같은 행사 날에 하얀 광목 리본에 관련 문구를 사인펜으로 적거나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가슴팍에 달고 등교하였다. 생활부장은 리본을 달고 오지 않은 학생들을 가려내어 점수를 차감하면서 각 학생의 생활 평점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음악 시간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추억도 떠올렸다. 교실마다 풍금이 있지는 않아서, 복도에 풍금을 갖다 놓으면 음악 수업이 있는 학급에서 매번 풍금을 끌어서 교실에 가져다 놓았다.

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이었고, 일반 가정에는 펌프도 귀했다. 삼막천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던 시절이었다. 학교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학급별로 주전자가 있고, 10개 정도 까만 컵을 같이 놓았다. 아침마다 학급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 와서 교실에 두고 하루종일 나눠 마시곤 하였다. 고학년이 되자 우물 펌프에 모터를 달아서 좀 더 수월하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버리는 물에 손걸레를 빨아서 학급 청소를 하던 기

1960~1970년대
삼성국민학교 운동회



(송진범 제공)



(이재경 제공)



(김선화 제공)



안양유원지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1960년대, 안양의집 제공)

역을 떠올렸다. 책상을 한쪽에 다 밀어놓고, 애들이 손걸레를 손 밑에 두고 옆드려서 일시에 쪽 밀고 가면서 바닥을 닦곤 했다. 물이 다 마르면 마른걸레를 가지고 와서 교실 바닥에 초를 칠해서 닦아 광을 내었다. 장학사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창문 유리까지 다 떼어서 침을 발라 깨끗하게 닦기도 하였다.

저학년 때는 학교가 파하기가 무섭게 안양풀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서 놀기 바빴다. 여름에는 안양풀에서 수영을 했고, 겨울에는 뽕뽕 언 삼성천 위에서 팽이치기를 하며 놀았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방과 후에도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진범은 학교 선생님이 그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그와 형제들이 함께 보충학습을 하였다. 송진범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입학시험이 없었음에도, 그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가정교사와 공부하면서 선행학습을 하기도 했다. 그는 영어 알파벳이나 일본어 히라가나도 집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송진범과 친구들은 안양풀에서 놀다가 허기가 지면 그제서야 집에 돌아가곤 하였다. 안양유원지 근처에서 팔던 핫도그나 빵을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놀러 나가는 아들을 위해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서울 사람들이 유

원지에 놀러 와서 맛있는 간식을 사 먹는 것을 그저 바라보면서 침만 꿀꺽 삼켰던 기억이 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광명 지역으로 가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뒷다리를 쭉 빼서 바로 불에 구워 먹었다.

안양이 포도밭 천지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포도 서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송진범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광명 지역에는 참외밭이 많았다. 밤에 가서 참외 서리를 하고 했는데, 불빛에 비춰 보면 노란 참외가 아니라 익지 않은 새파란 참외라 먹지 못한 적도 있었다.

겨울이면 퐁퐁 언 하천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강통에 불을 넣어 불놀이를 하였다. 친구네 집 앞 마당에 모여 딱지치거나 구슬치기도 하였다. 집 밖으로 나가면 놀 것이 많던 시절이었다.

송진범은 졸업식 때 학교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축하 꽃다발은 없었다. 졸업 선물로 무제 노트와 볼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졸업식 후에는 안양1번가 태극당 옆에 있던 동춘관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송진범의 기억처럼 석수동의 아이들은 편안하게 무럭무럭 성장하였다. 친구들과 즐겁고 신나게 놀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알차게 지내던 어린 시절, 그 중심에 삼성초등학교가 있었다.

註

- 1 이 글은 삼성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세부 연혁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 2 「학생수영 총평 전반 수준 향상」, 『동아일보』, 1965년 9월 7일.
- 3 「접영서 한국신 3번 낸 유망주」, 『조선일보』, 1972년 2월 5일.
- 4 「2관왕 김종권-2년 만에 1급 선수」, 『동아일보』, 1975년 7월 28일.
- 5 「힘모아 키우던 금계 도난」, 『조선일보』, 1974년 5월 7일; 「어린 이날 없어진 학교 금계 어버이날 어린이들 품으로」, 『조선일보』, 1974년 5월 9일.

제2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교육공동체, 안양발도르프학교

이주희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다양한 교육을 위한 실험

2024년 기준 안양시 동안구의 초중고 학교 수는 총 50개교(초등학교 26, 중학교 15, 고등학교 9)이고, 만안구에는 총 41개교(초등학교 15, 중학교 9, 고등학교 12)가 있다.¹ 단순히 학교 숫자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인구 대비 학교 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2024년 6월 기준, 동안구의 인구는 31만 7,000명이 넘고, 만안구의 인구는 20만여 명 정도이니, 인구 대비 학교 수는 만안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² 그런데 동안구의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사)교육 격차’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만안구의 학원 수 458곳 대비 동안구의 학원 수는 1,302개로, 만안구와 동안구 사이에 학원 수 3배, 학생 수 2배의 심각한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고 문제를 지적한다.³ 사실 여기서 지적한 교육 격차는 동안구와 만안구의 사이의 사교육의 질적 양적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교육방식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은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학생들은 교사·친구들과 대면이 제한되었고, 각자의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수행과 체험이 중요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기초학습 능력 및 사회성 습득 등 전반적인 학습 결손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가정에서 부모가 원격 수업을 보조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의 개인적 격차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 차이로 직접 연결되었다.⁴ 대면과 체험은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험임에도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학생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묻은 조사 결과를 보아



안양발도르프학교(이정범 제공)

도, 학생들은 현장 체험과 친구와 만남 등 대면과 체험의 기회 손실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⁵

두 번째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교육 실험을 추동하고 있다. 인공지능·빅 데이터 등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방식의 혁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들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 역시 높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과도기에 오히려 의대 진학과 같은 안정적인 진로를 택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이 몰리면서,

사교육으로 더 많은 학생이 몰리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실험은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명확하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교육 방식으로 창의적인 인간 유형을 길러낼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집단적 경험과 기술·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교육 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안에서도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이 집중된 안양의 신도심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석수동에 교육과 삶의 터전을 만들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사례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2010년대에 석수동에 터전을 잡은 교육공동체 안양발도르프학교(대안학교)의 사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석수동의 환경적 특성으로 현재 안양예술공원을 포함한 주변의 자연환경이 오랫동안 공공녹지로 지켜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간이 도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 되는지를 안양발도르프학교의 사례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공공녹지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녹지·자연의 숲·토양·수면으로 이루어진 영속적인 공지(公地)를 의미한다. 석수동은 단단한 화강암 바위와 계곡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공녹지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 석수동의 환경조건이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안양발도르프학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석수동의 공공녹지와 발도르프 교육의 만남

안양시 만안구의 녹지는 전체 면적의 76.6%를 차지한다. 특히, 안양시 북쪽에 위치한 석수1동·2동은 서울 남쪽과 맞닿은 경계에 삼성산을 끼고 있어 안양시의 다른 동보다 녹지 비율이 더 높다. 석수동은 삼성산·석수산·와룡산·꽃메산 등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계곡과 하천이 차지하는 면적도 크다.⁶ 삼성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들은 삼성천으로 모여서 석수동 안양예술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따라 흘러 안양천으로 합류하고, 다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안양예술공원 일대는 과거에 안양유원지가 있던 곳이다. 1932년 삼성천에 자연 풀

안양발도르프학교 주변 환경(2024년). 교회 위쪽의 긴 흰색 지붕 건물이 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인데, 특별전시관 왼쪽 나무에 반쯤 가려진 흰색 4층 건물이 안양발도르프학교이다.





장을 조성한 이후 여름철 휴양지로 이용되었고, 1969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후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녹지로 남아있게 되었다. 안양유원지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개발이 지연된 덕분에 오랫동안 거대한 녹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차 뜸해졌다. 안양유원지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고, 1973년 비산자연공원으로 편입되어 도시공원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었다.⁷ 게다가, 1977년에 큰 홍수로 수영장이 토사에 매몰되고 삼성천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대적 변화도 있었다. 1976년 용인 자연농원 개장과 1984년 과천 서울대공원 개장으로 수도권 위락시설이 다변화하였고, 1980년대 승용차 보급량의 증가와 함께 바닷가로 여름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 같은 교통환경의 변화와 인접 지역 관광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시설과 서비스가 노후화한 안양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⁸ 이렇게 안양유원지는 쇠락해갔고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천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안양예술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그 명성을 되찾았다. 특히, 거리두기와 실내 집합 모임 제한이 일상화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야외에서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보존된 이 푸른 공간에 안양발도르프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는 사교육 시설이 동안구, 특히 평촌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학부모가 자녀를 이룬바 ‘평촌학원가’ 근처의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어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석수동이라는 지역은 결코 주목받아 온 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시설로서 학교라는 공간이 가져야 할 조건을 확대하여 생태적·환경적 기준에서 살펴보면, 석수동은 다른 동네로 보이게 된다. 안양발도르프학교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1번지에 위치한다.

안양발도르프학교는 안양예술공원 초입의 안양박물관 후문 근처에 교사(校舍)가 있다. 교사 정면에서 바라보면 안양박물관의 너른 터가 보인다. 요즘은 차 없는 길을 찾기 어렵고, 예전처럼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넓게 펼쳐진 공터를 품은 안양박물관은 어린 자녀가 있는 안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2024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기록⁹이 보여 주듯, 요즘 우리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석수동 안양예술공원과 안양박물관의 공터에서는 주말이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늘 볼 수 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교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학교의 터전을 석수동으로 이전하는데

안양박물관의 너른 공공녹지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고 한다. 안양발도르프학교 앞의 안양박물관 공터는 아이들에게 운동장이 되어 주기도 하고, 박물관 자체가 학습 공간이 되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안양박물관이 위치한 터는 오랫동안 사찰이 있던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사찰 터 위에 공장이 지어졌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동생 유특한이 1959년 설립한 유유산업(현 유유제약) 공장이 들어온 것이다. 이 공장이 2006년에 제천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후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안양시가 시민을 위한 공공녹지 공간을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위치시키면서 안양예술공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삼성산 봉우리까지 시선이 건물에 막히지 않고 확보될 수 있었다.

안양박물관 터에는 안양시 명칭의 유래가 되는 사찰 터가 남아있다.¹⁰ ‘안양’이라는 명칭은 ‘안양사’라는 절에서 유래되었다. 안양사는 극락정토 안양세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태조 왕건의 발원으로 고승 능정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안양사지는 신라시대 중초사와 고려시대 안양사, 그리고 현대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산업유산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공간이다. 이렇게 문화적 유산을 품고 있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즉, 이곳은 발도르프학교의 운동장이자 역사적 이야기가 살아있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어 주고 있다.

3. 석수동에 마련한 안양발도르프학교 터전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제창한 교육 사상과 실천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의 한 형태이다. 1919년, 슈타이너 박사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발도르프-아스토리아 담배 제조 회사 사장 에밀 몰트의 요청으로, 회사 직원과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구상하였다. 그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설립된 학교가 바로 최초의 ‘자유 발도르프학교’이다.¹¹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마다 다양한 해석과 분류가 존재하지만, 그 핵심은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에 있다. 슈타이너는 인지적 영역에 치우친 기존 교육을 비판하며, 신체적·정신적 성장 단계에 맞추어 의지, 감정, 사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발도르프학교에서는 학생의 우열을 구분하지



안양발도르프학교의 시자인 광명시 일직동 호봉골의 '구름산학교'(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않고, 각 개인의 성장과 요구에 귀 기울이는 교육을 실천한다. 또한 인지적·도덕적·실용적 재능의 발달을 동등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술과 신체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발도르프 교육의 철학을 실천하는 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¹²

안양발도르프학교는 2001년 광명시 일직동, 지금의 KTX 광명역 근처 호봉골에서 시작되었다. 호봉골은 호젓한 산을 등에 업은 마을로, 구름산자락과 이어져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도시의 개발은 이 학교의 터전을 점점 밖으로 밀어냈다. 발도르프의 교육 철학은 신체-정신-영혼의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체(손과 발)를 이용하여 정신과 협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노작교육'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당시 호봉골은 텃밭과 마당을 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대안학교의 철학을 구현하기 좋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광명역이 개발되면서 발도르프학교는 터전을 유지하기 점점 어렵게 된다.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철도가 연결되고, 새로운 역이 생기면 그 일대가 함께 개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역 주변의 개발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근처에 녹지나 공간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상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발도르프학교가 광명



안양발도르프학교에서 보이는 안양박물관 야외 공간

에 자리 잡았던 2000년대 초반 광명역 개통 당시 일일 이용객 수는 약 4,000명(2004년 기준) 수준이었으나, 현재 광명역세권 기준 유동인구는 연평균 500만~600만 명(2020년 기준)이다.¹³ 유동인구 수의 증가 폭만 보아도 광명역 일대가 개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 발도르프학교는 녹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학교 공간을 이전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터전을 계속 옮기다 보니, 학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개발로 인해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랐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점점 부족해졌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는, 학교 발전은 고사하고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2015년, 발도르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영구 터전을 마련하여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전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터전 팀’이 만들어졌고, 광명·시흥·안산·안양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공간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주택가에는 마당이 없고, 녹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역사적·문화적 공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석수동의 안양박물관 옆의 공간을 찾게 되었고, 발도르프학교는 2016년 2월 석수동에 영구 터

전을 마련하여 이전하게 되었다.¹⁴

이 장소는 호암산·삼성산·관악산이 가까이 있고, 안양박물관·김중업박물관·안양사지·어린이 도서관 등이 옆에 있었으며, 삼성천이 흐르고 있어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교사)

석수동은 교통여건도 좋아서 안양, 서울, 인천, 부천, 시흥, 의왕, 광명, 안산, 수원, 성남 등 인접한 도시에서 안양발도르프학교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마침내 발도르프학교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산행도 하고, 안양박물관 마당에서 체육도 하고, 안양천¹⁵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움을 채워갔다. 안양 천은 봄부터 가을까지 학생들의 활기찬 놀이터이자 워터파크가 되어 주었다. (『안발실록』, 2020년)

4. 발도르프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최근 들어 쌍방향 소통과 참여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은 교실에서 한 사람의 교사가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다수의 학생이 이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국정교과서와 정해진 교과 과정이 있어, 학생들은 학년에 맞는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시험을 통해 각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다. 이런 교육 방식에서는 학생 개인이 학습을 주도하고, 각자의 속도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발도르프의 교육 방식은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몸으로 습득하는 것을 학습의 주요한 방식으로 삼고 있으며, 개별 학생들의 학습 계획과 학습 속도를 존중한다. 교과서가 없고 봉사과 같은 지역 공동체와 상호작용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발도르프학교는 8년의 담임 과정과 4년의 상급 과정을 합쳐 총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도르프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몸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특히, 저학년의 수업 일정에는 매일 바깥 활동이 포함된다. 안양발도르프학교가 자리 잡은 주변 환경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 농장으로 분배한 텃밭에 채소를 심고 스스로 키우면서 그 변화를 관찰한다. 매일 산을 걸으면서 나무·풀·새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익히며, 계절의 변화를 직접 체험



안양발도르프학교 입학식(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신입생은 안양발도르프학교 구성원의 축하 속에 꽃길을 걸어서 꽃장식 문을 지나 학교로 들어오게 된다.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이들은 매일 삼성천에 물놀이를 가고, 물고기가 성장하는 것을 관찰한다.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되며, 자연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다. 요즘의 도시 공간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부족한데, 이는 아이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도르프학교는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이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는 학교 환경은 아이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논다.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좀처럼 쉽지 않다.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하거나, 함께 악기를 연주하거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발도르프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대신에 학생 개개인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교과서를 완성해간다. 안양발도르프학교 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8학년 학생이 만든 교과서(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발도르프학교에는 ‘동네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탐험하면서 지리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으로 ‘나’라는 개인이 위치를 파악하고 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학 수업 중 ‘길’을 주제로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은 먼저 동네의 자신이 다니는 길부터 걸어가 보죠. 그리고 ‘길’이 가진 사전적 의미, 길이 가진 역사적·상징적 의미까지 다층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학생 자신과 연결 지어 사고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로 써서 발표하는 방식이지요. (안양 발도르프 학교 교사)

발도르프학교의 ‘동네학’ 수업방식은 학생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도록 이끌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인문학이나 사회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과 같은 인문 사회학의 수업방식은 자신 경험을 통해 문제의식을 끌어내고, 그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을 훈련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생기고, 복잡한 사회의 층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방식을 매우 어린 나이에서부터 기본적인 사고 훈련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양발도르프학교가 자리한 석수동의 환경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안양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며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완성할 수도



전교생이 함께하는 안양발도르프학교 수업(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안양발도르프학교 프로젝트 전시(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안양발도르프학교 8학년 프로젝트 발표회(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안양발도르프학교 12학년의 졸업 연극(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앞 '윙홀'에서 진행된 연주회(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있고, 석수동의 미군 부대에 관한 기록을 찾아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탐구할 수도 있다.

발도르프 교육은 주변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요소이다. 안양발도르프학교 상급 과정 4년 동안 최소 15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학기 중에 반드시 매주 한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주일의 일정에 봉사활동이 하나의 활동으로 포함된다. 봉사활동은 주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진행한다. 봉사활동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안양발도르프학교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인 '안양의집' 아동·청소년과 예술 수업, 음악 수업, 수공예, 목공 등 방과 후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집합과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교류가 중단되었다. 안양발도르프학교는 매년 11월에 바자회와 함께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행사의 모든 준비 과정에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하며, 안양발도르프학교를 중심으로 부천·인천발도르프학교도 동참한다.

5. 글로벌 팬데믹과 발도르프학교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2020년 초입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도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및 집합 금지, 대규모 집합 행사의 금지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높은 전염성을 특징으로 하는 탓에, 사회 전반에 학교·종교기관·직장 등에서의 대규모 전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학교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되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비대면 방식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이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습 능력, 교우 관계 형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장기적인 추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아 사이언스』에 소개된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6억 명의 아동이 팬데믹이 절정에 달하는 동안 학교 폐쇄의 영향으로 상당한 양의 수업 시간을 놓쳤다. 연구팀은 감염병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5,997개의 기존 논문과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미주·유럽·아프리카 지역 등 15개 국가의 42개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코로나 전후 학령기 아동의 학습 손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평균적으로 모든 학년 학령기 아동의 학습 손실이 35%에 달하고 팬데믹으로 발생한 학습 손실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¹⁶

팬데믹 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한 한국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학습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팬데믹 기간에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팬데믹 제너레이션’이라 부른다. 이는 해당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될 수 있는 말이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피해야 할 용어이지만, 학부모·교사·학생이 이 시기 아이들의 학습 손실을 지적할 때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석수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2020~2021년 집합 금지 기간에 입학한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성을 키우지 못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학우들과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고학년이 된 2024년 현재,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진행된 안양발도르프학교 수업
(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진행된 안양발도르프학교 자전거 여행(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의 학습·경험·체험 등의 손실이 아이들의 사회적 능력 형성과 학습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안양발도르프학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대면 수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학년의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과 사람을 통한 대면적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게 교육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두 배의 수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업을 나누어 대면 수업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밖에서 하는 활동을 더 늘려서, 그 기간에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교사)

안양발도르프학교는 학급과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수업에서 바깥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수업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대면 수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주변의 너른 공공녹지를 활용하여 외부 활동을 더 늘림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천하면서도 아이들의 체험학습과 대면 수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석수동 안양예술공원의 넓은 녹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안양발도르프학교의 살아있는 체험 교실이 되어 주었다.

발도르프학교의 교육방식과 석수동의 자연환경 덕분에 안양발도르프학교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집에 갇혀 비대면 수업을 들은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 격리되어 컴퓨터 화면만으로 선생님과 친구를 대면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교사 대비 학생 수를 줄이고 주변에 녹지가 많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는 것만으로 팬데믹 시기에 완전히 다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공공녹지가 만든 배움 공간의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보건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기술·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양발도르프학교가 석수동에 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팬데믹 시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수동이 교육환경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안양은 평촌 지역의 사교육 집중 현상과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사)교육 격차의 문제로 해석되어 왔다. 반면 석수동은 안양 내에서도 인구가 적고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교육에 적합한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요건을 단순히 시설이나 입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해석해 보면, 석수동의 넓은 공공녹지는 아이들의 체험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생태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안양발도르프학교가 위치한 석수1동 일대에는 안양예술공원, 안양박물관, 안양사지, 삼성산, 삼성천 등 풍부한 생태·문화 자원이 인접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때 쇠락한 유원지로 남아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개발제한이 서울 근교의 대규모 공공녹지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대 이후 재정비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휴식처로 다시 태어나며, 현재는 도심속 쉼터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활동 제한 등으



안양발도르프학교 수업으로 진행되는 화전 만들기(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로 일상적인 생활이 위축된 시민들에게 석수동의 녹지는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 되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시기 석수동의 공공녹지는 아이들의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있는 안양사지 등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동네를 탐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이자, 동시에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이처럼 안양발도르프학교와 그 교육공동체가 석수동에 뿌리내려 가는 과정은, 안양사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생태적·환경적·문화적 환경이 아이들의 교육에 핵심적인 조건임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석수동이 지닌 공공녹지와 문화유산은 미래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안양발도르프학교 구성원들(안양발도르프학교 제공)



참고자료

- 박유신, 「코로나19 시기 학교 현장에서 본 어린이의 삶」, 『동광』 117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2.
- 유홍식, 「관악산의 화강암 지형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4권 4호, 한국지형학회, 2007.
- 안양발도르프학교, 『안발실록』, 2022.
- 「안양유원지는 이렇게 개발됩니다」, 『오마이뉴스』, 2000년 8월 14일.
- 「팬데믹 세대 학습 손실 35%... "가장 불공평한 유산"」, 『동아 사이언스』(<https://m.dongascience.com/>), 2023년 1월 31일.
- 「학원 3배 학생 2배 차이... 안양, 심각한 교육 환경 격차」, 『경기뉴스』, 2024년 7월 8일.
- 「OECD 출산율 반토막 날 때 한국은 8분의 1토막 났다」, 『한겨레 신문』, 2024년 6월 23일.
- 「광명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grandculture.net/gwangmyeong/>), 2024년 7월 22일 검색.
- 국가유산청(<https://www.heritage.go.kr/>), 2024년 7월 22일 검색.
- 동안구청(<https://www.anyang.go.kr/>), 2024년 8월 1일 검색.
- 만안구청(<https://www.anyang.go.kr/>), 2024년 8월 1일 검색.
- 발도르프교육협회(<http://www.waldorf.or.kr/>), 2024년 8월 1일 검색.
- 통계청(<https://data.si.re.kr/>), 2024년 8월 1일 검색.

註

- 1 만안구청) 일반현황(<https://www.anyang.go.kr/>); 동안구청) 일반현황(<https://www.anyang.go.kr/>).
- 2 상동.
- 3 「학원 3배 학생 2배 차이... 안양, 심각한 교육 환경 격차」, 『경기뉴스』, 2024년 7월 8일.
- 4 박유신, 「코로나19 시기 학교 현장에서 본 어린이의 삶」, 『동광』 117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2, 72쪽.
- 5 박유신, 위의 논문, 76쪽.
- 6 유홍식, 「관악산의 화강암 지형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4권 4호, 한국지형학회, 2007.
- 7 문원식, 「안양유원지는 이렇게 개발됩니다」,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2000년 8월 14일.
- 8 통계청)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서울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https://data.si.re.kr/>).
- 9 「OECD 출산율 반토막 날 때 한국은 8분의 1토막 났다」, 『한겨레 신문』(<https://www.hani.co.kr/>), 2024년 6월 23일.
- 1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검색) 보물) 중초사지당간지주(<https://www.heritage.go.kr/>), 2024년 7월 22일 검색.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절 입구에 당(幢)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하며, 장대를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이곳을 중초사터라고 하는 것은 서쪽 지주의 바깥쪽에 새겨진 기록에 따른 것이다.
- 11 발도르프교육협회(<http://www.waldorf.or.kr/>).
- 12 발도르프교육협회(<http://www.waldorf.or.kr/>).
- 13 광명시) KTX 광명역과 개발 이야기(<https://www.grandculture.net/gwangmyeong/>).
- 14 안양발도르프학교, 『안발실록』, 2022, 17쪽.
- 15 삼성천을 안양천으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16 「팬데믹 세대 학습 손실 35%... "가장 불공평한 유산"」, 『동아 사이언스』(<https://m.dongascience.com/>), 2023년 1월 31일. 「네이처」지에 게재된 바스티안 베토이저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이다.

제3장

석수동에 핀 코스모스, 안양의집

김기영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1.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안양의집, 그 시작과 여정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빨간 지붕의 벽돌 건물이 있다. 1947년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구 안양보육원) 부속건물이다. 이 건물 위쪽으로 안양의집이 위치한다. 안양의집 경내에는 안양보육원에서 성장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이광조의 기증으로 건립한 연혁비가 있다.

이 시설은 세계 2차대전 후인 1947년 전재아동을 구제할 목적으로 당시 경동교회 교인이던 사태현 장로가 설립하였고, 재단 임원진을 설립자 외에 안길선(장로교회 목사, 6·25 때 피랍), 이규갑(감리교회 목사, 상해임시정부 요인), 이건(성결교신학대학 교수, 6·25 때 피랍), 이윤영(감리교회 목사,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운영과 보육실무 일체를 김애월(재단 이사장 역임, 성원교회 권사)의 노고로서 이루어 온 아동복지시설이다. 한편 자매기관으로 근명학교(근명초등학교, 근명원에기술학교, 근명중학교,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및 월간현대공론사 등이 본원 설립자에 의하여 같은 연대에 설립되었다.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과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 속한 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의 설립자 사태현(史泰鉉)은 1908년 이천에서 출생하여 2003년 95세를 일기로 안양에서 별세하였다. 사태현은 4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세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부인 김애월(金滄越)과 함께 고향 이천을 떠나 북간도 용정 동불사로 이주하였다. 1920년대 초 동불사로 이주하여 지내던 중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1930년대 중반 동불사를 떠나 조양천으로 가게 되었다.



1932년 동불사 상하두계몽학원 등산 연합 촬영(안양의집 제공)



1936년 조양천교회 부흥사경회 기념사진
(안양의집 제공)
뒷줄 오른쪽이 사태현이다.



사태현의 폐결핵 치료와 요양을 위해 가족이 함께 방문한 설악산(1943년, 안양의집 제공)

1940년대 초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북간도를 떠나 금강산·설악산·고향 경기도 이천 등지로 다니며 치료와 요양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폐결핵 병동이 개설된 경성요양병원(현 서울삼육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사태현은 부인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머니와 부인과 달리, 사회활동에 더 힘을 쏟았던 사태현은 요양하는 동안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성경 구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북간도에 머무는 동안 사태현은 교육에 뜻을 품었다. 특히 재만동포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1931년 동불사에 무산아동학원을 설립하여 3년간 운영하였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빈곤층 아동이나 부녀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연변에서 일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근명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의 진주로 연변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다. 잠시 북한에 머무는 동안에도 ‘근명야학’을 운영하였다. ‘근명(權明)’이라는 교명은 이후 사태현이 설립한 모든 학교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태현은 『간도일보』에 시와 수필을 기고하기도 했

고, 1930년 김좌진 장군의 장례식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문학에 대한 사태현의 관심은 안양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1950년대 중반 『코스모스』라는 안양보육원 문집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태현은 1947년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시작하였다. 1946년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사태현은, 북간도로 이주할 때 품고 갔던 땅문서로 부친이 근면과 성실함으로 일구었던 땅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 조금씩 흩어져 있던 부친의 땅을 찾아내고 이것을 팔아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이 현재 '안양의집'의 시작이었다.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현 안양시 석수동) 삼성산 골짜기에 터를 마련한 당시를 회상하며 사태현이 쓴 시가 있다.

그때

오십 년도 더 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 동산을 찾아왔을 때

그게 6월 하순이었나 보다

서울역에서 기차에 올라 안양역에 내려서는

물어물어 찾아온 석수동 골짜기

그 날따라 비바람이 수선을 떨어뜨렸지만

인가도 없는 산골짜기에 우거진 밤나무 숲엔

밤나무꽃이 한창이라 그 짙은 향기

비바람에 흐느적대는 밤나무숲

그 광경에 나는 흠뻑 빠져들었다.

맘에 들었다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 막사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봄이면 봄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며

어린 것들을 맞아들이며

해를 거듭하기 반세기

창립준비 때

처음 와 본 석수동 산수



사단법인 박애원 안양보육원과 안양양로원 간판(1950년대, 안양의집 제공)

그날은 비가 내렸다.
 밤나무숲에 꽤 즐기치게 내리는 비 속에서
 밤나무 가지들이 비바람에 부다껴
 흐느적거리는 풍경 때문에
 하염없는 생각으로
 한참을 서 있었던
 생각이 떠오른다.

시의 내용을 보면, 사태현은 누군가의 소개로 사회복지시설을 차릴 만한 장소를 찾아 온 것으로 짐작된다. 안양의집은 1947년 설립 당시 ‘고아원’과 ‘양로원’을 함께 운영하는 박애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1946년 5월 안승렬 등의 발기로 ‘귀환 전재동포’의 원호, 양로, 탁아, 고아 보육, 일반 계몽 및 문화사업 등을 베풀어 따뜻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박애원이 결성되었다. 안양의집 옛 사진 가운데, 사단법인 안양보육원과 안양양로원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사태현과 설립 동지들이 현재 안양의



1950년대 석수동 안양보육원 전경(안양의집 제공)





사태현 · 김애월 부부(안양의집 제공)

집 자리에 박애원 재단 소속 보육원과 양로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태현은 고아·노인·지체장애인을 수용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경기도청 사회과에 요청하여 소개받은 무연고 아동 12명, 노인 9명, 지체 장애인 3명을 데리고 와서 석수동에 마련해 둔 적산가옥에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였다. 1947년 7월 5일 정식 개원 직후부터 원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안양보육원 가족들도 부산으로 피란을 떠났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 돌아왔다. 전쟁 기간 거의 매일 전쟁고아들이 안양보육원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아이가 부상과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안양보육원은 매일 늘어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사(宿舎)가 필요하였다. 당시 보육원에 머물던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함께 벽돌을 찍어서 숙사를 하나씩 짓기 시작하였다. 안양의집은 당시의 단독주택형 숙사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원복지재단 이정혜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안양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일대가 모두 안양의집 소유지였으나, 근명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 재단에 기부하거나 매각하여 지금의 규모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정혜 : 박달리 범고개에도 밭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범고개에 농사지으러 가셨는데, 감자랑 고구마 캐러도 가시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서 김장도 하고. 수백 명의 대가족이 그렇게 자급자족 먹고 살



안양보육원 명절 음식 준비(안양의집 제공)

았어요. (중략) 60년대 당시엔 학비 마련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대학에 진학하게 된 원생이 있으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땅을 파셨대요. 할아버지 일기에 땅 팔러 다니느라 며칠 만에 해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원생들이 “아버지!”하고 달려오는 게 너무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안양보육원은 숙사와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건물 외에 넓은 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은 보육원생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수익금을 보육원 운영에 사용하였다. 1973년 안양보육원 시설 인가 갱신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보면, 1972년 안양보육원의 농장 수입은 딸기 40만 원, 잡곡 10만 원, 과일 밤 5만 원, 고구마 감자 6만 원, 채소 100만 원, 연료(나무)로 12만 원 등 173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한 양돈으로 3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1973년 4월 현재 10개 숙사에 150명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121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었다. 개설 이후 안양보육원에서 수용한 연인원은 1,894명이었다.

안양보육원은 1955년에 기독교아동복지회에 가입하였고 1962년에 사회복지법인 안양아동복지관으로 인가받았다. 2007년에 법인명을 설립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설

1950~1960년대 안양보육원의 모습



안양보육원 아이들의 야외놀이(안양의집 제공)



삼성천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식사 시간(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안양의집 제공)
계단 위의 건물이 원생들의 숙소이다.



안양보육원 놀이터(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여자아이들에게 만들어 준 수영복(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차량(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소풍(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콩 수확(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양계장(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식목 행사(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에서 키우던 산양(안양의집 제공)

명칭도 안양의집으로 변경하였다. ‘설원(雪原)’은 북간도의 눈 덮인 평원을 뜻하는, 설립자 사태현의 호(號)이다. 현재 설원복지재단은 설립자의 외손녀 이정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사태현이 맡았고, 1984~2020년은 안양보육원에서 성장한 허광섭 목사가 2대 이사장으로 봉사하였다. 현재 이사장인 이정혜는 어머니 사지숙의 뒤를 이어 안양의집 3대 원장으로 일하다가 3대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안양의집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법인시설이기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80년 가까운 기간 운영되어 온 안양의집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한 아동은 그 수가 수천에 이른다.

2. ‘설원(雪原)’이 시작한 ‘근명(槿明)’ 학교

6·25전쟁을 거치면서 안양보육원의 수용 아동이 급증하였다. 많은 수의 아동이 학령기 아동이었고 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였다. 사태현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안양보육원 학령기 아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전쟁 직후 대부분의 학교는 휴교 상태였기에 설립자의 대학생 아들 사지형과 고등학생 딸 사지숙, 그리고 피난민 중에 있었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자체적인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학교들이 다시 개교하였지만, 학교에서 보육원 아동이라고 차별받는 상황에 놓이고 월사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안양보육원 내에 학교를 세워 교육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안양의 근명학교이다.

이정혜는 근명학교가 간도 용정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사태현이 남긴 글이 있다고 하였다.

이정혜 : 사실 근명은 용정에서 시작됐어요. 근명이라는 이름에 대해 할아버지가 남기신 글이 있는데, “근명(槿明)의 뿌리는 멀리 남의 나라 중국 땅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던 1945년, 중국 길림성 용정시 조양천에서 창설된 근명여자중학교가 근명의 효시이다. ‘근명’의 槿은 무궁화고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래서 무궁화가 되는 三千里 강토라는 뜻의 ‘槿域’은 우리나라 별칭으로 쓰인다. 暁은 날이 샌다, 暁은 날이 밝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근명’은 우리나라가 밝아졌다. 칙흑 같은 밤, 침침 심야는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온다. 우리나라가 밝았다.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뜻한다. 근역 삼천리에 여명이 밝아왔다! 뜻도 좋고 어감도 좋은 근명학교다.”



안양보육원 근명학교 졸업식(안양의집 제공)

라고 되어 있죠. 6·25전쟁 당시 안양보육원 안에서 시작된 초창기 근명학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글도 있어요. “판자집 단칸 교실이었다. 판자 쪽 틈으로 밖이 보여 도배를 할 얘기를 했다. 다 남아버린 천정에 칠을 할 생각을 했다. 거기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있었다.” 처음엔 국민학교로 시작해 원예기술 학교도 만드셨는데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취지였죠.

1955년에 사태현은 근명국민학교와 근명원예기술중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다. 1955년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 것은 안양보육원이 1955년에 기독교아동복지회(CCF)에 가입하면서 지원받게 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정혜 : 왜냐하면, 1984년까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어요. 미국의 기독교아동복지회 CCF가 1951년 부산에 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쟁고아나 이런 불우한 아동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아동별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안양보육원은 1955년부터 지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농사짓고 돼지 키워서 자급자족하고, 구호물자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느라 정식 학교설립을 할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명국민학교 교실(안양의집 제공)



근명국민학교 체육시간(안양의집 제공)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근명국민학교 학생들(안양의집 제공)



근명국민학교 운동회(안양의집 제공)

경기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에서 생산한 문서¹를 보면, 1955년 1월 14일 사단법인 박애원 대표 사태현은 시흥교육구에 사립 석수국민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인가받지 못하였다.

당시 석수국민학교와 동일 학구 내에 이미 삼성국민학교가 있었고, 이 학교에 경성보육원 아동과 일반 아동이 재학 중이었으며, 안양보육원과 삼성국민학교는 1km 남짓 떨어져 있어서 통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는, 석수국민학교에 일반 아동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석수국민학교가 해당하는 학구는 20~30호와 40~50호 규모의 5개의 마을로 구성된 좁은 지역이므로 학구 분리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위해 국민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지만, 현재 삼성국민학교가 근거리에서 있어 추가 학교 설치의 불필요하며, 다만, 후생시설 수용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분교장 설치의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955년 2월 28일 사립 근명국민학교 설립이 인가되었다. 시흥군 동면 안양리 238번지 안양보육원 내에 개교한 근명국민학교는 각 학년 1학급, 학급당 인원 50명으로 하며, 안양보육원 요구호 아동을 수업 대상으로 하여 1961년까지 수업을 진행하였다.



근명국민학교 졸업식(안양의집 제공)

1962년 당시 문교부는 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식인가 절차를 밟지 않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961년 시흥교육구의 장학지도 결과, 근명국민학교 운영상태가 기준에 미달하여 1962년 2월 학교를 폐쇄하고 재학생 전원이 삼성국민학교로 편입하게 되었다. 문서에 기록된 근명국민학교와 삼성국민학교의 당시 규모는 <표 1>과 같다.

<표 1> 1962년 2월 현재 삼성국민학교와 근명국민학교 현황 (단위: 학급, 명)

학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삼성	학급수	2	2	2	1	
	학생수	137	98	92	74	67	78	546
근명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46	21	14	15	17	27	140
계	학급수	3	2	2	1	1	2	11
	학생수	183	119	106	89	84	105	686

근명국민학교

수신 경기도지사

서기 1962년 1월 22일

제목 국민학교 폐지 인가 신청

1. 학교명 근명국민학교

2. 학교소재지 시흥군 풍천읍 남의 208번지

3. 폐지사유

동학구내의 학교배치 상황상 폐기 본교의 존속 필요성이
회박한 실정에 인함

4. 학생처치 방법

동학구내 국민학교에 전원 편입 하오어함

5. 폐지연월일 서기 1962년 2월 27일

위와 같이 국민학교를 폐지 하오히 하오의 인가하어 주옵
바나이다



근명국민학교 교장 김대관



0056

사립 근명국민학교 폐지 인가 신청서(국가기록원 제공)

사태현은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당시 관련 문서²를 보면, 그는 시흥군 서면 박달리 617번지에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근명중학교 12학급과 근명고등기술학교 2학급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워 1962년 1월 15일 재단법인 근명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재단법인 근명학교 설립 인가 신청 진달」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 기술학교를 유지·경영 중에 있는 바, 해당 지역은 도내 타지역에 비하여 중등교육 시설이 극히 부족하여 1962학년도 중학교 입학 지원자 중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745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청인은 중학교 설립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세입액이 기준에 달하며, 교사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기술학교 2학급과 중학교 12학급의 유지·경영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1962년 3월 10일, 사립 근명중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다. 설립목적에는 “당군내 24개 초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은 매년 3천 명에 달하며, 그중 중학교 진학 희망자는 약 1천 명에 이르나, 현재 군내 4개 중학교만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아동이 진학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나라 교육이념에 입각한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근명중학교 학칙 내용을 보면, 실과에서는 농업과 가사를 과목으로 두었고, 사생과에서는 매 학년 성경과를 주당 50분 이상 100분 이하로 편성하였다. 이는 근명중학교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설립자의 보조금 외에도 원예와 축산을 통한 영농수입을 학교 재원으로 삼았다. 근명중학교는 1962년 3월 17일 문교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학급 수는 각 학년 5학급씩 총 15학급으로, 학급당 50명, 전체 75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 이행 시까지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3일에 이르러 사립 근명중학교 설립인가서가 최종 시행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55년에는 여학생들에게 양재 및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부녀로서의 덕성을 기르기 위한 근명여자가정전수학교 설립 인가 신청 기록³이 있으나, 인가 처리 기록이 없어 실제로 개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명원예기술학교와 근명여자가정전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근명원예기술학교만 설립이 인가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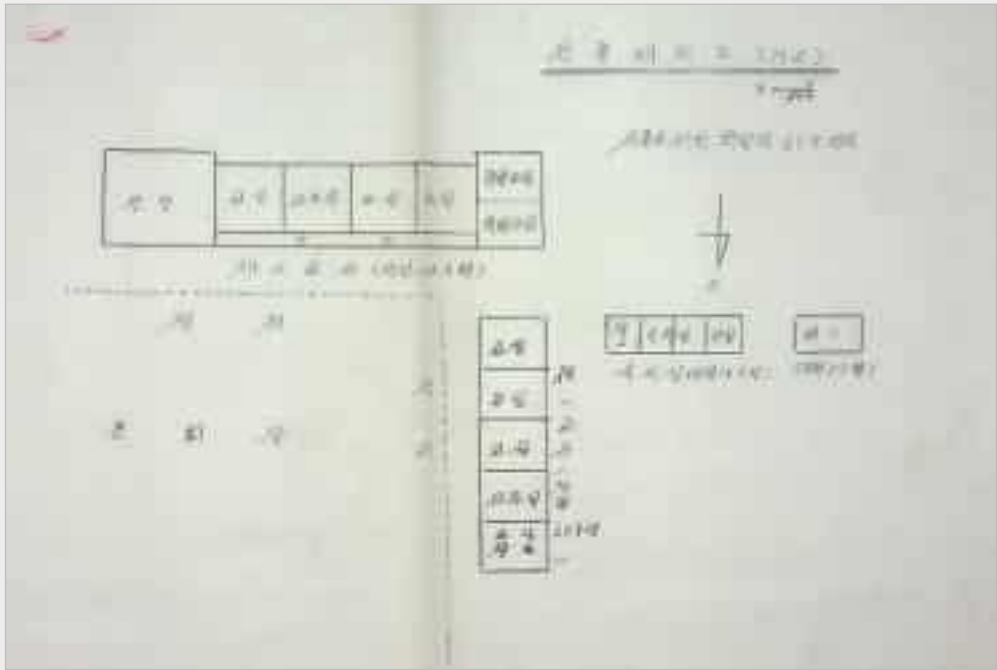
박달리에서 출발한 근명중학교는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의 근명중학교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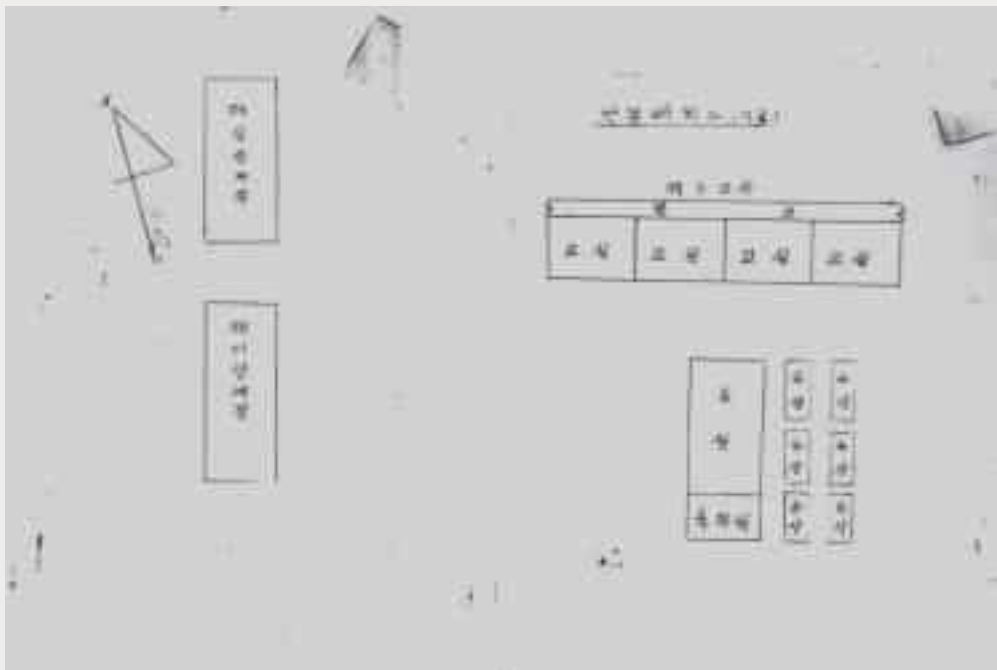
1962년 제2교사가 건축되고 있는 시흥군 서면 박달리 소재 근명중학교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1962년 시흥군 서면 박달리 소재 근명중학교 배치도(1)



1962년 시흥군 서면 박달리 소재 근명중학교 건물 배치도(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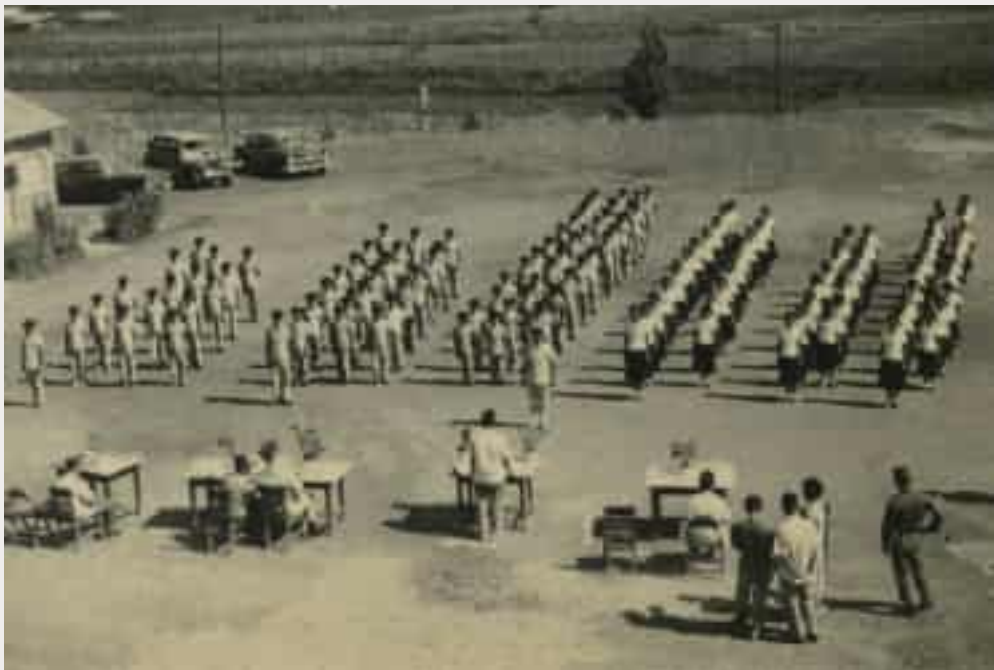


1962년 시흥군 서면 박달리 소재 근명중학교 건물 배치도(III)



시흥군 서면 박달리 교정의 근명중학교 졸업생과 사태현 이사장(안양의집 제공)

시흥군 서면 박달리 교정의 근명중학교 운동장 조희(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의 근명중학교 학생들(안양의집 제공)

지고 있다. 개교 당시에는 남녀공학이었으나, 1973년에 근명여자중학교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 다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2024년 현재 2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양의집에서 발간한 문집 『코스모스』 1960년 봄맞이호에 제6회 근명국민학교 졸업식과 제3회 근명중학교 졸업식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근명국민학교 졸업생 49명, 근명원예기술중학교 졸업생 22명이었고, 수상자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또한, 박달리 농장 옆 산 밑에 중학교 교사가 건축 중이며, 준공되면 기술학교가 이전하고 인문중학교도 개교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한다.

재단법인 근명학원 사태현 이사장은 1967년 근명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자금난 등으로 4년만인 1971년 말 재단법인 근명학원을 매각하게 되었고 박순천 의원이 새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안양보육원과 근명학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근명상업고등학교는 1973년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가 1998년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2002년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하였다가, 2020년 남녀공학 근명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2024년 현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로 지정되었다.

3. 문집 『코스모스』를 통해 보는 그 시절 안양의집

1950년대 후반 안양보육원에서는 『코스모스』⁴라는 제목의 문집을 발행하였다. 코스모스(Cosmos)는 가을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우주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가 있기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안양의집에는 1956~1960년 『코스모스』가 보관되어 있다. 195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제작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현재 안양의집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제목도 ‘코스모스’이다.

문집의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오래 머무르기도 한다. 그중 편지 「그리운 어머니」의 일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어머니! 거센 바람 세찬 눈보라가 어머니를 더욱 그림계 합니다. 나도 저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그대로 휩싸인 채 북풍을 따라 나르고 또 날라서 어머니의 평온한 품속에 안기고 싶어요. 어머니 껍 추우셨겠어요. 저는 우물에서 물을 푸며 깜짝 놀랐어요. 두레박 줄이 팍 얼어서 물을 풀 수가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코스모스』, 1960년 3월호>

어떠한 연유로 어머니와 헤어지고 안양의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1957년의 원생은 우물에서 물을 뜨려다가 추위에 두레박줄이 팽팽 얼어서 물을 퍼 올릴 수가 없었고, 자신과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북풍을 따라 “나르고 또 날라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편지를 쓴다.

문집을 읽다 보면, ‘고향’·‘어머니’·‘친구’ 등의 제목이나 단어가 자주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과 이별한 당시 안양보육원 원생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코스모스』에는 원생들이 쓴 동화·시, 만화·삽화 등이 포도알처럼 알알이 영글어 있다. 문집 편집부에서는 매 호 마지막 부분에 원고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실었다. 또한, ‘아버지’로 지칭하는 사태현 원장의 권두언과 각종 정보 상식 등도 담겨 있다. 1957년 추석특집호에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이 실렸다. 질문은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무서워하시는 것, 권하고 싶으신 책 등 4문항이다. 답을 살펴보니, 이 선생님은 쌀밥을 좋아하고 본관에 있는 메리라는 이름의 개를 무서워했다. 아버지 사태현 원장은 한여름 낮에 서울 거리 걷는 것을 싫어했고 술주정뱅이를 무서워했으며 권하고 싶은 책은 신

약성서였다.

문집에는 안양보육원 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있다. 사람들의 동정이나 보육원에서 진행되는 행사 등을 알리는 것이다. 『코스모스』 1960년 봄맞이호의 소식란에도 여러 제목의 새로운 소식이 실렸다.

박달리 농장에서 물왕골 저수지 쪽으로 10리 떨어진 곳 삼태미처럼 오긋하게 남쪽을 향해 앉은 산에 소나무들이 들어서 있다. 그 면적은 26,000평 남짓하며 (중략) 이 산의 평평한 곳을 약 5,000평 개간해서 포도와 복숭아 등의 과수원을 만들 계획이 서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요새 매일같이 아버지 어머니 또 큰형들 아저씨들을 태운 우리 집 차가 갔다오는 곳은 거의 이곳이라고. <「수암면에 과수원 만든다」>

양계장에서는 대규모의 계획으로 이미 지난 3월 초순경 안양종축장에서 병아리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닭장 아저씨 확실 아버지 고등부 형의 수고로 단시일에 걸쳐 배다리 작업을 끝냈으며 21일에는 2천 수의 병아리를 인수받아 오리라고 한다. <「양계장 소식」>

해마다 식목 때가 되면 모든 물건이 자연 속에서 소생하는 봄철을 가르켜 준다. 이때가 되면 우리 집에서 바쁘심을 덮어놓으시고 식목계획에 아버지께서는 분주하시다. 요즘도 아버지의 계획 아래 우리 집 중심지인 정구장에다 푸른 녹지대를 만들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놓고 있다. 금년에도 식목계획으로서 지난 3월 4일 군청에 신청한 묘목 종별과 수량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잣나무 3,000주, 아카시아 20,000주, 감나무 3,000주, 리기다소나무 10,000주, 밤나무 5,000주.

이 외에 중학교에서 수집 중인 포프라의 예정 수량은 30,000주에 달하고 있으며 식목은 우리 집 정원 일대 학교 교사 주위 및 물왕골과 농장에다 식목할 계획이 서 있다. <「우리 집 식목계획」>

『코스모스』를 만드는 편집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질문을 고심하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질문하고 답을 모으는 장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을 장면들, 무서워하는 것이 본관의 개 ‘메리’라니. 65년이 지난 지금 들춰 봐도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움, 두려움 등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는 듯하다.

1957년 당시에는 컴퓨터도 타자기도 프린터기도 없이 등사 원고를 만들어야 했다. 등사지에 철필로 글을 새겨 등사 원고를 만들고, 원고를 등사판에 붙인 후 유성잉크를 묻혀 한 장 한 장 롤러를 굴려야 한다. 50부를 만들려면 50번을 밀고, 100부를 만들려면 100번을 밀어야 하는 수고롭고 고된 작업이다. 『코스모스』의 마지막 장에는 발행일·



안양보육원 원생과 직원들이 만든 문집 『코스모스』 1957년 2월호 표지(안양의집 제공)

< 卷頭辭 >

좋은 계절 뜻있게 지어자
아 버 지

아름다운 계절이 또다시. 또 한번 단풍 거문 된 산이 붉은 구름 밑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이 또 온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가을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안양보육원 문집 『코스모스』 1957년 추석특집호에 아버지 사태현 원장이 쓴 권두사(안양의집 제공)

그리움 열편

고향곡을 전한다

산과산 절로 불린가내로
만곡한 뚝배기 내어 전리진 고집
한 겨울엔 한 겨울 사연도 내어 전한다.
그들은 고향 수줍은 어둠 —
를 수줍음 안고서 내어 전한다
외로운을 안고서 수줍은 어둠이 —
백하라는 것과 같은 그 고향
달려 보면 달빛이 내려 보일듯한
이 — 그리움과 닮을 수 있는 그 바깥.



안양보육원 문집 『코스모스』 1958년 봄맞이호에 실린 시(안양의집 제공)



안양보육원 결혼식(안양의집 제공) 왼쪽이 사태현·김애월 부부, 오른쪽이 안양의집 2대 원장 사지숙이다.

편집위원·발행소가 적혀 있는데, 연도 표기가 단기로 되어 있다. ‘코스모스’라는 출판사명도 있다. 형식을 갖춰 출판하느라 힘들었을 테지만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자신을 지탱하게 만드는 지주목이 되지 않았을까.

드디어 편집을 다 마치게 되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조용한 곳을 찾고 싶다. 좀 더 여러분을 위해서 흡족한 코스모스가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봄에 졸업하시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코스모스도 희망의 봄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좀 더 발전 있는 코스모스가 되기를 몸과 마음 바쳐 노력하고자 한다. <『코스모스』 1960년 봄맞이호 편집후기>

코스모스 문집을 읽다 보면, 다른 이들은 작성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사태현 원장의 글에는 ‘아버지’라고 적혀 있다. 안양보육원은 한국전쟁 이후 CCF라는 미국의 기독교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것 외에 1985년까지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 해왔다. 따라서 구호물자와 자급자족으로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며 그래도 부족할 때는 땅을

팔아 운영해 왔으니, 이정혜 이사장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정혜 : 할아버지가 남기신 글 중에 “원장보다 아버지로 살고 싶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영광스러웠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지! 아버지로서 살겠다. 아버지의 온갖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심정은 언제나 내 가슴 깊은 데서 불타고 있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농촌의 부모들이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 공부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사지숙 : 당시 아버지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식량을 구하러, 건축자재를 구하러 종일 동분서주하시고 어머니는 좀 나이 든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옷을 수선해 입히고 밭농사를 짓고 텃밭을 일궈 웬만한 것들은 자급자족했습니다. 당시엔 침식만 제공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기에, 거리에서 신발을 깎던 이를 가족과 함께 불러들였습니다. 그 덕에 안양의집 아이들은 폐타이어를 재단하여 만든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설원재단 상임이사 사지숙 인터뷰 기록 중)

딸이나 손녀가 보는 사태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의 ‘아버지’를 자칭하였다. 그렇다면 보육원 아이들이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다르고 닮았을까?

4. 안양의집이 의미 있는 이유

2024년 한 치과의 이동 버스가 안양의집에 찾아가 아이들의 구강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아이들의 구강 상태를 검사한 치과 원장은, “저는 아무래도 치과의사니까 아이들 치아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데, 아이들 구강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바르게 잘 크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였다. 치과 장비를 싣고 안양의집까지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심 원장의 말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구강 관리가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그것은 오랫동안 내재해 온 우리 사회의 편견과 맥이 닿아있다.

안양보육원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과 8·15해방 직후 어수선한 사회적 상황에서 전재 고아를 보호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보육원 설립 직후 6·25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고아는 발생한다. 그



안양보육원 관악단의 1953년 어린이날 기념 경기도청 직원 위안 연주회(안양의집 제공)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여 돌봄을 받지 못하므로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아이도 있다. 이들은 함께 사는 부모는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아동양육 시설은 대안이자 희망의 공간이다.

이정대 : 안양의집은 약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명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왔습니다. 매년 흥커밍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덧 중년이 된 원생들도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걸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곳을 거쳐 간 원생들의 상당수는 설이나 추석, 흥커밍데이에 거리낌 없이 다시 방문합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편안한 곳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안양의집 원장 이정대 인터뷰 기록 중)

안양의집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친척 같은 존재이다. 안양의집에 인사



활짝 웃고 있는 안양보육원 관악단원들(안양의집 제공)

하러 갈 때도 날짜를 맞춰 함께 방문하며, 여전히 공동체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가족은 40년 전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크게 달라졌다. 혈연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자라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후원과 관련하여 이정대 원장은, “사실 ‘보육원’ 후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로 인해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안양의집은 정부 감사를 pingzanghi 까다롭게 받고 있다 보니, 전혀 그럴 걱정이 없다. 또한 홈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한다. 날 짜별로 누가 입금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다 나온다. 그렇기에 믿고 후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안양의집 홈페이지에는 후원 내역이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2023년 12월의 내용을 보면, 김○○ 후원자(12/8, 감귤 10box), 퇴소생 이○○((12/8, 신라면 2box, 커피 1box), 최승우 후원자(12/12, 치킨) 안양시약사회(12/16, 구급함) 등이 보인다. 안양의집을 퇴소한 이○○는 12월 8일 신라면 두 박스와 커피 한 박스를 들고 자

신이 생활했던 곳을 찾았다. 그다음 주에는 최○○ 후원자가 치킨을 보냈고, 안양시약사회는 구급함을 채워 준다. 텍스트 한 줄 한 줄에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세계가 그려진다. 생필품과 간식, 구급약품 등 일상의 빈 곳을 채우며 이런 것들이 낱줄과 씨줄로 얽혀 아이들의 안전망 역할을 해 준다.

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보호기간 연장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도 안양의집에서는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어도 자립 준비가 안 된 원생은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시설에서 머물 수 있었다.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학습지도는 물론 태권도·음악·미술·댄스·연극·바둑·외국어 등을 지도해 주었다.

안양의집은 2002년 서울교육대학교 장기범 교수의 지도로 창단된 ‘요벨관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펫·혼·튜바, 유포늄 등의 금관악기로 구성된 관악단은 안양의집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원생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요벨(jubilee)’은 ‘축제’의 영어 표현으로, 해방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 요벨의 시작은 6·25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 부대에서 후원받은 금관악기로 당시 음대를 졸업한 사태현 설립자의 아들 사지형이 원생들을 지도하여 관악단을 만들었는데 노르웨이 병원선에 위문공연도 가고 경기도청 행사에서 연주하는 등 197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한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셈이다. 『코스모스』 1960년 봄맞이호에는 “1960년 3·1절 예술제가 안양읍 읍민관에서 문화단체총연맹(문총) 주최로 열렸는데 근명밴드부가 연주함”이라는 소식이 실렸다. 요벨관악단 단원 중에는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음대 졸업 후 유학을 다녀와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안양의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 소식지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세 살에 안양의집에 들어와 스물네 살에 자립한 대학생 조○○은 ‘선배가 후배에게’라는 코너에 글을 남겼다.

나는 안양의집에 살면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회화, 트럼펫, 드럼, 성악, 사물놀이, 태권도, 골프, 그리고 댄스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매너들을 배울 수 있었다. (중략) 가끔 나는 안양의집에 오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생각해본다. (중략) 안양의집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안양의집 식구들에게”로 시작하여, “자립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의 형, 오



안양의집(2024년)

빠가”로 끝나는 그의 편지는 다정하면서도 당당하다. “배우는 것에 욕심을 부려라.”라고 동생들에게 조언한다.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단단하게 들린다.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는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잘 헤쳐 나갈 자신을 믿는 그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필자가 감히 부듯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정책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2007년부터 아동양육시설에 자립 전담요원이 근무하게 되었고 2009년 전세지원주택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500만 원이던 자립정착금이 해마다 올라 2025년엔 1,500만 원이 되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 도입되어 자립청년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7년 시작된 ‘디딤 씨앗’ 후원은 자립 지원 프로젝트 중에서도 유일한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보호시설의 아동이 커서 자립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아동 명의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2배(최대 월 1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서 적립금은 후원금의 3배가 된다. 해당 아동은 만 18세 이후부터 학자금, 기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후원자가 없으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적립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안양의집 ‘하! 프로젝트’는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후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내 각 복지시설과 자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안양의집에서는 2013년 ‘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직업 체험, 바느질, 김치담그기, 예체능 레슨, 보습학원 수강 등을 진행하였다. 2013년 소식지에 실린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퇴소생의 글에서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올해 안양의집을 퇴소했습니다. 저는 누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옷을 판매하는 판매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가 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3이 되어 퇴소할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해지고 무서웠는데 자립 담당 선생님께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자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저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저희 숙사 선생님께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을 따고 이비인후과에서 1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자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저

는 퇴소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하자프로그램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소생 석○○)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한다. 누군가에게 안양의집은 따뜻하고 환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상처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며 긍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곳, 그런 안양의집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작은 우주, 그 코스모스가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나기를 희망한다.

註

- 1 경기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사립근명국민학교 폐지」, 『국민학교설폐』, 1962, 49~94쪽.
- 2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사립중학교설립인가철」, 1962;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근명학원(경기)」, 1962; 경기도 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근명학교 2-2』, 1962.
- 3 경기도 교육위원회 서무과, 『기술학교 및 학원설폐』, 1955, 306~327쪽.
- 4 안양의집에는 『코스모스』 1956년 12월호부터 1960년 봄맞이호까지 13권이 보관되어 있다. 처음에는 월간으로 발행하다가 1958년부터 계간 발행으로 바뀌었다.

제4장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김충배 허준박물관 관장



1. 환경교육 공간으로 변신한 탈바꿈한 석수동 ‘똥골’

기후변화체험센터 안양그린마루가 설립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일원은 과거 ‘똥골’이라고 불리던 지역이다. 똥골이라는 명칭은 이 일대에 재래식 분뇨처리장이 위치하면서 붙은 이름이다. 오늘날의 현대식 분뇨처리시설은 다양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정화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 그래서 처리된 결과물들이 오염원으로서 악취를 풍기거나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똥골 분뇨처리시설은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안양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분뇨의 양이 늘어나는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 수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결국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인근 안양천에 흘러들어 오염을 일으키고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똥골 분뇨처리시설의 문제점은 『경인일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를 보면 그 단면을 알 수 있다.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분뇨를 안양천에 마구 퍼버리고 있어 안양천의 오염도는 더욱 심각한 사태까지 몰아 인접 주민들의 보건관리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현재 안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 소재 안양천 하류에 위치한 이 분뇨처리장은 67년 안양읍 당시 시설한 용량 1천 5백톤 규모의 적은 처리장을 그대로 사용해와 항상 분뇨가 넘쳐흘러 이를 안양천에다가 퍼버리거나 수거한 분뇨를 방류하기까지 하는 비위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석수동 주민들과 안양천 하류에 위치한 박달동 주민들은 개천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와 오염된 개천물이 우물물에까지 스며 변질되는 등으로 식수난은 물론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여름철과 함께 이들은 보건위생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안양시에 의하면 관내의 분뇨 1일 배출량은 모두 1백 27톤이나 수세식 변소 등 자연 수거로 45%가 감량돼 나머지 70여 톤을 수거하여야 하나 현재 수거능력이 1일 42.5톤에

그치고 있다는 것. <『경인일보』, 1975년 7월 1일>

이 기사를 통해, 똥골 분뇨처리시설은 1967년에 설립되었으며 1975년 당시 이미 하루 수거 필요량의 1/2 정도만 수거되고 이를 처리하기에도 벅차서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 일대는 분뇨를 버리는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 똥골의 이런 분뇨 처리 문제로 고통받았던 주민의 기억을 통해 심각한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박찬용 : 석수동을 얘기하면은 석수 1동·2동·3동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1동은 저쪽 유원지 쪽 안양 그 동하고 붙어서 예술 공원이 1동이고, 석수시장 주변 여기고 2동. 3동은 저 건너 충훈부. 어쨌든 안양천을 경계로 북쪽으로 있는 안양을 다 석수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는 80년대 초까지도 여기서 이 고개를 넘어가면, 꼬챙이고개라고 넘어가면 거기가 지금 광명 KTX 역사가 들어와 있는 그 안양천 변이 일명 똥골이에요. 실제로 이 똥차가 요기로 지나다녔지. 하루에 10분 단위로 그냥 똥차가 수도 없이 일로 해서 고개 넘어서 똥을 갖다 왔고. 안양시에 있는 똥은 다 이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안양에서는 번두리니까. 그 다음에 경계 광명 서울의 경계 부분에다 똥을 버리는 거죠. 그 당시 그냥 그냥 부었어요. 똥을 그냥 부었다고. 그냥 천에다.

이영래 : 옛날에 충훈부에 사는 양반이 말마차를 하나 사가지고 나무로 짠 통나무를 마차에다 실어가 지고. 그전에는 저장식 아님니까. 저장식. 화장실이. 그 저장식에 있는 화장실을 그걸 떠다가 돈을 받고 떠다가 여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무단 방류한 거야. 그때는 그냥 무단 방류한 거예요. 개울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똥골, 똥골 그랬던 거예요.

이상의 기사와 구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석수동의 일명 똥골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안양천에 재래식 분뇨를 가져다 버리는 곳으로 이용되어 심하게 오염되어 왔다가, 1975년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섰지만, 이 역시 역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똥골 일대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양천의 오염과도 관계가 깊다.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수가 여과 없이 유입되어 안양천을 급격하게 오염시켰다. 안양천의 당시 오염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¹⁾ 보면 1984년에는 193.3mg/ℓ로 측정되어 물이 아닌 거의 젤 상태의 끈적끈적한 오염 덩어리들이 기



1970년대 안양시 분뇨처리장(이정범 제공)



1980년대 안양시 분뇨처리장(안양시청 제공)

어간다고 표현될 정도였다.²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하천과 그 주변에서는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다. 당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에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³가 구성되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 유역의 11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구로구청장과 안양시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를 기반으로 안양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그 결과 2014년에는 3.8mg/l로 측정되어 성공적인 수질 개선을 이루어내었다.⁴ 물론 이 수질도 측정 지점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최소한의 정수를 통해 음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개선된 것이다.

〈표 1〉 안양천 살리기 사업 전후 안양천 수질 및 서식 어류 종수 변화

연도	수질(BOD/ppm)	어류종수
1968년 이전	7.7	34
1980년대	193.3(1984년)	0
1994년	63.5	8
1995년	50.1	9
1996년	56.6	10
1999년	34.3	9
2000년	30	8
2001년	14.8	9
2002년	10	8
2003년	6.3	10
2004년	4.8	17
2005년	5.5	21
2006년	3.2	15
2007년	2	20
2008년	2.4	16
2009년	4.5	18
2010년	5	18

수질이 개선되자 서식 어종 개체가 0이던 안양천에 버들치와 같은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어류가 돌아왔다. 더불어 이런 물고기를 섭식하는 조류 등 주변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2003년 버들치, 2004년 물총새, 2007년 원앙 등의 환경 변화 인자를 보여주는 생물종들이 관찰되었다. 2022년 현재 안양천에는 5목 10과 34종의 어종이 서식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과 함께 깨끗해진 하천에 물고기를 방류하는 안양 시민들(2004년, 이정범 제공)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버들치·참갈겨니·송어·참계 등 1~2급수 어종도 확인되었다.

어떤 생물종도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던 안양천은,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그리고 환경개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가히 ‘안양천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개선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이였다. 수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이다. 오염된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하천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안양시는 안양천 주변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건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⁵

2. 안양그린마루의 설립과 운영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는 안양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후 관련 교육문화시설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에 위치한다. 본관인 그린체험관과 별관



석수동 통골에 들어선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그린마루 본관 그린체험관(이정범 제공)

인 마루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72.13㎡이다.

안양시는 2020년에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와 디지털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로 환경부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공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안양시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석수동의 똥골(구 안양시 분뇨처리장)을 리모델링하여 그린뉴딜 허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안양시 전역에 무인 순환자원 회수기기 100대 설치,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주택가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설치 등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안양그린마루는 안양시의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이다. 2023년 4월 3일 착공하여 2024년 1월 7일 준공하였다.⁶ 처음에는 시설명을 ‘에코그린센터’로 하였으나, 준공 후에 시민 공모를 거쳐 ‘안양그린마루’로 시설명을 바꾸고 2024년 4월 25일 정식 개관하였다.

안양그린마루의 개관을 탄생시킨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0년부터 2



안양그린마루 마루교육관(이정범 제공)

년간 2,9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총 25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6:4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였다.⁷ 안양그린마루는 이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총 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다.

안양그린마루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의 정체성에 맞게 그린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88%까지 절감하도록 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강화, 고효율 창호 설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건축 기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0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물로 적극 전환하는 활동의 결과물이며, 실내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안양그린마루는 하천 오염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공간에 친환경적이고 기후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친환경정책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그린마루 그린체험관 내부(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그린마루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이 기후변화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해설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로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한다. 2024년 현재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는 3,000원이다.

안양그린마루에서 전시해설과 관람안내 등의 활동은 ‘시민 기후활동가’로 명명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전시시설에서 도슨트가 전시 안내와 체험활동 보조를 맡는 것처럼, 시민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안양그린마루의 핵심 시설은 교육관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관인 마루교육관에는 교육실, 회의실, 영상관 및 기획전시실이 있다. 본관인 그린체험관 1층에는 사무실 및 카페가 있다. 본관의 2층은 전시체험실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체험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전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제로 거실, 탄소제로 하우스, 탄소제로 주방, 탄소제로 욕실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몄다.

안양그린마루에서는 1일 4회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차는 오전 10시, 2차는 오전 11시, 3차는 오후 2시 30분, 4차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관람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인근의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하는 해설 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전시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은,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 각 1시간씩 2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모집한다.

안양그린마루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양그린마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와 연계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학 기간과 계절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사계절 색다른 경험과 교육을 즐길 수 있다.

2024년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9종이다. ‘내 친구 양말인형’은 버려진 양말을 재활용하여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유아 및 초등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은 종이를 활용하여 현미경을 만들고 적정기술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린워싱을 잡아라’는 어린이들



기후변화 캐릭터 협동화를 그리는 화창초등학교 학생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통해 친환경적인 소비활동과 그린워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커피로 만든 키링’은 일반적으로 사용 후 버리게 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키링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상의 4가지 활동들은 연중 전반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하반기인 9월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병뚜껑 장난감교실’, 나무 수면등 만들기를 통해 나무의 탄소 흡수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어둠을 밝히는 나무’, 버려지는 양말로 드림캐처를 만들어 보는 ‘꼬꼬양(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말 목)’, 버려지는 우유 팩을 활용하여 지갑을 만들어 보면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전지적 우유 팩 시점’, 게임과 체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탐구해 보는 ‘그린마루의 비밀을 찾아서’ 등이다.

이외에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과 상설 전시 체험물을 통해 진행하는 에너지놀이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놀이와 게임 등을 바탕으로 흥미 요소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여 자연스럽게 생태와 환경 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표 2〉 2024년 안양그린마루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일	운영시간	교육내용
전시 해설	안양그린마루 전시해설	누구나 (단체 및 개인)	평일 (화 ~ 금요일)	1차) 10:00~10:40 2차) 11:00~11:40 3차) 14:30~15:10 4차) 15:30~16:10	안양그린마루 그린체험관 및 마루교육관 내 기획전시실 전시해설과 체험
	기관 연계 해설관람 (그린마루+ 생태이야기관)	누구나 (단체 및 개인)	8~12월 매주 목요일 (공휴일 제외)	1차) 10:00~12:00 2차) 15:00~17:00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 이야기관 교차 관람 (각 1시간씩, 2시간 운영) ※ 관람순서 사전 안내 예정, 2차(오후)의 경우 1주일 전 예약 마감
교육 (5~8월)	내 친구 양말인형	유아 동반 가족 (부모 동반 가능) 및 초등학생	5~8월 매주 토요일(5/18, 6/15, 7/20 제외) 및 6/16, 7/21	10:30~11:30(60분)	버려지는 양말을 재활용하여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재활용에 대해 탐구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	초등 3학년 이상	5~8월 매주 토요일(5/18, 6/15, 7/20 제외) 및 5/15	13:30~14:30(60분)	종이를 활용한 현미경을 만들어 적정기술에 대해 탐구
	그린워싱을 잡아라	초등 3학년 이상	5~8월 매주 일요일 (마지막 주 제외) 및 6/6	13:30~15:00(90분)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친환경 소비와 그린워싱에 대해 탐구
여름방학 프로그램	커피로 만든 키링	유아 및 초등 1~2학년	5~8월 매주 셋째주 토요일 및 5/5, 5/12, 5/15, 5/26, 6/2, 6/6, 6/9, 6/30, 7/28	1회) 10:30~11:30 (60분) 2회) 13:30~14:30 (60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키링을 만들고 탄소저감에 대해 탐구
	에너지 보물나라 그린마루	초등 1~2학년	7. 23. ~ 8. 16. 수, 금	10:00~11:30(90분)	게임 및 체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탐구
	그린마루를 지키는 에너지 히어로!	초등 3학년 이상	7. 23. ~ 8. 16. 화, 목	10:00~12:00(120분)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일	운영시간	교육내용
팝업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놀이터	누구나	7. 23. ~ 8. 16. 평일	9:30~17:00	운영시간 내 자율 체험
			7~12월 내 주말 및 공휴일	1차) 11:40~12:20 2차) 14:20~15:00 3차) 15:20~16:00	다양한 교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체험 현장 접수 운영 (회차별 10명)
	병뚜껑 장난감 교실	유아(6~7세) 및 초등 1~2학년	둘째 주 토요일 및 매달 마지막 일요일	1회) 10:30~11:30 (60분) 2회) 13:30~14:30 (60분)	플라스틱 병뚜껑과 연결 블록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고 재활용에 대해 탐구
	어둠을 밝히는 나무	유아(6~7세) 및 초등 1~2학년	매월 3~5주 토요일	10:30~11:30 (60분)	나무수면등을 만들고 나무의 탄소 흡수 기능에 대해 탐구
교육 (9~12월)	꼬꼬양(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말목)	초등 3학년 이상	매달 1~3주 일요일	10:30~11:30 (60분)	양말목으로 드림캐처를 만들고 재사용에 대해 탐구
	전지적 우유팍 시점	초등 3학년 이상	매월 3~5주 토요일	13:30~14:30 (60분)	우유팍을 활용하여 지갑을 만들고 재활용 (업사이클)에 대해 탐구
	그린마루의 비밀을 찾아서	초등학생 동반 가족	매주 일요일 (마지막 일요일 및 10/6, 11/3, 12/1, 12/15일 제외)	13:30~14:30 (60분)	게임 및 체험을 통해 녹색건축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탐구

3.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건립과 운영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83-4번지에 위치한 생태 체험시설로, 대지면적 4,997㎡, 연면적 1,499.6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져 2012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한때 극심하게 오염되었던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과정을 보여 주며, 환경문제에 무관심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재난을 경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관의 운영 목표는 명칭 그대로 시민들과 안양천의 생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운영자와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안양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자연 체험의 장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문화, 즉 그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설립 취지가 있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 시민 봉사단으로 구성된 기후활동가들이 도슨트로 활동하며 전시와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양천 복원과 하천생태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형 하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해 안양천의 복원 방향과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관련 지자체와 기관에 안양천 복원 기술을 소개하고 타 하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하천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와 자료 수집을 이어간다.

시설은 1층 제1전시관과 2층 제2전시관, 그리고 옥상 야외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관은 안양천의 사계절과 물총새의 하루 등 생태환경을 주제로 꾸며졌으며, 중앙에는 생태환경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교육 프로그램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모두의 노력 Concerted efforts



안양천 복원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가상의 안양천을 보트를 타고 체험할 수 있는 4D 체험관이 하루 여섯 차례 운영된다. 제2전시관은 안양천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보여주며, 수족관을 통해 실제 안양천의 물고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와우! 실감 놀이터'라는 3D 영화관도 마련되어 있다. 옥상은 전망대와 망원경이 설치된 야외 공간으로, 시민들이 안양천과 조류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가족 생태교실'이 월 2회 토요일에 열리고,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꼬마 파브르 교실'이 월 2회 일요일에 진행된다. 여름방학에는 초등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안양천 탐사'가 7~8월 토요일마다 운영되며, 창작교실과 어린이 만들기 교실도 주말과 휴일에 수시로 열린다.

기관의 해설사들은 '안양천물총새지킴이회'를 조직하여 환경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운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내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3D 전시관(이정범 제공)

2024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교육프로그램

안양천 환경대학				
교육명	일정	대상	모집인원	참가비(원)
안양천환경대학	6~8월 매주 목요일 (09:30~12:30)	일반시민	25명	50,000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양천 이야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양천 이야기	4~10월 사전신청 및 협의	단체 및 일반 시민	15명	무료
안양천 탐사				
안양천 보물찾기	4~5, 9~10월 월 2회 토요일 (10:00~12:00)	초등 1학년 이상	20명	3,000
여름방학 안양천 탐사	7·8월 매주 수요일 (10:00~12:00)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명	3,000
겨울방학 철새 탐조	1·2·12월 매주 토요일 (10:00~12:00)	초등학교생 이상	20명	3,000
생태교실				
안양천 생태교실	4~6월, 9~12월 일정협의	초등학교 단체	30명	3,000
우리 가족 생태교실	4~11월 월 2회 토요일 (10:00~12:00)	5세이상 동반가족	20명	3,000
꼬마 파브르교실	4~11월 월 2회 일요일 (10:00~11:30)	6세 ~ 초등 3학년	20명	3,000
야간 곤충 탐험	7 ~ 8월	6세~초등 3학년 포함 가족	20명	3,000
창작교실 / 만들기교실				
창작교실	3~12월 월 2회 토요일 (14:00~15:00)	유아, 초등1~4학년	15명	3,000
만들기교실	화·금 13:00 ~ 16:00 주말·공휴일 13:00 ~ 16:00	6세 이상	30명	무료
학교 연계 과정				
동아리 연계 안양천 모니터링	4~12월	중·고등학교 단체	20명	5,000
찾아가는 생태교실	4~6월, 9~12월	초등학교 단체	30명	3,000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개관 10주년 안양 환경교육 한마당(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앞의 안양천 습지

‘안양천 생물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2년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전시 콘텐츠를 도입하고 전시실을 부분 리모델링 하는 등 관람객 편의성과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현재는 전시와 교육을 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의 복원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환경 복원 노력을 배우며 환경 보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註

-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01.
- 2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14년 7월 5일.
- 3 디지털구로문화대전(guro.grandculture.net/)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항목 참조.
- 4 세계일보(www.segye.com/)
- 5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보도자료(2015.1.13.) 참조.
- 6 안양시 공고 제2024-178호.
- 7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보도자료(2020.9.7.) 참조.

05

석수시장 프로젝트

제1장 석수시장의 개설, 그리고 변화
제2장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



제1장

석수시장의 개설, 그리고 변화

박성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1. 석수동의 거점 시장을 목표로 개장한 석수시장

석수시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니다. 1979년 이전의 석수동에는 ‘골목시장’이라 부르는 작은 시장만이 존재하였다.¹ 그러나 이 골목시장은 이름만 시장이었을 뿐, 실제로는 몇몇 노점상들이 간혹 찾아와 좌판을 벌이는 자그마한 골목에 불과하였다. 석수시장이 있던 자리는 본래 개인 소유의 공터로 별도의 건축 예정이 없는 땅이었다. 1979년, 이 공터의 소유주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안양 남부시장에 있는 야채 도매상들이었으며, 토지 소유주에게 이 공터에 도매시장을 만들어 동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석수동은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안양이 시로 승격된 1973년, 건설부에서 확정고시한 안양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고속화도로 변에 위치한 공업지역이었던 석수동은 그 용도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² 이와 동시에 석수동에는 안양과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와 진입 통로가 추가되는 등 토지 여건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석수동은 안양의 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었고, 지가(地價) 또한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하며 주목을 받는다. 1974년 경부선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석수동은 고속화도로와 전철노선이 모두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1978년에는 서울 청계천 등 도심 지역에 산재하는 기계공구·자동차부품 상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상가들은 ‘상가이전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79년 안양시 석수동 안양천 변의 토지 7만 평을 매입하여 상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³ 이에 석수동은 주간 인구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



석수시장 건물 골조 공사(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건설 공사(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건설 공사(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건설을 바라보는 주민들(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개장(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개장식에 모여든 지역주민들(석수유통 제공)

았다.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석수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

토지 소유주는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석수물산(石水物産)을 설립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000평에 종합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안양시에 신청하였다.⁵ 시장의 구조나 장옥의 설계는 모두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옥은 기존 재래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3~4평 규모가 한 칸이 되게끔 설계되었으며, H빔을 중심으로 하는 철제 골조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형태로 건축되었다. 장옥 한가운데는 농산물 도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마당 공간을 확보하였고, 지붕으로 마당을 덮어 우천 시에도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석수시장은 1979년 10월 2일에 개장되었다. 시장의 개설에 중심 역할을 한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상들이 시장의 주축이 되었으며, 이외에 크고 작은 가게들이 시장 내에 형성된 장옥에 입점하였다. 고속도로 및 전철과의 인접성, 서울과 안양을 잇는 길목에 놓인 위치적 이점, 그리고 당시 향후 성장이 예상되었던 석수동의 부동산 상황 등과 맞물려, 석수시장은 지역의 거점 시장으로 거듭나 석수동의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은 석수시장의 개장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2. 석수시장의 정체성 찾기

석수시장을 개설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석수물산과 함께 석수시장의 양대 축이었던 청과 도매상들이 갑작스럽게 석수시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하였다. 도매상들을 믿고 시장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던 석수물산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농산물 직영 슈퍼마켓’임을 강조한 석수시장 간판(1983년, 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점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도매상들이 빠져나가자 시장은 순식간에 한산해졌다. 소규모 점포들도 줄줄이 빠져나갔으며, 시장에 입점하였던 동네 마트도 폐업하였다.

석수물산은 순식간에 망해가는 석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회사의 명칭을 석수물산에서 석수유통으로 바꾸고, 축소된 시장 규모에 맞춰 회사의 크기를 대폭 줄였다. 한편으로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마트를 직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무렵 석수유통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시장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마트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마트 운영이 궤도에 오르자 석수유통은 마트를 개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시장의 장옥 중에서 제일 큰 C동의 남측 건물을 마트 측에 임대하였다. 이 외에도 과일가게, 야채가게, 방앗간, 옷가게, 그릇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시장 내 장옥에 입점한다. 아직은 군데군데 비어 있는 점포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석수시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용품 구입하는 장소로 지역사회 내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중반, 석수시장의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1985년 서울 최대 농수산물 종합 유통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도매상인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가락동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청과물 도매상들이 가락시장 대신 석수시장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석수유통은 이 상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청과물 도매상들이 석수시장의 빈 점포에 입점하게 된다. 지역의 생활용품 구입 장소로 소소하게 맥을 이어오던 석수시장은 다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다시 변화한다. 청과물 도매상들의 사업은 석수동의 교통여건 및 입지 조건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일 아침이면 농산물을 싣고 오는 트럭이 시장 주변을 가득 채웠으며,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석수시장은 다시 생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입점 이후 반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석수시장 청과물 도매상들과 가락시장 청과물 도매상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서울 동남권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가락시장 도매상들은 석수시장의 도매상들이 점차 상권을 넓혀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았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석수시장과 상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소규모의 시장이었던 석수시장은 이러한 압력에 견딜 수 없었으며, 결국 청과물 도매상들 역시 석수시장에서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석수시장이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1983년 석수시장의 점포(석수유통 제공)



1983년 석수시장 통닭집(석수유통 제공)



1985년 석수시장 청과시장 개장(석수유통 제공)



1985년 석수시장 청과시장 개장식(석수유통 제공)

청과물 도매상들이 떠난 직후, 석수시장은 한 지역의 농민들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1980년대는 농촌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으며, 마을 공동체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농촌운동의 유형 중 하나로 활발하게 제기되던 시기다.⁶ 이러한 시기적 배경에서 석수시장의 비어 있는 점포에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 운영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안양을 잇는 수도권 도심지에 위치한 석수시장은 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에는 유리했지만, 농촌 과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다. 인근에 위치한 안양중앙시장 등 대규모 시장에 비해 이용객의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교통 여건과는 별개로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시로 소규모의 작물을 가져와야 하는 직거래 장터의 운영과는 걸맞지 않았다. 결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한 석수시장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석수시장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소규모의 시장으로 돌아갔다. 재래시장과 같이 몇몇 장꾼들이 석수시장을 찾아와 중앙의 공터에 노점을 차리고 물건을 판매하기는 했지만, 석수시장의 장옥들은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마트와 잡화점으로 채워졌다. 한 매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마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묘한 범주의 시장”⁷이 되어버린 것이다.

3. 1990년대 이후 석수시장의 변화 : 상가에서 음식점으로, 시장에서 종합상가로

지역의 소규모 시장이자 상가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석수시장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993년 11월 신세계가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을 개점 하면서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종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한국 사회에 등장하였다. 서울이나 평촌신도시 등 도심지에 비교적 가까운 석수동은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이마트 안양점이 석수시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km 떨어진 비산동에 개점한다. 대형 할인마트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쇠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규모 시장일수록 대형 할인마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석수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장옥 내에 입점한 수많은 상가가 이 시기에 폐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석수시장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존 점포들의 빈자리를



1990년대 석수시장 골목 풍경(석수유통 제공) 석수시장 점포에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주차장으로 만든 석수시장 중앙 광장(석수유통 제공)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가게들이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석수시장 장옥의 임대료는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했으며, 이는 새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IMF 이후 외식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소규모 점포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⁸, 석수시장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 외식업 창업자들이 첫발을 떼기에 적합한 장소로 주목받았다.

석수시장의 상가들은 점차 음식점으로 바뀌어 갔으며, 석수유통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이후 약 20여 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석수유통은 개별 법인이 소규모 시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음을 깨달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석수시장의 성격을 전환하였다. 석수유통은 우선 기존에 재래식 장터로 기능하고 있던 장옥 중앙의 광장을 모두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또한 음식점은 기존 재래시장의 상가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석수유통에서는 장옥 내 여러 개의 칸을 합쳐서 면적이 넓은 점포를 만들어 음식점이 입점하기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저렴한 임대료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인테리어 등의 내부공사 비용은 입점하는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직접 나서서 음식점을 유지하는 대신 이들의 입점을 보다 용이



1991년의 석수시장 상인들(석수유통 제공)

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많은 음식점이 석수시장에 입점하였으며, 장옥 내에 음식점이 떠나간 자리를 다시 음식점들이 채우게 되면서 석수시장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에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종합상가 사이에서 기묘한 정체성을 유지하던 석수시장은 이 시기에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부분 털어내고 현대식 종합상가로 변화하는 길을 택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통해 이어오던 시장의 명맥이 소규모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석수시장은 석수동이라는 지역사회의 품을 떠나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내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와 같은 석수시장의 성격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외부 사람들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석수시장이 오늘날까지 그 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석수시장의 공간 구조

5년 전에 석수시장 장옥의 모든 칸에 점포들이 입점하면서 석수시장 장옥은 개장 이후 최초로 공실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석수시장 주차장은 석수동 인근 상가 밀집 지역 중에 가장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시장 주변을 뱅뱅 도는 모습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석수시장의 공간은 크게 중앙 광장에 조성된 주차장과 5개의 장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이 형성되면 오래 장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공간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석수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니었으며, 1979년 개장 당시에는 이미 장옥 주변이 모두 건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 더군다나 도매상들의 철수를 비롯하여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석수시장의 범위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석수시장의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장옥이며, 시장의 확장은 장옥과 직접 마주 보는 주변 건물 1층에 음식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석수시장의 장옥은 4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수많은 시간적 층위를 쌓아온 공간이다. 빌딩 숲의 한가운데 위치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표되는 장옥의 전경부터가 장옥의 역사를 보여준다. 장옥은 본래 철근과 슬레이트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튼튼하고 지붕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장옥의 골조는 지금까지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샷시나 가벽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일부 확장하면서 외형만이 일부 변형된 상황이다.

당시만 해도 주목받던 지붕 자재였던 슬레이트는 현재 석수시장 장옥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⁹ 2008년부터 석면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로 인해 금지되어 있고,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을 판넬로 덮어 슬레이트를 가리는 것은 골조 가건물이라는 장옥의 특성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결국 슬레이트 지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석수시장 장옥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 없이 슬레이트 지붕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석수시장의 장옥은 A동부터 E동까지 총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설 당시에는 기존 재래시장의 장옥과 같이 한 칸이 하나의 점포로 기능했으며, 한 칸당 3~4평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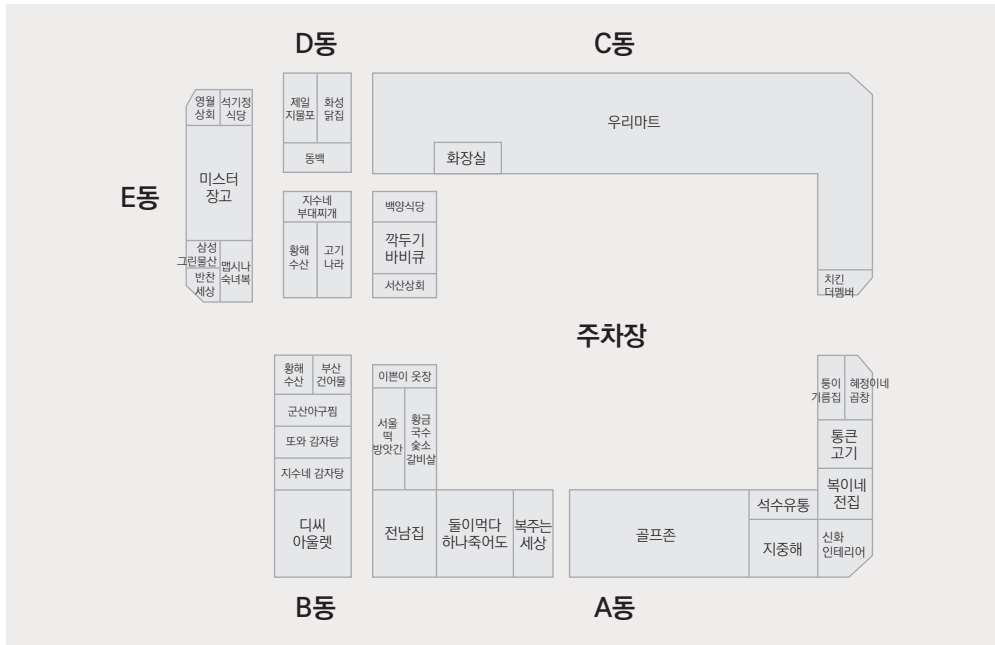


석수시장(2024년)

모 총 135칸의 점포가 있었다. 그러나 석수시장이 재래시장과는 다르게 도매나 공산품 등을 주로 취급하게 되면서 한두 칸의 공간으로는 점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음식점들이 주로 입점하면서 더욱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시장의 개설 이후 석수시장 장옥의 칸들은 수없이 합쳐지고 나뉘졌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A동과 C동, 그리고 D동에는 장옥 중간중간에 통로가 위치하고 있다. 시장의 중앙이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석수시장 방문객의 동선은 외부→내부에서 내부→외부로 바뀌었고, 그 결과 주로 장옥의 외곽에 위치하던 시장 점포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석수유통은 방문객의 동선과 점포의 접근성을 위해 장옥에서 한두 칸을 뚫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통로들은 방문객의 석수시장 공간 이용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석수시장은 석수유통이라는 개별 법인이 운영하는 시장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석수시장 장옥 배치도 (2024년 7월 기준)

의거한 등록시장이기도 하였다.^{10 11}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사라지는 2012년까지 안양시 내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16개의 시장 중에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7개의 시장이 인정시장이고, 나머지 9개의 시장이 등록시장이었다.¹² 따라서 석수시장은 ‘대규모 점포’를 갖춘 시장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수시장은 전통시장법¹³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개별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특정 업체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석수시장 장옥과 그 부근은 법적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일부분으로 현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석수유통에서는 현재 비어 있는 B동 앞에 F동을 새롭게 짓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석수시장 장옥이 모두 만실이 되었으며, 향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석수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석수유통에 의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개별 법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이 지니는 모순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5. 석수시장의 역사를 만드는 점포들

1) 40여 년을 이어져 온 석수시장의 중심, 우리마트

현재 석수시장 장옥 C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마트는 석수시장 내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포이며, 198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석수시장의 중심지로 기능해 온 곳이다. 현재 석수시장 주차장의 4분의 1이 우리마트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1980년대 당시 우리마트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으며, 위치 역시 지금의 위치가 아닌 도로변과 가장 가까운 E동 장옥에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장 개설 직후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가 들어왔으나 금방 폐업하여 떠나가게 되었다. 당시 “폐업한 자리에는 동일한 업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관행이 있었기에 장옥의 빈 점포에 입점하려는 상인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석수유통은 폐업한 마트 자리에 회사 직영으로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장 상황이 어려워 직원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트의 운영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는 지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마트의 정착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석수유통은 손익 분기점을 넘기며 안정권에 접어들게 된다. 석수시장이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데

석수시장 우리마트 점포 조성 공사(1998년, 석수유통 제공)



에는 이와 같이 우리마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마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자 석수유통은 이 마트를 개인 사업자에게 넘겼으며, 위치 또한 지금의 위치로 옮겨 마트의 규모를 더욱 크게 키웠다. 주변의 점포들이 폐업하면서 마트는 점차 그 규모를 키워갔고, 시장 상인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공산품 위주의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시장이 지니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일용품 구매'의 역할을 대부분 우리마트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석수시장의 중심이자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기능해 온 우리마트이지만, 현재 마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2000년대 이후 대형할인점이 도심지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곳곳에 들어서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석수동의 인구 구성은 2000년대 이후 점차 1~2인 가구 위주로 변해갔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매력 자체가 떨어졌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필품 구입에 있어 지역의 마트보다는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마트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는 마트의 변화는 곧 석수시장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마트 개장(석수유통 제공)



2)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석수시장 맛집

우리마트가 석수시장의 개설 이후 현재까지 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하나의 축이었다면, 석수시장의 음식점들은 2000년대 이후 석수시장을 유지해 온 또다른 중심축으로 기능하였다. 현재 석수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점포 35개 중 약 57%에 해당하는 20개의 점포가 음식점이다. 우리마트를 비롯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가들이 석수시장이 지니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음식점은 석수시장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대표하는 점포들이다.

장옥 B동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감자탕집인 ‘또와감자탕’과 ‘지수네감자탕’은 석수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으로 미디어에도 여러 차례 노출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1988년 영업을 시작한 ‘또와감자탕’은 석수시장에서 처음으로 감자탕을 팔기 시작한 집이다. 1988년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석수시장에서 중국집을 운영했으나,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이 필요 없으면서도 혼자서 만들어 팔 수 있는 음식을 찾다가 감자탕을 만들게 된 것이다.¹⁴

이 가게들은 석수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인 동시에 1980년대 석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포들이기도 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수시장에는 노점 형태의 음식점들이 즐비했으며, 특히 B동 앞 공터에는 상인들이 모여들어 시장 앞 공터에 가건물을 짓고 곱창이나 감자탕을 비롯한 음식들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화재를 비롯한 안전상의 문제로 가건물은 철거되었고, 다섯 개의 감자탕집 중에서 두 개의 감자탕집만이 석수시장 장옥으로 입점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순대국밥집인 ‘전남집’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장사를 해온 집으로 석수시장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음식점이다.

감자탕과 순대국밥이 석수동의 옛날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점이라면, A동에 위치한 참치집 ‘지중해’는 석수동의 오늘날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점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으로 블루리본 서베이에 선정된 이 식당은, 본래 석수시장 장옥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 맞은편에 있던 음식점이었다. 그러나 2016년 식당이 있던 자리에 소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중해’는 석수시장 장옥 내부로 입점하게 되었다. 단골 장사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특성상 위치를 옮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석수시장 인근으로 형성된 음식점 거리, 즉 석수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던 음식점이 석수시장의 영역 내로 편입된 사례다.



석수시장의 노포 '도와감자탕'과 '지수네감자탕'.
두 개의 점포가 나란히 붙어 있다.



A동 상가 북서쪽 끝에 위치한 참치집 '지중해'

이외에도 석수시장에는 무수한 음식점들이 위치한다. 저렴한 건물 임대료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이미 '맛집거리'로 고정된 석수시장에 대한 외부의 인식 등이 음식점을 차리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시장 장옥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시설 설치와 인테리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공사가 필요한데, 통상 이렇게 한번 음식점으로 변한 공간은 점포가 떠난 뒤에도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업종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이 부담되고,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들은 기초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끊임없는 점포의 변화 속에서도 석수시장 장옥에는 점차 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깃집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점포가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은 업종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하다. 예전에는 상가 외곽, 특히 이미 감자탕집을 비롯한 음식점들이 자리 잡아 사람들의 통행이 활발한 B동·D동·E동의 점포들이 음식점 대상지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장옥 내에서 내·외부 위치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는 장옥의 안쪽에 해당하는 점포들에도 고깃집을 비롯한 큰 규모의 음식점들이 입점하는 추세이다.

3) 석수시장의 터줏대감, 전통 점포들

석수시장의 장옥은 음식점 위주의 종합상가로 재편되었지만, A동과 C동 사이 장옥의 북동쪽 입구를 통해 시장으로 진입하면 여느 전통시장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를 아직도



석수시장 '서산상회'



석수시장의 방앗간 '서울떡방앗간'

느낄 수 있다. 서너 개의 점포로 구성된 이 공간은 석수시장이 오랫동안 지켜온 지역주민들과 연결점을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채소 위주의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인 '서산상회'는 석수시장에 최초로 입점한 점포 중 하나이다. 장옥 한 칸에 불과한 점포의 작은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점포 바깥쪽에 천막을 치고 공간을 확장한 형태의 가게다. 맞은편의 '이쁜이옷장'은 미곡을 비롯하여 각종 부산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예전에는 부식 가게인 형제부산물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A동 안쪽으로 위치한 서울떡방앗간은 여느 시장의 방앗간과 같이 각종 기계를 놓기 위해 기존 세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장옥의 칸을 가로 형태로 길게 변형한 구조이다. 초창기에 시장 내에 입점한 점포들이 장옥의 공간을 점차 변형하며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북동쪽 입구 가장 바깥쪽인 E동 서쪽에는 옷가게 '맵시나 숙녀복'이 위치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이 생기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의류를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시장의 옷가게였다. E동의 동쪽 끝에 있는 과일가게 '영월상회' 역시 석수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가게이다. 서울떡방앗간으로 들어오는 길인 B동 바깥쪽에 위치한 'DC아울렛'은 석수시장 내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집으로, 시장 내에서 "없는 게 없는 만물상"으로 유명하다. 이 가게들은 아직도 외지인보다는 지역주민들, 그중에서도 수십 년 세월 동안 석수시장을 이용해온 사람들을 단골손님으로 두고 있는 가게들이다.

4) 전통시장 장옥의 새로운 활용

위에서 언급된 점포들을 제외하고도 석수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점포들이 있다. A



석수시장의 옷가게 '맵시나 속녀복'



석수시장의 "만물상" 'DC아울렛'

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 '골프존'이 있던 자리는 본래 '메리야쓰 가게'라고 부르던 큰 규모의 속옷 가게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속옷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해당 점포는 오랫동안 공실이였다. 점포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이 공간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 위주의 방문객 구성, 스크린 골프에 유리한 넓은 공간, 공간 대비 저렴한 임대료 등 때문이었다. 전통시장 장옥의 새로운 활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석수시장 장옥에는 사무실이나 인터넷 판매점, 양어장, 배달 전문점 등 '점포'가 아닌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공간이 몇 군데 있다. 석수동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도심지와 접근성, 도심지 인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무료 주차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근 건물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석수시장에는 다른 전통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이러한 장옥 이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장옥이라는 공간 내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이와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6. 석수시장의 미래

여느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석수시장의 변화 과정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 제도권의 영향력이 거의 개입되지 않았다. 이는 석수시장의 변화가 지역사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전통적 생활 공간'과 '음식점 위주의 종합상가'가 결합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석수시장이 탄생하였다. 그렇

기에 석수시장의 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지역사회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지속될 것이다. 슬레이트 규제로 인하여 장옥의 현상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서 석수시장 일대의 개인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석수아트프로젝트를 통해 석수시장이 주목받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석수시장의 현황에 대한 외부인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눈에 띄는 침체”¹⁵나 “쇠락한 시장”¹⁶, 심지어는 “지역의 애물단지이자 흉물”¹⁷이라는 평가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석수시장은 안양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같은 대규모 시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위주로 구성된 점포 특성상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한 꺼풀 벗겨내면, 그 속에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주민들과 4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교류하여 온 석수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의 북서쪽 구역이나 35년 넘게 장사를 지속해오고 있는 감자탕집은 이와 같은 석수시장의 역사와 의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석수시장을 외부인의 평가와 같이 ‘지역의 골칫거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과 반백 년의 세월에 걸쳐 관계를 형성해 온 ‘의미 있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석수시장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합당한 평가일 것이다. 석수시장이 이와 같은 의미들, 즉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자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안양의 지역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란다.

- 1 1974년에 쓰여진 한 기사에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골목시장”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장의 구체적인 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28년만의 형님, 두호야』, 『경향신문』, 1974년 4월 16일자, 7면.
- 2 『땅값 부침 극심』, 『조선일보』, 1973년 7월 29일자, 6면.
- 3 『안양에 기계공구상가 건설 이전 추진위 구성, 7만평 확보』, 『매일경제』, 1979년 8월 6일자, 6면.
- 4 『안양 대형상가 신축계획 늘어』, 『매일경제』, 1979년 8월 8일자, 6면.
- 5 『중합시장건립계획 안양시 석수동에』, 『매일경제』, 1979년 8월 7일자, 6면.
- 6 1966년 창립된 한국가톨릭농민회와 1978년 창립된 한국기독교농민회는 농촌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기능해왔다. 이들의 농민운동은 농촌 사회의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즉 집회와 시위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대안으로서의 농민운동으로 공동체 설립과 유통 구조로부터의 탈피 등이 제안되었다.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창립되면서 이러한 농민운동은 “상투적인 요구 투쟁, 대안없는 반대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중에게 책임지는 실천적 운동”으로 그 방향을 공식적으로 전환하였다. 김승오, 『가톨릭 농민회와 생명 공동체 운동』, 『가톨릭신학과사상』 9, 신학과사상학회, 1993, 137-139쪽.
- 7 조두호, 『시장에서 예술하기, 안양시 석수동』, 『경기학광장』 3,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19. (<https://ggc.ggcf.kr/>)
- 8 IMF 이후 양산된 실직자와 퇴직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이들이 가장 손쉽게 뛰어 들 수 있으며 주로 선택하는 창업 업종이 외식업이었다. 1998년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 따르면 소자본창업업종 수요자의 67.8%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으며, 이들의 희망 업종 중 외식업이 20.2%를 차지하였다.(『IMF시대 소자본 창업, 대졸자가 주도』, 『연합뉴스』, 1998년 5월 13일). 1998년에는 이와 같은 소규모 외식업 점포의 등장에 힘입어 국내 식당의 개수가 50만 개를 돌파하기도 하였다.(김상진, 『IMF 이후 국내 외식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논총』 4, 경북대학, 2000, 95쪽.)
- 9 2008년 무렵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은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위험물이 되었고, 슬레이트를 취급하는 것은 전문 업체를 통하여 완전한 방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해졌다. 현재 농어촌을 막론하고 개별 건축물 소유주에 의한 슬레이트 지붕 혹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건물의 철거나 지붕구조 변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과거에 지은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떨어질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신고를 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0 전통시장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그리고 ‘기타시장’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의 조건을 갖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한다.
- 11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 3항.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12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전통시장’으로 일원화되었다.
- 13 약칭 ‘전통시장법’은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제1조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14 “힘들었지. 아들은 군대 가고 없고, 주방장이 또 여자라고 알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정사를 해야 쓰겠다고,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한 거여. 감자탕을. 여기 석수동 아무 데도 없었어.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시골에서 김치찌개, 등뼈 사다가 김치찌개에 넣어서 해 먹었던 생각이 났어. 그래서 거기에 감자만 넣으면 감자탕이 되겠다 싶어서, 생감자를 넣어서 만들었지.”(『맛있는 전쟁, 동네투톱-경기도 안양 편』, 2021년 1월 8일 방송.)
- 15 “1979년에 안양 도심에서 현 위치로 옮겨와 채소 시장으로 시작한 석수시장은 한때 점포가 130여 개에 달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30여 개 남짓한 점포만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침체를 겪고 있다.”(『예술이 배어 있는 시장 - 석수시장』, 네이버 블로그 ‘아는 동네’ (<https://post.naver.com/>))
- 16 “이번 감자탕 동네투톱은 안양 석수시장의 쇠락과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찐 맛집이기도 하였다.”(『동네투톱』 평현숙-이득, 감자탕의 메카 ‘안양 석수시장’ 간다, 『광주매일신문』, 2021년 1월 2일.)
- 17 “당시 석수시장은 IMF의 여파에 맞물려 끝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멀쩡하던 산업시설들도 유휴공간으로 바뀌는 마당에 희망 없이 유사재래시장인데도 석수시장은 지역의 애물단지이자 흉물로 인식되었다. 원도심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빈 점포들만 득실거리는 석수시장은 도시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활력 없는 마을의 풍경을 만들었다.”(조두호, 『시장에서 예술하기』, 안양시 석수동, 『경기학광장』 3,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19.)

제2장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

박찬응 화가, 지역기반예술연구소 소장



석수시장은 3,000여 평의 대지에 □자 형태로 지은 상가 건축물로, 상가는 140여 개의 소형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광장을 동서 방향으로 가르는 소방도로가 지나고 남북 방향으로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동편 진입로 방향에 포장마차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되어 공터로 남아 있다. 석수시장은 개장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변화 없이 쇠락해가고 있었다. 필자의 화실¹ 가까이 석수시장이 있었지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2000년 8월, 유럽 9개국 22개 도시의 마을·광장·골목·시장 등을 탐방하고 다니다가 오스트리아 훈더트바서(Hundert wasser)의 쿤스트하우스를 방문하였을 때, 석수시장의 빈 점포들에 다양한 예술가가 입주하고 광장에서 축제가 열리는 꿈을 꾸었다. ‘한갓 꿈일지라도 함께 꾸면 또 다른 현실의 시작’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석수동으로 돌아와 작업실을 전시장을 꾸몄다. 그리고 독일에 살던 류병학 큐레이터가 기획한 『리빙퍼니처』² 전을 유치하면서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가 시작되었다.

아래의 사진은 1979년 석수시장 개장식에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과 축하공연 장면을 합성해서 2009년 석수시장에 출품한 필자의 작품이다. ‘시장에서 예술하기’는 외줄타기처럼 위태롭고 경이로운 사건들로 이어졌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야기는 2002년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의 설립부터 2016년 석수아트프로젝트 종료까지, 석수시장에서 진행된 예술 프로젝트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풀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석수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예술활동(전시, 교육, 워크숍, 축제)을 다루지는 않음을 밝혀 둔다.

1. 예술공간이 된 석수시장

1)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2001년, 석수시장 북쪽 출입구 맞은편 상가동 2층을 재임대해서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15일,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Supplement space Stone& Water)’라 이름 붙여 문을 열었다. “스톤앤워터(Stone & Water)는 보충대리공간(supplement space)입니다.”로 시작하는 설립취지문은 7개 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박찬응, 2009

- 기존의 전시공간(미술관·화랑·갤러리·대안공간)을 보충·대리하며 생활 속으로 확장하여, 부재·결손·부족·손상된 도시환경과 생활 조건을 보수·보완·보충·대리하는 적극적 예술공간이다.
- 스톤앤워터는 석수(石水)의 영어식 표기이고, 풍수(風水)·산수(山水)와 같은 맥락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예술공간을 꿈꾼다.
- 나이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숨은 작가를 발굴하여 조명하고 육성한다.
- 대중 속에서 새로운 유통시장을 열어 작가는 작업 활동에만 전념케 한다.
- 사회 분야별·부문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술운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 지역사회에 산재한 제반 문제를 미술의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기록과 보존을 전제로 한 출판 유통, 문화상품 개발 등으로 자족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한다.

이 취지문에서는 스톤앤워터가 일상과 동떨어진 고급 예술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에서



석수시장

예술을 실천하려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술공간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리하며, 기존 주류 미술계나 일반적인 대안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임을 알리고 있다.

개관전으로 열린 『리빙퍼니처』에 이어서, 『재건축 프로젝트-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이 열렸다. 2003년에는 『새로운 희망』·『생경-익숙하게 낯선 풍경』·『상상도서관』·『리바이벌』 전시가, 2004년에는 『안양천 프로젝트-FLOW』 전시가 열렸다. 계속해서 2005년의 『석수시장프로젝트-오픈 더 도어』, 2006년의 『석수시장프로젝트-가가호호』로 전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작가와 미술 애호가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스톤엔워터 보충대리공간은 ‘시장통 미술관’ 혹은 ‘상상의 미술관’³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대리보충공간 스톤엔워터 로고

2) 유명(遊泳)하기

2007년 벽두에 만안뉴타운사업⁴이 발표되면서 30년 정주의 꿈이 허망하게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후에 현재의 마을과 시장과 골목이 완전히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룬 도시를 그린 만안 뉴타운 조감도를 보며 석수동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만들기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불편하게 되었다. 30년 정주 프로젝트는 포기하고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 일시적으로만 활용하는, '유명하는 프로젝트'로 전환을 요구받은 셈이다.

『2007 석수시장프로젝트 :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국제 작가 플랫폼에 참여작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의외로 그 반응은 뜨거웠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2008년 『석수아트프로젝트-SAP』, 2009년 『석수아트프로젝트 SAP-ARIA』로 이어지며 안양 석수시장의 처지와 상황이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타전되며 『석수시장에서의 예술하기』⁵라는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생선가게와 옷가게 사이에 예술가의 작업실이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예술가들은 서로 낯설어하면서도 석수시장 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협력하면서 사라질 시장 공동체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상인들과 주민들 입에서 '예술'이니 '프로젝트'니 하는 용어가 쉽게 흘러나왔다. 예술가와 상인과 주민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별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이슈와 생각들이 시장 골목 사이로 흐르며 새로운 예술이 피어났다.

'석수아트프로젝트(Seoksu Art Project)'의 약자인 '삽(SAP)'은 재개발의 굴착기에



만안뉴타운 조감도

맞서는 '삽질'로 상징화되면서 '시장에서 예술하기(Doing ART in the market)'라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석수시장에서 행해진 예술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문전성시'⁶의 효시가 되어 전국적인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만안뉴타운사업의 포클레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삽질'이 되었다.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SAP)

3) 만안하세요?!

2010년에는 안양시 주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와 석수예술프로젝트(SAP)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⁸ 이를 계기로 2010 SAP의 주제어인 ‘만안하세요?!’가 석수시장을 넘어서 만안구로 확장되며,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한 공론화에 불을 붙였고 결국에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결과로, 석수시장과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빈 점포 여러 개를 연결한 석수예술터미널-셋(SAT)⁹이 만들어졌다.

스코틀랜드의 켈트어에서 ‘만안’은 ‘새로운 시작’·‘아침’·‘기회’라는 뜻을 가진다.¹⁰ 2011년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2011 SAP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가 개최되었다. 2012년에는 스톤앤워터 10주년을 맞이하여 석수시장과 인연을 맺은 작가들이 동지애로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렸고, 광주와 안양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국제 행위예술제 『2012 SAP-동지애, 증폭 네트워크』가 열렸다.

석수시장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한 공간이 마련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으나 2년의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석수예술터미널-셋(SAT)의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4) 창조적으로 서식하기

2012년을 끝으로 필자가 이끌던 스톤앤워터는 막을 내렸다. 대표가 바뀌고 운영체제나 추진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블랙마켓」¹¹, 「불나방」¹² 등으로 석수시장을 창조적 서식지로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2012년 이후, 석수시장 주변 지역의 다세대주택들이 재건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안, 침체 일로의 석수시장은 전에 없던 활기로 이어졌다. 석수예술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블랙마켓’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2016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견뎌낸 석수시장은 2024년 현재 활황의 시장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석수시장에서 창조적 서식지를 꿈꾸던 예술가들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어주며 그 꿈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스톤앤워터는 석수시장 82호·91호·89호·49호로 옮겨 다니다 2022년 5월 석수동 318-1번지의 빌라 지하에 공간(HABITAT)을 마련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¹³ ‘시장에서 예술하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석수시장 골목 여기저기 예술가들이 남겨놓은 흔적들만 무심히 세월을 버텨내고 있다.

2. ‘시장에서 예술하기’의 시작과 석수시장프로젝트

1) 리빙퍼니처

2002년 스톤앤워터 개관 기념으로 6월 16일~8월 16에 『리빙퍼니처(Living Furniture)』전이 열렸다. 당시 독일에 거주하던 독립 큐레이터 류병학의 기획으로 열린 이 전시에는, 미술작가·패션 디자이너·공예가·비디오 아티스트·작곡가 등 총 2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20여 평의 작은 공간이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류병학은 “냉장고와 화장품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것이 작품”이라며 “특히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한 풍수 실내장식을 재현했으며 색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옹기·도자

기 등 무공해 식기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려 했다”라고 말하였다. 전시를 위해 조성된 20여 평 공간 안의 소파,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 액자, 시계, 페이퍼나이프, 필통 등 온갖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옷장에 들어있는 옷과 장신구도 모두 작품이었다. TV에서는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품이 재생되었고, 이 전시회를 위해 작곡한 주제음악이 흘러나왔다. 공간을 완벽한 주거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해 미스코리아 출신 설수진이 전시공간의 주인으로 참여하였다. 옷장과 옷



2002년 『리빙피니처』

장 안에 소품으로 넣은 드레스·티셔츠·가방·속옷 등과 서랍장 안의 화려한 장신구까지 모두 참여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으로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였다. 거실의 소파·테이블·쿠션, 부엌의 도자기·옹기·유리 그릇과 수저, 욕실과 화장실까지 풍수를 따져 설치된 작품이었다. 이 전시를 통해, 석수시장 어귀에 설립된 스톤앤워터는 갤러리나 대안공간이라는 말 대신 ‘대리보충 공간’ 혹은 ‘시장통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2) 재건축 프로젝트

『리빙피니처』에 이은 전시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이었다. '재건축'을 예술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시였다. 참여작가들은 '공간 특성'과 '재활용'을 전제로, 작업실에서 제작된 작품이 아니라 현장(잠실주공아파트 4단지)에서 수집한 재료들로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은 원래 아파트 안과 밖에서 전시하기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아파트 전시가 무산되고 잠실주공아파트 4단지 내에 있는 송전초등학교와 안양의 스톤앤워터에서 나누어 전시하게 되었다. 송전초등학교 전시는 공간 특성에 맞게 주로 학생들을 표적으로 작품이 제작 전시되는 반면, 스톤앤워터에서는 애초의 기획대로 잠실주공아파트를 '재현'하는 것으로 전시 내용이 구성되었다.

스톤앤워터에서 재건축되는 잠실주공아파트를 보충대리한 셈이 된다. 당시 전시에 참여한 류병학의 글을 여기에 옮겨본다.

스톤앤워터는 양자택일(대안공간)이 아닌 보충-대리 공간(supplement space)이다. 스톤앤워터는 무엇을 보충하고 무엇을 대리하는가? 스톤앤워터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에 재건축 프로젝트를 보충하고 잠실주공아파트를 대리한다. 재건축 프로젝트는 원래 전시 장소였던 아파트 사용을 보이콧 당하자, 스톤앤워터는 그 아파트를 대리한다. 따라서 스톤앤워터는 재건축 프로젝트 전시공간을 보충하고 잠실 아파트 공간을 대리한 셈이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집(설수진의 원룸)이었던 스톤앤워터가 이번엔 곧 철거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 집(재건축 아파트)으로 변신했다. 스톤앤워터 박찬웅 관장은 잠실주공아파트 4단지를 방문하여 17평형의 아파트 내부의 크기를 재서 스톤앤워터 전시장에 그대로 적용했다. 칸막이 제작에서부터 철제 현관문, 우체통, 신발장, 베란다 창문, 장롱, 책상과 의자, 식탁과 의자, 싱크대, TV와 바둑판, 병풍 등 잠실주공아파트 4단지에서 수집한 물건들로 도배 당했다. 한 마디로 잠실주공아파트는 스톤앤워터로 이사한 셈이다. 물론 그 이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재현'이지만, 그 재현은 전시장에 설치된 70명의 작가 작품들과 혼합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재건되었다.¹⁴

3) 새로운 희망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03년 전시지원 공모를 통해, 『새로운 희망』(희망시장 기획, 강영민 책임기획), 『생경, 익숙하게 낯선 풍경』(21c AGG 기획, 변득수 책임기획), 『상상력을 주는 책』(권자연·채진숙외 15명), 『welcome to 작업실』(박소정·송동하·허민희 공동기획), 『PAINTER : GINI'S REALM』(박수영·백숙희·윤종은 공동기획) 등 6개의 기획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품 가운데 2003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새로운 희망』은 오래된 재래시장(안양의 석수시장)과 갓 태어난 예술시장(홍대 앞 놀이터의 희망시장)의 만남을 생활 속에 예술을 담으려는 작가와 젊은이들의 다양한 삶과 작품 그리고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작품과 상품 간의 네트워크를 갖는 재래시장 상인과 물물교환 이벤트,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서울 홍대 앞에서 안양 석수시장까지 오는 전철 안에서 퍼포먼스 시도, 관객과 작가 간 네트워크인 방명록 전시회, 생활과 예술 간 네트워크인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미술 실험이 있었다.

4)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FLOW

2004년 9월 18일 새벽부터 억수같이 퍼붓던 빗줄기가 개막식 시간에 맞추어 활짝 개었다. 그날의 청명한 파란 하늘과 신선한 공기와 투명한 햇살에 빛나는 풀잎과 맑은 물줄기를 잊을 수가 없다. 삼덕제지 공장 터에서 울려 퍼지던 관현악에 맞추어 저녁 하늘로 날아오르던 모형 비행기와 비행기에서 수신된 영상이 공장 벽을 수놓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관람객으로 참여했던 에스토니아 작가들의 퍼포먼스 또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연현마을에서 펼쳐졌던 개막 퍼포먼스¹⁵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었다. 김명신·홍석화는 얼음 조각 작품을 가지고 관객 참여 퍼포먼스 진행하였다. 짙으로 만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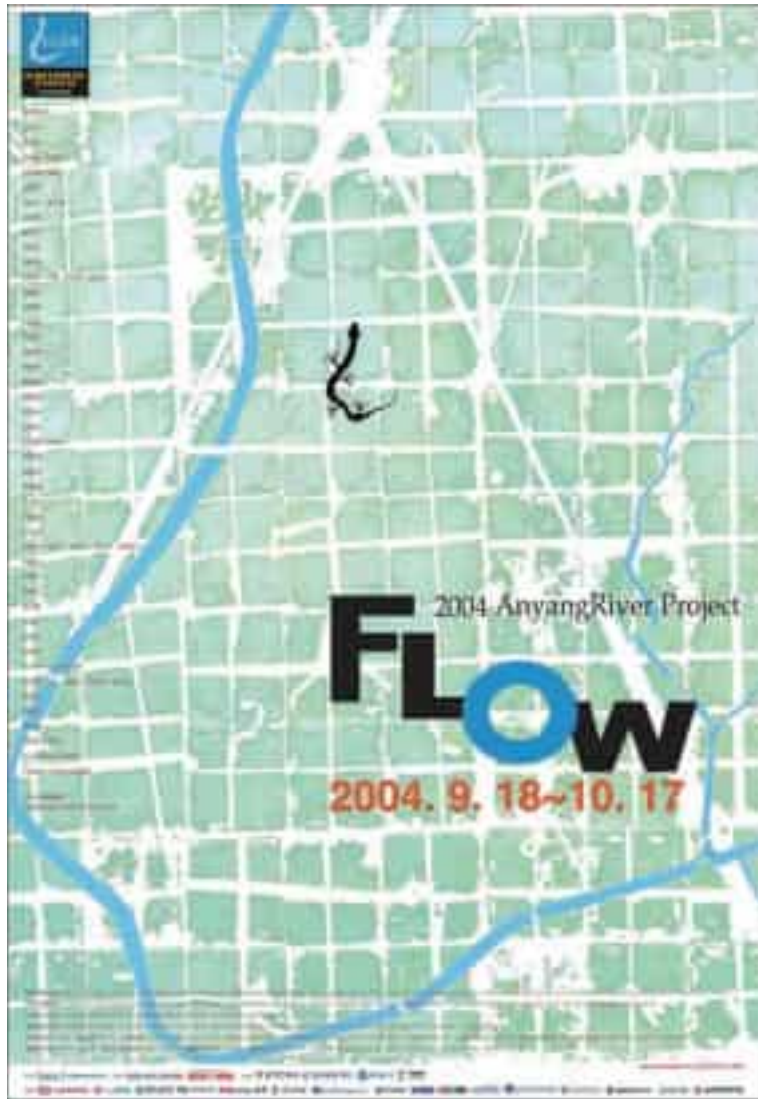
간(제웅)이 직사각형의 얼음 조각 속에 있었다. 아홉 개의 얼음 조각 가운데 8개는 하나둘씩 참여 관객에 의해 차례로 안양천에 던져졌다. 하나하나가 안양천에 '퐁당' 하고 빠지는 순간마다 관객은 박수와 환호를 질렀다.

얼음 조각이 안양천을 흘러 한강과 만나 서해로 떠내려가는 전체 과정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제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의 얼음 조각은 안양천에 던져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녹도록 설치되었다. '흐르다'라는 주제와 염원을 전달하는 매우 흥미로운 조각 퍼포먼스로 작품보다는 개념이 중시되는 작업으로 보였다.

안양천프로젝트는 1960년대 플럭서스(Fluxus)가 표방했던 유체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물은 흘러야 하는 것처럼, 예술도 흘러야 한다.” 행사의 주제어인



2004년 『안양천프로젝트-FLOW』의 개막 퍼포먼스에 사용된 얼음 작품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4년 『안양천프로젝트-FLOW』

‘flow’는 ‘흐르다’는 의미의 영어 동사이면서, F(식물)·L(대지)·O(사물)·W(벽)의 예술적 상상력을 유발하는 요소들로 분절화되었다. 당시 예술감독이었던 백기영은 프로젝트 서문에서 “이 분절된 조형 요소들을 매개하는 것은 예술의 독자성이 가지는 자율적인 힘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이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생동감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을 안양천에 위치 지우고 일상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양천프로젝트-FLOW』로 명명된 실험적 프로젝트에서는, 광의적 ‘환경(environment)’ 개념을 지역(local)·장소(site)·공간(space)으로 분류하고, 80여 명의 작가를 스톤앤워터와 석수시장·안양천·폐공장 등으로 초대하여 그 지역·장소·공간으로 유발되는 상상력을 작품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그 장소적 상상력에는 사회적·역사적·생태적 맥락 등을 반영하여야 했다.

당시 참여한 작가 이명훈은 “우리는 가시적인 미술 작품 속에 비가시적인 요소들, 맥락들이 발화될 수 있는 작품을 기대했다. 발화되는 미술이란 우리가 그동안 시각이라는 감각 범주, 고전적인 미적 범주에 갇혀있던 미술의 경계들을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과 일상의 경계, 자연과 도시의 경계, 심지어 도시와 도시의 경계까지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2005년에 ‘APAP 2005’란 타이틀로 국제공공미술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비엔날레에서 트리엔날레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004년의 안양천프로젝트는 안양을 공공미술의 도시로 표방하게 된 계기이자 전국의 하천을 예술로 새롭게 조망하는 원천이 되었다. 2004년 안양천에서 진행한 모든 작품과 행위, 추진과정 등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2004 안양천 프로젝트 보고서』(아침미디어, 2005)로 발간되었다.

5) 교육이 예술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과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스톤앤워터는 2005년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2월 13일~23일에 한 해 동안 수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플러스 2%! 교육예술 DBHS』 결과 보고 전시회 『나, 너, 우리 그리고 함께...展』을 개최하였다.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는 여러 해 동안의 공공예술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운영,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의 지속성·연계성·확산성을 검증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3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2%를 예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예술가·교사·교육전문가·지역 문화공간이 협력하여 실행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예술 프로그램이었다. 2005년에 개발된 기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연구를 통해 2007년까지 지속하였다.

『우리 동네 프로젝트』는 석수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수업으로, 나와

내 주변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와 일상의 공간을 관찰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사회(공적 영역)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 속 경험이 어떻게 문화예술의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학생들이 평소 익숙하게 다니는 동네를 직접 탐방하며, 프로타주(frottage)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채집, 이웃 주민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 주의 깊은 관찰 활동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모은 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형 마을 지도 등의 동네 아카이브 전시를 하였다.

「유비쿼터스」는 박달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진행한 수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과 주변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을 실현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 수업은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찰하고,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 있는 미적 체험을 경험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미적 취향을 형성하고, 예술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그리기와 만들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컸던 기존 미술교육의 틀을 벗어나,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미술교육을 지향하였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감각의 활성화, 심리적 개방을 위해 요가 수업과 병행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오른쪽 뇌의 창의적 사고와 오감을 활용한 관찰·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촉각·미각 드로잉, 텍스트를 읽고 상상하여 인물 그리기, 종이비행기 날리기로 ‘보이지 않는 선’ 표현하기, 몸으로 소리 만들기, 동물의 시선으로 사진 찍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몸과 감각을 통해 예술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감각과 상상력, 예술적 접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지구입양프로젝트」 수업은 『지구를 입양하다』(2003)라는 책에서 제목과 아이디어를 가져와, 안양중학교 1학년 생태반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

수업은 ‘나와 주변을 관찰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는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거시적인 시선뿐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 학습은 자기 주도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

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실제 생활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은 거리·연못·녹지공원·하천 등을 ‘입양(adoption)’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를 지우며, 벽화를 그리고, 나무와 꽃을 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지역의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일



「지구입양프로젝트」 수업(스톤앤워터 제공)

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체험하였다. ‘낮선 관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익숙한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 속 대상을 호기심과 비판적 시선으로 다시 인식하도록 유도되었다.

‘입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돌보며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상력, 기획력, 자금 조달, 인내심, 책임감, 조사 능력, 표현력 등을 키웠다. 전시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지구입양계획서」, 모형 작품, 그리고 활동 영상으로 기록된 실천 과정이 함께 공개되어, 배움과 예술, 실천이 결합된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짱으로 재미있는 현대예술」은 동시대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직접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예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 수업은 입시 중심의 미술교육에서 부족했던 문화예술적 정서와 감수성을 보완하고, 현대예술과 현대사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사회인으로서의 예술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수업은 동시대 예술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매체와 재료에 대한 개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퍼포먼스, 일상 속 매체인 휴대폰을 활용한 게임 형식의 발견과 놀이 활동, 생활 속 미디어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전환하는 실습, 신체를 활용한 오브제 작품 제작을 통한 살아있는 현대예술의 흐름의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구상한, 휴대폰을 이용한 아날로그적 게임 방식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상상의 미술관 체험」은 2005년 5월 14일~6월 15일 석수시장에서 이루어진 『석수시장프로젝트』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석수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과 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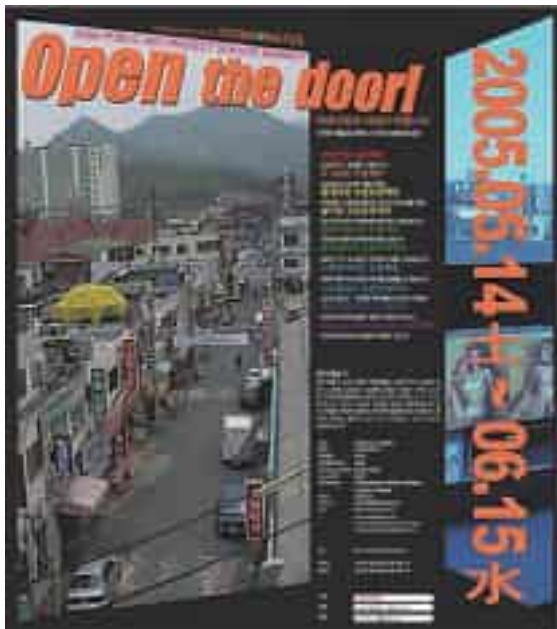
름공부방 아이들이 참가하여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의 풍경과 시장 속 곳곳에 숨어있는 미술을 찾아내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수업이었다. 일차적으로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상상의 미술관’을 짓게 하였다.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재래시장은 하나의 작은 세계이며 놀이터이며 미술관이 된 것이다.

6) 석수시장프로젝트 : 문을 열어! 그리고 가가호호

2005년의 『문을 열어!』는 본격적인 석수시장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시장 골목과 빈 점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광장까지 예술가들이 점령했던 그때의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는 보도자료가 있어 여기 옮겨적이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지 경제적 관점만으로 보지 않고 문화적 관점으로도 보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앞장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을까? 「석수시장프로젝트」는 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주제부터 "open the door!"로 정했다. 빈 점포를 예술가들이 임대해 한시적이거나 문화공간으로 재 오픈 하겠다는 것이다.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아트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동네극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아이들 놀이방이 만들어지고, 밴드공연, 마임, 시 낭송 등 다양한 이벤트가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다방도 문을 연다. 뿐만 아니라 「시장갤러리」, 「동네갤러리」가 「스톤앤워터」와 더불어 전시공간이 확충되고, 석수시장의 역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뿐이 아니다. 시장 곳곳에 예술가들의 작업이 즐비하다. 그야말로 약 50여 명에 이르는 예술가들에 의해 석수시장이 거대한 예술시장, 상상의 미술관으로 변모한 것이다.¹⁶



2005년 석수시장프로젝트 『문을 열어!』



2006년 석수시장프로젝트 『가가호호』

2006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가가호호』라는 제목으로 석수시장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스톤앤워터공공예술기획원이었던 큐레이터 이명훈의 글 「세상과 새롭게 대화하기 위해 생활 속으로 예술이 찾아옵니다」를 통해 석수시장과 삶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석수시장 프로젝트는 예술의 일상성, 지역성, 공공성을 중심 화두로 삼아 석수시장을 대상으로 일상 삶의 풍경, 지역, 공간을 탐색하고 예술적 보충과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공동체적 미덕이 차츰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재래시장의 침체문제는 거대자본의 영토적 확장에 따른 서민경제의 몰락이라는 문제의식에 앞서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서민의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작년 프로젝트에서 언급한 바 있다. (중략) 개인이란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관계를 맺는 소통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사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공공미술을 실험하는 석수시장프로젝트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양자의 상호소통과 상호접속을 중요하게 다루어 보고자 했다.

〈오픈 더 도어 open the door!〉를 내걸고 시장의 빈 점포들이 어떻게 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석수시장을 하나의 상상의 미술관으로 개념화시키고자 하였다. 뒤상이 번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은 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일상의 공간을 통째로 ‘미술관’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예술과 일상을 구별 짓고 있는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고자 했다. 올해는 〈가가호호〉를 타이틀로 예술이 어떻게 일상의 수다꺼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예술과 일상이 어떻게 결합되고 교환, 소통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험해 보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예술이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상을 거리로, 광장으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개념에서 포스터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다). 말 걸기를 통한 공공의 추억, 혹은 기억을 만들어 가는 상호소통과 상호참조적인 작업들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렇게 두 번의 석수시장프로젝트를 통해 스톤앤워터 취지문에서 밝힐 수 없었던¹⁷ 석수시장에 위치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났다. 2005~2006년 석수시장은 예술가들과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떠들썩했던 예술 난장이었다.

3. ‘시장’ 프로젝트에서 ‘아트’ 프로젝트로 전환

석수시장프로젝트는 ‘30년 정주(定住)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만안뉴타운사업’이 발표되면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고, 국제 레지던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만안뉴타운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석수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유영(遊泳)하듯 자유롭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시장 안에 입주시켜 놀아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시도한 기획이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흥미로운 결과가 이어지면서, 석수시장 프로젝트는 점차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석수아트프로젝트(SAP, Seoksu Art Project)’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다.

1) 2007 오픈 스튜디오

스톤앤워터는 AFI(국제작가포럼)와 경기문화재단의 공공미술 지원사업을 통해 2007

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2007 석수시장프로젝트-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안양천과 석수시장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과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미시공동체의 자생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마을 만들기 실험이었다.

스톤앤워터는 석수시장 내의 빈 점포 8곳을 작가들의 개인 작업실로 탈바꿈시켜 창작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양천과 시장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확장하였다. 국내외 공모를 통해 뉴욕·오슬랜드·베를린·파리 등에서 온 국외 작가 4명과 국내 작가 4명을 선발하고, 국외 작가에게는 항공료와 숙소·월 30만 원의 체재비를, 국내 작가에게는 동일한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공간의 열악함과 예산 부족으로 실행이 어려웠다. AFI 2007의 지원을 받아 빈 점포를 임대해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세대주택을 공동 숙소로 마련하는 등 작가들이 스스로 공간을 정비하며 행사를 준비해야 했다. 때로는 상인이 점포 계약을 원하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도 있었지만, 작가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갔다.

프랑스의 패트릭 잠봉(Patrick Jambon)은 더운 작업실을 수영장으로 바꾸었고, 권승찬은 반경 500m 내에서 들을 수 있는 동네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미국의 타마라 구베르낫(Tamara Gubernat)과 김선애는 석수시장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으며, 진시우는 상인들의 노래를 녹음해 음반으로 제작해 나누어주었다. 뉴질랜드의 닉 스프랏(Nick Spratt)과 로렌 윈스톤(Lauren Winstone)은 시장의 평상에서 영감을 얻어 장판으로 만든 가구를 동네 사람들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작가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작가들은 낯선 시장 속에서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체험하였다. 레지던시의 마지막에는 작가들의 연구 기록, 리서치 자료, 영상, 토론 내용을 정리한 오픈



2007년 『오픈 스튜디오』

스튜디오 전시가 열렸다. 또한 ‘미시공동체 문화운동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재래시장에서 처음 시도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낡은 시장을 예술적 상상력의 무대로 변모시킨 공공예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2) 2008 삽질하기

석수아트프로젝트는 2008년에 영문 표기인 ‘Seoksu Art Project’의 앞 글자를 딴 약칭 ‘SAP’으로 공식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예술 행동을 촉발시켰다. 영어 단어로서 ‘SAP’은 수액·활력·원기, 군사용어 참호, 동사형으로 서서히 무너뜨리다 혹은 약화시키다의 뜻을 가진다. ‘SAP’의 한글식 발음 표기인 ‘삽’은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흙을 뜨는데 사용하는 연장을 말한다.

뉴욕, 베를린, 동경, 오슬랜드, 바르셀로나, 서울, 안양의 작가들이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석수시장 빈 점포에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펼쳤다. 세계 각 지역의 작가들이 수평적으로 만나 상상력과 언어가 충돌하고 웃음과 유머로 교류하는 장으로 석수시장이 활용되었다. 만안교에서 삼성산으로, 안양천에서 한강으로, 골목과 골목으로 삶의 물줄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흐르며 다양성과 다원성, 공공성과 지역성이 통섭된 ‘우정의 축제’였다. 또한 기존의 관습으로 경계 지어진 예술과 생활 사이의 독을 허물어 삶 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예술의 꽃(공공예술, 공동체예술, 교육예술)이 풍성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의 습지를 조성하려는 ‘우정의 삽질’이었다.(박찬응)

2008년도에는 입주 작가들에게 공동의 창작공간과 홈스테이를 통한 숙소가 제공되었다. 또한, 해외 작가와 교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8월 1일 일본 ‘토리데아트프로젝트’(TAP) 작가 3명이 석수시장에 입주하였다. 카메라(Yamanaka Camera)는 주민들의 십시일반 후원과 참여를 유도하여 ‘석수수월래’라는 축제를 만들었다. 수미(Kanazawa Sumi)는 DMZ 안에 있을 법한 비밀의 정원 ‘38가든’을 빈 점포에 실현하여 많은 관람객의 가슴을 애잔하게 만들었다. 이사오(Suzuki Isao)는 부산에서 석수시장까지 9일간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온 윌리엄 수(William Hsu)는 ‘기억으로 재생되는 종이블록 워크숍’을 통해, 1970년대 수암천의 삼덕제지 슬러지재활용 방식을 재현함으로써 과거를 복

원하였고, 이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특별 강의로 연결하였다. 스페인 작가 루이스(Luis Fernandez Pons)와 자스미나(Jasmina Llobet)는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토끼·닭·거북이·물고기 등을 위한 ‘애니멀 타워’를 제안하였다. 스페인대사관은 문화 교류 협약서를 작성하고 제작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버마 출신의 일레인(Elaine Tin Nyo)은 ‘김치·막걸리·젓갈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준비하는 전 과정이 아리랑TV를 통해 세계 각국에 20여 분간 방영되었다.

2008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주민과 함께 한 행사였다. 특히, 「석수동네傳 - 석수예술展」은 동네의 숨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로, 개인의 취미가 열린 공간으로 나온 의미 있는 전시였다. 10월 26일 폐막식과 주민 장기 사랑도 주민들의 성금과 음식 협찬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2008년 『삽질하기』

3) 2009 석수아트프로젝트 SAP-ARIA

2009년 6월 1일~8월 30일에 열린 석수아트프로젝트는 ‘SAP’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인 안양(Artists Residency in Anyang)’의 약자인 ‘ARIA’를 추가하여 ‘SAP-ARIA’로 진행하였다. ARIA(아리아)는 오페라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독창을 지칭하는 동시에, ‘Activism, Revival, Interact, Art in lif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여기서 중심개념을 내포하는 것은, ‘안양’, ‘행동주의’, ‘생활 속의 예술’을 지칭하는 ‘A’이다.

2009 석수아트프로젝트는 공동체 생활 기반의 국제 예술 레지던시로 운영되었다.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숙소를 하나의 공간으로 단일화하여 함께 생활하고 창작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작가들은 미리 독립공간에 입주해 단기 체류 외국 작가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국제워크캠프(IWO)와 협력하여 주말 워크캠프와 국제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가·주민·자원봉사자 간의 협력과 상호적인 공동체 행동이 자연



2009년 「SAP-ARIA」

직접 환경을 정비하며 생활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예술 행위를 실천해 나갔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이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어려움도 있었다. 도중에 하차하는 작가와 자원봉사자도 생겼다.

다행히 오픈 스튜디오를 열었고,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석수엽서展」과 만안교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마쳤다. 그야말로 삽(SAP)과 아리아(ARIA)가 만나 새롭고 풍부한 콘텐츠가 만들어진 한 해가 되었다. 특히 크리스토프 (Christophe Doucet)가 제작한 「삽(Sap)」은 석수시장을 밝히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그의 「바빌론(Babylon)」이라는 공중 정원은 주민들에게 나누어져 자라고 있다. 김성수 작가의 「움직이는 미술관(Moving museum)」은 안양예술공원 ‘블루몬테’에 재설치 되어서 많은 사람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바와 엘비스(Iva Kovac & Elvis Krstulovic) 그리고 알리시아(Alicia Grullon)가 발행한 뉴스페이퍼와 소책자는 뉴욕과 자그레브와 안양을 연결하는 예술매체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2007년~2009년 3년의 프로젝트 전 과정을 수록한 책 『시장에서 예술하기』¹⁸와 다큐멘터리 영화 『sap:jil(삽:질)』¹⁹이 만들어졌다. 두 작업은 소셜아트컴퍼니 ‘씩(SAC)’²⁰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비로 제작하였다.

젊은 영화감독 최고은이 만든 『sap:jil(삽:질)』은 2009 석수아트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 8명의 100일을 기록한 영화이다.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다양한 해프닝이 경쾌한 음악과 유머러스한 편집으로 어우러졌다. 『sap:jil(삽:질)』은 석수아트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2009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작가 숙소, 스튜디오, 식당, 단기 자원봉사자 숙소, 샤워장 등 모든 생활 공간을 석수시장 내의 빈 점포를 개조해 활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작가들은 자원봉사자와 주민의 도움을 받아



2009년 석수아트프로젝트 국제워크캠프 자원봉사대

2009년 석수아트프로젝트 참여작가 크리스토프 두세의 삽 퍼포먼스



4. '만안'과 '기억'이라는 키워드

1) 2010 만안하세요?!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스톤앤워터가 자리한 석수시장이 만안구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만안뉴타운사업이 초래할 변화와 개발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그리고 이를 통해 제기된 이 지역의 도시적 생태와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국내외 예술가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도시 생태와 재생의 맥락에서 만안구 서북부 지역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 주도형 사업과 민간 주도형 사업이 협업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²¹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트리엔날레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석수시장과 안양천을 기반하여 매년 국내외 작가들이 들고 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의 주제어 '만안하세요?!'는 안양시 구도심인 만안구가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개발 사업에 노출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론화되는 개발 담론에 대항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만안(萬安)했었나?, 만안한가?, 만안할 것인가?'를 되묻기 위한 개념이다. '만안하세요?'는 '안녕하세요?'의 극존칭 격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문구이지만, 만안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깊고 특별한 질문일 수 있다. 만안 뉴타운 개발 지역을 5개월 동안 매주 답사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낫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술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2010년 '만안하세요?!'

이러한 지역 답사를 토대로 20여 명의 국내외 예술가와 학생·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석수시장 주변의 마을과 안양천 주변의 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축제를 만들어 갔다.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상호 협업하면서도 각 프로젝트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자체적으

로 ‘열린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외 작가들의 가이드와 매개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측은 수시로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석수아트프로젝트 참여 작가들을 독려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석수아트프로젝트의 협업을 계기로, 석수시장은 세계 각 지역과 예술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터미널이자, 예술가와 주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석수아트터미널(SAT)’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

2) 2011 만안의 기억, 오래된 미래

2011년 10월 1일 오후 5시 석수시장에 만들어진 빈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님들로 이루어진 밴드의 공연과 스페인에서 온 아낙 & 모노페로(anek & monoperro)가 석수신령을 땅에 묻는 퍼포먼스, 그리고 주민들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2011 석수아트프로젝트의 개막식을 장식하였다. 곧바로 석수시장 곳곳에 산재한 작가들의 작업실과 작품들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가게와 가게 사이에 놓인 작업실과 작품들 사이로 걷다 보면 이색적인 저녁 풍경이 저물어간다. 시간과 공간 사이 유영하듯 많은 관람객이 움직였다.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작가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듯 없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만한 영화제와 신바람 축제가 안양천 다리 밑에서 벌어졌다. 지역의 기업과 단체들의 협력과 후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협력 예술의 모습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파견했던 추천 작가들의 레지던시 결과전은 9월 20일 청주에 연초제조창 창고에서 별도로 전시되었다. 이렇게 2011 석수아트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²²

2007년 ‘미시 공동체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석수아트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쉽 없이 추진되었다. 2007년 시도한 미미한 출발은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언론은 "죽어가는 시장에 국내외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촌을 형성하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만안뉴타운사업이 공포되면서부터 30년 정주 프로젝트로 기획된 마을만들기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말의 불안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시작된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지역주의 운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타운개발 계획은 포기되었다.



2010년 석수아트프로젝트 참여작가 마크 빈센트 코시코의 시장 상인 초상화

2010년 진행된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 『만안하세요?!』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의 궤적을 만안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되묻는 의미에서 설정된 제목이다. 그러한 결과 위에서 치러진 2011년 석수아트프로젝트는 한 번 더 깊은 탐사를 시도하였다. 만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다시 꺼내 우리가 바라는 ‘만안한 세상’을, ‘오래된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 아래 ARIA 국제 레지던시, AAL 아시아 작가 교환 레지던시, 기억을 배달하는 협력예술 프로젝트-새 모자를 부탁해!, 2011 경기 아티스트 프로젝트GYA 그리고 교육예술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 폭발시키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체를 총괄한 예술감독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쉬웠다는 평을 내놓았다.²³



2011년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



스톤앤워터 10주년 기념 전시 포스터

3) 2012 동지애, 증폭네트워크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드로잉 담벼락』은 그동안 스톤앤워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와 기획자 118명이 함께 만든 전시였다. 이 전시는 2012년 6월 15일~7월 15일에 열렸다. 2012년 초부터 5개월간 1,000여 명의 국내외 참여작가와 기획자들을 접촉하여 33개국의 333명으로부터 주소를 받았고 모두에게 영구보존용 증성지 2장씩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작가들은 5월 초부터 우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드로잉을 보내왔다. 6월 15일 개관기념일에 열린 전시회는 7월 15일 종료까지 계속 작품을 접수하여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메모리얼 드로잉 담벼락’을 중심으로 스톤앤워터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서적·포스터 등의 출판물을 비롯한 자료들이 석수아트터미널-셋(SAT)²⁴에서 전시되었다. 스톤앤워터나 석수시장에 대한 그리움과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드로잉들이 셋(SAT)의 벽을 장식하였다.



2012년 『기억의 드로잉 벽』 전시

4) 광주와 안양을 잇는 행위예술제(2012)

2012년 9월 광주의 국제 미디어 퍼포먼스 Art Festival과 석수아트프로젝트가 공동으로 행위예술제를 개최하였다. 광주비엔날레 개막일에 광주에서의 행위를 시작으로 스톤앤워터 입주작가의 광주 국제행위예술제 참여와 광주 참여작가들의 석수아트프로젝트 참여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행위예술제였다. 9개국의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 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 행위예술이라는 소통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관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기획은 오래전 전주 남문시장에서 박찬응 감독과 김광철 감독이 만나면서 논의되었고, 2011년 겨울 석수시장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인 ‘동지애’와 ‘증폭 네트워크’를 각각 제안하면서 ‘동지애; 증폭네트워크’라는 주제가 만들어졌다. 두 감독은 꿈을 잃고 정체된 일상의 공간을 예술로 뒤흔들어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광주와 안양의 골목골목에서 펼쳐지는 행동과 행위예술을 통해 일상을 축제로 바꾸는 장면, 즉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그리고자 하였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로 명명되고 안양은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로 풀이된다. 민주화의 성지는 과거의 것으로 고착되어가고 있고, 서방정토 안양은 이를 수 없는 허울뿐인 유토피아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에 동시대 현실의 삶이 존재한다. 광주와 안양을 상호 침투하며 헤엄치기, 끼어들기, 삽입하기, 통과하기, 훑쳐보기, 찢어보기, 뒤집어보기 등 다양한 삽질을 통해 진부한 일상을 전유하는 예술제를 꿈꾸었다. 2012년 9월 6일~16일에 광주와 안양에서 진행된 국제 행위예술제의 안양 석수시장 행사는 9월 13일~16일 4일간 지속되었다.



2012년 안양 광주 작가교류 국제행위예술제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만안뉴타운사업이 무산되면서 석수시장의 후원을 받아 2011년 말 석수시장 내 여러 점포를 통합해 ‘석수아트터미널(SAT)’이라는 본격적인 예술 공간을 마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스톤앤워터는 석수아트터미널 개관과 함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메모리얼 드로잉 월』을 개최하고, ‘새로운 서식지’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어 향후 10년간 석수시장을 국제적인 아트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석수아트터미널은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유치하며 활기를 띠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광주와 안양을 연결하는 국제 행위예술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필자는 작가와 기획자로서 삶을 병행하며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간의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석수시장 상인과 같은 수준의 임대계약을 제시받았기 때문이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결국 석수아트터미널은 2012년 12월 30일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써 SAT는 짧지만 강렬했던 실험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예술과 지역, 기억이 교차했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5. 스톤앤워터의 세대교체 : 창조적 서식지와 블랙마켓

2012년에 개관 10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스톤앤워터 초대 관장 박찬응이 물러나고, 2013년부터는 위창완 작가가 대표직을 맡았다. 위창완은 '창조적 서식지'와 '경제적 자생력'을 목표로 석수시장과의 관계를 이어 가며 좀 더 자율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제도화되어가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식지(Habitat)'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석수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3 석수아트프로젝트를 석수시장 입주작가와 외부 참여작가의 협력으로 '블랙마켓'이라는 타이틀과 컨셉으로 일일 예술제를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석수아트 프로젝트는 '블랙마켓'을 중심 개념으로 펼쳐졌다. 2016년은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다음은 2014 석수아트프로젝트 『블랙마켓』에 대한 내용이다.²⁵

관제 기관에서 건 '풍기문란 단속기간' 현수막과 <블랙마켓>에서 건 '석수2동 비딱하게 살기 남·여 회원 모집' 현수막이 길을 따라 나란히 붙어 있다. 유흥가 길거리에 흩뿌려져있는 명함판 성매매 전단에서 착안한 작업이 시장 한쪽에 나뒹군다. <Black Market Art Festival>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 '무대' 앞에서 '진짜' 흑산도 홍어 주인 정효진의 홍어가 등장하고 유려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파전집에 블랙마켓 지퍼를 드리면 막걸리와 파전이 나온다. 핸드폰이 널린 시대에 스탬들은 무전기로 진지하게 상황 보고를 주고받는다. 시장에 자리한 예술가들은 강박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단 자연스럽게. 한 작가(장하나)는 자신의 실제 이력서를 배치하고 자신의 이력서를 표절했다고 보는 몇몇 사례를 나란히 놓으며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길에 서서 얘기하고 청취한다. 타투이스트(김동민)는 문신을 하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림> 점포에는 하얀 캔버스와 텅 빈 좌대만이 놓여 있다. '진짜 삶'과 '가짜 예술'과 같은 식상한 이분법의 패착이 이곳에서는 노곤해진다. 배포하는 리플



2013 블랙마켓



2016 블랙마켓



2013년 창조적 서식지 컨퍼런스



2013년 블랙마켓 페스티벌

렛의 참여작가들의 컨셉을 읽다 보니 '우리는 석수시장의 보통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2015년부터 석수시장에서는 '예술가 자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석수 예술가 서식지'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단지 작가들의 생계를 작업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예술가들이 지역의 문화공동체 '창조적 서식지(Creative Habitat)'의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공생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이다. 스톤앤워터가 만드는 '창조적 서식지'는 공간을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지역 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장·단기적 작업을 제안한다. 또한 작업의 결과 산출까지의 기간 및 시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스며드는 생활 속의 예술 활동을 유도하고 레지던시의 개념이 확장된 예술 생태계이다.

2016년에는 석수시장의 빈 점포 중 5곳을 예술가들의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두 곳의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였다. 많은 작가가 이곳에서 활동했고 다시 스톤앤워터의 참여를 도모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위창완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려는 노력과 창조적 서식지 개념으로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석수아트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았다. 스톤앤워터의 대표가 교체된 이후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의 흐름이 변하였다.

다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전과 후의 행사 역량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참여작가들은 '예술가'로 보였다. 분명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시장에서의 소통을 고민했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목소리가 분명했고 평가가 냉철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징했다. 그 후 몇 명의 작가들에게서는 다양한 전시 소식이 들려왔고 석수 시장에서만큼 어느 곳에서도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2014년 <블랙마켓>에서는? 분명 이곳에서 나는 작가들을 만났다. 얘기도 나눠보고 밥도 나눠 먹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시장에 예술로 자리지킴, 자리 고수, 공간 확장, 예술의 의미 확장과 같은 종교적으로 보일 정도의 임무 완수에 대한 무게감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시장이 편안해 보였다. 그것이 큰 포부이건, 작은 의지이건 예술로 어딘가를 변화시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이들 중 남을 사람은 남고 또 떠날 사람을 떠날테다. 예술로 시장을 고수한다는 발상은 얼마나 선도적인가. 그런 점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블랙마켓>의 기획 의도가 새삼 남다르다. '그냥 시장이었는데', '그냥 시장이 되었다' 사이에 자유롭게 써내려간 단편소설을 일별한 기분이다.²⁶

6. 나가는 글

이 글을 쓰는 내내 20여 년 동안 석수시장에서 벌어진 예술 행위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며 오래된 기억들이 샘솟듯 하였다. 자료의 한계는 없다. 단 자료가 충분함에도 지면의 제약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폐기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필자가 석수시장을 떠나 있었던 2013년 이후의 자료들은 흠어진 자료들을 모아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현재 스톤앤워터의 예술가들은 석수시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다. 스톤앤워터가 처음 시작된 석수동 286-15번지 2층 공간은 이제 필자의 아카이브이자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톤앤워터는 석수시장의 틀을 벗어나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지금은 석수시장 안에 예술가들의 공간이 남아 있지 않지만, 석수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예술가들에게 터전을 내어주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

참고 자료

- 류병학, 『리빙퍼니처』, 아침미디어, 2002.
- 류병학,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 아침미디어, 2002.
- 안양천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안양천 프로젝트-FLO』, 아침미디어, 2005.
- 석수예술프로젝트 실행위원회, 『시장에서 예술하기』, 아침미디어, 2009.
- 2010 석수예술프로젝트 실행위원회, 『만안 하세요?!』, 아침미디어, 2010.
- 2011 석수예술프로젝트 실행위원회, 『만안의 기억, 오래된 미래』, 아침미디어, 2011.
- 박찬응 공저,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한길아트, 2005.
-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 『2005 교육예술 프로그램 연구실행보고서』, 2006.
-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 『2006 교육예술 프로그램 연구실행보고서』, 2007.
- 스톤앤워터 교육예술센터, 『2007 교육예술 프로그램 연구실행보고서』, 2008.
- 스톤앤워터 홈페이지(<https://stonewater.tistory.com/>).
- 네오룩(www.NEOLOOK.com).
- 톡톡 커뮤니티와 아트(<https://blog.naver.com/>).

- 1 필자가 1984년부터 석수시장 북쪽 진입로 근처 건물 2층에 '빈방아틀리에'라는 화실을 운영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 2 류병학, 『리빙퍼니처』, 아침미디어, 2002.
- 3 「재래시장이 상상의 미술관으로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14일 개막」, 『오마이뉴스』, 2005년 5월 10일.
- 4 2008년 안양시는 구도심을 현대적인 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 7,000㎡를 2만 4,000여 가구의 '만안뉴타운'으로 지정하였다.
- 5 석수아트프로젝트 실행위원회, 『시장에서 예술하기』, 아침미디어, 2009, 556쪽.
- 6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2일,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으로 침체하여 가는 재래시장을 따뜻한 정취와 북적이는 흥이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약칭 「문전성시」 프로젝트)을 올해부터 시작하며, 그 시범 시장으로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선정하였다.(문화관광체육부 보도자료)
- 7 석수아트프로젝트 실행위원회, 『시장에서 예술하기』, 아침미디어, 2009, 20쪽.
- 8 2010 석수아트프로젝트 실행위원회, 『만안하세요?!』, 아침미디어, 2010, 302쪽.
- 9 스톤엔워드의 새로운 공간 '석수아트터미널-셋(SAT)':'셋'은 '매우 질고 선명하게'를 뜻하는 우리 말이다. 2010년 12월 29일 개관식을 가진 '석수아트터미널-셋'은 석수시장의 운영업체인 (주)석수유 통과 사회적기업 (주)소셜아트컴퍼니(SAC)의 협력과 지역기업들의 후원에 힘입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되었다. 예술의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될 '셋'은 크게 전시공간, 교육공간, 로비 등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https://stonewater.tistory.com/>)
- 10 2011 석수예술프로젝트 실행위원회, 『만안의 기억, 오래된 미래』, 아침미디어, 2011, 37쪽.
- 11 제도화되어가는 레지던시 Residency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식지(Habitat)'라는 개념으로 석수시장을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장·단기적 작업을 제안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수시장 입주작가와 외부 참여작가의 협력으로 '석수아트프로젝트-블랙마켓'이 열렸다.(<https://stonewater.tistory.com/>)
- 12 스톤엔워드 소속 작가들의 예술가 자금자족 프로젝트 계획안을 석수시장 관리주체인 (주)석수유통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작가들의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문학 강좌나 예술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 13 스톤엔워드(<https://stonewater.tistory.com/page/HISTORY>).
- 14 류병학,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 아침미디어, 2002, 280쪽
- 15 「안양천에 예술의 옷을 입혔다」, 『오마이뉴스』, 2004년 9월 20일.(<https://www.ohmynews.com/>)

-
- 16 「재래시장이 상상의 미술관으로」, 『오마이뉴스』, 2005년 5월 10일. (<https://www.ohmynews.com/>)
- 17 스톤앤워터가 개관하던 날 석수유통의 대표가 찾아와 시장활성화를 거론하지 말 것과 상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 등 몇가지를 필자에게 주지시키고 돌아갔다.
- 18 3년간 석수시장에서 행동주의(Activism), 도시재생(Revival), 상호작용(Interac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포토에세이, 생활 속 예술(Art in life)이 결합된 유목형 국제레지던시와 작업 에세이, 인문학적 비평 글과 다양한 워크숍 자료들을 시간대별로 주제별로 편집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공공예술의 지형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9 2009년 6월 'SAP2009-ARIA'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입주한 8명의 작가,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입주를 결정한 뉴욕 작가 알리시아, 9월 결혼을 앞두고 입주한 일본 작가 시바타, 크로아티아의 젊은 부부 작가 이바와 엘비스,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 입주한 아르헨티나의 최연소 작가 가이아가 석수시장 내 비어 있는 공간을 개조한 스튜디오 겸 숙소에 짐을 풀고 100일간 함께 살면서 경험한 내용을 영상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2009년 12월 12일, 역삼동 소재 '보다'에서 열린 『시장예술프로젝트보고서 삽-아리아』 출판기념회에서 상영되었다.
- 20 스톤앤워터는 2010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소셜아트컴퍼니-SAC'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출범시켰다.
- 21 스톤앤워터는 2002년에 'A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안양시에 제안했다. 안양천 일대의 화단, 옹벽, 놀이터, 화장실, 벤치, 공터 등을 예술가들의 손길로 청소하고 보수하는 프로젝트로 '리빙퍼니처 와 퍼블릭퍼니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이었다. 그 당시 지자체장과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실무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공공미술' '퍼블릭퍼니처'란 개념이 생소했었다. 안양시와의 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스톤앤워터는 독자적으로 '2004 안양천프로젝트-FLOW'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 22 박찬웅, 「2011 석수아트프로젝트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를 발간하며」,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 아침미디어, 2012, 6쪽.
- 23 박찬웅, 「2011 석수아트프로젝트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를 발간하며」, 『만안의 기억-오래된 미래』, 아침미디어, 2012, 6쪽.
- 24 석수아트터미널 sat은 2년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3년부터 쌀, 잡곡, 김치 등을 유통하는 가게로 변신하였다. 로비 공간만 갤러리로 변신하여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일시적인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었다.
- 25 김현주, 「석수아트프로젝트 <블랙마켓>」, 2015년 1월 27일 (<https://blog.naver.com/ggcgart/>).
- 26 김현주, 「석수아트프로젝트 <블랙마켓>」, 2015년 1월 27일 (<https://blog.naver.com/ggcgart/>).

집필(가나다순)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소장
김기영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김성균 공간사회학자,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김영재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겸임교수
김충배 허준박물관 관장
박성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박정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박찬응 지역기반예술연구소 소장, 화가
박홍규 수원도시재단 차장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손예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주희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조아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연구원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조항인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3 **석수동**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2-5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87311 948612
ISBN 978-7-311-34861-2
ISBN 978-7-311-34861-3 (M)



中国书/序